

제28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古都의 근대

‘古都’ 인식과 표상을 통해 본 한·일 역사 인식의 비교

■ 일시 : 2009년 1월 9일(금)~10일(토)

■ 장소 :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충무홀(신관 202호)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이 발표논문집은 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section2_ 일본제국기 '고도' 논의를 위한 시론

사회 : 권보드래(동국대)

- 14:00~14:50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정치학
▶ 발표 : 이순자(숙명여대) 토론 : 김현숙(홍익대)
- 14:50~15:50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 발표 : 蘇碩斌(世新大) 토론 : 홍준형(동덕여대)
- 16:00~16:50 '청결'의 제국, '오물'의 고도 : 경성의 위생담론과 공간정치
▶ 발표 : 김백영(광운대) 토론 : Helen J.S.Lee(연세대)
- 17:00~18:00 종합토론 사회 : 한기형(성균관대)

■ 1월 9일

section3_ 식민지 조선의 '고도'의 근대

사회 : 김춘식(동국대)

- 13:00~14:00 제국일본의 '滿鮮 觀光誌'와 '古都' 경주의 표상
▶ 발표 : 中根隆行(愛媛大) 토론 : 박광현(동국대)
- 14:00~14:50 식민지시기 고도의 표상 - 경주를 중심으로
▶ 발표 : 황중연(동국대) 토론 : 김현주(연세대)
- 15:00~15:50 고도의 폐허와 창조된 신도 - 문학작품에 나타난 부여
▶ 발표 : 허병식(동국대) 토론 : 차승기(성공회대)
- 15:50~16:40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평양 표상
▶ 발표 : 박성란(인하대) 토론 : Elli Suhee Kim(UCLA)
- 16:50~18:00 종합토론
▶ 사회 : 김 철(연세대)
- 18:00~ 뒷풀이



section1_ 국제 한국학 신진연구자 학술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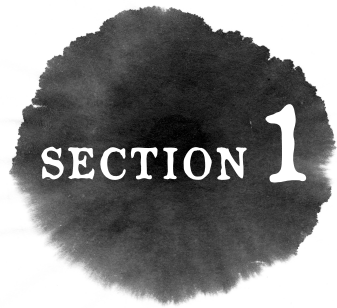
- 전시(展示)된 ‘조선’과 민족의 ‘기억’
— 이효석의 「은은한 빛」, 염상섭의 『효풍』, 이태준의 「먼지」를 중심으로 3
▶ 최지현 | 동국대
- 타자의 초상과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
— 해방 ~ 한국 전쟁 전후 인도 인식을 중심으로 21
▶ 정재석 | 연세대
-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45
▶ 이종호 | 성균관대
- 정지용의 기행산문 연구 67
▶ 김윤경 | 동국대

section2_ 일본제국기 ‘고도’ 논의를 위한 시론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정치학 — ‘문화통치기’ 이전을 중심으로 87
▶ 이순자 | 숙명여대
-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123
▶ 이수오빈(蘇碩斌) | 世新大學
- 蘇碩斌 | 世新大學社會心理學系(台北) 155
▶ 이수오빈(蘇碩斌) | 世新大學
- ‘청결’의 帝國, ‘오물’의 古都: 경성의 위생 담론과 공간정치 185
▶ 김백영 | 광운대

section3_ 식민지 조선의 ‘고도’의 근대

●●●●	제국 일본의 ‘만선(滿鮮)’ 관광지(觀光誌)와 고도 경주의 표상	211
	▶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愛媛大学	
●●●●	帝国日本の「滿鮮」観光誌と古都慶州の表象	227
	▶ 中根隆行 愛媛大学	
●●●●	식민지 상상 지리 속의 경주	243
	▶ 황종연 동국대	
●●●●	폐허의 고도와 창조된 신도(神都)	255
	▶ 허병식 동국대	
●●●●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평양 표상	267
	▶ 박성란 인하대	



국제 한국학 신진연구자 학술교류

전시(展示)된 ‘조선’과 민족의 ‘기억’

– 이효석의 「은은한 빛」, 염상섭의 『효풍』, 이태준의 「먼지」를 중심으로

최지현 | 동국대

1. 서론

전통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래되거나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때, 전통이라는 개념은 불변성, 정통성, 권위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근대적인 산물로서의 전통은 유물과 같은 과거의 파편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런 ‘만들어진’ 전통은 대체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목적에 맞게 기존의 낡은 전통을 적극 활용하면서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하는데, 전통의 창안은 “사회가 급속히 변형됨으로써 ‘낡은’ 전통이 기반하고 있던 사회적 패턴들이 약화되거나 파괴되어 그 결과 낡은 전통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나 “낡은 전통과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매개하고 보급하는 수단이 더 이상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을 때” 나타난다.¹⁾

19세기 근대 부르주아 사회가 ‘역사에서 급진적 변화를 은폐’하는 대신 “국민역사상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거나 창조”했듯이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된 조선인은 “자기 민족의 과거가 눈부신 이미지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때 조선의 과거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소생한 것은 ‘신라’였다.²⁾ 19세기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시 같은 논리로 탄생했으며, 특히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취향’을 만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소속감을 갖

1) 에릭 홉스봄 외,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장문석 옮김, 휴머니스트, 2004, 26쪽.

2) 황중연, 「신라의 발견-근대 한국의 민족적 상상물의 식민지적 기원」, 『신라의 발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참조.

게" 된다는 의미에서 박물관은 이러한 취향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³⁾ 그렇기 때문에 식민통치자들은 식민통치국의 역사를 '지배논리'에 맞게 재구성하고, '보여주어' 이를 '체화하기'에 적절한 기구로 박물관을 이용해왔으며, 일본 식민지시기 조선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립된다.

1915년 설립된 조선총독부박물관⁴⁾은 일본의 아카데미즘과 식민지배와의 관계에서 그 설립 배경을 찾을 수 있다. 1910년 이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는 조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⁵⁾ 190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를 중심으로 조선의 고건축·고적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조선을 조사하기에 앞서 "아소카 문화의 중심지인 나라(奈良)지역과 중국의 허남(河南)·산시(陝西)·산둥(山東)성 등지를 조사했"는데, 이때 축적한 조사경험과 지식은 조선에서 발굴되는 유물과 유적을 평가하는 전제로 작용한다.⁶⁾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일본으로 들어온 중국문화의 수입 경로로서 조선을 위치 짓는(타올성론) 일본 학계의 논의를 실재하는 고분과 구체적인 유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즉 일본의 지식인들은 '임나일본부설' 및 '일선동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하에 조선의 남부지방의 유적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경주'라는 공간은 일본의 '나라(奈良)'와 비교됨으로써, 일본 제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발견된다.

이처럼 조선의 고도 '경주'라는 공간은 '조선 민족'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재현된 장소인 동시에, 식민과 탈식민의 관념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체이다. 공동체의 유지, 혁신, 발전을 위해 진행된 '전통 만들기' 작업은 과거에 대한 기억/망각이라는 방식을 통해 완성된다. 해방기 민족적 자각과 긍지를 복돋우기 위해 나타난 '전통'의 발견은 '조선적인 것' '민족 정신' 등이 식민지배 하에서 억압되었다는 '민족 수난'이라는 공통의 기억의 주조와 함

3)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86쪽.

4)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 10월 31일,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기념하는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施政五年紀念朝鮮物産共進會)가 폐막되면서, 공진회를 위해 신축했던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그해 12월 1일 개관한다. 이때, 경복궁에 건립된 서구식 건물물 신축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자연석과 인조석으로 지은 2층의 서양식 건물인데, "조선시대의 지배의 상징이었던 장소에 그 상징을 없애고 근대적인 지배의 상징(=서양식 건물양식)인 총독부박물관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때 전통의상을 입은 조선인의 박물관 관람은 박물관의 건물양식과 대조를 이루며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건물 안에서 조선의 문화가 진열되어 '한국의 문화'의 틀이 그들의 권력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었다." 최석영,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 진단&대안』, 91-92쪽.

5) 일본은 만주와 조선일대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1871년 7월 육군참모국을 설치하였으며, 일본 군부에 의해 조선의 역사·지리·풍속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1886년에는 동경제국대학의 이과계의 전공자들이 중심으로 '동경인류학회'가 창립되고, 1895년에는 문과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고고학회'가 창립된다. 유적과 유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일본고고학회의 회원들은 조선의 고적조사사업이 실시되자, 대다수 참여하게 된다.

6) 정상우,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현실』 6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8.6, 261쪽.

게 진행된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작업을 고고학자의 발굴 작업으로 비유하며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기억의 파편이나 연상, 분석 대상자가 하는 말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정신분석학자의 일을 ‘폐허에서 발견한 잔해로 당시의 벽장식과 벽화를 복원하’는 고고학자의 일이 닮아있다고 한다.⁷⁾ 발굴 작업이 “남아 있는 잔해를 끼워 맞추어 보완하여 재구성”하듯 파편화된 단서들을 통해 ‘창의적인 기억 (재)구성 작업’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씌어진 세 편의 작품에 산재해 있는 ‘조선(유물)’에 대한 감각이 식민피지배의 기억과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조선(유물)의 상실

역사 이래로 한반도에서는 죽은 사람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장품(副葬品)을 시신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조상의 무덤은 효의 근본으로 여겨져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없었으며, 부득이 무덤을 옮길 때에도 엄격하게 ‘천장례(遷葬禮)’를 행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에 도항한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고분(古墳)은 부장품이 매몰된 일종의 ‘보고(寶庫)’였다.

특히 사육(死褥)하는 뿌리가 강한 사상을 지닌 조선 민족으로서는 어지간히 하급의 무식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고분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던 까닭일 것이다. 요즈음과 같은 참상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이든 병합 전후부터 일본인이 조선의 벽지에 까지 들어간 후의 일이며,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래한 그들이 금사발이 묻혀 있는 것을 바랐음인지 정월 초하루에는 금닭이 묘 속에서 운다는 전설의 고분을 요즈음 유행하는 금광을 캐듯이 파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⁸⁾(밀줄강조-인용자)

7)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205쪽.

그런데 알라이다 아스만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비유에는 “능동적 역할을 하는 분석가와 수동적 역할을 하는 분석 대상자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와 달리 발터 벤야민은 “자신의 사유 양식의 하나를 ‘발굴과 기억’이라고 표현했으며, 동시에 매체라는 제 삼의 범주를 도입하여 능동성과 수동성의 대립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같은 책, 208쪽)

8) 小泉顯夫, “古墳發掘漫談”, 『朝鮮』, 1932년 6월, pp. 86-87; 이순자, 「일제 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7, 13쪽에서 재인용.

이순자의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고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제가 행한 고적 조사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난 문화제 약탈 현상을 살피는 한편 박물관 설립에 나타난 고적

당시 평양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의 증언에도 드러나듯, 일본인의 도굴은 '참상(慘狀)'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초창기 한 두 명의 상인이 도굴을 감행한데 비해 러일전쟁 이후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도굴이 감행되었으며,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과 순사들도 도굴에 참여 했다. 1904년 이전에 이미 조선에 도향한 일본인들은 '고물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며, '굴옥(掘屋)'이라 불리는 직업적 도굴단까지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고려자기'의 상품가치가 커서, 일인 도굴꾼들은 고려시대 도읍지였던 개성지역의 고분이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여, 유물을 취하기도 한다.⁹⁾

당시 개성, 강화 등지에서 일본인 도굴단에 의해 파헤쳐진 왕릉과 귀족들의 무덤에서는 수만 점의 부장품이 출토되나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옮겨졌으며, 고려 고분이 파헤쳐져 조선인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고대 서적과 미술품을 구입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람케 한다”¹⁰⁾며 박물관 창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1908년 이왕가박물관을 창설 하는데,¹¹⁾ 박물관은 대대로 내려온 왕가의 물품을 전시했다기보다, 박물관 설립을 목적으로 시중의 고물(古物)을 사들여 도굴이 성행하고 골동상인들은 더 늘어났다. 그리고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심으로 한 도굴은 합법화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려자기가 본격적으로 세인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고, 도굴 판매자가 급증한 시기가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 이후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통감으로 조선에 취임하면서부터라는 사실이다. 그는 곤도(近藤)의 골동상을 통해 개성 일원에서 도굴한 고려청자를 매입해 일본으로 옮겼으며, 1912~1913년경에는 그 수집열이 최고에 이른다.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1916년에 강화도의 고려고분을 조사하러 갔을 때를 회고하며, “일본인이 도굴하러 유물의 일부를 꺼냈는데, 폭도(분노한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들에게 습격을 받고 도망쳤다”¹²⁾고 하는 등 도굴이 성해짐에 따라 조선인들의 반감도 갈수록 높아졌다.

조사사업의 이중성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됐다.

9) 이순자, 위의 논문, 10-20쪽.

10) 「황성신문」 1908년 2월12일; 「공립신문」 1908년 3월 4일자;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12일자: 이순자, 위의 논문, 18면에서 재인용.

11) 이왕가박물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최석영의 『한국박물관 역사 100년: 진단&대안』(민속원, 2008),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숙명여대 박사논문, 2007), 목수현의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미술사학연구』 227호, 2000.9), 국립중앙박물관 편 『겨레와 함께 한 국립박물관 60년』(2005) 참조.

12) 이구열, 「고려청자 최대의 장물아비 이토 히로부미」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77-76쪽.

이 장에는 1906년 조선에 도향한 일본인 변호사 미야케(三宅長策)가 「그때의 기억-고려고분발굴(도굴)시대」라는 표제의 회고기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봉분(封墳)’을 파헤친다는 행위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은 1900년대 자행된 ‘도굴’행위와 유물의 일본 반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적조사 사업을 실시한 일본 고관들은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보호,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발굴한 유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때에 조선의 고려자기를 다량 수집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 통감으로 취임하고, 1910년 한일병탄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박탈감 및 반감을 유발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즉 조선의 것, 조선의 땅에서 발굴한 것, 조선의 전통적인 왕가의 물건, 구체적으로 조선의 유물이 일본에 넘어감과 일본에 의한 통치라는 감각은 비슷한 시기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이라는 형태로 눈앞에 전시됨으로써 ‘조선’이라는 감각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조선의 고물(古物)에 대한 애착이라는 감각의 발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3. ‘조선’이 전시된 공간

3장에서는 조선의 고물(古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 식민지시기 씌어진 이효석의 「은은한 빛」은 골동취미에 몰두한 ‘욱’이 습득한 고구려시대 ‘고도(古刀)’를 박물관장이 탐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48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효풍』과 이태준의 「먼지」는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씌어졌다. 『효풍』은 동양취미가 있는 미국인 베커와 골동상의 직원 혜란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 병직의 삼각관계가 중심서사이고, 「먼지」는 고문서 수집이라는 골동 취미를 갖고 있는 ‘한희 선생’의 남한 방문기이다. 이 세 작품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조선미’로 그려지는 특정한 대상에 유난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또 그 대상을 얻기 위한 대립의 갈등 구조가 등장한다. 그 욕망의 대상은 ‘고도(古刀)’, ‘혜란’, ‘고서적(완당집)’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그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세 작품은 모두 그 첫 문단의 공간 묘사 장면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그들이 집착하는 대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효석의 「은은한 빛」은 젊은 나이로 골동취미를 가진 욱이 운영하는 “흔스러운 오막살이 같은 인상을 주”는 골동상, ‘고려당(高麗堂)’의 묘사로 시작된다.

먼저 냄새라는 걸 처음 맡아보거나 하듯 욱(郁)은 진열장을 만지작거리고는 거머쥔 손가락을 코끝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비좁고 귀퉁이 가냘픈 가득한 고물(古物)들 위에 흠치고 닦고 하는 동안에 어느 틈엔

가 먼지는 쌓이고 쌓여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하는 것 같았다. 낙랑(樂浪)과 고구려를 주로 하여 고려, 이조시대 것을 합쳐서 오백 점은 착실히 되는 도자기 이외에 수백장의 기와 등속이 줄줄이 늘어선 장 속에 그득히 진열되어 있었다. 흙 속에서 주워낸 이들 고대의 정물(靜物)은 제각각 예대로의 의지를 지닌 듯 육은 며칠이고 시골을 나가 돌다가 가넷방으로 돌아오면 조용한 벽 속에 영혼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먼지 냄새가 유난히 다정스러웠다.¹³⁾

“석조(石造)의 산뜻한” 외양의 평양박물관과 비교되는 “이지러진 인상”의 골동상에는 육이 수집해온 도자기와 기와 등속이 먼지가 쌓이고 쌓인 채 진열되어 있다. 이 비좁고 귀퉁이며, 먼지 냄새 가득한 곳은 육에게 “이 먼지는 쌓이고 쌓여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영혼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공간이다. 즉 ‘조선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온 공간인 것이다. 특히 이 공간에 진열되어 있는 조선의 유물들은 육이 “며칠이고 시골을 나가 돌”며 ‘주워’ 모은 것들이다. 육의 고물(古物)수집 방식은 ‘호리관장’¹⁴⁾ 같은 일본인들이 조선 왕가 및 귀족의 봉분을 파헤쳐가며 유물을 발굴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고구려시대의 궁전과 불사의 텃밭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주운 ‘고도(古刀)’를 육에게 주고, 호리관장이 이 고도(古刀)를 탐낸다는 것은 흥미로운 설정이다.

다음으로, 『효풍』은 1947년 ‘크리스마스이브’의 ‘경요각(瓊瑤閣)’에서 시작된다. ‘어느 궁전 구석에서 뒹굴던 전각(殿閣) 현판’인지 ‘청요릿집’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름, 괴벽하고 어려운 한자 조합의 간판을 걸어놓은 경요각은 ‘고물상’인지 ‘골동품집’인지 알 수 없는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이편 유리창 안에서 내어다보고 섰는 청동불상(佛像)이며 화병 나무랭이 족자깨를 보면 고물상이나 골동품이 분명한데 또 저편 쇼윈도 속을 들여다보면 시계의 행렬이 있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반지, 보석반지, 진주 목걸이, 비취옥패를 심지어 옛날의 호박풍잠까지 신구 금은보석 장신구로 소담스럽게 꾸며 놓았으니 보석상 시계점도 겸업인가 보다. 게다가 무전이며 유리창에 매리 크리스마스, 웰컴 어찌고 하는 영어를 한 자씩 오려서 가로세로 숨씨 있게 장식을 한 것을 보면 장사가 장사니만치 세모(歲暮) 대매출은 못할

13) 이효석, 「은은한 빛」(『文藝』(조선문학 특집), 1940.7.) 『이효석 전집』3, 창미사, 2003, 67쪽. 이하 인용은 괄호 안에 해당 면수만 표기한다.

14) 일본어 ‘はり’는 한자로 ‘糶’로 땅 속의 것을 파낸다는 발굴의 의미가 있지만, 당시 일본인 도굴단이 들어오면서 사용된 용어로 ‘도굴’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938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평양박물관장은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이며, 그는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경주의 금령총, 서봉총 발굴에 참여했다.

망정 경요각이란 그 이름과 같이 외국사람을 상대로 멀리 온 해방의 은인에게 조선 보물로 보답하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하려는 어떤 독지가의 사업인지 영업인지인 모양이다.¹⁵⁾

이처럼 금은보석과 고물이 뒤섞여 있으며, 조선의 호박풍잠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어가 함께 진열되어 있는 공간, ‘경요각’은 일본의 잔재와 조선인 그리고 미군이 뒤섞여 있는 조선의 현모습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인 장소이다.

특히 경요각의 주인 ‘이진석’은 ‘하와이에서 청년시대’를 지내고 해방 후 귀국하여, 조선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골동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조선인이, 조선에서, 조선의 골동품 가게를 차려, 서양 사람에게, ‘조선 고물(古物)’을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이진석이 조선에 돌아와 상점을 운영하는 주목적은 골동품 가게를 찾는 외국사람, 즉 베커와 같은 무역·산업관계의 기관에서 일을 보는 미국인과의 교제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업’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작품의 서두에 묘사된 조선인으로서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 ‘조선적인 것’을 내세운 간판을 내걸고 개인의 ‘부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 이것은 이효석이 ‘경요각’을 통해 해방된 조선이 직면한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즉 경요각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인 셈이다.

‘경요각’을 찾는 베커는 ‘취미로 조선 민속을 연구하려고 틈틈이 재료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 청년이다. 그런데, 베커의 ‘동양’, ‘조선 민속’에 대한 관심은 흥미롭게도 서사가 전개되는 근 3개월 동안, 오롯이 해란에 대한 관심으로만 드러난다. 한 예로, “조선의 자연은 원시(原始)를 생각해 하여서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현대문명의 기계 속에서 잠깐 풀어놓아 주어서 가벼운 숨을 후우 돌리게 해주는”것 같다는 베커에게 해란이 “민속(民俗)연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베커는 문밖에 같이 돌아다녀 보자며 “해란이를 좋은 차에 태워 가지고 놀러다닐 공상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271) 또 해란에게 ‘조선머리에 조선신’을 신어 ‘조선식으로 차릴 것’을 권유하고, 함께 인천, 절에 다녀오자는 등 베커의 관심은 ‘조선민속’이라기보다 해란이라는 ‘동양 여성’에게 쏠려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란’이라는 여성과 베커의 만남이 이 ‘경요각’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던 서울은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15) 염상섭, 『효풍(曉風)』—염상섭 전집 2, 실천문화사, 1998. 9~10쪽. 『효풍』은 해방 이후 단편만 써오던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로 1948년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유신문』에 연재되었다. 이하 인용은 괄호 안에 해당 면수만 표기한다.

때였기 때문에 ‘빨갱이’로 오인받은 혜란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직된다. 영어선생이었던 혜란은 경요각에 취직하게 되는데, 혜란이 취송정의 가네코와 외모가 닮았다는 점은, 그녀의 역할이 ‘통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객 행위’라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경요각의 여느 고물(古物)들보다 더 조선적인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며, “자기를 미끼로 서양사람을 이용하지는 험잡꾼 모리배의 간판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혜란이도 모르는 바 아니다.”(142) 즉 ‘조선적인 것’으로, 각 인물이 욕망하고 집착하는 대상으로 「은은한 빛」에 고구려 ‘고도(古刀)’가 있듯이 『효풍』의 경요각에는 ‘혜란’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태준의 「면지」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주인공 한피 선생의 골동 취미인 ‘고서적’을 수집할 때 들고 다니는 손가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한피선생은 오래간만에 손가방, 그 특별한 종이노가방을 찾아내었다. 손때 묻은 데는 곰팡이가 파랗게 피어 있었다. 조선종이로 끈 노끈으로 짠 것이어서 틈새에 낀 곰팡은 여간해 털리지 않는다. 한피선생은 손톱으로 튀기어도 보고 그 연봉오리 같은 수염 가까이 가져다 붙어도 본다.

일제 말년 가족물건이 금제품(禁制品)으로 되었을 때, 고도서(古圖書) 중개인 성씨가 휴짓값도 안 되는 사략(史略) 통감(痛鑑) 따위를 뜯어 노를 꼬아 손가방을 짜 들고 다니었다. 고졸(古拙)하나 문아(文雅)한 품이 있어, 고서적 수집가이며 조선 것과 옛 것을 즐기어 아호까지 순조선 고어로 ‘한피’라 한 이 한피선생의 눈은 성씨의 이 종이노가방에 처음부터 무심할 리 없었다. 책홍정에 들어는 1, 2원 돈을 떨면서도 이 종이노가방에는 후한 값을 쳐 그에 할애(割愛)를 받은 것이다. (중략) 30여년간 수집한 그 소위 한우충동(한우충동)이라 할 여러천 권 고서적들을 날아올 때도 서적목록과 운송점 물표를 이 종이노가방에 넣어 들고 오르내리었다.¹⁶⁾

‘한피선생’은 일찍이 한문과 습자 선생으로 한 중학교에만 20여년을 있었는데,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고서적 수집에 바친 인물이다. 그는 일본인들이 조선 전적(典籍)에 손을 대기 전부터 조선의 고서적을 수집하여 “희귀한 고려판(高麗版)들과 이조초기(李朝初期) 진본(珍本)들”(276)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도서관이나 경성제대 동경제대 도서관 그리고 여러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자료 기증 및 대여를 제안 받았으나, 그는 “내 장서가 오늘 일본제국이 조선 문화나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데 이바지할 바엔 차라리 불을 질러 없애고 말겠다”는 의지로 옹화

16) 이태준, 「면지」(『문학예술』, 1950.3.) 『민족문화사연구』 10, 1997.3. 275-276쪽. 이하 인용은 괄호 안에 해당 면수만 표기한다.

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말과 글을 찾아, 우리 문화와 역사를 자유스럽게 연구, 섭취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책을 모아왔던 것이다.(277) 이러한 한피선생의 수집열은 “일제에게 국토를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미래의 광복을 지향하는 민족문화재의 수집·보호와 훗날의 사회적 기여야말로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이라고 확신하”여 “개인적인 상속재산으로 그것들의 수집·보호에 심혈을 기울”인 간송 전형필(澗松 全鏐弼)의 모습과 닮아있다.¹⁷⁾

이상으로 살펴본 세 작품 모두 도입부에 묘사된 공간은 모두 당대의 ‘조선’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낙랑과 고구려를 주로 하여 고려, 이조시대 것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이며, 고대의 정물들은 제각각 예대로의 의지를 드러낸 듯한 먼지가 쌓인 「은은한 빛」의 ‘고려당’은 일본 식민말기의 조선의 모습이며, 조선의 호박풍잡과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영어가 함께 진열되어 있으며, “골동상이 될 만한 소절이나 안식도 없”(12)는 인물이 주인으로 있는 『효풍』의 ‘경요각’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조선의 모습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사람통감 등으로 만들어진 「먼지」의 ‘종이노가방’은 조선의 고서적을 담아 옮겨 손때가 묻은 조선의 역사가 이어져온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적인 것’에 대한 기억

‘근대·과학’을 들고 나타난 일본은 조선을 야만, 미개, 미신 등으로 규정하며 식민 통치한다. 그리고 세계정세에 따라 찾아온 조선의 해방. 오롯이 ‘조선민족’으로 국가를 건설해보기도 전에 또 다른 ‘타자’ 미국은 ‘보다 고도의 과학과 자본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을 ‘보호’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조선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과 맺은 동맹이 ‘보호령’으로 그리고 식민 지배로 이어져온 경험을 해 본 바 있다. 병자년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군신(君臣)이 우리 나라에 신세(信誓)하고 천하에 성명한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 토지와 인민을 침략치 않고 우리 독립과 자주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담부(擔負)로”¹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 통치했다. 이러한 기억이 있는 조선인에게 미국의 대한정책과 ‘신탁통치’설은 제2의 식민지라는 공포를 조장시켰다. ‘힘없고 작은 조선’을 인식해야했던 해방기는 과거 일본 식민지시기의 경험을

17) “나라를 잃은 민족의 역사적 문화재 보호에 몸과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한” 간송(澗松)은 1936년 ‘보화각(葆華閣, 지금의 간송미술관)’이라는 개인미술관을 지어, 그 동안 모은 문화재를 수집·보존했다.; 이구열, 「문화재를 통해 일제와 대결한 간송 전형필」,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56-60쪽.

18) 崔益鉉, 「奇日本政府」, 『抗日宣言·倡義文集』, 瑞文堂, 1975, 68쪽.

어떻게 갈무리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시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망도 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신생 국가 건설에의 열망은 식민지시기 일본에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조선'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선 정신'의 복원은 '민족적' 가치 찾기(의미 부여)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민족적 동일성'의 기획은 '기미년3·1운동' '태극기' '애국가' 등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창출과 전통, 조선어 등에 대한 열의로 드러난다.¹⁹⁾ 그리고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일제 말기는 전시 동원 체제였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민지배의 경험으로만 기억"되듯이 과거 식민지시기의 개별적인 경험의 차이는 '민족적 수난'이라는 공통의 기억으로 교정(revision)되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전통 창출이 "사회가 급속히 변형됨으로써 낡은 전통이 기반하고 있던 사회적 패턴들이 약화되거나 파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환기하면, 3장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세 작품이 모두 '조선적인 것'에 대한 강한 '애착'과 필사적인 '조선(유물) 지키기'의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결말이 확연히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4장은, 대상을 끝까지 지켜내기도 하고, 억지로 통합시키려고도 하고, 욕망이 끝내 좌절되기도 하는 각기 다른 결말에 도달하기까지의 논리를 밝히고, 이를 시대상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1) 이효석의 「은은한 빛」

「은은한 빛」은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작품 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년전 '왕관사건'²¹⁾을 떠올리는 것으로 봐서는 1930년대 후반이거나 작품이 씌어진 1940년으로 추정된다. 평양박물관의 호리관장은 개인의 골동취미와 박물관을 위해 옥의 고도(古刀)를 박물관 소장품목에 첨가하고 싶어 한다. 이런 호리관장의 욕망이 커질수록 고도(古刀)를 지키겠다는 옥의 의지는 굳어진다.²²⁾ 그러던 참에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고미술애호회의 후쿠다 영감은 '역수입 청년'의

19) 최지현, 「해방기 '조선어'와 민족의 기억-전재경의 [최후의 교실]과 이종수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0호,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2, 285쪽.

20) 권명아, 「기념/공유기억 연구 방법론과 탈 민족주의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허학보』 16집, 상허학회, 2006.2, 374쪽.

21) '무엄패례(無嚴悖禮)의 차난거(此亂擧) 기녀(妓女) 두상(頭上)에 국보(國寶) 금관(金冠)'이라며, 고이즈미가 서봉총의 금관을 평양 박물관에 전시할 때 "일개괴생을 박물관에 불러다가 금관을 씌우고, 부속금장식품으로 허리에 둘러매고 목에 걸게 한 후 사진까지 백이었던 사실이있다"는 기사와 '금관을 쓴 무엄한 기녀 사진'이 함께 실렸다. 『조선일보』 1936.06.23.

22) 윤대석은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통해, 고도(古刀)에 대한 옥의 집착을 "식민지 본국인 호리 관장의 욕망을 모방한 결과 생긴 것"으로 읽고, "식민지인이 식민지 본국인을 모방함으로써 식민지 본국인이 식민지에 대해가지고 있던

일화를 소개 한다. “어떤 전문 정도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 서양 사람 집에 놀러 갔다가 객실에 장식해 놓은 낡은 조선 목갑과 낫그릇을 보구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곧 그것을 애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74-75)이다. 자기 자신에 관한 건 아는 것이 없으면서 남의 흥내내기에만 열중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후꾸다의 이야기는 ‘고려당’을 운영하는 옥의 골동취미를 ‘평양박물관’의 호리관장을 모방하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친구 백빙서 마저도 ‘타인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반성을 환기해 준 것’이라고 말한다. 즉 조선의 선조 특히 왕조의 무덤에 매장되어 있던 조선의 유물을 발굴하여 그것의 가치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 그들이 ‘우리의 장점을 발견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옥의 골동취미가 ‘모방’으로 입히자, 자신의 골동취미는 누구에게 배워서 또는 누구를 모방해서 생긴 것이 아닌 ‘체질과 풍토’의 의한 것이라고 강변한다.(78) 즉 옥이 집착하는 이 고도(古刀)는 조선 민족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옥은 “이걸 내놓을 판이라면 차라리 내 목숨을 넘겨 주고 말”(87)겠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내년에 회갑을 맞는다는 옥의 아버지는 조선의 식민지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냈으며, 십년 전 창평에서 “대대로 같이먹던 토지를” 팔아버리고 ‘시내’로 이사왔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를 팔아버린 것을 후회하며, 다시 시골로 돌아가 여생을 ‘흙과 풀에 묻혀’ 살고 싶다는 인물이다. 그런 아버지는 창평에 토지를 사기 위해 옥의 고도(古刀)를 관장에게 팔아넘긴다. 이 소식을 들은 옥은 가게에서 분풀이를 하고, 박물관으로 찾아가 “관장한테 덤벼들어 고구려의 고도를 도로 찾아 가지고” 온다. 이때 옥은 아버지의 벼루를 던져 도기(陶器)를 깨는데,

선반 위의 도기(陶器)에 명중하고 덜그렁 소리와 함께 커다란 파편이 부서졌다. 왜 이러느냐고 어머니가 겁에 질려 나와 보았을 때엔 시가 수십 원을 하는 이조시대의 낡은 항아리는 볼 수 없는 몰골로 변해 있었다.

옥의 눈은 시뻘겋게 살기로 차 있었다.(86)

옥이 살기에 가득 차 깨부신 도기가 바로 ‘이조시대의 낡은 항아리’로, ‘조선’의 가치를 모르고 호리관장에게 고도(古刀)를 팔아넘긴 아버지에 대한 분노이자, 조선을 일본의 통치하로 만든 ‘前

의식’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방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마치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인 양 착각하며 그 기원인 모방 행위를 감추어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대립과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본질주의의 특징”이라며 이효석의 「은은한 빛」을 ‘전도된 본질주의’로 읽고 있다.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97-104쪽.

세대'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문제의 이 고도(古刀)는 “칼집은 떨어져 없을망정 오척에 가까운 도신(刀身)에는 녹색(綠碧)의 반점이 아름답고 고색창연한 속에 넉넉히 고대의 모습을 추상할 수 있”으며, “온전하게 원형을 지니고 있”(72)다. 천년이 지나도록 전혀 훼손되지 않은 고도(古刀)는 그 동안 묻혀있었던 ‘조선적인 것’은 시간을 초월하며,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청년은 미래를 선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마다 부정과 창조의 선봉에 놓이는 이름일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면, ‘조선적인 것’의 가치를 깨달은 청년 ‘육’이 등장한 1940년은 새로운 시기가 열리는 순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은한 빛」에 그려진 호리관장과 육이라는 식민지 본국인과 식민지인의 관계는 흥미롭다. 이들은 박물관에 비장되어 있는 신라조의 왕관을 월매에게 씌우고 찍은 기념사진이 문제가 되었던 ‘왕관사건’ 이후로 격의없는 사이가 된다. 서로 “옛 흙을 그리는 정”을 알고 “그러한 애정의 경중을 서로 측량해 보는 것은 무의미한 노릇”(76)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리 관장은 보관 장소만 바뀐 것 뿐이지 ‘박물관의 유산은 당신들의 유산이기도 하다’며 고도(高度)의 박물관 기증을 권할 뿐, 육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는다. 즉 서로간의 ‘꼴동 취미’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관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육은 아버지가 팔아넘긴 고도(古刀)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2) 염상섭의 『효풍』

『효풍』의 시대적 배경은 1947년 12월부터 대략 3개월 사이로, 1947년 7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조선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기로 할 때이다. 이때 작성된 ‘웨드마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통일 독립국가라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의 수중에서 떼어내고,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중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남한단독정부 수립’의 입장을 취한 때이며, 남한경찰과 우익청년단체들의 행동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일반인들의 감정을 좌익으로 쏠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 때이다.²³⁾ 이러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효풍』의 ‘스왈로’라는 댄스홀의 장면에서도 드러

23) “현재의 경찰제도가 개혁되고 경찰의 야만적 행위와 극우적 성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그 정부가 한국 인민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대표할 희망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한다. “Report to the President on China-Korea, September 1947, Submitted by Lieutenant General A. C. Wedemeyer,” *FRUS*, 1947 VI, pp.799-802.; 정용욱, 『해방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456쪽에서 재인용.

난다. 미국인 베커에게 ‘스왈로’라는 댄스홀은, “어떤 꼴인가 풍속도(風俗圖)를 구경해 두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이면서, ‘꼬맹이’들이 ‘서성거리네’ “명동거리에서 늘 보는 타이야징 장거리 같다고 발을 들여놓기가 싫은 생각이” 드는 미개한 공간이다.(107) 조선의 민속을 공부하고 싶은 베커의 눈에 1948년 조선의 풍속은, ‘스왈로’라는 댄스홀처럼, ‘민족 문화’의 자국을 잃은 미국 모방의 혼종된 모습인 것이다. 이곳에서 병직과 화순은 “미국 자본주의의 침탈 및 조선과 조선 인민, 여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미군정의 시행착오”²⁴⁾ 등을 비판한다.

한편, 현대과학의 최고봉에 선 ‘원자탄’의 나라이자 ‘달러’의 나라인 미국의 베커는 혜란에게 ‘미국 유학’을 제안하는데, 혜란과 베커의 ‘연애’가 (연애가 아니었던 것처럼)싱겁게 정리되는 결말은 이 소설에서 중요하다. 특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미국인 베커가 “요새로 조선 여성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 활기”가 나고 유쾌한 베커를 보며 병직이 “일제시대에 일본관리들과 교제하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117)는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이 장면을 ‘남성성’의 범주에서 읽으면, 식민지시기 일본과 조선은 종종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그려졌으며, 이러한 구도 안에서 식민지시기 조선의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로 간주되었던 활동영역, 즉 정치와 군사 바로 그 영역으로부터 차단”되었었다. 이런 영역으로부터 소외된 조선인 남성의 좌절감과 무력감은 “황국신민의 일분자(一分子)로 스스로 총검을 들고 나서게” 되는 징병제의 실시로 “국민-남성의 아이덴티티를 획득”하게 된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정 하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 ‘조선의 남성’은 식민지시기 ‘일본에 의한 남성성의 좌절’을 반복하게 된다. 즉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남한과 일본에 대한 점령을 반영한²⁶⁾ 혜란의 미국 유학은, 조선 남성의 남성성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결합은 ‘교양인’ 베커의 물러섬으로 끝나는 것이다.

혜란의 미국 유학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자, ‘빨갱이’로 불리며 사회주의자 화순과 월북하려던 병직은 급격히 태도를 바꿔, “조선서 할 일두 이루 많은데 그 먼 데까지 가서 무얼 합니까.”라며, “삼팔선이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터질까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336)겠다는 ‘민족 단결과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노선을 취한다. 그리고 ‘골동상’으로 시작해 ‘백년손’으로 끝나는 『효

24)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間SAI』 3호,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07.11. 187쪽.

25) 황중연, 「조선 청년 엘리트의 황국신민 아이덴티티 수행-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인 학병에 관한 노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한일, 연대21』의 시도, 뿌리와이파리, 2008, 264쪽.

26) 테어도르 휴즈, 「냉전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해방 직후의 남북한문학」, 『한국문학연구』 28집,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5 상반기.17쪽.

풍』은 혜란과 병직의 결혼으로 끝난다. 이때 혜란의 결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김관식은 '미국 유학'도 다녀왔으며, "양식집 찾집을 내놓고 빈대떡집에 들어오실 줄" 모른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식민지시기에는 제법 '근대적' 인물이다. 그런 김관식이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던 조선의 음식, 빈대떡의 참맛을 느낀다.

“왜 그러다니? 사시미가 싫듯이 빼푸스틱도 싫어졌고 사구라, 모찌가 싫듯이 초코릿이 싫어졌구려!”

하고 김관식 영감은 커다랗게 껄껄 웃는다.

“빈대떡은 어떻습니까?”

“빈대떡의 진미를 오늘에야 알았는데 어쨌건 국 같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않았나 해서 째질하구려.”

하며 영감은 술 석 잔에 거나해서 일어섰다. (125)

「은은한 빛」의 육이 자신의 골동취미는 '체질과 풍토'의 문제라고 강변했듯, 김관식 역시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저절로 '조선적인 것'의 '진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에 이어, 미군의 주둔을 경험한 조선인은 비로소 '조선적인 것'의 진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도 조선을 떠나, 조선민족의 힘으로 '독립된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의지가 '조선'을 표상하는 혜란과 '민족단결'을 깨달은 조선의 남성 '병직'과의 결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3) 이태준의 「먼지」

1948년 8월 15일을 전후한 남한 풍경을 그리고 있는 「먼지」의 한피선생은 60년을 살며, 신문 등의 보도 중에는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체험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게 된다. 그러던 한피선생은 해방 3주년을 즈음하여 남북통일 최고인민회의 선거(8월 25일)가 발표되자, 해방이후 일인 학자들이 혈값으로 내놓고 갔을 고서적 수집과, '남조선의 진상'도 살펴볼 겸, 또 8·15해방 기념도 "남조선에서도 한번 맞아보아야 해방의 감격을 전국적인 것으로 체험할 것 같"(282)은 생각에 38선을 넘어 서울행을 결심한다.

그런데, 8월 14일 38선을 넘었으나 오후 6시 이후에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서 통행금지에 걸려, 유치장에 끌려가, "크게 기대한 남조선에서의 8·15 3주년기념도 그만 유치장 속에서" 쇠고, 17일 밤에 겨우 풀려나온다. 또 서화골동 경매에 나온 「완당집」은 미군의 달러의 위력에 놀려

이것마저 좌절된다. 그리고 겨우 “북조선 신문들이 보도하는 남조선사태”를 목격한 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38선을 넘으려다 총에 맞아 죽는다. 즉, 한피선생의 남한 방문 목적 세 가지는 모두 좌절되는데, 그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자.

해방 이후 국사학에서는 “일제 관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소위 식민사학의 독소로서의 정체성론·타율성론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의 자율적 발전론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결과 “실학이 근대지향적 성격과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²⁷⁾ 특히 ‘조선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고서적을 모아왔던 한피선생은 연암과 완당을 존경해왔는데, ‘연암’의 토지제도²⁸⁾는 1946년 2월 38선 이북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는 점과 맞물려 한피선생이 ‘북조선’의 정책을 인정하는 이유를(또는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런 한피선생이기에 「완당집」은 조선의 귀중도서 이상의 가치를 갖는 고서적이었다.

벽오동 책갑에 든 「완당집」 다섯 권을 떨리는 손으로 안아내었다. 고운 때 문은 뚜껑은 양피처럼 부드러웠고 가볍고 눈결같이 흰 후백지에 송체(宋體)와 명체(明體)에 어중간하여 표일하면서도 전아한 자양(字樣)은 한피선생은 어느 빛깔 고운 꽃이나 향기로운 음식에서처럼 눈이 매끄러워지며 입안이 흥건해짐을 금치 못하였다.(305-306)

그런 「완당집」을 사기 위해 고미술협회의 경매장으로 나온 한피선생은 경매에 참여했으나, 경매는 “미국 사람 판이 되더니 그들은 귀중한 고전도서를 산다는 태도보다 무슨 투전판이나 스포츠삼아 장난질”(306)하는 것처럼 진행된다. 한피선생은 5천원을 준비해 경매에 참여했으나, 「완당집」은 2만원에 미국 장교의 손에 들어가고, 고려자기는 서양사람 판이 되더니 30만원에 낙찰이 된다. 이러한 서화 골동 경매를 목격한 뒤 ‘딸라’와 ‘제국주의 나라’라는 미국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한피선생의 눈에 비친 미국은 군정청의 법무국장의 식사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야만적이다.²⁹⁾ 또한 서울대학 법문학부 자리에 들어온 미군 항공부대의 미군들이 “총과 구두를 닦

27) 강만길, 「실학론의 현재와 전망」,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2001, 273쪽.

28) “박지원의 한전론(限田論)은 전국의 경작면적과 호구수(戶口數)를 조사하여 한 가호당 평균경작면적을 정하고 누구든지 그 이상의 토지소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다.(『燕巖集』別集 限民名田議) 한전론은 결국 토지소유의 평균치를 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금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토지소유량을 균등하게 하려는 이론으로서 역시 점진적인 토지제도 개혁론이라 할 것이다.”; 강만길, 「실학의 민중생활 개선론」,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2001, 280쪽.

29) “우드 각하도 조선 소고기를 매우 즐기는 모양으로 손바닥 같은 비프페드를 두 접시째 사양하지 않았다. 걸만 익

기 위해 조선 귀중본 여러 백 권을 찢어 없"애고, 조선의 이왕가 장서에 "한 벌밖에 남지 않았던 이조실록이 골러나와 휴지로 팔리"(298)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미국놈 초대연엔 으레 딸년들을 족두리에 원삼을 입혀"놓고 이것이 요즘 그들이 좋아하는 '유행'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정 하 서울은 '조선 풍속이나 문화에 대한 모독', '제 민족 문화풍습'을 모독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경조부박한 미국식'을 모방하고 있는 미군정 하 서울을 식민지시기 '타민족 말살정책'과 연관시키며, "조선 건 일제 때 이상 천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완당집」이라는 고서적이 미국인에게 팔려가는 현장을 목격한 직후 "왜놈들은 합병 시키구 먹더니 이놈들은 원조해준다구 하면서 먹는 재주가 있군"(308)이라는 한피선생의 발화는 중요하다. 조선의 유물의 발굴과 약탈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시작될 즈음 극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미군이 조선의 '고물(古物)'을 수집하는 모습에서 한일병탄의 기억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동 경매에 참여했던 한피선생이 미국의 자본에 조선의 문화 재가 휩쓸려나가고 있으며 이제 곧 조선의 모든 경제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서울의 실태를 확인한 한피선생은 남조선 정부에 희망이 없음을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북조선 정치에 대한 절대지지자도 아니다. '북조선 정치가 다 옳으나' '한쪽을 무시허구 저만 나가는' 정책이 문제라며,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한다. 즉 한피선생은 일본 식민지시기 이전의 조선의 재건을 꿈꾸며, "어서 통일이 되어 나라도 안정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전국적으로 고조"(277)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한피선생에게 서울 큰딸은 "확실히 원칙이 옳다구 인정되는 편에 왜 결정적으루 가담 못"하나며, "지금 시대가 어떻게 급격한 회전(回轉)인지 아세요? 어름어름허구 떠도시다간 날려버리구 마십시오. 력사의 주인공은 못 되시나마 력사의 먼지는 되지 마세요"(316)라며 입장 정리를 하라고 권한다. 이에 한피선생은 연암이나 완당이 '지금 세상에 계시다면 어느 편일까'라는 가정 하에, 그들의 정의감과 실학정신은 '좌익'이라며 자신의 노선을 정한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한피선생의 물음은 '한일병탄'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는데, 미군정 하의 서울에 대한 다음의 묘사는 결정적이다.

멀리 남산 밑으로 40년전 일본 통감부(統監府) 자리가 마주 바라보였다. 일본기 대신 오늘은 미국기가 펄럭거리는 미군 헌병대였다. (중략)

고 속은 설어야 좋다 하며 이빨에 피가 흥건하면 위스키잔을 들어 양치질 삼아 마시었고 잣 까놓은 것을 그 투박한 손에 움큼으로 움켜다가 그 두 툫한 입에 들어뜨렸다"(288-289).

한피선생은 이 번잡함이 말할 수 없이 서글프고 울분하였다. 어렸을 때 그것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한국 말년의 한양 풍경이 회상되었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이가 ‘실크햇’을 쓰고 쌍두마차를 타고 송병준이, 이완용이 일진회(日進會)패들이 인력거를 타고 덕수궁으로 경복궁으로 뺄질나게 드나들던 꼴이 오늘 다시 너무나 방불하였다.

‘이놈들아, 또 다시 일진회놀음을 채린단 말이나!’(321-322)

한피선생은 한일병탄의 기억과 미군정의 행태를 대입시키고 있는데, 일본 식민지시기의 기억을 환기시켜 지금의 미군정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난 불편부당이다! 공정헌 조선 사람인 것뿐이다!”(315), “일제하 36년간 그다지 비굴하게는 살지 않아왔다”(320)는 한피선생을 통해 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피선생의 발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민지시기를 ‘단일한 민족적 수난의 경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민족 집단’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이 들어선 경복궁을 내려다보며 한일병탄을 떠올리는 한피선생이 ‘북조선’으로 돌아가 통일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은 지금 이순간 ‘조선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 통일을 위한 ‘지도자’로도 나설 각오를 한 한피선생의 죽음은 ‘이복과 이남’이 통일되지 못한 각자의 정부가 선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결말인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발표자는 해방기, 그것이 ‘해방공간’이든 ‘해방직후’이든 ‘미군정시기’이든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 정부의 성립까지의 기간을 ‘해방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이 해방기 문학은 ‘식민피지배의 트라우마(trauma)’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의 유물’에 대한 최초의 ‘기억’과 일본의 식민 통치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음에 착안해 문학 텍스트에서 ‘조선적인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쫓아보았다.

정리하면, 발굴된 ‘조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효석의 「은은한 빛」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경계(境界)를 허물어버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으로 일본인 평양박물관 ‘호리관장’과 조선인 골동상인 ‘욱’은 ‘고도(古刀)’에 대한 같은 관심과 같은 취

미를 갖고 있는 동등한 '동지'의 관계이다. 이효석은 이러한 탈민족의 자장 안에서 '조선적인 것'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전시된 '조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염상섭의 『효풍』에는 미국이라는 타자를 경계(警戒)하며 '조선적인 것'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베커라는 미국인이 배제되고, '조선미'로 표상된 혜란이 병식과 함께 '조선에서 원자학을 공부'하겠다는 결말에서 미군정의 종료와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 '효풍(曉風)'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매장의 '조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태준의 「먼지」는 식민지시기라는 '민족의 수난'의 기억을 동원하여 '공공의 적'으로 그려지는 미국 및 부르주아 집단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통일민족국가 건설'의 의지를 표출한다. 그러나 「완당집」을 미국인에게 빼앗긴 '한피 선생'의 죽음이라는 결말로 목표는 좌절된다. 이러한 결말은 "이북과 이남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개별적인 정부를 세운다면 그것은 결국 분열이며 나아가 새로운 동족상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작가 이태준은 경계"³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0) 김재용, 「월북이후 이태준의 문학활동과 '먼지'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 10, 1997.3, 342쪽.

타자의 초상과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

- 해방 ~ 한국 전쟁 전후 인도 인식을 중심으로

정재석 | 연세대

1. 냉전의 틀과 인도

해방과 함께 한국 사회¹⁾는 통일된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이상과 냉전 세계 질서의 성립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다. 해방이 곧 독립된 통일 민족 국가의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일된 민족 국가를 향한 열망은 해방기 한국 사회를 휩쓸었다. 하지만 통일 국가에 대한 염원은 미·소를 양측으로 하는 냉전 세계 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좌절되었고 한국 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에도 냉전 체제가 고착됨으로써 한국의 사회 구조는 냉전 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재편되었다. 피식민 상황의 종언에 따라 발현된 민족적 열망을 향한 실천과, 이와는 차원을 달리하며 전개된 새로운 국제 정치 체제에 반응하면서 탈식민 한국 사회는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점에는 이와 같은 변동의 양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개 민족 국가를 향한 분투와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의 편입이라는 두 틀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해방 이후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 시기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일국주의적인 관점에 가까운 분단 체제라는 문제들에서 전 세계적 역학 관계를 고려한 냉전 체제라는 문제들로 이동해 왔는데, 이러한 초점 이동은

1) 한국(대한민국), 남한, 북한, 조선, 남조선, 북조선 등의 용어는 내포와 외연이 다른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들 용어를 혼용한다. 이 글이 다루는 시기가 해방 이후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조선, 남한, 한국(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 사이에 38선 남쪽에 존재했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사회 구성체를 의미한다. 해방 이전을 가리킬 때는 특별히 '식민지 조선'으로, 해방 이후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미 있는 진전임에 틀림없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른 한반도의 해방과 38선 구획, 탁치 문제와 남북 정부 수립, 한국 전쟁 발발과 정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는 '민족적 문제'를 넘어선 '세계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들을 향한 당대 한국인들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양국의 입장과 그것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을 추적하는 일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체제 재편 과정과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자기 인식 작업을 탐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를 고찰할 때 미국과 소련, 그리고 미·소를 향한 당대인들의 관심에 큰 비중을 두는 자세는 냉전 질서 가운데 놓여 있었던 한반도와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시각을 확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소련에 대한 인식은 그 질서가 내포하는 여타의 국가, 곧 냉전 질서의 외연을 구성하는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상호적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계열체 속에서 그 각각의 위치를 부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은 상호적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서구 자유 진영'과 '동구 공산 진영'의 계열체 속에서 표상되고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의 지형은 당대 진행되던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반과시즘 해방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제2차 세계 대전은 세계 여러 지역에 '힘의 공백'을 초래했다. 전통적 열강이었던 서구 제국(諸國)은 전쟁의 당사자이자 직·간접적 피해자였고, 대동아공영을 기치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했던 일제 역시 패망하고 말았다. 과거 세계 질서를 이끌었던 이들 제국(帝國)의 몰락은 양대 강자로 새롭게 부상하던 미국과 소련의 지위를 강화시켰던 바, 전후 처리 문제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은 미·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양국의 문제라기 보다는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력 확보의 문제였다.²⁾ 전후 유럽 재건의 과정에서 마셜 플랜(1947)과 코민포름 결성(1947), NATO 창설(1949)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탄생(1955)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천들은 미·소를 주축으로 하는 냉전 질서가 본질적으로는 진영 간의 대결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전 체제라는 문제들로 이 시기 한국 사회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이들 진영을 이루는 지역과 각 지역을 향한 당대인들의 관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방 이후 남한 사회의 담론 공간에서는 미국과 소련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세계 각국에 대한 정치·경제·문화적 관심이 표명되었으며³⁾, 이를 통해 남한의 담론

2)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박건영 옮김, 사회평론, 2002. 108쪽 참조.

3) 일례로 해방기에서 한국 전쟁을 거치는 사이에 간행된 대표적인 종합지인 『신천지』는 세계 각지의 동향을 일반 기

생산자들은 전후 체제와 냉전 질서, 그리고 그 속에 놓인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어 갔다.

따라서 당대 국제적 정치 지형과 그 속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소에 대한 관심과 연동되어 있는 기타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동안 축적되었던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 중심의 세계 표상과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를 보충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인식 구조와 관심의 초점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⁴⁾ 아시아 지역이 당대 담론 공간 속에 빈번히 호출되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적 이유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은 과거의 식민주의와 현재의 탈식민적 실천, 그리고 냉전이라는 세계적 판도 변화에 대한 남한 담론계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드러내 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⁵⁾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해방 후 한국 전쟁을 거치는 시기 동안 남한 사회에서 생산된 인도 관련 담론에 주목한다. 특별히 인도 관련 담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인도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 때문이다. 인도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⁶⁾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 독립했다는 점에서 해방 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밟았다.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신생 독립

사나 연재 기사, 번역 기사, 특집 기사의 형태로 많이 게재했다. 특히 특집 기사는 동시대의 민감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잡지 편집자의 기획 의도가 깊게 배어 있다는 점에서 잡지 편집의 문제를 넘어선 시대적 감수성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의 경우에는 1946년 7월 ‘중국 특집’, 1947년 7월 ‘인도 특집’, 1948년 9월 ‘동남아시아 특집’, 1949년 3월 ‘회랍 문제 특집’, 1949년 9월 ‘태평양 동맹 특집’, 1949년 11월 ‘UN총회 특집’, 1950년 6월 ‘동남아시아 특집’, 1953년 12월 ‘일본 특집’, 1954년 2월 ‘아시아 특집’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물론 각지의 동향을 다루는 이들 기사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중요한 세력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에서 미국과 소련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양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인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양국이 다른 국가의 지원 없이는 냉전 질서를 주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이 점에서 전후에 발견되는 이전 시기 아시아주의와 구분되는 아시아 인식을 냉전이라는 틀 속에서 구명할 다음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1」,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현실문화, 2008.
- 5) 앞서 언급한 『신천지』 기사를 보면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남한의 세계 인식은 아시아 담론 속에서 구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연구 대상일 것이다.
- 6) 식민지 시기의 인도 담론을 분석한 이육순의 기존 논의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생산·유통된 인도 담론에서도 조선과 인도를 동일시하는 담론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인의 시각에서도 인도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발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식민 중주국 영국을 상대로 독립 투쟁하는 인도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우회로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육순,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푸른역사, 2006 참조.

국 가운데서도 내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들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1947년에 분할 독립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기적으로도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깊다. 즉 인도는 냉전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탈식민의 달성과 통일 국가 성립을 추구했던 당대 남한 사회와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남한에게 인도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대상일 수 있었다.

둘째, 독립 이후 인도가 획득한 국제 정치적 위상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독립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네루의 비동맹 노선을 통해 인도는 냉전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군사력, 경제력 등의 실질적 힘에 비해 한층 큰 영향력을 국제 사회에 행사할 수 있었다. 인도는 냉전 질서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질서의 경계에 서 있음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다져 갔는데, 특히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UN을 매개로 벌어지던 미국과 소련의 대 한반도 힘겨루기에서 제3세력화를 주도하던 인도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947년 11월 UN 회의 결과에 따라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UNTCOK)의 위원장으로 인도 대표이자 네루의 외교 수석 보좌관이었던 크리슈나 메논(Krishna Menon)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은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전쟁 당시 정전 협정을 위해 인도가 취했던 외교적 행보와 전쟁 포로 송환 문제에서 인도가 담당했던 역할 등은 냉전 질서 속에서 '자유 진영'과 제3의 세력에 대한 남한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는 동안 남한 사회에서 생산된 인도 담론의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탈식민으로의 이행과 냉전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남한 지식인 사회가 취했던 세계적 차원의 동일화와 차이화 혹은 결속과 배제의 논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이 시기의 인도 여행기와 인도 관련 신문 사설 및 칼럼, 잡지에 게재된 기사 등이다. 여행기는 작가가 현장에 있다는 경험의 직접성이 담보해 주는 사실성의 권위에 힘입어 특정 지역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유포하기에 용이하(7), 신문 사설과 칼럼 및 잡지의 분석 기사는 특별한 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에 공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추이를 추출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들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식민 이후 냉전 질서의 성립 과정에서 남한 사회가 동일시한 타자와 상대화한 타자의 상을 재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타자의 상과 더불어 구성해 낸 자아상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성격상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이 글은 타자의 초상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자화상을 구체화한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7) David Spurr, *The rhetorics of empire*, Duke Univ. Press, 1993, p.9.

2. 친연성과 타자성의 공존

1948년 3월, '유엔 조선위원단 전국 환영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中·印 대표 환영 석상'에서 이현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오늘 이 자리는 실로 3천년 내지 4천년에 가까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지리적으로는 도저히 친근해질 수 없는 공간을 가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과 조선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영향되고 서로 교류되어 세계에 자랑할 거창한 인류 문화를 형성 발전시킨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신적으로 같은 혈통을 가진 친선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 (중략) ... 동양의 정신적 지주일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2대 원천이 되는 유불 2대 사상의 발상지인 인도 중국을 대표한 두 분 다 그 2대 사상의 영향과 섭취에서 스스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 발전시킨 조선의 예술 방면을 대표한 자와의 마음과 마음과의 무형한 친근과 정신적 접촉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금할 수 없습니다.⁸⁾

남한 단독 선거를 위해 입국한 UN 중·인 대표들에게 이현구가 강조하는 것은 인도-중국-조선의 정신적·문화적 친연성이다. 역사적·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선을 연결해 주는 것은 유·불의 사상, 그리고 그 사상과 연관된 문화와 예술로 나타난다. 고구려의 사적과 신라의 유물, 금강산의 아름다움 등 조선의 독자성을 언급하면서도 이현구는 양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가 “무형한 친근과 정신적 접촉의 자리”임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물론 그의 강조점은 오랜 과거의 친연성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당대의 시점(時點·視點)에서 과거를 소환한다. 그의 연설 속에서 인도와 중국은, “약소민족이요 식민 인간”이었지만 “과거의 심조한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명예와 긍지와 책무를 다하러” 했던 조선과 동일한 경험을 지닌 나라로 연표되고 있거니와, 과거 경험의 유사성은 곧 “과거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사 위에 다시 또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그날로 계승”될 것이라는 기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현구의 연설에서 인도-중국-조선의 연결 관계는 “찬란한 미래”가 견인하는 전망 속에서 의미를 얻고 있는데,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기반해 과거를 정형화하여 불러 온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무형(無形)’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⁹⁾

8) 이현구, 「UN 양대표에게—중인 대표 환영석상 연설초」, 『해동공론』, 1948. 3~4월호, 9쪽. (이하 인용하는 자료는 현재의 어문 규정에 맞추어 표기함.)

9) 이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담론에서 중국은 타자화되는데, 이때 중국은 아시아의 퇴보를 가져 온 주범으로 부각된다.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

비록 이현구의 연설이 '환영 석상'에나 어울리는 텅 빈 '축사'이기는 하지만, 그의 연설 속에는 인도에 대해 당대 지식인들이 취했던 태도의 중요한 일면이 들어 있다. 1947년 5월 인도에서 열린 '세계 미곡 소비국 회의'에 미국측 고문으로 참석한 현근¹⁰⁾은 3년 후 한 잡지에 인도 여행기를 게재한다. 먼저 인도의 기후와 생활 풍습을 서술한 그는 인도의 건물과 생활양식에 대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문화의 연원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요 또 하나 박물관의 진열품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던 몇 가지의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인도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화가 지나로 흘러가서 완성을 얻어가지고 다시 유입된 것이 분명”¹¹⁾하다고 '특기'하고 있다. 이현구와 마찬가지로 현근에게서도 인도-중국-조선의 연결 관계는 과거의 문화와 관련되어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과거의 문화는 “박물관의 진열품”으로도 언표되고 있듯 근대적 의식이 부여한 문화적·정신적 가치로 표상되며, 이러한 표상화 과정에서 조선은 추상화된 전체상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그들은 고래로부터 내려 온 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체화된 인도와 전체화된 조선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연결지었던 셈이다.

물론 오랜 문화와 불교 등의 정신적 측면에 기반하여 인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이 시기만의 특징은 아니다. 정신의 나라, 신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는 영 제국이 인도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인도 인식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인도의 과거 문화를 찬양하고 그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식민지 시기 조선 지식인들에게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도 표상 방식이었다. 이옥순에 따르면 그들은 식민지라는 조선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 인도에 식민지 조선의 상을 투영하고 인도를 과거의 시간으로 돌림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현재 상태를 망각하려 했던 것이다.¹²⁾ 하지만 해방 이후 인도에 부여된 정신적·문화적 가치는 이전 시기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정신적 인도에 대한 경도가 과거를 향한 것이었다면, 해방 이후 인도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현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미래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독립 인도가 찬란한 과거의 문화를 회복하리라는 기대는 곧 인도의 문

성의 위상학』, 『상허학보』 20집, 2007.6., 336쪽 참조.

10) 당시 군정청 농무부 농산국장으로서 재직하던 현근은 미곡 회의 참석 후 인도에서 돌아와 그 해 7월 『신천지』에 「인도인상기」라는 여행기를 발표하고, 3년이 지난 1950년 1월 『민성』에 역시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여인잡기」라는 인도 여행기를 게재한다. 현근이 처음 인도 여행기를 발표한 『신천지』 1947년 7월호는 1947년 8월 인도가 분할 독립을 앞두고 있을 때 『신천지』가 '인도 특집'을 기획한 호였으며, 『민성』 1950년 1월호는 1949년 10월 중공이 수립되고 내루가 미국을 방문하여 트루먼 대통령과 회담한 후 중공을 승인하는 등 인도의 국제 정치적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던 때에 맞춰 『민성』이 '인도 특집'을 기획했던 호였다. 인도의 동향과 깊은 연관을 지니는 이 두 번의 특집은 당시 남한의 담론 생산 공간에 내재해 있던 인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1) 현근, 「여인잡기」, 『민성』, 1950.1., 57쪽.

12) 이옥순, 앞의 책, 185쪽.

화와 친연성을 맺고 있는 해방된 조선의 문화적 회복에 대한 바람과 연동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47년 3월 인도에서 열린 범아세아 대회에 참석한 고향경이 간디의 집을 찾아갔을 때를 기록하면서 표시하는 친근감은 당대 지식인들이 인도에 대해 지녔던 친근감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 “꼭 조선 초가집 같은” 곳에 신을 벗고 들어선 간디의 방에서 “더욱 다정스럽고 친근미”를 느낀 그는 간디를 중심으로 4-5명이 둘러앉은 광경을 보며 “꼭 조선 사랑에서 바둑 두려고 둘러앉은 노인네들”을 떠올리고, 자신의 나이를 묻는 간디에게 “꼭 조선 할아버지 같은 친근미”를 느낀다.¹³⁾ 비록 간디와의 대면은 처음이지만 그는 간디의 ‘무폭력 저항주의’를 주제로 논문을 썼을 때를 생각하며 “정신적 세계에 있어서는 구면인 듯 싶”은 간디를 보면서 “조선 사람의 기막힌 심정과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친구도 간디밖에 없겠다는 친근미를 느꼈던” 일본 유학 시절을 회상한다. “인도의 혼이요 아세아의 빛이요 이 세계의 위인”¹⁴⁾으로 표상되는 간디와의 친근미가 의미하는 것은 필자 자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내세우는 ‘조선’의 위치 이동의 가능성이다. “조선 할아버지” 같은 간디와의 정신적·문화적 친연성이 강조됨으로써 필자와 ‘조선’은 약소민족 해방 투쟁의 상징이었던 간다-인도와 겹쳐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방기 남한의 지식인들이 표방했던 인도와의 친연성은 탈식민 투쟁의 선봉으로 표상되었던 인도와의 동일시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해방을 연합군의 ‘선물’로만 받아야 했던 당대 지식인들에게 때로는 영 제국과 협상을 벌이고 때로는 제국에 항거하는 직접 행동을 불사하며 독립을 쟁취했던 인도는 자신의 상을 대치할 수 있는 유효한 대상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 기반하여 인도를 타자화하려는 태도 또한 온존했다. 인도를 둘러보고 쓴 당대 여행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인도의 이미지는 가난과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이미지다. 고향경과 함께 범아세아 대회에 참석한 하경덕의 시선에 따르면 인도의 “노동자들은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영양부족”¹⁵⁾이다. “실로 놀랄 만큼 가늘고 혈색이 좋지 못”한 다리를 가진 그들은 노동 능률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나 하인으로 일하면서 호텔에 들어서면 “팁을 달라고 박시(팁이라는 인도어)하고 달려”드는 ‘걸인군’을 이룬다. 범아세아 대회에 참석한 일행은 ‘박시’라는 말이 혹시 ‘博施’¹⁶⁾가 아니냐며 웃기

13) 고향경, 『인도기행』, 을유문화사, 1949, 141쪽.

14) 고향경, 위의 책, 126쪽.

15) 하경덕, 「인도에 다녀와서」, 『신천지』 1947.7., 10쪽.

16) 1947년 범아세아 대회에 참가했던 조선인 대표는 교육계 대표로 당시 연희전문 교장이던 백낙준, 언론계 대표로 당시 서울신문사 사장이었던 하경덕, 그리고 당시에 군정청 부녀국장으로 있던 고향경 세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애초에는 정계 대표로 여운형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그는 3월 16일 출발 당일에 불참하였다고 한다. 「해방운동에 기대-범아세아 회의에 四氏 참가」, 『조선일보』, 1947.3.13., 2면. 「독립 포부 안고 범아

까지 하는데, 이들의 웃음을 통해 인도 노동자들은 조선인 엘리트들에게 시혜를 요구하는 가난하고 소란스런 사람들로 표상된다. 간디와의 친근함을 표현했던 고헤경 또한 “인도 사람의 얼굴은 열대지방에서 그슬리어서 그런지 검은 편이므로 못 먹어서 창백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마는 다리가 몹시 가는 것을 보고 영양부족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¹⁷⁾고 기록하고 있다. 간디의 “쇠약한 몸에서는 너무나 의외의 씩씩한 음성”(125쪽)을 듣는 그는 역시 쇠약한 육체를 가진 인도 사람들에게서는 ‘영양부족’을 읽어낸다. ‘쇠약한 몸’이라는 동일한 기호에 대한 의미 해독의 격차는 곧 당대 지식인들이 인도에 대해 품었던 이중적 인식의 격차라 할 만한 것이다. 1948년 12월 12일 인도의 세이른에서 열린 ‘아세아 기독교 학생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김형도가 인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광경은 “너른 마당에 많은 사람이 무질서하게 누워 있는 것”¹⁸⁾이었다. “그 사람들의 몸둥이는 허리만을 조금 가리우고 그냥 벗은 몸인데 살이라고는 없고 뼈에 그냥 가죽을 씌워 놓은상 싶었다”고 서술하는 그에게 인도인들은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 사람 같지도 않은 육체의 무리”로 표상된다. 살아있지만 살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인도인은 무엇보다도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기술된다. 세계 일주 과정에서 잠시 켈커타에 머문 안동원은 1947년 여름 켈커타에서 “매일 아사자가 8천 명씩 있어서 아무데나 너더분히 넘어져 있는 시체들을 미처 실어내지 못해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였다고 누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그런 징그러운 광경이 방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는 기분 속에서 혹시 앞에서 “우물거리는 사람이 방금 죽어 넘어지지나 아니하나 겁”¹⁹⁾이 났다고 기술한다. 이처럼 당시 인도를 여행한 한국인들에게 인도인들은 시혜의 대상인 동시에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표상되었는데, 이러한 표상은 이전 시기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당시 남한에 소개되었던 외국인(주로 미국인)들의 인도 인상과도 다른 것이 아니었다.²⁰⁾

세아회의의 우리 대표 출발, 『조선일보』, 1947.3.18., 2면.

17) 고헤경, 앞의 책, 102쪽.

18) 김형도, 「인도기행」, 『기독교가정』, 1949.4., 17쪽.

19) 안동원, 『세계일주기-봉정십만리』, 태극서관, 1949, 33~34쪽.

20) 이를테면 종교 간 갈등과 대립을 ‘인도의 비극’을 배태한 원인으로 보는 한 기사는 미국인의 수기를 빌어 “식량을 얻기 위한 인도인들의 노력은 처참하고 가두에 쓰러진 노인의 얼굴은 해골과 같았다”고 전하면서 “개떼는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인간과 경쟁하던 끝에 사람의 시체라도 맛닥뜨리면 한사코 달려든다” 것, 그리고 “미 군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보면 굶주린 군중은 가마귀 떼처럼 운집하므로 전쟁에서 사선을 넘고 온 군인들의 강한 마음으로도 보기에 애처로운 정을 금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김약망, 「인도의 비극」, 『가톨릭 청년』, 1947.7., 36쪽.) 『민성』에 번역 게재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에서도 인도는 ‘만성적 기아’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땅, 그리고 질병과 불건강,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규정되고 있다. 「자유와 기아의 신생 인도」, 『민성』, 1949.8.

물론 길거리에 누워 있는 인도인 혹은 앙상한 체구로 구걸하러 달려드는 인도인들을 보며 가난과 영양부족을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눈앞에서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에 개입하는 해석의 시각에서 이들 여행자들이 오리엔탈리즘과 공모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가난과 영양부족을 비위생, 게으름으로 확장하고 이를 인도인의 특성으로 자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모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도인들의 생활 습관은 ‘가관’²¹⁾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족의 모습은 식탁에서 ‘구역질’²²⁾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더욱이 “양복을 입고 걸에는 흰 위생복까지 걸”친 상태로 나족을 하고 다니는 것은 “격에 맞지 않”²³⁾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 맨발로 생활하는 인도인들은 ‘양복’과 ‘위생복’이 내포하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규정된다.

이처럼 인도인들이 그들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문명에서 멀어지면서 그들은 여전히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식된다. 세계를 일주하면서 인도에 도착한 모운숙은 “미국과 서구를 거쳐 인도 서남의 독립 국가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모든 것이 일변한 것”을 보며 “그것은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그대로의 인도의 모습”이었다고 기술한다. “미국과 서구”에 대비되는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인도는 소수의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사람들(모운숙의 글에서는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보수적이고 게”으른 인도이다. 주목할 점은 인도인들의 게으름을 기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사철을 두고 푸른 야자수와 아름다운 꽃과 중요한 열매를 갖는 열대나라 인도에는 옷이 없어도 그들을 위협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동작을 싫어하고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생활이 나무그늘 꽃그늘에서 거둬할 수 있는 원인인지도 모르지요.²⁴⁾

인도의 더운 기후는 풍요로운 자연을 선사했지만 그로 인해 인도인들은 “동작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판단은 고향경에게서도 나타난다. “아무리 활동적인 사람이라도 기후가 그만큼 덥다면 별 수 없이 그늘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게으르다는 것보다는 오히

21) 현근, 「여인잡기」, 앞의 책, 57쪽.

22) 안동원, 앞의 책, 34쪽.

23) 민재호, 『런던 올림픽 기행』, 수로사, 1948, 56~57쪽.

24) 모운숙, 「인도의 여성 문제」, 『조선일보』, 1949.2.10., 2면.

러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무한한 동정²⁵⁾을 보낸다. 하지만 그가 보여 주는 ‘동정’의 시선은 인도인들에게서 “원시 그대로의 생활”²⁶⁾을 읽어 내는 ‘상대적 문명인’의 시선과 다른 시선이 아니며, 더운 기후에 따라 생활하는 인도인들을 “늦잠꾸러기”, “잠자는 인도인”²⁷⁾으로 표상하는 시선과 다를 바 없는 시선이다. 이러한 시선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자신의 사진 옆에 ‘인도 산지에 사는 본토인’이라는 제목으로 반라와 나족의 인도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그들을 비문명의 전형으로 ‘박제화’하려는 시선과 동일한 시선이다. 기후와 풍토에 따라 게으름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물리적 조건에 따라 천성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이 되며, 따라서 발전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빠른 걸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구걸하는 인도인들을 피해 달아나는 조선인 여행자를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뒤쳐진 자들로 남게 된다. 이리하여 자연적으로 후진성을 떨 수밖에 없는 인도인들은 “하루 종일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만 하다가는 낮잠을 자”는 “몸이 몹시 파리하고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두 눈이 어우ற하게 초점을 잃고 허공을 더듬는” “딱한 사람들”²⁸⁾로 인가된다.

이와 같은 인도인들을 향한 타자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식민지 시기 인도 인식의 한 축과 맞닿은 오리엔탈리즘과의 공모 속에서, 남한은 같은 해방 민족 가운데서도 보다 문명의 습속이 든 해방 민족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친연성을, 현재의 문명화 단계에서는 타자성을 찾아내려는 것이 당대 인도 인식의 한 특징이었다.²⁹⁾ 약소민족 독립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도와 동일화하려는 작업, 그리고 그러한 인도를 문명화되지 못한 곳으로 타자화하는 이중 작업을 통해 탈식민 대한민국은 자화상의 일부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3. 아시아의 인도와 대한민국의 인도

인도에 대한 인식을 이중적으로 구조화해 가기는 하지만 해방 직후 남한의 담론계는 식민지의 상징이었던 인도의 민족 운동과 독립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했다. 식민지 시기부터 인도

25) 고헤경, 앞의 책, 103쪽.

26) 현근, 앞의 글, 56쪽.

27) 김형도, 앞의 글, 18쪽.

28) 민재호, 앞의 책, 57쪽.

29) 이를 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면 이 이중적 시각은 현재의 문명화 단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조선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시각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독립 투쟁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종전의 결과 실제 독립의 길에 오른 국가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인도의 독립은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신문 지상에는 인도의 독립 문제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정책과 인도인들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들 기사에서 세계적 위인인 간디의 나라이자 서구 제국주의 최초의 희생자였던 인도의 독립은 곧 세계사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테면 “구라과 민족의 동진 정책 출발점이 인도 민족의 착취와 강압에서 시작되었으니만치 3백 수십 년간의 인도 민족의 피와 노력은 유구하였고 피압박 민족 해방 운동의 생명과 원동력을 배양시켰”으며, “이러한 피와 노력은 부단히 역사의 바퀴를 재촉했고 인류의 정의를 위하여 성스러운 권위를 가졌었”던 바, “인도 민족의 해방은 약소민족의 해방인 동시에 아세아 민족의 해방을 의미”³⁰⁾한다는 인식은 당대 남한의 담론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도의 민족 운동과 독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아울러 인도의 독립 운동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해방 후 건국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근은 한 책자에서 “건국 도상의 조선 민족이 세계 약소민족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만큼 세계 약소민족의 동향은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끌여 마지않는”다는 문제의식하에 “세계 약소민족에 관한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민족문제총서’를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총서의 제1권이 바로 인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니와, 이선근은 여기에서 “독립이 약속된 최근의 인도 국민운동은 어느 모로나 우리에게 참고될 바가 크다고 믿”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³¹⁾

이처럼 인도의 독립 운동과 독립 문제를 ‘약소민족의 해방’과 관련된 사안으로 취급하는 사유는 전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들이 새롭게 수립할 신생 독립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그러한 관심은 당대 조선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도 문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영제국의 문제로부터 전 세계적 문제로 발전된 것”임을 지적하는 1946년의 한 사설³²⁾은 인도의 “독립 문제에 대하여 각 파와의 타협이 성립되어 불원간 정부 조직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인도 국민을 위해서 경하할 일일뿐 아니라 전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 호례(好例)를 보여 주는 일로 오인은 쌍수를 들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는 바”라고 언급한 후,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반성할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인도의 식민지 경험이 대내적 갈등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지적하는 이 사설은 자기 안에서 “분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30) 「(사설) 인도독립과 세계평화」, 『동아일보』, 1946.5.24., 1면.

31) 최홍국, 『인도의 국민운동』, 민족문제총서 제1집, 민족문제연구소, 민우사, 1946, 서언.

32) 「(사설) 인도의 거울」, 『조선일보』, 1946.6.21., 1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는 온갖 소이(小異)”를 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충실히 인도 국민이 대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울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글은 끝맺고 있다. 같은 약소민족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가 분열을 극복하면서 통일 정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관찰하는 시선은 곧 ‘우리’를 되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걸음 일찍 독립 정부 수립으로 다가가는 인도는 좌우 갈등으로 대립하면서 정부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의 조선을 비추는 일종의 “거울”이었다.

조선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인도라는 인식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인도 여행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미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타자의 인식과 표상에 연루된 담론 편성에서 여행기와 체류기가 갖는 특별한 지위가 논구된 바 있지만, 해방 후 남한의 여행자들에게 인도는 탈식민과 국가 건설 그리고 냉전 질서로의 편입 과정과 연계된 동일화와 차이화가 중첩된 공간이었다. 인도라는 “거울”에 비친 상을 통해 조선의 여행자들은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려 나갈 수 있었다. 예컨대 인도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김형도는 “혈벗은 조국 강산을 굽어 보며” 서글픈 마음을 안은 채 “이제 온 아세아의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한국을 자랑하려면 무엇을 들어 말할”³³⁾지 탄식한다. 비행기의 높은 고도는 ‘조국 강산’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조망의 시선을 물리적으로 가능케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는 대회에 참석할 조선인 대표는 이 조망의 시선을 통해 대회에서 만나게 될 각국과 대비되는 전체화된 ‘조국’을 심리적으로 구성한다. 뉴델리에서 여러 계급의 인도인들을 만나는 하경덕은 그들 각 계급의 인도인들을 조선인과 대비하여 인식하는데, 이때 그의 인식 속에서 조선인들은—계급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인도인들과는 달리—계급이 지워진 채로 전체화된다. 이처럼 전체화된 ‘조국’과 ‘조선인’이라는 상상적 동일체야말로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리게 할 수 있는 기초 재료였다. 특히 아직 정부를 수립하기 전인 1948년 이전에 이루어진 해외여행은 조선이 아직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독립 국가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다. 현근이 세계 미곡 대회에 미군 측 고문으로 참석했던 이유는 “우리 조선은 아직 독립 국가가 아니”³⁴⁾었기 때문이었거니와, 1947년 범아세아 대회에 참석했던 조선인 대표 일행 역시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독립 정부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실감해야 했다.

물론 인도만이 조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국 강산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선은 미국행 비행기에서도 여전히 획득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체화된 조선인과 대비되

33) 김형도, 앞의 글, 4쪽.

34) 「세계미곡소비국 회의에 미측 고문으로 현근씨 참가」, 『동아일보』 1947.5.1., 2면.

는 타자들은 홍콩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선 짙어 들 점은 인도의 경우 지리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시 조선인 여행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항로를 세밀하게 추적해 보아야 하겠지만, 조선인 여행자들은 인도로 가기 위해 아시아 각국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범아세아 대회 대표자들은 뉴델리로 가기 위해 동경과 상해, 홍콩 등을 거쳐야 했고 김형도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야 했다. 인도로의 이동 경로는 말 그대로 전후 아시아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궤적이었던 셈인데³⁵⁾,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초래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을 직접 실감하는 기회일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을 거치는 과정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시아 약소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민족 운동과 독립 국가 건설 상황 등을 보고들을 수 있는 산체험의 과정이었다.³⁶⁾ 인도는 이동 경로에서부터 당대 조선인들에게는 특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당시 인도 여행기를 남긴 조선인들은 주로 국제 대회 참석을 위해 인도를 찾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남한에서 인도가 국제 대회를 매개로 담론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 대회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한 대회라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인도가—적어도 아시아 각국의 국제 대회 장소였다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라도—당시 대한민국의 아시아 인식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³⁷⁾

35) 당시 미국은 동경만 거치면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유럽은 아시아를 거쳐 가는 길과 미국을 거쳐 가는 길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시아 각국을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인도와는 이동의 의미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운숙의 경우처럼 서구를 거쳐 인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는 세계 여행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경로이고 인도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목적지에 비해 많은 수의 아시아 국가를 거쳐야만 했다.

36)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히고 있듯 영국인들에게 ‘인도로 가는 길’은 대영제국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길이었던 반면 프랑스 인들에게 ‘인도로 가는 길’은 심각한 상실감을 맛보아야 하는 길이었다.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흥규 옮김, 교보문고, 2004, 303~304쪽 참조.) 해방 후 조선인들에게 ‘인도로 가는 길’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 길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아시아 약소민족들을 만나며 식민주의에 희생당했던 약소민족 조선을 생각하는 길이였음과 동시에 ‘대동아공영’을 위한 ‘성전’을 수행했던 과거 ‘남방’ 지역에 대한 가해자 조선을 만나야 했던 길은 아니었을까? 혹은 이렇듯 상충된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며 자기 인식의 구조를 어떻게든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야 했던 길은 아니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일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제국주의 시기 유럽인들의 ‘인도로 가는 길’의 의미와는 다른 탈식민 시기 조선인들의 ‘인도로 가는 길’에 내재한 정신사적 측면은 탐구해 볼 만한 과제이다.

37) 전후 아시아의 재인식 문제는 깊은 숙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다만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제 대회를 매개로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구성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상상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아시아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고흥정은 범아세아 대회에 참석하여 매일 밤 열리는 각국 주최 행사를 통해 비로소 그 국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네팔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는 그는 ‘범아세아 대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비로소 아시아의 범주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범아세아 대회라는 것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먼저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해 특정 국가가 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 호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범’이라는 기표를 통해 전체로서의 아시아라는 상의 확정을 시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때 인도는 추후 구성되는 아시아를 모집하는 아시아 통합의 중심축이라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도는 분열된 조선의 현실과 통일된 독립 정부 수립 과정에 중요한 참조점을 주는 나라로 파악되었다. 1947년 인도의 분할 독립 전후 시기의 인도 관련 글에서는 인도의 분열상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정부, 네루가 주도하는 국민회의파, 진나가 이끄는 회교도파의 회담 내용과 각 파의 반응들은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급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은 두 개의 인도에 대한 염려를 집약적으로 드러내 주는 담론소로 등장한다. 특히 종교적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인도의 상황은 한국의 좌우익 갈등과 비교되어 “색다른 38선”³⁸⁾이 놓인 것으로 표상됨으로써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한반도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분열의 원인과 그 파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명운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를테면 인도 독립안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원탁회의의 결렬에 초점을 맞춘 1946년의 한 사설은 “인도 민족 내부 불통일의 비극이 것처럼 그 해방의 전도를 아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심한 관심이 없을 수 없”³⁹⁾음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종교 간 갈등이 영국의 식민 통치에도 이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도의 국민 운동 당시부터 존재했던 “회인 양파의 알력은 인도 민족 노선의 통일을 괴란하여 영국으로 하여금 분할 통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이 사설의 지적은 인도의 종교 갈등이 식민 통치에 이용되었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탈식민을 위해 취해야 할 길을 지시한다. 인도의 경우 ‘분열=식민지’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것인데, 이는 당시의 한 논자에 의해서 “과거 영통치하에서 동면을 계속하였던 시대의 국내 상쟁을 그대로 재현시키”⁴⁰⁾는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인도의 비극”은 그들이 대립·갈등하는 한 종결되지 않은 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회교도 국가 파키스탄의 분할 독립을 주장하는 진나는 “빈약한 광신자”이자 “인도 분열의 사도”⁴¹⁾, “인도의 최근 정계의 암”⁴²⁾으로까지 폄훼되어 묘사되기도 했다. 분열을 ‘동면’의 상태로, 분열의 주동자로 지시되는

이미지로 수렴된다. 아울러 이 대회에 모인 각국 대표를 통해 가해자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대동아’ 이데올로기에 일부 협력했던 과거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해방 후 같은 ‘약소민족’ 대표로부터 듣는다는 경험은 윤리의 문제를 되새기게 만드는데, 이로부터 제국 일본의 아시아 정책을 대신할 새로운 아시아 윤리에 대한 모색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못하였지만, 종전 ‘대동아’의 윤리를 대신하여 모색한 새로운 아시아의 윤리라는 문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38) 김형도, 앞의 글, 19쪽.

39) 「(사설) 민족불통일과 인도의 비극」, 『동아일보』, 1946.5.16., 1면.

40) 김약망, 「인도의 비극」, 『가톨릭 청년』, 1947.7., 38쪽.

41) 우동수, 「인도분열의 사도」, 『중외정보』, 1946.9., 28쪽.

42) 하경덕, 앞의 글, 11쪽.

사람을 ‘암’으로 표상하는 이 유기체적 상상력은 자연히 잠에서 깨어나 힘차게 활동하는 유기체적 존재로서의 내이션, 혹은 병을 극복한 건강한 존재로서의 내이션에 대한 욕구를 내포한다. 이들에게 분열을 극복한 탈식민 내이션은 건강한 육체에 각성된 정신을 지닌 존재로 상상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상상적 형상은 형식적으로는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당대 조선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컸을 터이다. 분열된 조선은 곧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허약한 조선이며, 이에 따라 분열을 극복한 조선이야말로 건강한 조선의 형상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 진정한 독립이 오는 날은 영군이 철퇴하는 날이 아니요 그들의 종교 위에 외부 세력이 강압을 가하려는 순간 인도의 종교가 공동전선을 조성하는 바로 그 날일 것”⁴³⁾이라는 진단은 곧 조선이 가야 할 앞날에 대한 진단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물론 당시 조선의 담론계에서 힌두교와 회교도의 사이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만 파악된 것은 아니다. 1946년 원탁회의가 진행될 무렵 『조선일보』에 3회에 걸쳐 연재된 인도 독립 운동 관련 기사에서 두 종교는 인도의 불통일을 초래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로 표현되면서도 한때 공동전선을 함께 했던 관계로 상기되고 있기도 하다.⁴⁴⁾ 그럼에도 당시 조선의 담론 생산자들에게 비친 인도 내의 종교 문제가 주로 조선 내의 갈등과 등치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조선의 담론 생산자들이 인도의 종교 문제를 조선의 문제와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하경덕의 글에서 그는 인도의 “종교적인 알력은 곧 정치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후 곧이어 “인도의 정치 현상은 우리 조선인으로서도 타산지석으로 가이공옥(可以攻玉)이라는 말과 같이 참고될 점이 불소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두 개의 인도가 곧 두 개의 조선으로 겹쳐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⁴⁵⁾ 1947년 8월 분할 독립에 이어

43) 김약망, 앞의 글, 39쪽.

44) 「인도의 독립(下)—빙탄불상용의 양과 공동전선으로 향전」, 『조선일보』, 1946.7.8., 1면.

45) 현근 또한 1947년의 여행기에서 인도는 “독특의 종교 의전과 극도의 봉건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금일에 이루어져도 아직껏 엄격한 계급이 수다하며 따라서 그 간의 문화와 생활 정도가 극심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후, “한 가지 깊은 인상은 엄격한 종교의 의전과 종교 간의 극렬한 투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서 보고 들었던 종교 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일화의 형식으로 삼입함으로써 자신의 관찰에 사실성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해 “인도인은 종파에 너무도 구니(拘泥)함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일대 지장이 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고백한다. 물론 그는 뒤이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인도의 장래가 전도양양함을 병기하고 있지만 그가 제시하는 발전의 원동력은 “최근에 부흥되는 기독교의 위력과 지도자의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이는 종래 인도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와 독립 운동에 이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애국정신이라는 점에서 힌두-회교 간 갈등의 극복을 전제하는 것이다. (현근, 「인도에 다녀와서」, 『신천지』, 1947.7., 48~49쪽.) 한편 인도의 전통 종교를 전근대적으로 보고 기독교를 발전과 연관된 종교로 보는 이와 같은 관점은 인도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시각이 종교의 측면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의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한다.

곧바로 일어난 제1차 카슈미르 분쟁⁴⁶⁾을 두고 “종교적 편견은 국도를 양단하는 것쯤 문제가 아닌 결과를 빚어놓고 있다”⁴⁷⁾는 1948년의 평가의 기저에 조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분열이 전쟁으로 이어진 인도의 상황은 남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선 1948년의 조선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인도 분할과 조선 분단에 대한 비교 인식은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당시 자료들은 대개 인도 내의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의 상황을 되돌아볼 것을 주문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데, 이는 인도 내 갈등의 역사적 연원과 조선 내 갈등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당대인들 역시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전자는 종교적인 문제인 반면 후자는 이념과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본질적 상이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치환하여 인도의 분할 속에서 조선을 인식하려 했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탁치 문제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조선 문제의 UN 총회 상정 등에 따라 점점 한반도 내 갈등이 심화되고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당대 조선인들은 인도 분할이 가져 온 결과를 목도함으로써 한반도의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인도의 분할은 냉전 구조와는 관계없는 것이었으나 남한의 지식인들은 분할된 인도를 담론 공간으로 불러옴으로써 냉전 질서를 한층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탈식민 해방 민족의 대표적 초상이었던 인도는 이렇게 냉전 체제가 수립되고 경화(硬化)되는 과정에서 분단된 한반도가 그리는 자화상의 일부로 기능했다.⁴⁸⁾

46) 인도 독립 당시 토후국들의 처리 과정에서 카슈미르는 힌두교도였던 번왕에 의해 인도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카슈미르 지역민들의 주된 종교는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였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처리 문제를 두고 1947년 10월 22일 이 지역에 무장 세력을 침투시켰고 이것이 확대되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개시되었다. 카슈미르를 사이에 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은구, 「카슈미르 문제의 발단과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국제지역연구』, 제6권 4호, 2003.1.

47) 정광현, 「독립제2년의 인도-카슈미르-파키스탄-하이델바드는 어디로?」, 『개벽』, 1948.12., 50쪽.

48) 분단 문제와는 다른 방면에서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인도가 제기하는 문제 또한 있었다. 이를테면 인도 독립 당시 문제가 되었던 560여 개의 토후국 처리와 관련하여 당대의 논자들은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봉건적인 정치 제도를 청산하고 통일된 정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조인환, 「인도의 비경 번왕국」, 『신천지』, 1947.7.) 고향경은 인도가 새롭게 정부를 수립하면서 미군이 쓰던 건물을 ‘헌법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헌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고향경, 앞의 책, 111쪽.) 한편 모윤숙은 팽창하는 인도의 인구를 언급하면서 적절한 인구 관리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모윤숙, 앞의 글 참조.) 이는 역시 인도의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우려하면서 우리나라를 가장 행복스럽게 할 인구를 계획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고향경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고향경, 앞의 책, 103쪽.)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인도와의 관련하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겠으나, 인도를 여행하며 직접 인도의 실상을 관찰하던 중 이와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만은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당대 한국인들이 새로운 독립 국가를 여행하면서 갖게 되는 관심이 곧 신생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냉전의 경화(硬化)와 인도 인식의 전환

한편 당시 인도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되어 갔다. 미·소를 중심으로 세계가 양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인도는 비동맹 중립주의⁴⁹⁾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양대 강국 사이에서 중요한 현안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다.⁵⁰⁾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와 네루 정부가 UN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48년 UN 총회에 특사로 파견된 조병옥의 기록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삽화가 남아 있다. 그는 네루가 파리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 각국의 많은 대표들이 감명을 받았음을 언급한 후 당시 정사(正使)였던 장면과 함께 네루를 방문하여 회견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장면은 당시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던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네루에게 “인도의 동정과 기대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조병옥은 이때가 인도의 일표를 얻느냐 잃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기술하면서, 한국 단정 수립을 반대하던 네루에게 인도-파키스탄의 예를 들며 “동정”을 요구한 결과 인도 대표단에게 동정 투표를 하라는 네루의 지령을 받아 내었다고 서술한다.⁵¹⁾ 한국 문제와 관련한 인도의 영향력을 실감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 인도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에 관계하면서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에게는 일종의 ‘구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인도가 중공을 승인하자 인도는 이전과는 다른 지평에서 이해되고 인식되기 시작한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단지 일국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거의 하룻밤 사이에 공산 세계의 외연이 두 배가 되어 버린

49) 인도가 표방한 비동맹(non-alignment)은 흔히 중립주의(neutralism)로 불리는 국제법상의 전통적 중립과는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중립은 교전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전통적 중립주의는 국제 전쟁이나 분쟁을 회피함으로써 중립을 유지하려는 소극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동맹 중립주의는 전후 전통적 의미의 전쟁이 아닌 냉전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비교전적(非交戰的)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블록으로의 가담을 거부함으로써 대외적 자주성과 국가 이익 보호라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이념적 면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서재만, 「비동맹의 개념과 현실국면의 사적 전개」, 『제3세계의 이해』, 변형운 외, 형성사, 1979, 36쪽.

50) 메논에 따르면 인도 비동맹 운동은 인도 독립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네루가 외교 문제를 주도하면서 인도의 지도층은 비동맹 정책을 추종하였다고 하는데, 실상 인도가 처한 갖가지 상황은 인도가 비동맹 노선을 따르도록 이끌었다. 인도 비동맹 운동의 기원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전후 양극화하는 세계 체제와 남아시아라는 지역적 하위 체제, 중국-파키스탄-미국-소련과의 양자 관계하에서 인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외교 노선이 비동맹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인도가 양대 진영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가 곧 비동맹이었다고 평가한다. 인도 비동맹 운동의 대내외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경수, 『인도와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2006, 29~78쪽 참조.

51) 조병옥, 『특사 유·엔 기행』, 덕흥서림, 1949, 65~68쪽 참조.

것”⁵²⁾을 의미했다. 때맞추어 미국을 방문하여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네루의 동향은 국내 신문에 서도 연일 기사화되었다. 네루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작성되는 기사들은 양대 진영으로 재편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에서 네루의 인도를 바라보는 신생 대한민국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확실히 이 시기부터 인도는 이전과는 달리 양대 진영의 세력 관계,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예컨대 양 블록이 각각의 내부에 혼란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는 당대의 한 논자는 3차 대전의 방지를 위해 제3세력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 인도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여기서 인도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는데 그 중요성의 비교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은 중국이다. “인도는 중국 다음 가는 거대한 나라일 뿐 아니라 “최근 중국에 있어서의 국민당 지배의 붕괴는 상대적으로 ‘인디아’의 국제적 지위를 일층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⁵³⁾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원조가 실패로 귀착되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딜레마에 빠지게 됨으로써 서구 진영이 느끼는 인도의 전략적 매력은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⁵⁴⁾

인도가 적극적으로 소련 측에 가담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미·영 등 서구 제국과는 과거 식민주의와의 관련으로 거리가 있는 상태라는 인식하에, 인도성은 “아시아의 결속을 도모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지를 위한 정치·경제·문화적 블록 형성”을 열렬히 주창하는 인도의 제3세력 결성 움직임은 “‘인디아’ 자신을 위하여서나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음을 표명한다. 그러나 제3세력 결성 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이 글의 궁극적 시선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아시아 블록 성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에 초점이 닿아 있다. 인도가 주창하는 아시아 블록은 지역적·인종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소 양 진영과는 달리 통일된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시아의 블록화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 글의 논자가 네루의 제3세력화를 필리핀의 퀴리노가 제

52) 존 루이스 개디스, 앞의 책, 104쪽.

53) 신도성, 「동서 냉전과 네루 인도의 동향」, 『민성』, 1949.12., 16쪽.

54) 중국의 공산화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전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세력권에 속했던 한국, 필리핀, 중국 국민당은 대공 안보가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던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냉전 국가의 직접적인 세력권 내에 속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또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소 봉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 11호, 190쪽. 이하 태평양 동맹안에 대한 서술은 이 글을 참조하였음.)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는 동남아시아를 향한 공산 세력의 진출 위협을 알리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중국 다음으로 큰 세력을 지니고 있던 인도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창하는 태평양 동맹안과 대비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주지하듯 태평양 동맹안은 비공산주의적 성격을 띤 지역 연합체였다. 이승만이 제안한 반공주의적 지역 연합체는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워 새로운 아시아 연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네루의 아시아 세력화와 퀴리노의 태평양 동맹안의 대비는 곧 인도의 아시아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대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인도의 아시아 세력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글의 초점이 비공산주의적 아시아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으로 기운 것임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인도의 제3세력화에 대한 기대 혹은 의문과 함께 인도를 ‘민주 진영’으로 편입시키려는 욕망 또한 발산되었던 듯하다. 예컨대 네루의 미국 방문 후 잡지 『민성』이 기획한 ‘인도 특집’에 실린 글은 인도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도를 ‘민주 진영’으로 호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인도 같이 한 나라가 식민 상태에서 열강의 무대에 급속히 대두하여 단기간 동안에 유익한 자리를 점하게 된 선례는 그리 흔치는 못하다”는 것, 그리하여 인도는 “냉전 단계에서 상극하는 미소 양대 세력의 조정자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 또한 “중국이 공산 측에 장악되자 나머지 아주(亞州) 반공 요망 국가들로부터 집단 방위 세력 형성의 대장 역할에 은근히 기대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는 이 글은, 네루가 방미 중에 미국에 밀가루와 기술 원조를 요청했다는 언급을 통해 결국 미국의 “방대한 자본이 물밀듯 인도양의 철바람(계절풍)과 함께 밀려들어 올 것”이며, “이리하여 인도가 반공 동맹에 참가하거나 말거나 인도는 거대한 민주 보루로 성장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⁵⁵⁾ 인도의 의지적 행보와는 상관없이 인도가 “민주 보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태도는 인도를 냉전 질서의 한 진영으로 포섭하려는 담론적 실천 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양극화하는 블록 시스템은 끊임없는 블록 통합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국가 간 시스템으로서 존재한다는 현실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블록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자신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것을 지우는 과정이며, 블록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타자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지우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냉전이 진영 간의 대결로 치닫게 되면서 국가 간 시스템이 보장하는 인도라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은 인도를 특정 블록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담론적 행위는 기술과 자본을 매개로 인도를 민주 진영으로 포섭하려는 냉전 제국주의적 발상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담론적 실천 속에서

55) 여세기, 「독립인도론」, 『민성』, 1950.1.

비동맹 인도를 민주 진영으로 호명하는 냉전 제국의 한 계열로 자처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냉전이 열전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인도의 비동맹 노선이 더욱 의문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점차 인도에 대한 '구애'를 거두어들인다. 네루와 인도의 중립주의적 노선에 대한 비판을 저변에 딛고 있는 홍종인의 다음 서술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공산당원인 대사를 소련과 공산 중국에 보내 두고 휴전협안을 추진시켜 온 인도 대표의 면목도 자못 곤란케 되었다 하겠지만 네루 수상 자신이 그의 이상적인 평화주의보다도 인도 국내의 괴로운 정치 사정에서 중간노선을 벗어나기 힘든 입장도 동정할 만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때때로 비루마니 인도네시아니 기여의 아세아 제국가가 투표할 때마다 기권 아니면 찬성과 반대의 중간에서 몸둘 곳을 곤란해 하는 입장을 발견한다. 수백 년을 두고 압박과 착취로 타민족의 시달림을 받다가 해방 독립도 명색뿐으로 다시 대전쟁에 휩쓸려들기를 경계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약한 자의 설움이라고 할 것이다.⁵⁶⁾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전 협정을 제안하고 중재하는 인도에 대한 비판⁵⁷⁾은 당시 기사와 사설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중재하는 인도의 유희 정책은 '패배주의'로 규정되기도 하였는데, 이때 네루의 "패배주의적 제반 노력은 세계 민주 진영의 동일 보조를 혼란하는 이적행위라는 점"⁵⁸⁾이 강조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인도의 부정성이 변주된 오리엔탈리즘의 형태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네루에게 일언을 드린다'는 이 사설은 "망령에 꿈과 같은 씨의 의견을 신비스러운 인도의 숲속에 봉쇄해 버리기로 만천하에 호소할 방책을 가지고자 할 뿐"이라고 소리 높이고 있다. 여기에서 '신비스러운 인도'라는 연표가 곧 이성을 결락한 인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56) 홍종인, 「약자의 비에 이래서 간절—고민하는 인도의 중간적 노선」, 『조선일보』, 1953.3.17., 1면.

57) 이와 관련하여 1953년 유럽 제국(諸國)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신익희가 기록한 네루와 인도의 인상 역시 관심을 끈다. 그는 "네루는 언제나 엄연히 전 아세아의 영도자로 자처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인구가 많다고 갑죽대고 돌아다니면서 백성은 굶어죽거나 말거나 불관하고 광언망담(狂言妄談)만을 능사로 하는 '네루' 노선생을 나는 좀 불쌍한 것 같이 생각하는 바"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네루의 대중공 외교 정책을 파키스탄과 대비하여 비판하고 인도의 후진성을 논한 후 네루가 "이 미풍에서 깨이는 날까지의 인도의 전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명한다. 네루와 인도에 대해 이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신익희는 뉴델리에 착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델리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공항에서 바로 태국으로 향하는 행로를 취한다. 신익희에게서 인도와 뉴델리는 여행 경로에서조차 사라져 버린 셈이다. (신익희, 『여행기 : 영여황 대관식 참관 급 민주 우방 친선 방문 실기』, 조대동창회, 1954, 131~133쪽 참조.) 앞서 언급한 조병옥과 신익희의 차이, 그리고 조병옥과 홍종인 간의 간극은 비단 각 개인들 사이의 차이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 사이의 차이에는 1948년과 1953년이라는 시간적 격차와 함께 인도에 대한 기대와 유감이라는 심리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 심리적 격차야말로 신생 대한민국이 걸었던 독립-국가 건설-냉전 질서로의 편입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반영하는 자기 초상화 그리기의 심적 기제였으리라.

58) 「(사설) 네루 씨에게 일언을 모함」, 『동아일보』, 1951.1.25., 1면.

간파하기란 어렵지 않다. ‘문명과 야만’, ‘이성과 비이성’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도식은 이때에 이르러 ‘민주와 공산’을 포함하는 표식 체계로 체계 변이를 하고 있거니와, 이는 인도가 주장하는 정의(正義)가 유엔의 정의와 다름을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정의와 비정의’라는 확장된 도식으로도 나타났다.⁵⁹⁾ 포로 교환 협정에서 보인 인도와 인도군의 행보가 도마에 오르면서 인도는 ‘비인도(非人道)’적인 무리들로 표상되기도 했다.⁶⁰⁾

이렇듯 유엔이 내세우는 정의를 보편으로 삼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비인도적인 인도’를 보편과 인도(人道)를 위배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은 보편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인도를 보편적이지도 인도(人道的)적이지도 않은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은 보편적인 가치와 인도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도를 상대화함으로써 보편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한국의 담론 생산자들은 이제는 인도에 보편적인 것—즉 반공주의적 자세—을 강요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보편을 강요하는 입장은 보편으로 포장된 가치를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굴종을 맞보게 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패배주의자의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정의와 인도(人道)는 공산 세력에 맞선다는 이유만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었고, 인도(印度)는 공산 세력과의 화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정의와 비인도로 규정된 것이었으나, 이렇듯 비동맹 인도를 배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민주 진영’ 내에서 ‘우리’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그 범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¹⁾

59) 북한, 중공과의 휴전을 제안한 인도는 공산 세력의 축출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정의’로운 세력으로 지목되었다.

60) 인도가 포로 송환을 담당하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의장국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공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송환위원회와 한국 정부가 갈등을 벌이던 중 중립 지대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에 대한 인도군의 발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인도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층 심화되었다. (『사실』인도군의 비인도성. 반공포로에 대한 발포에 抗함, 『조선일보』, 1953.10.5., 1면.) 한편 당시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휴전 후 한국의 안보 확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유엔군 측에 대한 압박용의 성격을 띤 일방적 반공 포로 석방을 1953년 6월 18일에 일방적으로 단행하여 인도와 연합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경화, 「인도 정착 한국전쟁 중립국 선택 포로의 이야기」, 『인도연구』, 9권 1호, 2004, 3~4쪽 참조.)

61) 이 점에서 전후 미국의 냉전 오리엔탈리즘과 대한민국의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냉전 오리엔탈리즘은 그 특성을 달리한다. 전후 미국의 냉전 오리엔탈리즘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통합을 강조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를 보편적 정치 철학으로 간주하고, 이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종, 종족, 민족,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이끄는 포용력 있는 지도 국가로 스스로를 표상함으로써 전후 냉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관철하고자 했다. 이는 인종적 구별과 문명화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동양을 지배하려 했던 이전 시기 오리엔탈리즘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London), 2003, Introduction 참조.) 반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보편을 자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냉전 제국이 내세우는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따르는 동시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타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보편의 지위로 스스로를 승격시켰다. 이는 문명적 타자를 보며 야만적 타자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던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을 반복하는 것이면서, 또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개입시킴으로써 그 시선을 변주하여 자기화한 것

이처럼 변주된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적 체계의 생성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 진영을 옹호하는 냉전 질서 속에서 문명-이성-정의-인도(人道)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비동맹 인도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자기 정위(定位)화 과정에서 타자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상대적 위치를 두드러지게 하는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셈이다. 인도를 대신하여 반공 대한민국이 '민주 보루'로 자리매김되고 인도가 점점 '자유 진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전쟁이 끝나갈 1953년 무렵에는 공산주의 세력의 적화에 맞서 '인도양을 수호'⁶²⁾해야 한다는 선언적 목소리마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냉전 체제의 경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취한 반공적 자기 정위의 논리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며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과 자기 인식에서 일제가 중추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세계 인식과 자기 인식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만주와 남방이 조선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도 여러 지역들이 한국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인도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 시기 한국 사회의 자기 인식과 세계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상이었다.

해방 후 한국인들은 인도와의 동일화와 차이화를 통해 문명화된 탈식민 해방 민족의 위치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반공 민주 국가로 스스로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 나갈 수 있었다. 인도는 탈식민 독립 투쟁의 선봉으로서의 동일화의 대상이었지만 아직 문명화되지 못했다는 인식 속에서는 차이화의 대상이었다. 인도를 통해 한국인들은 독립을 위해 함께 투쟁한 피식민 민족 주체이자 문명의 위치에 보다 가까운 탈식민 해방 민족이 될 수 있었다. 한편 분할 독립한 인도는 통일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일층 고양시키는 대상이었다. 민족 내의 갈등이 강건한 민족 국가의 성립에 저해가 됨을 보여 줌으로써 인도는 분란을 극복한 완전한 내이션으로서의 조선에 대한 상상을 자극했다. 동시에 인도의 분란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국인들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냉전이 격화될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중국이 공산

이었다.

62) 「(사설) 인도양의 수호」, 『동아일보』, 1953.4.11., 1면.

화되고 냉전이 열전으로 화하면서 인도는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반공 민주 보루’로서 정위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애초 ‘구애의 대상’이었던 비동맹 인도는 전쟁을 거치며 ‘민주 진영’과 유엔을 보편으로 상징하는 담론 전략 속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어 갔고, 비동맹 인도를 보편을 따르지 않는 비인도적 무리로 표상하는 변주된 오리엔탈리즘의 시선 속에서 대한민국은 냉전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냉전 제국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었다. ‘반공 민주 보루’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의 타자화를 통해, 그리고 비공산주의적 세력과의 차이화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 갔던 것이다.

이렇듯 해방 이후 인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곧 신생 대한민국이 그리는 자기 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이 글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주체화 전략을 일반화하여 보여 주지 못한다. 이 글은 단지 이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단초에 해당할 뿐이다. 1945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자기 인식과 아시아 인식, 그리고 세계 인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기 ‘대동아’의 이념과 서구적 근대의 초극이라는 사상, 남방을 향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이 이 시기에 이르러 어떠한 변형과 굴절을 겪으며 연속 혹은 단절되는지 밝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임이 틀림없다. 누누히 이야기되어 왔지만,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며, 타자에 대한 이야기는 곧 자기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와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한다. 이 글은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깊이 수궁하며 고민한 하나의 작은 대답이다.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종호 | 성균관대

1. 귀환과 이동의 그 어디쯤에서

해방기를 특징짓는 다층적인 장면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다.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하여 日滿支를 잇는 경제적 엔블록은 붕괴했으며, 그 영토적 영향권도 상실되었다. 그리고 대동아공영권과 고도국방국가 건설로 압축되는 전시통제경제 속에서 구축되었던 장거리 유통망은 여기저기서 파열구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종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해방이었다. 주지하듯이 종전과 해방, 제국의 해체와 냉전체제의 구축 속에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였다.

“제국의 해체에 따른 인간의 이동을 흔히 ‘귀환’이라 부른다”¹⁾. 그런데 이러한 명명이 해방기 당시의 가장 주도적이고 가시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 이동이나 이주 전체를 포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귀환’(repatriation, 歸還)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간다”는 의미로, 그 최종 기착지는 (무)의식적으로 민족이나 국가로 상정된다²⁾. 이러한 설정에는 민족이라는, 나아가 국민국가라는 선형적인 전제가 자리하고 있다. 해방기의 이동을 귀환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당시 인간의 모든 이동은 국민국가형성으로 수렴되고,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未귀환은 국민국가를 위한 미래적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당시 인구의 이동, 즉 한반도로 이주하는 해외 조선인의 수를 잠시 살펴보자. 1945년 제국 일

1)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살아서 돌아오다』, 이길진 옮김, 숲, 2005, 「해설」 1쪽.

2) 영어의 그 자체로는 “return to one's own country”, 즉 “re-(back) + patria(native land)”가 된다.

본 붕괴 당시 '해외 조선인'의 수는 대략 5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인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한반도로 이주한 자는 300만 명 정도로, 일본에서 대략 140만 명, 만주에서 100만 명, 중국대륙에서 10만여 명, 기타 10만여 명이 각각 한반도로 이주했다.³⁾ 가장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한 일본과 만주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면, 약 60만여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았고⁴⁾, 만주에서는 130만여 명이 현지에 남았다⁵⁾. 전체적으로 해외 거류 조선인의 약 60%가 한반도로 이주(귀환)했으며, 나머지 40%는 여전히 일본과 만주 등지에 남아 있거나 그 지역 내에서 이주를 행하였다. 여기에서 이동의 모든 유형을 '귀환'이라는 개념들로 환원하게 되면, 200만에 가까운 인구는 '미귀환'이라는 의미, 귀환의 미달태(여전히 귀환해야하는 존재들)라는 위치로 규정된다. 즉 이들 200만 명의 운명은 잠정적으로 오늘날까지 '귀환'이라는 민족적 혹은 국가적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실적인 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그들은 민족과 국가로 계속해서 소환된다. 예컨대 '재일조선인' 문제나 '재중조선족'의 문제, 혹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발생한 북송사업⁶⁾ 등은 민족국가의 문제로 귀착되어 그 안에 포섭되지 않는 문제들은 폐기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방기의 대규모 이동을 한국, 북한, 일본 등 각각의 '민족국가로의 귀환'이라는 문제로 설정하게 되는 것은, '탈식민'이라는 과정을 '국민국가건설'과 동일시 혹은 필연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귀환이란 식민지시기 이주강제연행의 결과이자 탈식민기 민족의 재통합

3) 장석홍,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2003년 여름호 제25집, 10~11쪽.

4) 현규환, 『韓國流移民史 下』, 삼화인쇄출판부, 1976, 598쪽 〈표 2〉에 따르면, "1945년 3월 현재 在日韓國人 2,400,000 명(추정치)"에서 "1948년 11월 현재 在日韓國人 611,58# 명"으로 변화한다.

5) 손춘일, 「해방직후 재만조선인의 한반도 귀환」, 『해방직후 인구이동과 서울의 도시문제』, 제9회 서울郷土史學術大會 자료집, 2002년 11월 15일, 1쪽 참조.

6) 이와 관련하여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흥미롭다. "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몇 마디 부연해야겠다. 『북한행 엑서더스』를 집필하면서, 나는 '귀국repatriation'이라는 어휘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귀국'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북한은 물론 '조국fatherland' 한국의 일부분이었지만, 그들 대다수가 태어난 땅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조상의 도시와 마을로 '돌아가는 것returning'이 아니라 매우 낮은 사회를 향해 떠나는 것이었다. 엄격히 말한다면, 가장 정확한 용어는 아마도 '이주移住'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한 조선인과 일본인들은 이 사업을 거의 언제나 '귀국사업'으로 간주했고, 이 '귀국'이라는 용어는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단체의 문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 용어의 번역을 복잡하게 한 수많은 대립적인 상황들을 명확히 하려고 애쓰는 한편, '귀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Exodus to North Korea)』, 책과함께, 2008, 7~8쪽)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발생한 북송사업이 엄밀한 의미에서 귀국, 즉 귀환이 아니라 이주(migration)의 문제로 설정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를 '귀국사업'으로 명명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이라는 문제를 귀국, 귀환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민국가적 틀로 포섭하는 것은 (그 틀을 넘어서 수 있는) 그 잠재적 힘을 봉합하려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귀국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귀국이나 귀환, '인도주의적 송환'이기보다는 이주노동에 가까운 것이었다.

과 ‘국민형성’ 과정의 전사로서 자리매김된다”⁷⁾라는 서술이나 귀환을 “제국적 질서의 종언을 의미하는 ‘탈식민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것이 한국, 북한, 전후 일본이라는 전후 국민국가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서술⁸⁾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그러나 “식민국가의 붕괴가 곧바로 주권적 독립국가의 수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둘 사이에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구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구축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⁹⁾ 해방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점령 분할의 구상이 구체화¹⁰⁾되면서 냉전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가운데, 남북 각각에서 정치엘리트 혹은 지배집단의 국가건설 기획이 경쟁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해방기 당시만 해도 제국 일본의 붕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미결정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체제는 제국적 질서가 붕괴한 뒤 남한과 북한, 일본 등의 국민국가로 구축되었고, 제국의 신민으로 규정되었던 주체들은 각 국가의 국민으로 전환되었지만, 해방기는 한반도에 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슈퍼파워와 남북의 정치엘리트들과 거리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체제와 법으로 기울되지 않는 존재론적 역능을 드러내고 있었던 다양한 주체성¹¹⁾이 다층적인 형태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제국 일본의 붕괴가 곧 대한민국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과 성립을 자명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결과물에 필연성을 부과하면, 이 시기 해방이라는 빅뱅과 더불어 터져 나온 강력한 존재론적 활력의 가능성과 잠재성, 즉 해방이라는 말이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의 포착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해방기 다층적인 인구 이동의 현상을 귀환의 문제로 개념화하고, 민족수난사나 민족적 과제로 설정하여 “조국으로 귀환되어야 마땅한 일”¹²⁾로 규정하면서 신생 국가건설과 국민통합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면적인 해석이다. 오히려 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세력과 국가건설의 기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남북의 정치지배계급에게 이러한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기획을 방해하는 불안 요인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적 변동을 야기하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주자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

7) 이연식, 「해방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권, 2004, 134쪽.

8) 아사노 도요미, 앞의 책, 앞의 쪽.

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나남출판, 1996, 39쪽.

10)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 : 1944-1945』, 지식산업사, 2001 참조.

11)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 공간」, 『1945년 8·15 해방의 드라마』, 2008년 상허학회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2008년 11월 29일 참조.

12) 장석홍, 앞의 글, 10쪽 참조.

지 기간에 해외로 이주했다가 해방 후 다시 한반도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토지의 상실과 인구과잉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농민과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은 해방기동안 이주 경험을 통해 잠재적 민중으로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급진화되어갔고, 그리하여 해방기에 주요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¹³⁾ 물론 이주자들은 단순히 농민과 노동자라는 통일적인 계급으로 범주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이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귀국'한 정치엘리트, 망명 정치인 집단을 제외하면)¹⁴⁾ 이들은 남북한 모든 지역에서 좌익적 정치 주체들로 성장해 갔으며, 해방기 내내 급진적 정치 참여¹⁵⁾를 보여주었다.¹⁶⁾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급진적 주체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던 해방기 이주자들에 대한 정치지배집단의 대응은 배제와 방관으로 일관되었다.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삼팔선이 확정적으로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이주민이 육로를 통해 삼팔선을 넘어 남한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정치지배집단의 묵인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의 경제 규모상 실업과 토지 분배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이주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의 지배계급은 이들이 북한에 정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⁷⁾ 이러한 상황은 남한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해방 직후 증가하는 이주민으로 인해 서울은 심각한 주택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이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갔다.¹⁸⁾ 해방기 남한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은 최저생계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로 인해 남한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기존의 거주하고 있던 남한의 민중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¹⁹⁾ 요컨대 신국가 건설기에 놓여 있었던 남북한 모두에서 이들 이주민들은 환영받지 못

13)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옮김, 일월서각, 1986, 73~105쪽 참조.

14) 이 글에서는 정치엘리트들의 해외에서의 '귀국'과 일반 하위 주체들의 이주를 구분하고자 하며, 이동과 이주의 문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의 1946년 '10월 봉기', 제주도의 '43 항쟁' 등을 거론할 수 있다.(강인철, 「미군정기의 인구이동과 정치변동」, 『한신논문집』 제15권 제2호, 1998 참조)

16) 만주로부터 이주하는 자들은 1930년대 후기 이주자, 친일파, 만주국 관료, 전쟁 피난민, 지주·부농층, 도시거주민·비농업인구,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 장병 등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으로부터 이주하는 자들은 징병자, 징용자, 하층 일반 재일교포, 자산가층 일반 재일 교포 등의 주요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강인철, 앞의 글, 참조)

17) "김일성 본인이 "지금의 조선은 많은 피난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치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탈출하는 것을 도리어 환영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아사노 도요미, 앞의 책, IV쪽)

18) 이연식, 「해방직후 서울 '戰災民'의 주택 문제」, 『해방직후 인구이동과 서울의 도시문제』, 제9회 서울향토사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19)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2005 제1호 참조.

하는 골칫덩어리였으며, 정치적 급진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체제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방기의 다층적인 '이동' 혹은 '이주' 그 자체는 '귀환'이라는 개념으로 민족과 국가에 통합되거나 포섭불가능한 차원의 문제였다. 이주민들의 이동은 소극적으로는 일본 제국 붕괴 이후 발생한 비참한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도주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추동되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이끈 것은 정치적, 경제적 욕망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주민의 '이동성'은 항상 거부와 해방 추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착취 상황(정치, 경제적 공포, 안전의 부재 등)에 대항하는 저항과 자유와 새로운 생활 조건의 추구를 표현²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성은, 그것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폐시키거나 포섭하고자 하는 민족이나 국가 건설의 기획과 늘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기의 광범위한 이동과 이주를 민족적·국가적 '귀환'으로 축소시키거나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동성'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봉쇄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성'의 복원을 통해서 해방기의 정치적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자 문제의식이다.

해방기 이동 혹은 이주의 문제는 문학사 서술, 특히 소설사 서술에서 언급되어 왔다. 해방기 문학을 서술하면서, '귀향형식'에 주목하여 "길의 회귀적 표상과 귀환의 명암"에 주목²¹⁾하거나 "민족이동과 귀소본능의 형식"²²⁾으로 풀이한다든가, 혹은 해방의 의미를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았다는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잃어버린 고향으로서의 귀환 과정"²³⁾으로 의미화하는 등, 근래에 들어 이 문제는 "귀환서사"라는 개념을 통해, 일본 제국 붕괴 이후의 민족 정체성 회복과 근대국민국가성립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²⁴⁾. 이러한 논의들은 "해방된 조선으로 귀환은 새롭게 건설될 국가의 국민이 되는 과정"²⁵⁾이라거나 "해방기라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개인들은 新生 조선의 건국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했다"²⁶⁾ 등과 같이

20) 근대적, 탈근대적 이주(migration)에 내재하는 이동성의 저항적 성격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라·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2001, 281~287쪽 참조.

21)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33~46쪽 참조

22)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40~345쪽 참조.

2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1945-2000), 민음사, 2002, 59~65쪽 참조.

24)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 '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vol.40, 2006;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 - 「잔등(殘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7집, 2006;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대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歸還)' -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32집, 2007

25) 정재석, 앞의 글, 79쪽.

대체로 귀환(이동)이라는 문제를 민족적 주체나 국민적 주체의 성립과정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설정은 절반 정도만 옳은 듯하다. 해방기 이동과 '귀환서사'는 민족적/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소 불완전하게나마 그 텍스트들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다양한 이동의 층위들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해방 후 이동과 관련된 염상섭의 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45년 만주에서, 해방의 또 하나의 버전 - 부재하는 세큐리티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에서는 “전 조선 각지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범을 즉시 해방하라!”²⁷⁾라는 구호로 해방기를 시작하거나 “여기저기에 흰 바지저고리 차림의 아저씨들이 떼 지어 ‘좋다! 좋아!’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좋다! 좋아!’를 연발하면서 춤을 추며 거리를 행진”²⁸⁾할 수 있었지만, ‘만주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염상섭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주지하듯이 염상섭은 중일전쟁 무렵인 1936년 혹은 1937년 무렵에 만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초빙되어 만주로 건너간다. 이 무렵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염상섭의 삶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만선일보』 편집 일을 3년 가까이 하다가 1939년 9월에 안동으로 이사하여 大東港건설주식회사 홍보 담당일을 맡아보면서, 일생 중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일제 말기 일본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한다.²⁹⁾ 『만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초빙되어 떠나게 되는 조건이 가족동반과 함께 문필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던 만큼, 이 시기 문학 활동은 『썩트는 대지』(1941)의 서문³⁰⁾과 안수길의 창작집 『복원』(1944)의 서문³¹⁾, 그리고 『만선일보』에 연재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開東」의 집필 정도이다.

해방을 불과 두 해도 남겨 놓지 않았던 시점인 1943년 11월에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는 『복원』

26) 오태영, 앞의 글, 516쪽.

27) 김남천, 『1945년 8월 15일』

28) 유종호, 『나의 해방 전후』, 민음사, 2004, 112쪽.

29) 김중균, 『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36쪽 참고.

30) 『썩트는 대지』, 만선일보출판부, 1941, 1~3쪽.

31)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허경진 허위운 채미화 주편, 『안수길』, 보고서, 2006, 582~585쪽.

의 서문³²⁾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염상섭은 만주국의 협화정신과 문화건설의 참여를 언급하며, 만주국 내에서의 조선문학의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염상섭의 발언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표면적으로는 만주국의 일원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주국에서의 이와 같은 생활은 해방 무렵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그리하여 염상섭은 만주 안동에서 1945년 8월 15일을 경험하게 된다.

해방을 맞이한 지 17년이 지난 한 일간지 1면에는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빈곤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폭정과 압제에 얽매인 북한동포의 해방”을 골자로 하는 ‘제17회 광복절 추사가 실리는 가운데, 4면에는 ‘내가 맞은 8·15’라는 제목으로 회고 기사가 게재된다. 여기에는 일본, 만주, 중국, 미국, 서울에서 맞이한 8·15를 회고하는 문인과 교수의 글들이 실려 있다.³³⁾ 이 기사에서 염상섭은 만주에서 맞이한 해방에 관해 쓰고 있다. 그는 대략 1000자 정도 되는 이 짧은 기사 형식에서 만주 安東에서 맞이한 해방을 ‘환희와 전율’이라는 감각으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다. 그에게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을 일본인들과 함께 청취하는 등 극적인 구석이 있었다. 회고에 따르면 그는 항복 선언을 청취한 8월 15일 당일 조선인거류민회를 조직하기 위해, 전쟁 중에 자치제로 실시해 오던 夜警을 일본인 국민학교 교사와 순번을 바꾸었는데, 그 “日人 教員이 兇漢의 白刃 아래 刺殺되”는 일이 발생한다.³⁴⁾ 말하자면 만주 안동에서의 해방은 ‘환희와 죽음(전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32) “진실로 협화정신을 실천하고 모든 기회에 우리도 만주국의 문화건설에 참여하고 공헌코자 할진대, 日滿의 그것에 연계와 협조를 일층 긴밀히 하고 선진의 계발과 발달을 힘입을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데, 만주국의 예문단체가 탄생된 지 이미 3,4星霜을 闕하였을 터이로되, 조선인 작가와 작품이 그 권외에 유리되어 있는 현상은 그 이유와 원인이 나뉘어 있든지간에 기형적 사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지방적임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없으나, 연제까지 그 지경에서 준수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말이다.”(『안수길』, 582쪽)

33) 일본에서의 경우 鄭漢模, 만주에서의 경우 廉想涉, 중국에서의 경우 金光洲, 미국에서의 경우 申四勳(교수), 서울에서의 경우 朴斗鑑의 회고가 각각 게재되었다. (『동아일보』 1962.8.15, 4면 참조)

34) 염상섭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光復의 첫날을 맞이한 것은 鴨綠江 對岸, 滿洲 땅 安東에서 있었다. 이날, 日本 東京으로부터 「重大放送」이 있다는 豫告에 바로 옆의 집 日本婦人과 뒷골목에 사는 老日人이 방송을 들으러 내 집으로 왔었다. 이 老日人은 顔面은 있었으나 내 집에 발을 들여 놓기는 처음이었던다. 放送은 목매인 소리가 흘러나오는 日帝의 沈痛한 降伏宣言이었던다. 室內는 冷水를 끼얹은 듯이 찬바람이 돌았다. 그러나 내 가슴은 뛰었다. 내 눈에도 그 日老人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하였건마는, 제각기 그 뜻은 달랐었다. 하나는 嗚에 맺힌 怨恨이 갑자기 풀리는 歡喜의 熱淚이었고, 하나는 悲憤에 가슴 쓰린 痛恨의 눈물이었다. 放送이 끝나자 말없이들 헤어졌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 공교롭게도 내가 夜警을 도는 차례이었던다는 것이다. 夜警은 戰時中 洞內에서 自治制로 시행하여 오던 터인데 나는 당일로 밤을 도아가며 조직하여야할 우리 居留民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순번을 바꾸어 달라고 청하여 隣近의 국민학교의 日本人선생이 代替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술을 마치고, 夜半에 집에 돌아와 앉았자니, 마침 내 집의 옆 골목에서 딱딱이 소리가 나자마자, 뒤미처 객하고 悲鳴이 희미하게 들리는 잠잠히 밤은 깊어 갔다. 이튿날 會에 나가서, 간밤에 내 집 옆골목에서 D보통학교 日人 教員이 兇漢의 白刃 아래 刺殺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內心으로 어크머니나! 하고 몸서리가 치졌으나, 副會長인 나는 會長 L氏와 함께 知面이요 橫死한 그의 집에 弔慰를 갔었다. 해마다 光復節을 맞으면서 그때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해방의 환희보다는 '죽음, 전율, 공포'라는 감각이 더 큰 낙차로 다가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민족과 조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되었는데, 개인이나 소집단의 차원에서는 죽음으로 몰릴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만주에서의 해방이었다. 말하자면 민족의 자기보존(security)이 달성되는 시점에 개인의 안위(security)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만주에서 염상섭이 맞이한 해방이었다.

염상섭이 17년이 지난 이후에 회고라는 형식을 통해 상기한 이 사건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당시 만주 안동에 거주했던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집단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회고의 내용은 「혼란」(『민성』, 1949년 1월)과 「모략」(단편집 『三八線』, 금릉도서주식회사, 1948)의 주요한 뼈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염상섭은 만주국에서 그가 맞이하는 해방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만주반점 앞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벌써 사흘 낮 사흘 밤을 두고 뚱뚱거리고 뻘뻘거리는 <까오자오>—(高脚蹻=滿洲人の 춤)는 오늘도 흰하면서부터 또 질번질번히 벌어졌다. 승전 축하의 거리의 잔치다. 팔월 십오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탈춤은 언제나 그칠 줄 모른다. 新舊市街의 교차점이 이 거리에서 남편인 신시가에 사는 異民族의 불안과 공포에 싸인 눈에는 얼마나 부럽게 보이고 아직도 무더운 한 밤을 시달리고 난 고달픈 새벽 잠이 몇 번이나 그 피리 소리와 갈채 소리에 소스라쳐 깰었던지 모른다.³⁵⁾

주거지를 분할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해방을 둘러싼 감각 역시 분할된다. 한쪽에서는 “승전 축하의 거리의 잔치”가 쉽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그와는 상반된 “이민족의 불안과 공포”는 누적되어 간다. “팔일오를 맞는 조선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전승 국민인 이 사람들보다 더 길길이 뛰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이 이렇게 놀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³⁶⁾이 자리하는 것이다. 해방 바로 직전까지 만주국의 ‘五族協和’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봉합되어 있었던 민족적 갈등은 제국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포와 불안은

이날을 一生에 한번 밖에 또다시 없을 歡喜의 눈물로 맞이하고, 그날 밤의 戰慄을 되씹고 있다. 그러나 그 歡喜는 비록 歡喜라하여도 되풀이하여서는 안되고 길이길이 後日을 위하여 銘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나 個人으로서는 그날의 橫厄에서 벗어났음을 天主께 감사할 다름이다.”(염상섭, 「歡喜의 눈물 속에 - 滿洲에서」, 『동아일보』, 1962. 8. 15, 4면)

35) 염상섭, 「混亂」, 『염상섭전집10』, 1987, 민음사, 152쪽.

36) 염상섭, 「混亂」, 위의 책, 153쪽.

무엇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무엇이 환희와 불안을 분할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한 것일까.

해방 직후 만주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치안과 지배권력이 부재한 무정부적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³⁷⁾ 이와 같은 상황은 「혼란」과 「모략」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부기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인회’, ‘한교 자치회’, ‘치안 유지회’, ‘공안국’, ‘식량 배급 공사’ 등의 단체는 항상 죽음을 상기시킬 만큼 혼란스러웠던 만주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염상섭은 회고에서 그 자신이, 그리고 「혼란」과 「모략」에서 그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법한 인물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는/행해야만 하는 작업으로 ‘조선인회’를 조직하는 일을 설정하고 있다. 회고에서는 그가 조선인회에 부회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해방 후 만주 안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혼란」과 「모략」은 사실상 조선인회를 둘러싼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오족협화’라는 미명 아래 형식적으로나마 동일한 만주국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해방 후 조선인회의 회원으로 재조직되는데, 조선인회는 “자민족의 自治와 치안유지의 一翼으로 급급히 조직”한 것으로, “동족 시민이나 피난민의 보호와 식량 확보 등”³⁸⁾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말하자면 부재하는 혹은 붕괴된 안전망의 (재)구축인 셈이었다.³⁹⁾

이와 같이 안전망과 치안의 부재는 전방위적인 것이었다. 해방 직후 만주에서는 재만 조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중국인과의 재산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주국 시절 당시 조선인이 토지와 기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부등가 교환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국민당 정부는 재만 조선인들을 ‘韓僑’, 즉 외국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소유하는 것조차 불법에 해당하는 일이었다.⁴⁰⁾ 그리하여 실제로 해방 직후,

37) 김춘선, 「광복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정착과 국내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004년 봄호 제28집, 183쪽 참조.

38) 염상섭, 「혼란」, 앞의 책, 154쪽.

39) 「혼란」에 주요한 갈등 구조를 이루는 ‘조선인회’와 ‘한교 자치회’와 같은 자발적인 조선인 민간조직의 성립은, 염상섭이 거주했던 안동지방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해방 이후 만주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교민회의 조직은 만주 지역을 접수해 들어오던 국민당 정부 측과 교섭하려 했고, 이에 국민당 동북보안사령장관부에서는 ‘韓國僑胞處理臨時方法’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당시 국민당점령지역에는 43개의 한국교민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춘선, 위의 글, 189~190쪽 참조.

40) 손춘일, 앞의 글, 8~9쪽 참조.

조선인들은 국민당 정부로부터는 산업과 재산을 몰수⁴¹⁾당하는 한편, 지주와土匪들로부터는 토지와 가옥을 약탈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⁴²⁾ 이것이 재만 조선인들이 피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염상섭은 해방 직후 만주에서의 상황을 「혼란」과 「모략」을 통해 형상화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피난이나 이주 그 자체보다는 조선인회를 둘러싼 갈등과 대내외적인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혼란」에서 피난민 차로 달려든 아내의 친구는 뇌막염으로 사망하며, 결과적으로 피난에 실패하고, 이창규의 아내는 “여보, 어서 갑시다. 내일 걸어서라도 떠납시다”⁴³⁾라고 계속해서 종용하지만 끝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회장’은 “짐을 싸 놓고 언제든 뜰 작정이라”며 “살인 사건이나 구타 치사 같은 돌발 사건이 생겨서 어느 때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겁에 벌벌 떨며 앉았으면서도”⁴⁴⁾ 조선인회 회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드는 인물로 그려진다. 「모략」에서도 만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은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끼어 살던 단 세 가구의 조선 사람 중에 두 가구는 벌써 고향으로 떠나 가버”⁴⁵⁾했다는 식의 간접적인 서술로 처리된다. 그리고 창규의 아내는 “여보 어서 우리 풀었던 짐 다시 싸가지고 내일은 나섭시다”라고 재촉하고, “창규 역시 어느 때까지 이 땅에 머뭇거리고 있을 것은 아니나, 이번 사건만은 아무래도 낙착을 짓고 이리서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⁴⁶⁾지만 갈등이 해소되고 난 뒤에도 이들이 만주를 떠나는 내용이 부기되지 않는다. 두 소설에서 만주에서 떠나는 자들은 음각화되어 처리되거나 실질적인 갈등을 야기하기 않는 수준에서 하나의 배경으로 위치지어진다. 소설 속의 주요 인물들은 만주에서 언제든 떠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떠나는 장면은 소설에서 형상화되지 않으며, 떠나고자 하는 원심력은 조선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과 팽팽한 긴장을 형성한다. 요컨대 이 두 작품은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보다 힘을 기울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혼란」의 김호진은 그와 같은 긴장의 가장 부정적인 형상을 보여준다. 그는 해방 후 조선인회에

41) “동북보안사령장관부 한교사무처에서 1946년 4월 3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요녕, 요북, 안동, 길림, 열하 등 5개 성에서 차입한 한인 재산은 가옥 1,757채, 2,934,904,86㎡, 基地 1,406,761,67㎡, 수전 17,461,063,57㎡, 한전 3,623,676,38㎡, 雜地 58,648,335,42㎡, 原野 276,489,00㎡, 황무지 279,952,38㎡, 광산지 12,976,300,00㎡, 墓地 5,966,00㎡, 공장 59所, 기계 1,642건, 가구 31건, 醫器 20건, 유가증권 2,044,108,60원이었다”(김춘선, 앞의 글, 195쪽)

42) 김춘선, 앞의 글, 201쪽 참조.

43) 염상섭, 「혼란」, 앞의 책, 165쪽.

44) 염상섭, 「혼란」, 위의 책, 159쪽.

45) 염상섭, 「모략」, 『삼팔선』, 금릉도서주식회사, 1948, 90쪽.

46) 염상섭, 「모략」, 위의 책, 123쪽.

서의 회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한교 자치회를 조직하여 조선인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는데, 그는 만주에서 “하급 관리 생활을 하면서도 땅마지기나 장만하고 집 간도 사고 한 재주군이요 그 만치 근거를 잡아 놓은 이 땅을 버리고 영덩이가 들먹거릴리도 없고 보니 이 판에 세력을 부식해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즉 김호진은 해방 후 만주에서 소유한 재산과 토지를 지키기 위해 조선인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대척점에 ‘덕순’(「모략」)과 같은 ‘젊은 축’이 자리하여 조선인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창규’를 조력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조선인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가옥 등과 같은 소유권을 지키며, 배급과 같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대상화된 잉여적인 사적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강탈당하면 생활의 터전과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삶을 위한 필수 요건들이다. 세큐리티가 부재하는 해방 후 만주라는 장소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자존을 지킬 수 있는 물질 토대인 셈이다. 토지나 가옥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해방 후 만주에서의 삶이었다.

조선인회라는 私的 團體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만치 이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무정부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제 민족끼리는 自治를 하여야 하고 민족 간의 마찰을 피하여 큰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그따위 法理論을 논의하다가는 조선 사람은 하나도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⁴⁷⁾

해방 후 ‘불안과 공포’로 대변되는 “무정부 상태”는 기존의 공사(公私)의 관념이나 법이론적 해석을 무화시키도록 추동한다. 이와 같은 치안부재 상태는 역설적으로 기존의 국가 관념을 재검토하도록 이끈다. “일본인회 회장이 「라디오」로 울며 하는 소리가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길이 막혔으니 압길이 감감하다』고 합디다마는, 우리는 지금 뉘 보호를 받겠느냐는 말요.”⁴⁸⁾ 라는 질문이 되돌려지는 순간이 바로 만주에서의 해방이다. 이 조선인회는 만주에서는 두 권력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만주에서는 위로는 제국 일본 및 만주국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국민당 정부의 하위 기관인 ‘치안유지회’나 ‘공안국’이 정립해 가는 새로운 국가적 질서가 구축되는 한편, 정반대 편이 다른 한 쪽에서는 아래부터의 무정부적 상태의 힘—즉 언제 어디서 자행될지

47) 염상섭, 「모략」, 앞의 책, 94~95쪽.

48) 염상섭, 「모략」, 위의 책, 99쪽.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이 창궐하고 있었다. 이 두 흐름은 권력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조선인회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국민당 정부의 하위 조직인 '보안 위원회'나 '공안국'은 제일 먼저 "일반의 무기 회수"⁴⁹⁾를 통해 해방 이후 편재하는 권력을 국민당 정부로 독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가 권력의 모습을 불안전하나마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고, 이로써 조선인회를 점차로 통제해 나가기 시작한다. 한편 아래로부터 발생하는 중국인 측의 통제 불가능한 약탈과 살해 위협은 절도와 같은 형태로 조선인들을 교란⁵⁰⁾시킨다. 그리고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앞서 언급했듯, 돌아갈 국가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조선인들과는 다른 상태에 놓여 있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하는 물음이 유효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조선인회가 서 있는 지점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인회는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등장하는 국민당 정부로부터는 공포를,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중국인 측의 습격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염상섭의 「혼란」과 「모략」에서 이 조선인회는 위에서 구축되어가는 국민당 정부의 권력에 투항하거나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에서 무정부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국인들의 대오에 합류할 수도 없는 상황⁵¹⁾이었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하는 물음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하는 '자치'에 대한 물음으로 정향되어야만 했다. 그림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하위 계급들 역시, 지배 계급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향해 움직이는 것⁵²⁾을 고려해야만 하겠지만⁵³⁾, 해방 후 만주에서 구성된 민간단체로 조직된 조선인회는 토지와

49) 염상섭, 「모략」, 앞의 책, 99쪽.

50) 염상섭, 「혼란」, 위의 책, 165쪽.

51) 예컨대 「혼란」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조선인 회에서 이(중국인측인용자) 축하 행진에 조선인도 합류하여 축의를 표하고 새로운 친선을 도모하지는 의논이 있었던 터라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하고 싶었다. 결국 조선인은 참가하진 않게 됐으나 참가하게 된다고 불청객이 자태로 꿈무늬나 따라 다닐 맛도 없는 일이고, 더구나 그 속에 주정뱅이나 끼었다간 무슨 일을 일으킨다면 공연히 일반 생길 것이 무서워 그만두자는 것이었다."(앞의 책, 154쪽)

52) "하위 계급(subaltern classes)은 정의상, 스스로 '국가가 될 수 있기까지 통일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시민 사회의 역사와 뒤섞여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국가들과 국가 집단들의 역사와 연결된다."(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2』, 이상훈 옮김, 거름, 1993, 70쪽)

53) 예컨대 「모략」의 다음과 같은 대목은 조선인회의 국가 구성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처럼 원래의 귀권을 맞이하여 한자리 환담을 하라던 것이 조국의 보호와 권위가 없는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아 냇길 놈의 술은 아니 먹어도 좋다고 거더 치는 생색없는 결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생략) ... 이곳이 외국이니만치 외국에 있는 조선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국민외교의 첫걸음을 떼어 놓는 이 다 당에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은 원인이 어대 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재외동포의 적지 않은 책임인 동시에 내지 동포에 대하여 사과치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소 양국이 남북으로 분할 진주하게 된 조국의 현상으로 보아서 이 조고만 국외 도시에서의 우리의 국제적 처지는 곧 우리 민족과 국가의 처지를 축소 상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 (생략) ... 우리가 지금 손님 대신으로 마시는 이 맥주는 국가의 주권을 가진 나라의 백성의 손으로

가옥을 탈취당하고 영토를 상실해가는 가운데 저항과 자치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성격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3. 해방기, 개인의 상태와 국가

「집 속에는 무어 있어?」 … (중략) …

「없어요. 우리 거지 한가지요. 만주서 다 뺏겼어요.」

「만주에서 왜 와?」

「가라구 내쫓아서요.」

「돈 얼마 있어? 많이 가지고 가면 안돼.」

「돈 없어서 밥도 못 먹었소.」⁵⁴⁾

이 단발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짧은 대화는 만주에서 신의주로 이동한 뒤, 다시 삼팔선을 넘기 직전에 조선말을 할 줄 하는 소련병과 조선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삼팔선」의 한 대목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해방 이후 재만조선인이 이주하게 되는 원인이 담겨 있다. 즉 이주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만주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창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그 이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었더라면, 사실상 이주라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꼭 이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꼭 이주하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다.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다. 당시 재만조선인에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던 정치엘리트들은 오히려 재만조선인이 만주에 계속 머물러야만 한다고 강조⁵⁵⁾하는 입장이었다.

만주에서 삶을 영위하던 염상섭을 비롯한 재만조선인의 이주 원인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송환

만든 것이요 국가의 주권을 가진 나라의 대표가 마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술을 잣물과 같은 뱃속이 쓰린 별주로 아시고 마시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 밑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맥주를 마실 날을 서로 기약하고 다시 한잔 건국을 빌면서 드십시오.”(염상섭, 「모략」, 앞의 책, 132~133쪽.)

54) 염상섭, 「삼팔선」, 『삼팔선』, 63쪽.

55) “한국독립당은 국민당의 송환정책에 반대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다. 韓國駐華代表團東北總辦事處 이진백 대리처장은 재만조선인들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즉 구태여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 고위 간부였던 安在鴻도 재만조선인들에게 가급적 현지에 남아 고혈로 개척한 땅을 최후까지 고수하고 생존권을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손춘일, 앞의 글, 12~13쪽)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만주는 국민당 관할 하의 '수복구'와 공산당 관할의 '해방구'로 분할되어 갔는데, '해방구'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당 정부는 재만조선인들을 '한교'(외국인)로 규정하여 산업과 토지 등의 재산과 생활기반을 몰수하고, 중국인 측은 조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조선인들은 한반도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이중국적과 무상토지분배를 부여하는 공산당 관할의 '해방구'로 이주하였다.⁵⁶⁾ 요컨대 이동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절대적인 도달 지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되었다.

염상섭의 소설 「혼란」과 「모략」이, 이주와 이동의 문제가 '부재하는 세큐리티'에서 연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면, 「해방의 아들」은 민족과 국적의 선택 문제 역시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염상섭은 「남충서」에서 등장시켰던,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의 문제를 「해방의 아들」에서 다시 불러낸다. 「해방의 아들」의 '마쓰노/조준식'은 경상남도 동래 출신의 아버지와 나가사키 출신의 어머니 사이의 내선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로, 그 역시 일본인 아내를 두고 있다. 이 소설은 염상섭이 1946년 7월 해방 일주년 기념작으로 쓴 「첫거름」의 제목을 변경⁵⁷⁾한 것으로, 염상섭이 해방 이후 쓴 첫 작품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염상섭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름 상징적인 작품인 셈이다. '마쓰노/조준식'은 일본인이기도 하고 조선인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어느 쪽도 온전히 될 수 없는 존재이다. 해방 이전의 경우 그의 사회적 삶은 '제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써 유효할 수 있었지만, 해방 이후 만주에서 반(半)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족과의 단절을 야기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은 선택의 문제로 설정된다.

마쓰노/조준식이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은 해방 전인 "그 때 시절에는 그 편이 녀ng 해롭지 않고 더구나 이런 데 나와서는 가봉(加俸)이니 배급(配給)이니 이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⁵⁸⁾기 때문이고, 해방 후에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민회에서 피난민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국적 혹은 민족을 선택하는 방식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그가 "장기(長崎)로 갈까 동래로 갈까, 여전히 마쓰노로 행세를 할 것인가 조가의 성을 찾게 되는가—하고 혼자 방황하며 지향을 못"⁵⁹⁾했던 갈등상태는 어느 "깃발 밑이 제일 안온하고 평화로

56) 김춘선, 앞의 글, 182쪽.

57) 염상섭, 「해방의 아들」, 『해방의 아들』, 금릉도서주식회사, 1949, 58쪽 참고.

58) 염상섭, 「해방의 아들」, 위의 책, 1949, 12쪽.

59) 염상섭, 위의 글, 27쪽.

울 것”인가를 인지하고 확정하는 순간 해소된다. 즉 개인의 상태(state)와 국가(state)가 불안정한 긴장관계를 유발하지 않고, 합치되는 순간이 새로운 ‘첫걸음’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와 ‘국가’의 합치가 이미 주어진 자명한 것이 아니라 결정과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사실 옆집 일인들은 조석이야 끄려 먹겠지마는 하루 온종일 또드락 소리도 없고 드나드는 기척도 아니었다. 앞문에 붙인 김모(金某)라는 문패는 접수가옥(接收家屋)의 선취권(先取權)을 표시하는 것일 것이요, 동시에 이 집은 이 시가(市街)의 어느 집이나 써 붙인 카렌스키이 도움(조선인의 집)이란 확실한 표시도 되는 것이겠지 마는, 그래도 캄푸라주의 효과가 적을까 보아서 문설주에는 어느 때보나 벌써 후락해진 태극기와 소련의 붉은 기시발이 좌우로 축 느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위진(防衛陣)을 쳐 놓고도 그 속에 들어 옆대어 있는 「야마도 다마시이」는 「다다미」 바닥에 옥으라 붙어서 발발 떨어가는 신 새벽에 부엌 뒤 스문으로 빠져나가서, 어대가 모여서, 숨어 있는지, 날이 점으러야 하나 들썩 기어 들어오곤 하였다.⁶⁰⁾

가옥의 대문에 붙어 있는 ‘카렌스키이 도움’이라는 표제와 ‘태극기와 소련의 붉은 깃발’은 “「붉은 군대 만세」란든지 「붉은 군대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말라”라는 수학적 발화로 작동함으로써 “안전보장”을 달성한다.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작동방식을 알기 때문에 조선인 문패, 태극기, 소련의 붉은 기 아래에서 숨죽이며 생활한다. 말 그대로 이는 “캄푸라주”(위장)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긴 하지만, 불안과 공포는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의 그들을 조선인으로 변신하게끔 이끌고, 단순히 먹고 자는 존재로 추락시킨다. 요컨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나부터도 여기 귀화해서 안온히 살수만 있다면 이대로 주저앉고 싶”다는 심리상태를 유발한다.

「해방의 아들」에서 극명하게 대별되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처지인데, 이러한 차이는 신의 주라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만주 안동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국가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자들임과 동시에, 또 다른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신의주라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옴으로써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신의주에서 조선인은 일정한 영토(국가)적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되고, 일본인은 여전히 배제의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마쓰다/조준식’과 같은 존재

60) 엽상섭, 앞의 글, 3~4쪽.

는 새로운 국적(혹은 민족성)의 취득을 통해 그와 같은 배제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일본인의 경우 조선인으로서의 위장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한다. 이러한 각 개인 혹은 고립된 집단의 상태 변화는 국가 권력과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냐에 따라 그 대응 양상이 달라진다.

‘해방의 아들’이 되는 것이 숙명이나 운명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다가올 때, 민족적 혹은 국가적 신비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태극기나 일장기, 붉은 깃발 등이 개인의 극단적인 생존의 문제가 될 때, 大和魂은 현실적인 ‘다다미 바다에 오그라들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영토적 분절과 이동하는 것들 — 피난민, 잠상군, 호열자

해방 후 염상섭의 이동 경로는 만주 안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삼팔선을 넘어 서울에 이른다. 그의 소설 「혼란」, 「모략」, 「해방의 아들」, 「삼팔선」 등에는 이와 같은 이동로가 고스란히 기입되어 있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 염상섭 자신의 삶이나 그의 소설에서의 이동은 이념형의 민족의식과 결부되어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전보장의 문제로부터 추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한 현실적 조건만 보장되었다면, 염상섭은 만주 안동이나 신의주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의주 학생사건이 발발하면서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소설은 ‘삼팔선’을 넘기에 이른다.

「삼팔선」에서는 만주 안동과 신의주, 그리고 삼팔선 이남으로 이어지는 이동의 경로가 상세히 그려진다. 만주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두 층위로 형상화된다. 하나는 대지에 새로운 공간 분할과 질서를 정초함으로써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등장이다. 소설에서 이것은 국가에 독점된 폭력의 상징물인 ‘총’에 의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이동의 경로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총소리’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작년 해방 직후의 일이지마는, 안동에 남겨둔 짐을 차져가지고 오려니까 시가지를 다 빠져나오기 전부터 압록강 철교 쪽에서 총소리가 팽 팽 끊일 새 없시”라고 신의주에서는 “소위 「학생사건」 당일에는 전날밤에 … (중략) … 「으악」 소리가 나자 탕, 탕소리가 바로 열아문간통 앞에서 나”며, 삼팔선을 이남을 향해 가는 도중 사리원에서 총소리가 등장한다. 그리고 총소리가 등장할 때는 항상 총을 쏘는 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압록강에서는 소련병(만주 세관 사람), 신의주에서는 공산당본부, 사리원에서는 보안대 주재소가 총의 발사를 집행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들은 항상 정치적, 지리적

경계의 가장자리에서 영토적 분절을 통해 흘러넘치는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자 한다. ‘총’은 직접 대면했을 때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멀리서 향방을 알 수 없는 ‘총 소리’가 “땀 드릴 새도 없이 얼른 몸을 감추지 않으면 어디서 팽하고 탄환이 날아올지 모를 것만 같”⁶¹⁾은 불안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킨다.

피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층위는 “도적과 강도”와 같은 범죄자들이다. 「삼팔선」에서 피난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이동을 통제하는 소련병, 보안대 등과 같이 정당화된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치안부재 상황에서 그들을 습격해 오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북상하는 이주자를 만나 나누는 대화의 한 대목—“치안은 어땠읍디니까요? / 모르죠 요행히 도적은 안만났으니까요. 어쨌던 큰길 내놓고 숨어오라니 더 고생이죠”—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삼팔선을 가로지르려는 피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국가 폭력과 같은 공적 폭력과 ‘도적과 강도’와 같은 사적 폭력은 동일한 층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만주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교통로를 따라 삼팔선을 넘기 위해 이동해 가는데, 이 이동로에는 피난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피난민 루트인지 잠상군(潛商軍) 루트인지가 개척된 후로는 신막루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자연히 이 길은 막히고 말았던 것”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난민의 이동로는 잠상군의 이동로와 동일하며, 이 두 집단은 사실상 시각적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난민을 따라 이동하는 무형의 존재로 ‘호열자’라는 전염병을 빼놓을 수 없다. 말하자면 피난민과 잠상군, 호열자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이동로를 공유하면서, 가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동로를 통제하고 분절하는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피난민과 잠상군은 ‘피난민 증명서’와 ‘호열자 예방 주사 증명서’를 통해서 이동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동을 허가받는다. 요컨대 피난민은 ‘잠재적인 잠상군, 호열자 보균자’로 취급받게 된다.

이 사람도 잠상(潛商)인가 싶었다. 잠상군이 아니기로 이런 길을 나서면 주사약 한상자라도 지냈을 것이요. 흰 것(아편가루) 아니면 일본지폐장이라도 구두창 밀이든지 여자의 속 것 춤에 숨겨가지고 왔을지 모를거라. 운수 좋아서 너자가 붙들려가지 않을 경우면 여자의 몸은 그리 뒤지지 않는다고 하거니와, 요 지막까지도三八 이북에서는 일본돈 시세가 좋아서 돈장사의 왕래가 상당하다. 남쪽에서 일본돈을 몸에

61) 염상섭, 「삼팔선」, 『삼팔선』, 72쪽.

지닐 수 있는대로 지니고 건너서면 이북에 있는 일본사람은 조선 돈이나 만주돈과 바꾸어 두느라고 갈급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북에서도 일본 은행권은 통용이 아니되고 일본으로 돌려 보낸다는 예정은 점점 밀려가니 조선은행권이나 만주돈을 다 쓴 사람은 저의끼리 바꾸어 쓰기도 하겠지마는 그나마 일본사람 전체에 미천이 들어나면 일본은행권을 생으로 먹는 수도 없고 팔아 먹을 것은 다 팔아먹고 나면 미구불원에 굶어 죽을지 모를 형편이다. 일본인커녕 전채민도 어름어름 하다가는 가도 오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다.⁶²⁾

염상섭은 「삼팔선」에서 위와 같이 잠상군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을 소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들에 대한 형상화는 「모략」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해방 후 압록강을 경계로 만주 안동과 신의주 사이에서 대규의 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⁶³⁾한다. 염상섭은 해방기 잠상군의 존재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포착⁶⁴⁾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팔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며 실질적으로 만주와 북한, 남한, 일본을 잇는 장거리의 통제 불가능한 경제적 유통 공간을 창출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위의 인용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그들은 비공식적인 외환 거래를 통해, 만주와 북한, 남한, 일본을 하나의 외환거래망으로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대지에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국경선이 확정되고 통제되어 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경제적 이동로의 구축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폭등과 같은 경제적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망국적인 밀무역”⁶⁵⁾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⁶⁶⁾. 「삼팔선」에서는 압록강에서 벌어지는 소련병의 총격 장면을 서술하는 가운데 만주 세관을 언급하는데, 이는 잠상군과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62) 염상섭, 「삼팔선」, 앞의 책, 10~11쪽.

63) “삿자리라는 것은 해방(解放)이 되어 압록강이 터지니까 전 유역(流域)에 걸쳐 쭉치고 옆대있던 잠상군(潛商軍)이 경첩이나 만난 듯이 활개를 치고 피어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우는 것이 신의주로 쏟아져 들어가는 삿자리 밀수의 행렬이었다. 돈시세가 급자기 떨어져간다해도 한 장에 십원 이십원이 떨어지(利益)니, 날마다 철교의 이끝에서 저끝까지 해가 흰한면서부터 하얗게 늘어난 것이 삿자리의 장사진이었다.”(염상섭, 「모략」, 95쪽)

64) 이는 만주에서 신의주를 거쳐 삼팔선 이남으로 이주하면서 동일한 이동로에서 반복적으로 그들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65) 당시 밀무역이나 밀수는 쌀값이 폭등하는 가운데서도 일본으로 쌀을 밀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남한 당국의 골칫거리이기도 하였다.

66) 당시 삼팔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차원에서의 비공식적 거래는 통상 ‘38密貿易’으로 불리는데, 이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추세와 동향은 대략적인 윤곽만을 잡아 볼 수 있을 뿐, 적발 건수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상세한 내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당시 남북한의 공식적인 무역 규모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48년도에 적발된 액수만 1억 2천 9백만원(미화 약 53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한다.(장화수, 「38밀무역 시절의 남북 물자교역」, 『북한』, 1985년 8월호;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131~134쪽 참고)

삼팔선을 하루 정도 거리 남겨 둔 금교에서 피난민 일행은 보안서에서 사상문제와 짐 조사, 호열자 예방주사 증명서 검사를 받는다.⁶⁷⁾ 해방기 이주민의 이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호열자와 같은 전염병이 문제가 떠올랐다는 사실은 쉽게 지나칠 사건이 아니다. 염상섭은 「혼란」에서도 뇌막염에 걸린 피난민을 등장시킨 바 있듯이, 해방기 전염병의 문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예컨대 1946년 8월 만주 도문 일대에서 호열자(콜레라)가 발병하여, 전 연변 지역으로 확산되자 중국 공산당 정부와 군은 연합하여 방역체제를 전시체제의 일환으로 관리하였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은 차단되고, 잠재적 보균자인 밀수꾼들에 통제가 가해지며 민간차원의 무역은 봉쇄된다. 그리하여 한반도로 이주하려던 많은 조선인들은 발이 묶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다.⁶⁸⁾ 한반도에서도 역시 남북한 지역 모두에서 호열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방역체계가 구축되기에 이른다.⁶⁹⁾ 해방기에 호열자 등과 같은 전염병은 이주민의 이동성을 가로막는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가입장에서 이는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다시 말해 전염병을 예방, 관리함으로써—결과적으로 잠재적 보균자인 피난민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나머지 국가의 인구(주민)을 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는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인 생명권력의 작동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인구(주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 발생한다.⁷⁰⁾ 해방기의 피난민 혹은 이주민은 이와 같은 생명권력 메커니즘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피난민이 잠재적으로 잠상군이나 호열자와 같은 전염병의 보균자로 간주되어 이동과 이주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칠게 말하자면 피난민이 국가적 안전보장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피난민은 노동력의 차원에서도 또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

67) “만주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부터 묻기 시작을 하여 사상문제를 끄내 가지고 문답이 한참되다가 있다 다시 만나서 좀더 자세히 물겠다하고 들어가 버린 뒤에, 그 때의 짐조사가 시작되었다. … (중략) … 더구나 그런 사람들의 호열자 예방주사 증명서를 권우라해야 들고 들어갔으니, 있다고 래일이고 「다시 만나 묻고」 나아 내줄 모양같다. 우리더러도 주사증명서를 권우어 들이라고 아니할까 겁이 난다.”(염상섭, 「삼팔선」,

68) 김춘선, 「중국 연변 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년 겨울호 제43집 참고.

69) “개성경찰서로부터 경기도 경찰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삼팔 이북에는 호열자 환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삼팔 이북경계선에 방역을 엄중히 하는 한편, 이남으로 드러오는 자는 철저히 방역검사를 실시중이라고 한다.”(「삼팔 이북에도 호열자 창궐」, 『동아일보』, 1946. 6.19, 2면)

70)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동문선, 1998, 278-293쪽 참조.

해 볼 필요가 있다. 1947~1948년 무렵에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귀국을 신청하는 한인들 중 호주가 조선에서 직장을 찾았거나 혹은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한인들에 한해서만 귀국을 허가하고, 그 외 귀국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노동 능력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는 일률로 귀국을 유히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⁷¹⁾한다.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재만조선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들을 ‘타국민’이 아니라 ‘노동하는 자’로 환원하여 포섭하고자 한 것이었다. 반면에 북한과 남한의 경우 경제적 규모로 비추어 볼 때, 이들 피난민을 수용할 여유가 없었다. 이들이 북한이나 남한으로 이주해 올 경우, 단지 산업예비군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남한의 경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식량부족’ 그리고 ‘대량실업’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하여 민중들의 생활은 대단히 궁핍하고 불안정한 나날의 연속이었다.⁷²⁾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장에서 피난민(이주민)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는三八선을 넘어가라는 것은 아니나,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은 묵인한다”⁷³⁾는 입장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국가의 일원이지 만 국민은 아닌 자들”⁷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피난민과 이주민들은 ‘비국민’이었다.

「나의 같은 비국민은 개 돼지 만도 못한 놈들이니까, 여기서 기어 나가라! 유치장에 넣지 않는 것만 고마운 줄 알거든 내굽을 꿇구 썩썩 기어 나가 봐라!」하고 호통을 하는 것이었다.⁷⁵⁾

이 대목은 염상섭의 「영당이에 남은 발자국」의 한 부분이다. 일제 말기, 방공연습 때에 집에서 불빛이 새었다고 해서, 주인공 父子가 경찰서로 불려가서 일본인 굴전(堀田) 순사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호통을 듣고, 실제로 기어서 경찰서를 나서게 된다. 비국민은 인간이 아닌 자이고, ‘개 돼지’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후, 이주민 혹은 피난민들에게도 정확히 오버랩된다. 제국 일본이 비협력적 조선인에게 행하던 언설이, 한반도로 이동해 온 피난민들에게 정확히 겹쳐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해방기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해방이 되었지만, 이들은 국민이 아닌 자이고, 여전히 개, 돼지에 머무른다. 그리하여 한반도로 이주해 오는 피난민의 이동이 “추방당한 약소민족의 이동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약소민족이

71) 김춘선, 앞의 글, 132쪽.

72) 박보영, 앞의 글, 75~76쪽 참조.

73) 염상섭, 「삼팔선」

74)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94쪽.

75) 염상섭, 「영당이에 남은 발자국」

기로 손바닥만한 제땅 속에서 왔다 갔다하는 이렇듯 들볶에는 것을 생각하면 절통”하고 “저절로 비장한 마음이 드”⁷⁶⁾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비국민이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여전히 안전부재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삼팔선 이북을 감시하는 소련병을 뒤로 하고, 삼팔선을 넘어서는데, “인제야三八선을 건너셨다는 실감이 들면서도, 가진 곤경을 다 격고 들어서는 첫밤에 딱맞추친 사람이 미병!”을 발견한 순간 그들은 또 다른 국경과 경계 하나를 넘어선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다.

‘삼팔선’을 겨우 넘어 이들이 내뱉는 말은 감격의 언어가 아니다. 수해와 인플레이라는 현실적 조건들에 맞닥뜨려 한탄과 함께 터져 나오는 “무얼 먹구 사누!”라는 현실의 언어이다. 그들이 겨우 당도한 삼팔선 이남의 공간은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은연중에 드러내는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등은 삼팔선 이남이 오히려 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노출시킨다.

한반도 외부에 있는 300만 명의 인구가 몇 년 사이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현상은 정치적 혼란과 새로운 질서 구축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정치적 권력은 폴리스, 치안 다른 말로 하자면 교통로 감시였다”⁷⁷⁾는 말을 참고한다면, 해방기는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가 공공연하면서도 비균질적이고 군소지역적으로 시행된 시기일 것이다. 염상섭 소설에서 총소리는 한반도 전체 규모의 일사분란한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 만주 안동에서 삼팔선 이남에 이르는 시공간 내에서 통행중에는 여러 도장과 증명이 중첩되고, 소련군에서 보안대, 미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제 주체들과 마주한다. 이 같은 과정을 국민국가의 형성을 초점으로 하여 서술하는 것과 그 잉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국민국가형성이라는 익숙하고 오랜 기획도 물론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동하는 자들을 항상 그와 같은 기획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하는 자들의 교통로를 통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비국민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국가의 관점에서 그들은 ‘아무도 아니’었다. 그들을 ‘비국민’으로 설정함으로써만, 체제는 새로운 질서는 구축할 수 있었고, 그 (허구적)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동하는 자들이 항상 그와 같은 기획에 순응해 왔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경제적, 생존의 불안을 야기했다. 비국민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즉 항상 안전부재에 시달리는 이들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순간, 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었다. 안전보장을 둘러싼 이 두 힘이 충돌하는 매순간마다 새로운 정치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未完)

76) 염상섭, 「삼팔선」

77) 폴 비릴리오, 『속도와 정치』, 그린비, 2004, 64쪽.

정지용의 기행산문 연구

김윤경 | 동국대

1. 1930년대 말, 수필의 범람과 정지용의 기행산문

1930년대 조선 문단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수필류 저작의 양적·질적 팽창일 것이다. 이는 이전 시기의 민족적·계급적 이데올로기에 바탕 한 집단 의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주관적이고 신변적인 경험을 작품화하고자 했던 1930년대의 문단 경향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 시기 문인들은 문학적 개성을 창조함으로써 문학 기술을 보다 세련화하고 다변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간 신문의 학예면과 종합잡지의 문예면은 수필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토대가 되었고, 1938년에 수필 전문 월간잡지 『博文』이 창간되면서 본격적인 수필문학의 시기가 열리게 되었다.¹⁾ 이 시기 수필을 발표한 문인들은 이태준·이효석 등의 소설가를 비롯하여 정지용·김기림 등의 시인들뿐만 아니라, 김진섭이나 이양하 등의 비평·학술 분야의 문사들에게까지 이른다. 이러한 수필의 양적 증가를 우려하는 당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²⁾, 수필의 형식과 내용이 조선 문학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컸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수필의 범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수필의 매력은 자기를 말한다 데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수필은 소설과는 달라서 그 속에 필자의 심경이 약여히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 작가 자신도 허세와 假作의 세계에서 腦漿을 짜는 거짓된 슬픔보다는 자기신변

1) 1930년대 수필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김현주,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참고.

2) 예컨대 최재서는 「문단유감-문학의 수필화」(『동아일보』, 1939.2.3.)에서 문단의 수필화 경향이 저널리즘의 상업적 요구에 굴복한 결과로 문학이 ‘이지고잉(easy-going)한 만필(漫筆)’이 되어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과 심경을 아울러 고백하는 참된 기쁨에 취하고 싶은 경향이 농후해진 것은 아닐까.³⁾

그렇지만 수필이 가지는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문장에 있다. 이는 최근에 와서 문장이라는 것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고 있다. 문학이라는 것은 필경 「언어」로써 되는 것이고 언어의 「콤비네이션」이 문장이다. (…) 대상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된다. **작가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학의 어느 분야보다도 수필에 있어서다.** (…) 차라리 수필이야말로 소설의 뒤에 올 시대의 총아가 될 문학적 형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⁴⁾(강조-인용자)

일찍이 김기림의 이러한 언급이 있기도 했지만, 1930년대 상당수 문인들은 수필을 통해 자유로운 자기 현시의 개척을 이루었고, 이 글에서 주로 다루게 될 정지용 역시 이러한 문단의 분위기 속에서 수필쓰기를 통해 문학적 개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지용은 1936년 『조선일보』에 「愁誰語」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필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정지용의 수필은 의고체적 어휘와 구문의 구사로 독자적인 문체를 완성하고자 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 수필인 「愁誰語」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기행산문에서 개성적 문체와 작가만의 심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지용은 이병기·이태준과 함께 『문장』의 편집자로 관여하면서 1930년대 말 문단의 상고주의를 주도한 '문장파' 문인의 한 사람이다. 이 시기 「愁誰語」나 「嘉藍時調集」, 「嘉藍時調集跋」을 비롯한 정지용의 산문에 나타난 한자 어투와 의고형 문체의 시도는 잡지 『文章』의 상고주의적 경향과 관련이 깊다.⁵⁾ 이태준은 이러한 정지용의 고아한 의고형 문체를 일컬어 '내간체의 향수에서 비롯된 (…) 신고전주의적 (…) 예술문장'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정지용이 첫 시집인 『정지용 시집』(1935)을 발표했을 무렵에는 상고주의자라기 보다는,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토대로 조선시의 근대적 성과를 이루어낸 모더니스트로 알려져 있었다.⁷⁾ 이러한 조선문단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은 『백록담』(1941)을 발표할 무렵에는 '상

3) 김진섭, 「수필의 문학적 영역(下)」, 『동아일보』, 1939. 3. 23.

4) 김기림, 「수필·불안·카톨릭시즘」, 『新東亞』, 1933. 9; 『전집』3권 114p.

5) 황중연, 「韓國文學의 近代와 反近代」,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참고.

6) 이태준, 『문장강화』, 서음출판사, 1988.

7) 김기림은 「1933년 시단의 회고」(『조선일보』, 1933.12.7.~12.13; 『전집』 2권.)에서 “시는 무엇보다도 언어를 재료로 하고 성립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의 유일한 매개인 이 언어에 대하여 주의한 최초의 시인이었다.”라고 정지용을 평하고 있다. 이후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인문평론』, 1939.10.)에서는 정지용을 “최초의

고주의자라는,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지용의 산문들은 주로 『정지용 시집』의 모더니스트가 『백록담』의 상고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분석되어왔다. 최근에는 정지용의 초기시에 나타난 일본어와 조선어의 이중 언어적 글쓰기가 조선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지용으로 하여금 꾸준히 조선적 시형을 구상하게 했고, 그 결과 『백록담』에서 시적 변모가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⁸⁾ 『정지용 시집』 이후 『백록담』이 나오기까지 정지용은 신변잡기에서 시론, 예술 감상평, 발문,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산문을 발표하였다. 정지용의 일련의 산문에 드러난 개성은 흔히 반속적(反俗的) 경향의 고상하고 우아한 댄디(증)의 풍모로 이야기되는데, 이러한 문학적 개성은 『백록담』에 이르러 초기의 시편보다 한층 심화된 시세계를 형성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⁹⁾

하지만 정지용의 산문에는 작가의 미적 경험을 통한 심미적 개성의 발현, 문학어로서의 다양한 조선어 문체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단지 시적 경향의 변모를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 자료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지용 자신이 문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산문을 썼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산문은 하나의 독자적 영역으로 전제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정지용의 기행산문은 낯선 지방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향토의 풍속과 자연풍광이 작가의 심미적 감각과 개성을 드러내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시기 정지용의 여행기는 김영랑, 김현구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고 쓴 「多島海記(1-5)」¹⁰⁾, 서양화가 길진섭과 함께 평안도와 서북국경지대를 유람하고 쓴 「畵文行脚(1-13)」¹¹⁾, 내금강 일대를 유람하고 쓴 「內金剛素描(1-2)」, 김영랑의 고향 강진에서 머물면서 서간문 형식으로 쓴 「南遊」¹²⁾ 등이 있다. 정지용은 여행의 목적이 탐승이 아니라 감상에 있는, 여행자체의 즐거움을 향수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오면 여행의 의미가 20년대 민족주의 문인들이 생각한 것과 상당히

모더니스트"라고 명명한 바 있다.

8) 하재연, 「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시의 지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

하재연은 정지용 특유의 언어적 경험으로부터 초기 『정지용 시집』과 『백록담』의 시적 변모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지용이 초기 시를 일본어와 조선어로 창작하고, 상호 번역하면서 이중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지용은 일본 모더니즘 시의 어휘와 이국의 사물들을 조선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의 예민한 시적 감각은 근대적 경험과 혼재를 구현하는 조선어의 새로운 형식을 동시대의 조선 문인들보다 한 발 앞서 주조해 내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지용의 언어적 감각과 경험이 시집 『백록담』에 이르러 조선적 시형의 구사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외에도 정지용의 일본 유학 시기의 이중 언어 글쓰기와 관련한 논문으로는 사나다 히로코(眞田博子), 『最初の 모더니스트 鄭芝溶』, 역락, 2002이 있다.

9)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10) 정지용, 「多島海記」, 『조선일보』, 1938. 8.23.~30.

11) 정지용, 「畵文行脚」, 『동아일보』, 1940.1.28.~2.15.

12) 「南遊」는 각각의 제목으로 『동아일보』(1938.8.6.~23.)에 연재되었고, 이후 『지용문학독본』에 수록되었다.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신문학 초창기 국민문학과에게 있어서 조선의 영토는 근대적 nation을 형성하기 위한 '조선심' 혹은 '조선 정신'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남선·이광수 등은 국토기행문을 통해서 조선민족의 정신적 기원을 찾고 조선적 특수성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이 당시에 발표된 국토기행문은 조국산하의 답사를 통해 민족을 통합하는 표상을 발견하였는데, “朝鮮의 국토는 山河 그대로 朝鮮의 歷史며 哲學이며 詩며 精神”¹³⁾이라는 최남선의 말은 이른바 조선인의 민족성이자 함양해야 할 정신적 표상인 '조선심'을 조선의 산하에서 찾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국토기행문은 민족의 자기정체성을 발견하는 서사를 통해서 민족의 심상지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민족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지용에게 있어서 여행은 향락적이고 자유로운 유람이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 친근한 동류적인 어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유로운 유람'과 '어울림'은 그의 산문 문체를 유려하게 만든 힘이었는데, 여행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의 감각적 묘사라든가 상대를 염두에 두는 듯한 친근한 어조는 상대방에게 내밀하게 자신의 심경과 상황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¹⁴⁾ 그 외에도 토속적 사투리의 구사나 “고전 문장의 어휘와 구문에 현저한 경사를 드러낸 자기류의 문체 개발”¹⁵⁾은 정지용의 기행산문이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기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체 실험을 통해서 문학적 개성을 드러내고자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2. '말과 뜻과 眞情'¹⁶⁾이 얽힌 개성적 문체의 고안

마침내 글이라는 것은 말과 뜻과 眞情이 서로 얼키어 안팎을 가릴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極致일
가 싫어라.¹⁷⁾

13) 최남선, 『巡禮記의 卷頭에』, 『尋春禮讚』, 1926.

14) 신범순, 「정지용의 시와 기행산문에 대한 연구 -혈통의 나무와 德 혹은 존재의 平靜을 향한 여행-」, 『한국현대문학연구 제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1. 6.

15) 황중연, 앞의 글.

16) 정지용, 「옛 글 새로운 정(上)」, 『동아일보』, 1937.6.10; 『정지용전집』2 산문, 민음사, 1988. 213쪽.

17) 정지용, 위의 글.

문학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결벽적인 태도를 보인 정지용은 산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정지용이 여러 편의 산문에서 내간체를 공들여 구사한 이유는 단순히 의고적 문체에서 느껴지는 예스러운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한시(漢詩)나 경서(經書)류가 아닌 내간(內簡)에 주목한 이유는 서간문의 형식을 통해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친밀하고 진정어린 소통이 이루어지는 내밀한 글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옛 글 새로운 정」에서 정지용은 시조 한 편과 내간 세 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자에”와 “마음쓰심”과 “엄위(嚴威)”와 “인정”과 같은 편지 수신자를 향한 발신자의 감정과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¹⁸⁾ 이러한 감정과 태도가 진정으로 드러난 것이 문장의 더할 수 없는 경지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가 세상의 탁류에 섞이지 않으려는 지조와 절개의 선비정신을 담은 글을 “개인 하늘과 햇빛과 이슬이라도 능히 걸러 지나도록 곱고 가는가 하면 더러운 손아귀에 구기어지지도 때에 물들사 싶지도 아니한 신비한 비단폭과 같”¹⁹⁾다고 칭송한 것에서, 그가 말하는 문장의 ‘진정’에는 결벽한 반속주의(反俗主義) 정신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지용이 말하는 ‘말과 뜻과 진정이 얽혀’ 있는 문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장의 기교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글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태도와 정신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정지용의 고상한 댄디즘적 풍모는 이러한 문장론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지용의 조선어 문체에 대한 관심이 고전에 대한 경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화문행각」 평양 편에서 그 지역의 독특한 말투를 활용한 산문체를 쓰기도 했고, 「다도해기-4 실적도」에서는 “이상스럽게도 혀끝에 돌아가는 사투리며 들어보지 못한 민요”²⁰⁾에 대한 매혹을 표현한 바 있다.

나야 선잠을 잤다구 할 것이 없었다. 잘 만뎨 잔 것에 틀림없는 거디, 어저께 차에서 몇 시간 뵈좁은 자리에 쫓꼬라티구 켄디누라구 어깨가 빠근한 듯하던 거디 아주 풀렸구 심기도 저으기 쾌하다. 아래서 호텔 의 아침 살림살이다운 설레는 소리가 일구 이중유리창 또루루 말레올리는 커어틴은 아즉 벌은 아니라두 십분 허애온다. 일어나 잠옷바람으루 이전 활짝 달어 있는 스팀 옆에서 그림엽서를 별로 긴ㅎ지 않은 데

18) 김신정은 「내간체 산문과 새로운 글쓰기의 실험과정」에서 정지용 산문의 미의식을 “내용과 형식, 마음과 태도와 문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동양적 글쓰기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의 착안점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19) 정지용, 위의 글.

20) “이상스럽게도 혀 끝에 돌아가는 사투리며 들어보지 못한 민요며 연애와 비애에 대한 풍습이며—그러한 것들이, 어쩐지,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불 일 듯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지용, 「다도해기」 4, 失籍島, 『전집』 121쪽.

까지 몇당 쓰구 그 길루 탕에 가서 실컨 더운물에 몸을 감구 철버덕거리기까지 하구 나서구 館后里성당
아들시반 미사를 델 만하 던 거디다. (…)

말세 말이 낫됐으니 말이디 폐양사람들은 말의 말세에 췌, 데, 테, 리끼니, 자오, 라오, 뜨랬는데, 간, 글
란, 등등의 소리루만 들리는 것은 아무래두 내 귀가 서툴러서 그를디, 예사 할 말에두 몹시 싸우듯아며 여
차하든 꺾참한대, 쌍, 새끼, 치, 닭 등의 말이 성급하게 나오는 것은 혹은 내가 너무 과장하여 하는 말이
아닐디두 모르갔으나 하여간 부녀자들두 초매 끝에 췌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만 싱싱하구 씹씩하기가 차
라리 歐洲여자 같은 데가 있다.²¹⁾

정지용은 평양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말투에 상당한 흥미를 느꼈던 듯하다. 「화문행
각」 '평양 2편'부터 '4편'까지는 의도적으로 평양 지역의 말투로 구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
역의 말소리와 어투에 대한 인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문행각」 '평
양 편'의 문체는 다른 지역 편의 문체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정지용은 왜 평양의 말투에 특히 관
심을 갖고, 이를 자신의 산문 문체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30년대 중후반의 조선문학과 조선어글쓰기를 둘러싼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5년 카프해체를 전후로 하여 일본어 공용화와 조선어 교육의 축소라는
식민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어'로서의 일본어와 '지방어'로서의 조선어의 위계가 가시화되었
다. 또한 일본어 출판물의 수입 증가로, 일본어 신문이나 서적·잡지를 직수입해 읽는 독자층이
확대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조선어 문학'의 입지와 위상이 변화되고 있었다. 일본잡지 『改造』
의 현상창작으로 등단(1932)하여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했던 장혁주 이후로 일본 문단에 직접 진
출하고자 하는 조선인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제 조선에서 조선어로 문학을 한다는 것이 어
떤 의미인가를 조선 문인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실제
로 1930년대의 신문·잡지에서는 조선문학과 조선어글쓰기에 관한 좌담회나 특집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조선문단 내에서 '조선문학'에 대한 개념 규정 및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다.²²⁾

얼마 전부터 내 가슴에 걸려서 아직까지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民族과 言語」의 문제다. (…) 즉 현
단계에서는 한 민족이 그 민족의 말을 내던지는 것은 역사의 진전에 대한 봉사가 아니고 도리어 그 背叛

21) 정지용, 「화문행각10-평양4」, 『전집』 88쪽.

22) 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글쓰기에 관해서는 하재연, 앞의 글 참고.

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다.

民族語의 소멸, 민족문화의 소멸, 그래서 단일문화의 실현은 역시 민족들 사이의 物的 境界가 없어지고 훨씬 뒤에 올 일이 아닐까. 암만해도 그게 옳은 생각이다.²³⁾

조선문학의 개념에 대한 문인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당시 문단에서는 조선어가 창작활동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²⁴⁾ 위에 인용한 김기림의 언어관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정지용 역시 언어 속에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선문학에 있어서 조선어글쓰기는 당위적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었다.²⁵⁾ 이처럼 조선어로 창작을 하는 문인들은 ‘국어’인 일본어에 대응하여 조선어글쓰기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문학 언어로서의 조선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적인 새로운 감각을 주는 ‘신어(新語)’를 만들어내어 언어의 풍부화를 꾀하거나, 개성적인 문체를 개발하는 것은 이 시기 조선문학 창작자들에게 당면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지용이 명실공히 한 세대를 대표하는 문체를 완성한 문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²⁶⁾은 그가 조선문학 창작 주체로서 문학 언어로서의 조선어를 다양화하고 개발하기 위해 무척이나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정지용이 평양을 여행하면서 평양 지역의 독특한 말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자신의 산문문체에 적용하고자 시도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지용에게 평양 사투리는 단순히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지역 방언이라기보다는 평양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이 어우러져있는, 즉 ‘말과 뜻과 정이 얽혀있는’ 문학 언어의 가능성이 느껴지는 언어였던 것이다.

말이 청산유수 같다는 말은 폐양사람한테 맞지 않는다. 원래 말을 꾸밈 만한 수사를 갖지 않았다. 말소리가 대체로 큰 편은 아니요 다字 줄에 나오는 語音을 다분히 차지한 언어가 공기를 베이며 나갈 제 췌

23) 김기림, 「民族과 言語」전문, 『조선일보』, 1936. 『전집6』 129쪽.

24) 「조선문학 건설을 위한 문예좌담회」, 『신동아』, 1935, 9.
「문예운동의 모태인 한글어학의 장래를 위한 대책여하」, 『삼천리』, 1936.6.

25) 「민족문학의 길을 통하여」, 『삼천리』, 1935. 10; 「시문학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8. 1.

26) 김기림은 최명익 소설의 문체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지용과 이태준, 이상을 한 세대를 대표하는 문체를 완성한 작가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文體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감각의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다. 崔明翊씨의 「心紋」이 가진 매력의 하나는 그 문체가 芝溶 …… 泰遠 …… 李箱 ……을 거쳐서 자라온 새 語法을 섭취하고 용해해서 한 개의 특이한 감각과 신경에 떨리고 있는 점에도 있다.” 김기림, 「心紋의 生理」, 『조선일보』, 1939. 6. 2; 『전집 6』 134쪽.

셋 하는 마찰음이 섞인다. Intonation의 구조는 실상 순수한 서울말과 같이 되어서 짹짹하고 칠칠한 맛이 더욱이 여성의 말은 라덴계통의 언어처럼 리스미컬하다. 호느적거리고 끈적거리는 것이 도모지 없다. 평양 여성은 어디나 다를 것 없이 다변적인 편이겠으나 수다스럽지 않고 평양 남자의 뜬뜬한 과묵은 도리허 과분히 直情的인 것을 속으로 견디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적이요 휴지부가 많이 끼이는 설화에도 소박한 인정이 얼마든지 무르녹을 수 있다. (...) 원래, 나가서 맛고 들어와서도 “그 새끼 한 대 답새 줄렀다가 그만됐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기질이 되어서 오해도 화해도 심히 빠를가 한다. (...) 몇 부리는 것과 ‘노적’대는 것을 평양사람들은 싫어한다. ‘맛’이라는 것이 실상은 호남에서도 다시 남쪽 해변 가까이 객과 기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발전된 것이 아닐가 한다. 그림 글씨와 詩와 文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멋이 아니라 운치다. 멋은 아무래도 광대와 명창에서 물들어 온 것이 아닐가 하는데 남도 소리의 흐르는 멋이 수심가에는 없을가 한다. (...) 결국 음악적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 둘이 다 못될 바에야 수심가는 순연히 백성 사이에서 자연발생으로 된 토속적 가요라고 볼 수바게 없을가 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리듬에서 툭툭 불거져 나뉘는 비애가 어딘지 남도 소리에서보다도 훗석 근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살얼음 아래 잉어처럼 소곳하고 혹은 바람에 향한 새매처럼 도사리고 불르는 토산기생의 수심가는 서울서 들던 것보다 다르다.²⁷⁾

정지용에 따르면, 평양 사람들의 독특한 말투는 그들의 기질과 관련이 깊다. 평양의 여자들은 수다스럽지 않고, 남자들 역시 요란한 말 보다는 뜬뜬한 과묵으로 마음을 표현한다. 그들은 말의 기교나 수사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양 말에는 수사적 표현들도 적은 편이다. 얼핏 타지인의 눈으로 볼 때 지나치게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평양 사람들의 말 속에는 ‘벽오동 중허리 툭쳐서 서로 마주 세운 생목처럼 담차고 싱싱한’²⁸⁾ 맛이 있다. 이렇게 점잖고 무게가 있는 평양 사람들의 기질과 어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끄는 진중한 힘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정지용은 평양 말투의 매력을 이렇게 느끼고 있던 것 같다. 그 힘이라는 것이 정지용이 좋은 문장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었던 ‘뜻과 진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평양 사람들의 기질에서 특유의 말투가 비롯되었는지, 반대로 지역의 독특한 말투가 그들의 기질을 낳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질과 말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안과 밖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른 것이 바로 평양 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양 말투가 하나의 예술적 경지로 승화되어 있는 것이 평양 수심가이다. 평양

27) 정지용, 「화문행각」8, 평양2, 『전집』 79쪽.

28) 정지용, 앞의 글.

수심가의 “단순소박한 리듬에서 불거져 나오는 비애가 화려한 기교의 남도 소리보다 더 근대적으로 느껴진다”는 정지용의 말은, 평양 특유의 어투가 수심가를 통해서 하나의 예술언어로서의 개성을 획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지용이 그 어떤 작가보다도 문체에 공을 들였던 작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유달리 평양말투에서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산문문체에까지 적용하려했던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당시 문인들에게 조선어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일본어에 대항하여, 문학 언어로서 조선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출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문학인들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조선어가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언어 예술을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문학 언어로서의 조선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정지용이 고전에서 찾아낸 문학 언어가 내간체 산문이었다면, 「화문행각」 평양 편은 문체는 지방어에서 발견한 문학 언어였던 것이다.

한편, 「화문행각」에는 정지용이 평양 사투리를 흉내 내어 길을 묻고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신사 하나를 만나서 나는 우덩 “털도호텔을 어드메루 해 갑네까?” 묻는다는 거디 호텔이 호가 왜 그르디 회루 발음되는 걸 어드칼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 한번 “털도 회텔이요 털도 회텔 말씀이야요.” 거듭 하누래니 그이는 침착한 표준발음으루 철도 호텔의 방향을 대 주었다. 아무래도 내가 폐양말루, 그가 京言으루, 우리가 路上에서 잠시 타협하였던 거디라구 해석된다.²⁹⁾

정지용이 평양 말을 그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 품성, 즉 ‘뜻과 진정’이 어우러진 것으로 조선문학의 새로운 감각을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의 언어로 여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학 언어로서의 가능성이지 일상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산문에서 평양 말투를 활용하여 독특한 문체를 구사했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만난 평양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그의 말투는 어설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이방인에 불과한 그에게는 평양사람들의 말에 녹아 발현되고 있는 지역 특유의 기질과 품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대화가 평양말과 서울말로 타협하여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문학 언어로서의 조선어와 일상 언어로서의 조선어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던 정지용에게, 자신의 언어관이 확인된, 인상적인 장

29) 정지용, 「화문행각」10, 평양 4, 『전집』 89쪽.

면으로 느껴졌던 것인지도 모른다.

3. '미적인 것'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정지용에게 있어서 기행산문은 다양한 문체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글쓰기였던 동시에 낯선 곳의 자연과 풍물을 접한 작가의 심미적 체험을 문학적 개성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글쓰기 양식이 었다. 여행 중 이방인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오롯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기도 하다. 이처럼 일상을 벗어나 낯선 풍광을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를 미적 주체로 세우는 것이 이 시기 기행산문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행지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개성을 발견하기 위한 공간이 되며, 여행지에서의 낯선 풍물과 자연은 여행자의 미적 감각을 일깨우고 생동감 있게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제 슬프지도 않은 그들이 마음에 내려 앉어 좀처럼 눈물을 흘린 일이 없었기에 인제는 나의 심정의 표피가 호도 껍질같이 오롯이 굳어지고 말았는가 하고 남저지 청춘을 아주 단념하였던 것이 제주도 어구 가까이 온 이날 이른 아침에 불현 듯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오리까.³⁰⁾

하물며 첫 정월에도 흰눈이 가지에 내려 앉는 날 아조 푸른 잎잎에 새빨간 꽃송이는 나그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박힐 것이오리까! 더욱이 그것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있다싶이 한테야 어찌합니까! 무덤 앞에 石物은 못 장만할지라도 동백나무와 盤松을 심어서 세상에도 쓸쓸한 처소를 거울에도 봄과 같이 꾸민다 하오니 실로 南方에서 얻을 수 있는 황홀한 詩趣가 아니오리까.³¹⁾

그가 여행지의 풍광과 자연을 통해 느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운치와 시취(詩趣)였던 것이다. 이때 표출된 작가의 개성은 정치적이거나 민족적 이념에서 다소 벗어난, 다분히 심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상하고 우아한 댄디즘으로 설명되는 정지용의 이러한 미적 경향은 지방유람(여행)을 통해서 보다 강화되는 듯하다. 정지용은 여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30) 정지용, 「남유편지」 5, 「烏竹·孟宗竹」, 『전집』 123쪽.

31) 정지용, 「남유편지」 6, 「동백나무」, 『전집』 112쪽.

1930년대 말에 이르면 기행산문을 포함한 여러 수필에서 ‘미적 경험’이나 ‘미적 감각’에 대한 언급이 많이 보인다. 이 시기에 예술가의 미적 감각과 미적 자율성에 대한 사유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어로 문학을 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근대화 과정에서 ‘미적인 것’이 특수하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분화될 때, 예술은 사회적이거나 정치·도덕적 범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파생물로서 이데올로기에 복속되는 예술이 아니라, 미적 자율성을 전제로 문학이 존재하게 될 때, 문학 창작자들의 지위 역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930년대 말, 조선어글쓰기가 국어(일본어)에 밀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결과로 다양한 조선어 문체의 개발과 조선 문학의 미적 자율성 모색이 문단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때마침 증가하게 된 수필양식과 함께 작가들은 미적 경험과 개성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일터에서나 혹은 서재에서 골몰한 일에 묻혀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창으로 달려가서 활짝 밖으로 열어제친다. 우리가 가끔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도 별것 없이 어느 편으로 보면 정역살이에 틀림없는 인생에서 잠시 떠나서 푸른 하늘로 바다로 숲으로 향해서 창을 열고 싶은 까닭이다.

근대인을 위해서 여행의 叢書를 처음 起草한 것은 아마 「보들레르」일 것이다. 「말코·폴로」는 궁금해서 길을 떠났지만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막대한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여행에 구원의 血路를 구한 것은 「보들레르」에서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진짜 여행가는 다만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다. (...) 나는 생각한다. 李箱이 그리워한 것은 반드시 괴로운 꿈 많은 계절조의 날개가 아닌 것 같다. 그는 차라리 天空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 인류의 종족을 꿈꾸었을 것이다. (...)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행복스러운 어족들의 여행을 머리 속에 그려 본다. 해류를 따라서 오늘은 眞珠의 촌락, 내일은 해초의 森林으로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어족들, (...) 나는 그들이 海底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열도 「프랑코」 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 나는 오늘 그 「보스톤·백」과 그리고 短杖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 來日은 그 속에 두어벌 내복과 잠옷과 세수기 구와 그리고는—「惡의 꽃」과 불란서말 자전거를 집어넣자. 동서고금의 모든 시집 속에서 오직 한권을 고른다고 하면 물론 나는 이 책을 집을 것이다.³²⁾(강조·인용자)

구라과에서는 失戀青年은 西편으로 亞米利加로 갔다. 幽靈도 西로 갔다. 조선서는 이전이면 만주로 갔

32) 김기림, 「旅行」, 『조선일보』, 1937. 7. 25~28; 『전집 5』 172~175쪽.

다. 지상에 미개한 대륙이 점점 더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도망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도망을 계획하는 것은 역시 젊은 사람의 特權인가 보다. (...) 만연히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소간은 도망자다. (...) 신분과 지위와 수입의 고려를 무시하고 잠시 破産의 幻影을 즐겨보는 것도 이런 때다. 車窓 밖에 내다보이는 수풀, 시내, 들, 바다 할 것없이 자연은 언제나 인생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³³⁾

김기림은 여행을 소재로 한 짧은 수필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감각을 추구하는 것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보들레르적 여행과 같이, 아무 것도 목적인 바 없이 일상을 벗어나 고독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는 것이 정지용과 김기림이 말하고 있는 여행의 의미였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고자 했고, 이 '자기만의 세계'라는 것은 주체의 미적인 경험과 무연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지용이 남방에서 발견하게 되는 시취(詩趣), 김기림이 국경도 정치도 없는 바다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천공을 날아다니는 새 인류의 자유로움은 모두 여행을 통해서 상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기림은 1930년대 중반에 몇 편의 기행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히려 이때 쓴 기행문에는 여행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김기림의 수필은 주로 도시적 일상을 묘사하고,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상품들로 넘쳐나는 경성의 소비문화와 화려하게 치장된 도시적 행복에 대한 씩씩함과 냉소를 보이는 관찰자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生活의 바다」(『조선일보』, 1935.8.)나 「朱乙溫泉行」(『조선일보』, 1934.10.24.~11.2.) 등의 기행산문이나 「多島海 亂想」(『조광』, 1935.12.), 「관북기행」(『조선일보』, 1936) 등 여행을 소재로 한 일련의 시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태도는, 문명사회에 대해 냉소적인 이방인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김기림은 이러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도시에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향토의 자연과 근대화 이전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한편으로는 지방의 생활까지도 점차 자본화·문명화 되어가는 현실을 아쉬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김기림의 기행산문(기행시)에는 여행을 통한 심미적 감각의 발현보다는 근대화·문명화에 대한 반성과 객관 풍물의 관찰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김기림이 '미적인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정지용이 일련의 기행산문을 발표하던 시기인, 30년대 말의 수필들에 이르러서이다. 1930년대 말에 이르면 김기림은 도시의

33) 김기림, 「逃亡」, 『조선일보』, 1940. 8. 2; 『전집 5』, 239~240쪽.

거리풍경, 도시의 일상 등을 다룬 거리의 글쓰기가 아닌, 자신의 내부를 향한 글쓰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모더니즘으로부터의 선회이자 근대 서구문명추구로부터의 선회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39년 이후의 김기림의 산문에는 모더니스트로서의 사상적·문화적 신념을 잃은 실존적 고뇌가 나타난다.³⁴⁾ 이러한 실존적 고뇌는 ‘동양’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유가 서양과 근대문명에 대한 반성과 결합하면서 ‘근대에 대한 성찰’로 구체화된다.

그러한 時期에 西洋이 마땅히 우리러보아야 할 것은 東洋이었다. (...) 東洋에 태어난 文化人에게 있어서 이 瞬間은 바로 새로운 決意와 發奮과 希望에 찰 때라 생각된다. 受動的으로 壓倒된 모양으로만 넘쳐 들어오던 西洋文化는 드디어 우리와의 사이에 한 距離를 두고 잠시 물러섰다. (...) 東洋은 그저 덮어놓고 傾倒될것이 아니라 다시 發見되어야 하리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發見될것인가? (...) 眞正한 東洋의 居處를 制度나 因習의 外廓에서 찾지 못하였을 때 또는 外廓에서 만난 것이 本人의 얼굴이 아닌듯한 경우에는 우리는 마땅히 文學또는 藝術의 深室로 그를 찾아들어가야 할 것이다. (...) 藝術은 한 集團이나 個人의 創造力을 가장 아낌없이 開放할 수 있는 領域이다. 因習속에서는 한 集團은 자조 거짓말을 하나 그 藝術에서나 文學에서는 自己를 속이지 못하는 것이 普通이다. 이렇게 自己를 속인 藝術이나 文學이라는 것은 設使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到底히 永續할 수는 없었고 制度나 因習우에 돌은 버섯처럼 하로살이의 목숨 밖에는 가지 못하였던 것이다.³⁵⁾(강조-인용자)

이러한 김기림의 성찰 과정에서 서구적 근대의 대안으로 언급된 ‘동양’과 함께 ‘문학’과 ‘예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과 예술에서 진정한 동양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김기림이 근대화와 문명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미적인 것’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김기림이 의미하는 ‘미적인 것’은, “홀러가는 구름 위에도 오히려 역사의 물굽이를 그려보고, 바람 소리 속에서도 세기의 잡담 밑에서 꿈틀거리는 새로운 동향을 만져보”고 “고독과 정밀(靜謐) 속에서”서 “일상적인 잡념을 거두어 버리고”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본질적인 것”³⁶⁾을 의미한다.

34) 김현주는 김기림의 「산」(1939)을 기점으로 「동양의 美德」류의 단장(斷章)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한다. - 김현주, 앞의 책.

35) 김기림, 「東洋에 關한 斷章」, 『문장』, 3권 4호, 1941. 4.

36) 김기림, 「東洋의 美德」, 『文章』, 1939. 9. 『전집 5』, 232쪽.

그러나 김기림은 1930년대 말 서구적 근대의 종언과 파산이 선언되는 상황에서 성급히 근대의 종언을 선언하거나 '동양'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러한 담론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근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하였다. 아마도 김기림에게 '미적인 것'은 그 자체로 매혹적인 감각이면서도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장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시기의 김기림이 "피로와 체념의 심정에 의해 인식의 생장은 저지되고 있으며 지성은 무기력과 마비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³⁷⁾었다는 어느 연구자의 분석은, 1930년대 말 김기림의 사색적 수필이 피로와 체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김기림이 '미적인 것'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복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효석은 이와 달리 '미적인 것' 자체가 지닌 해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효석은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여행을 소재로 한 글³⁸⁾을 썼는데, 여행지에서의 경험이나 관찰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미적 경험'과 '미적 감각'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그는 '미적인 것'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칸트의 무관심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나 종교, 도덕으로부터 독립된 예술의 지위와 자율적 영역을 강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미의 특권같이 큰 것은 없다. 미는 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 감동시키고야 만다. 굳이 록토의 말을 빌어올 것도 없이 미의 위력같이 큰 권위를 나타냄은 없다. 미는 말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뽐내지 아니하나 스스로 무언의 위력과 침묵의 권위를 발휘하여 접근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모르는 곁에 매혹케 하고 찬미케 하고 복종케 하고야 만다. (...)

세상에서 미 이상으로 지배적인 것은 없으니 제 아무리 위대한 지상의 것이라도 미의 앞에서는 숨결이 어지러워지며 말이 없어진다. 미는 말을 뺏고 향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도전의 의사를 미전(未前)에 말살 소진(抹殺消盡)시켜 버리는 까닭이다.

미는 결정적이고 운명적이고 따라서 때때로 비극적이다. 구름의 미는 구름에만 부여된 것이요, 장미의 미는 장미 이외의 것에서는 구할 수 없으며, 피피리의 미는 피피리만이 가지는 것이요, 사람의 미 또한 그러하다.

37) 김현주, 앞의 책.

38) 여행을 소재로 한 이효석의 산문에는 「북위42도」, 「北國春信」, 「6월에야 봄이 오는 北鏡城의 春情」, 「그때 그 港口의 밤」, 「朱乙의 地峽」, 「인물보다 자연이 더 나를 반겨주오」, 「東海의 여인」, 「호텔부근」, 「花春意匠」, 「관북의 평야는 향소 가슴 같소」, 「대륙의 껍질」, 「북만주 소식」, 「노마의 십년」, 「겨울여행」 등이 있다. 김미영, 「이효석의 비소설류 글에 대한 고찰」,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제12집, 2008. 6.

갑의 미는 을의 미와 구별되며 병의 미가 아무리 탄식한대야 정의 미를 뺏을 수는 없다.

(…) 미를 말할 때 반드시 경제를 설명하고 역사를 캐야 한다면 치열(稚劣)의 비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객관을 변경하고 객관이 주관에 규정하기는 하나 몇세기쯤의 시간이 미의식의 기준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뒤집어엮을 수는 없다.³⁹⁾

이효석은 ‘미적인 것’의 독자성과 그것이 발휘하는 강력한 힘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적인 것’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의 특권이자 운명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미적인 것’의 정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김기림과 대조된다. 그는 서양에 비해서 빈약한 우리의 문학(문화)이 나아갈 길은 “자연에 대한 미의식을 왕성히 배양하고 자연물의 형상, 색조, 의장을 생활양식에 알뜰히 이용하여 나아가 독창적 발명을 더하여 생활을 재건”⁴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여러 편의 수필에서 자연의 다채로운 생명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원형을 간직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효석은 한 여행기에서 고구려 장수왕의 도읍지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밭 기슭에 소와 산양이 매어 있고 초가에서 저녁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풍경에서 “옛 종족의 후예임이 틀림없을 마을 주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다시 옛일을 추상할 때 스스로 유구한 역사의 감회가 유연히 솟아”올랐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감회는 주인모를 “초록빛 하이힐의 아름다운 모양”을 멀리서 보고 “멋대로 신발의 주인공을 상상하고 타진하고 짐작하여 애정(哀情)을 느끼는 태도와 흡사한 것”으로, 미적 감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여 세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정지용은 이효석처럼 ‘미적인 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전제하여 미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칠게 말해, 정지용에게 있어서 ‘미적인 것’의 의미는 김기림과 이효석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감각’이라는 고유한 방법으로 미적인 것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지용에게 있어서 ‘미적인 것’은 ‘조선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의 기행산문에 나타난 ‘조선적인 것’ 혹은 ‘미적인 것’은 새로운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는데,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종의 ‘문화공동체’⁴¹⁾의 상상이 그것이다.

39) 이효석, 「花春意匠」, 『조선일보』, 1937.5.4.~8; 『전집』 7. 137~138쪽.

40) 이효석, 위의 글.

41) 김신정, 앞의 책.

제주도는 마침내 한라 영봉의 오롯한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곳인데 산이 하두 너그럽고 은혜로워 산
록을 둘러 人畜을 깃들이게 하여 자고로 냇 골을 이루도록 한 것이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돌을 갈아
밭을 이룩하고 牛馬를 고원에 방목하여 생업을 삼고 그리고도 童女까지라도 열길 물 속에 들어 魚貝와 해
조를 낚아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근로가 이와 같이 명쾌히 분방히 의롭게 영위되는 곳이 다시 있으리까?
거리와 저자에 넘치는 老幼와 男女가 지리와 人和로 생동하는 天民들이 아니고 무엇이오리까.⁴²⁾

(강조-인용자)

그가 「다도해기」에서 예찬해 마지않는 세계의 경지는 「화문행각」 '선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성적 가족주의'를 토대로 한 공동체적 삶의 경지와 닮아 있다. 그가 추구하는 '미적인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적인 것'을 통해서 창출되고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
행산문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지용이 이 시기의 다른 문인들에 비
해서 유달리 많은 양의 기행산문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조선적인 것'의 다양한 가능태를 발견하
고 실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4. 남는 문제

1930년대 말은 세계사적 격동기였고, 세기말의 데카당의 감각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다.⁴³⁾
서구적 근대의 종말이라는 위기의식과 새로운 시대와 가치창조의 가능성 사이에서 이들이 '미적
인 것'의 경험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지용이 문장론에서 강조하는 '진정(眞情)'은 김
기림이 말하는 동양의 '예술'과 '문학'이 그러하듯이, 이효석의 '예술가적 운명'이 그러하듯이, 미

정지용이 상상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는 신범순도 지적한 바 있다. 신범순은 정지용 기행산
문인 「화문행각」 중 '선천'편에서 어린 아이 은희와 방 안의 동백나무를 등치시켜 이야기 한 것이, 서북지역에서
접한 여성적 가족주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큰마니는 중큰마니의 친정오마니시오 중큰마니는 은
희의 친큰마니가 되신다. (...)로 시작되는 '선천'2편에서 복잡한 혈연관계를 한 어린 여자아이를 위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피의 진한 사랑으로 형성된 혈통의 나무에 가장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은희이며, 이러한 순
순한 어린 아이를 가족의 가장 중심에 놓음으로써 「장수산」의 고요한 적멸과 흰 빛의 순수함에 이 선천의 거대한
가족주의가 그려보이고 있는 혈통의 나무가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북지역을 여행하면서 정
지용이 혈통과 여성적 가족주의를 경험하면서 제도화되기 이전의 안정적 공동체로서 혈통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
가족주의를 일제말 파시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다. 신범순, 앞의 글.

42) 정지용, 「다도해기」 5, 『전집』 124쪽.

43)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적 쾌감을 환기시키는 대상이었다. 이효석의 서구취미와 과장된 자기 치장의 수사나 김기림이 보들레르처럼 여행을 위한 여행길을 떠나고 젊은 동양의 예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감수성, 즉 미적 경험과 쾌감에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지용과 김기림 그리고 이효석은 모두 서구적 근대가 끝났다고 하는 소문 앞에서 '미적인 것'의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개성을 발현하고자 했고, 이들에게 (기행)산문이라는 글쓰기는 자기만의 문체와 세계관으로 개성을 형성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효석의 문학이 결손과 정신적 빈곤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한 어떤 연구자의 언급은⁴⁴⁾ 동시대 문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결핍과 결여를 '미적인 것'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적절한 곳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게 치장함으로써 먼 것을 꿈 꿀 수밖에 없었다. 생활은 재로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다. (...) 나는 늘 이 향기를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하며 언제든지 그것을 주위에 만들고야 만다. 'Don'은 그때 나에게 이 향기를 준 곳이었다. 고요한 곳에서 그 향기를 찾으려고 나는 십 리의 밤길을 앞두고 눈 오는 밤을 그 속에서 지우는 것이다. (...) 창기 에 쌓이는 함박같은 눈송이를 두터운 휘장 틈으로 내다보며 난로와 더운 차에 얼굴을 붉히노라면 감정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찬란한 꿈이 무럭무럭 피어올라 가게 안에 차고 먼 아름다운 것이 눈 앞에 보여오군 하였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형상도 아무 것도 없는 다만 부연 안개일지도 모른다. 그 안개가 생활에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나는 그 안개 속에 많은 밤을 그 안에서 지냈으나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었다. 안개 없이는 살 수 없는 까닭이다. 문학도 그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때 한층 생색있는 것이 된다. 나는 끊임없이 내 주위에 '동'의 안개를 꾸며내고 뿔아내려고 애쓴다.⁴⁵⁾

이효석이 말하는 '향기'나 '안개', 정지용이 말하는 '정', 김기림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다른 듯 보이지만 결핍과 결여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는 말들이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실체를 쉽게 잡아내기 힘든 이것, 이 시대의 작가들이 '미적인 것'을 통해서 채우려 한 결핍과 결여의 실체가 무엇이었던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44)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2.

45) 이효석, 「고요한 '동'의 밤」, 『조광』, 1936. 12; 『이효석전집』7, 113~116쪽.



SECTION 2

일본제국기 ‘고도’ 논의를 위한 시론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정치학

- '문화통치기' 이전을 중심으로

이순자 | 숙명여대

1. 머리말

식민지 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그것이 수용되는 배경에는 식민지 권력이 작용한다. 일제는 조선 식민지 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당시 식민지적 상황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을 시기별로 달리 했지만 시종일관 정치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수탈을 실시하면서도 '內鮮融和' '內鮮一體'라는 구호로 국민적 '同化'를 강조하였다. 이는 일본적 국민의식을 불어넣는 이데올로기의 통합이자 문화의 통합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제는 식민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 기저에 흐르는 고유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인에 대한 이데올로기 지배, 문화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¹⁾

이처럼 일제는 조선과 일본의 同化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조선의 고유문화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 문화의 이용은 양면성을 지녔다. 즉 그 하나는 역사 이래 일본과 조선 문화의 近親性을 강조하여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日鮮同祖論的 觀點'에서의 동화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에 비해 문명적으로 뒤진 조선 문화의 후진성을 근대화하는 '文明開化的 觀點'에서의 동화였다.²⁾ 일본은 이 논리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일

1) Hobsbawm에 의하면 '전통문화'는 과거와의 일정한 관계를 현재에까지 연계시켜 불변의 것으로 '창출'됨으로써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성질을 띠며 규범과 일정한 가치를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E. Hobsbawm/T. Ranger(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1981; 최석영 옮김,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2)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249-253쪽.

환으로 일찍이 식민사관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증작업으로서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자를 위해서는 일찍부터 한국의 역사가 타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漢四郡 관련 유적의 발굴과 '神功皇后 三韓征伐' '任那日本府의 朝鮮支配'를 증명하기 위한 신라의 古都 경주 및 가야지역의 유적 발굴조사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의 문화적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마다 발굴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간행물로 발행하였다.³⁾ 한걸음 더 나아가 수집된 유물을 박물관이라는 전시공간 속에서 재구성하여, 식민지인들에게 일제 식민정책의 근대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식민통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초기 연구는 직접 발굴사업에 참여했던 일제의 고고학자 및 관학자들의 활동 내용, 회고담, 고고학적 발굴보고서 형식⁴⁾이나 개별 유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후 가장 선구적인 연구는 황수영⁵⁾으로, 일제시기 고적조사의 허구성을 자료집을 통해 드러내었다. 이구열⁶⁾과 정규홍⁷⁾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도굴자들에 의한 각종 역사 문화재 약탈 혹은 도굴 사례를 정리하였고, 최석영⁸⁾과 內田好昭⁹⁾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고고학적 고적조사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을 식민사관의 구체화와 약탈·재구성의 작업으로 살펴본 필자의 연구¹⁰⁾가 있다. 이외에 일제강점기 박물관을 연구하면서 그 배경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언급한 연구¹¹⁾가 있으며, 지역 고적보존회의 활동과 연관시켜 부분적으로 살펴본 연구¹²⁾도 있다.

3)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조선학보』 제1집, 1951, 254쪽.

4)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關野貞, 藤田亮策, 梅原末治, 小泉顯夫, 大坂金太郎, 有光教一 등이 있다. 최근 일본 京都木曜クラブ에서는 이들 개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5) 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고고미술 자료 제22집), 1973.

6) 이구열, 『한국 문화재 수난사』(초판 『한국문화재비화』, 1973), 돌베개, 1996.

7)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2005.

8) 최석영, 「일제 지배기의 고적조사와 식민정책」,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9) 內田好昭,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 『考古學史研究』 9, 2001년 5월.

10)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1)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물관, 박물관』, 서경문화사, 2001 ; 국성하,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 연구」, 연세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2) 최석영, 「식민지시대 '고적보존회'와 지방의 관광화 : 부여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18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년 8월; 최혜정, 「일제의 평양지역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보존회 활동」, 『역사와세계』 32, 효원사학회, 2007; 김현숙,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의 발족과 활동」,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미술사논문집), 2007; 차순철, 「일제강점기 경주지역의 고적조사와 관광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회』 13, 신라사학회, 2008.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기본 체제를 갖춘 1920년 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일제가 법령과 관련 기구의 마련을 통해 사업의 체제 정비를 구축해 가는 과정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사업을 통해 수집한 유물을 박물관이라는 전시공간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식민통치의 논리 및 '성과'를 어떻게 가시화하였는지 규명하려 한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에 의해 시작된 유적·유물의 약탈·'보존'과 유적·유물의 소재 공간을 근대적 요구 및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일제의 정치적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의 문화재 약탈 및 關野貞의 고건축·고적조사

(1) 한일병탄 이전 일제의 문화재 약탈

한국 유적·유물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1883년 만주 통구지역의 광개토태왕릉비의 비문 탁본을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가속화되었다.¹³⁾ 그리고 청일전쟁 직전부터 대거 몰려온 불량도항자들이 한국의 고대 무덤을 파괴하고 古器物을 도굴하는 등 한국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만행을 일삼아 원성이 높아졌다. 이들 가운데는 유량을 즐기는 무뢰한들도 많아서 粗製濫造品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행각을 버리는 자들도 있었다.¹⁴⁾

처음에는 한두 명씩 상인으로 가장하여 몰래 거류지역을 벗어나 도굴을 하였으나 청일·러일전쟁 이후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여 대대적인 도굴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도굴은 점차 대범하여 무리를 짓거나, 무력으로 지역사람들을 위협하여 접근을 막기까지 하였다.¹⁵⁾ 따라서 1894년 9월 조선에서는 그들 무뢰한들의 만행을 염려하여 240여 명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고,¹⁶⁾ 1894년 10월에는 칙령 제135호로 무면허 도항자에 대한 금지령을 만들어 제7회 제국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¹⁷⁾ 이런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수집 전리품을 본국으로

13)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野の保存」, 『조선학보』 제1집, 248쪽.

14) 손정목, 「개항기 일본인의 내지 침투, 내지행상과 불법정착의 과정」, 『한국학보』 21, 90~91쪽.

15)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의 고분군은 러일전쟁 직후 이 지역의 석재를 채취하려 들어온 일본인 석공, 토공, 기타 부랑배들이 합세하여 100여 기나 되는 고분을 모두 도굴 파괴하였다.(藤田亮策, 「경상북도·충청남도 고적조사보고」, 『대정11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30~32쪽 참조).

16) 「在韓の本邦人足」(내외회보 조선), 『日清戰爭實記』 제2편, 명치 27년(1894) 5월, 박문관, 72쪽.

수송하여 1894년 9월 6일부터 2주간 1차로 도쿄·오사카 등에서 대중들에게 공개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민의 적개심을 고무시키고 이로 從軍壯士の 훈공을 밝히는 것은 더없이 좋은 방법”¹⁸⁾이라 하였는데, 이는 약탈로써 승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모습이었다.

또한 당시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과 순사들도 도굴에 참여하거나 골동품을 거래하였다. 순사를 지낸 高橋리는 자는 점포도 없이 거래를 하였으며,¹⁹⁾ 경성미술구락부 초대 이사였던 毛利猪七郎은 군인 출신으로 러일전쟁 당시 개성 방면에서 수비를 맡았는데, 개성에서 출도되는 고려자기를 보고 퇴역 후 서울과 개성을 오가면서 골동상을 하였다. 또 경성미술구락부 지배인을 맡았던 太田尾鶴吉도 육군간호졸 출신으로, 퇴역 후 골동상을 하였으며,²⁰⁾ ‘掘屋’이라 하는 직업적 도굴단까지 등장하였다.²¹⁾ 그러나 이들은 조선인들의 적대감을 의식하여 대개 조선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도굴을 단행하는²²⁾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개성 일원의 고려고분에서 도굴한 고려자기를 매매하다 잡힌 범죄자들을 서울의 영사관과 통감부 법무원에서 처벌한 판결문을 보면,²³⁾ 이들은 주로 경기 개성부와 경성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으며, 직업은 무직이거나 농업·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며 그 가운데 고물상도 있었다.²⁴⁾

한편 일본 고관들에 의한 약탈도 주목된다. 1906년 伊藤博文이 초대 통감으로 조선에 취임하면서부터 고려청자가 본격적으로 세인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였다. 통감으로 부임한 伊藤은 경성에서 고려청자를 대거 수집하여 동경으로 가져갔으며, 어떤 경우는 “귀경할 때 정거장으로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입구가 깨진 병이나 파손된 청자 鉢을 나눠주어 가지고 돌아갔다”²⁵⁾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골동상인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통감까지 골동품 수집에 열을 올려 그야말로 한국 고분의 수난시대를 맞이하였다.

17) 「帝國議會議案」(내외회보 일본), 『日清戰爭實記』 제9편, 명치 27년(1894) 11월, 82쪽.

18) 「戰利品の陳列」, 『日清戰爭實記』 제6편, 명치27년(1894) 10월, 46~47쪽; 「戰利品及び捕虜」, 『日清戰爭實記』 제8편, 명치27년(1894) 11월, 18~19쪽.

19) 三宅長策, 「그 당시의 추억-고려고분 발굴시대」(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127쪽에서 재인용).

20) 『京城美術俱樂部創業20年記念誌』, 주식회사 경성미술구락부, 1942년, 3쪽; 6쪽 참조.

21) 小泉顯夫, 「古墳發掘漫談」, 『조선』 1932년 6월, 87쪽.

22) 三宅長策, 「그 당시의 추억-고려고분 발굴시대」(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128~129쪽에서 재인용).

23)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국권회복운동판결문집』, 1995. 「일본인의 고려자기도굴 등 문화재 약탈」조.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5~16쪽에서 일본인 고려자기 도굴, 약탈 사례를 인적 사항을 정리하였음.

24) 吉倉凡農, 『(企業案内)實利之朝鮮』(1904) ‘古物商’조에 보면 1904년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 ‘고물상’이란 직종이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정착하여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白川正治, 『平壤要覽』, 평양실업신문사, 1909년, 21쪽에 보면, 1909년 1월 당시 일본인 업종별 조사에 의하면 고물상이 12명으로, 이들은 모두 일본 상인들로서 대부분 도굴품을 취급하던 자들로 추정된다.

25) 佐佐木兆治, 「朝鮮古美術業界20年回顧」, 『京城美術俱樂部創業20年記念誌』, 주식회사 경성미술구락부, 1942, 30쪽.

한편 일인 도굴꾼들은 고분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연하게 고려고분을 파괴하고 유물을 도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²⁶⁾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발굴품을 일본으로 가져가 유물을 원소재지에서 일탈시켰다.

우리 국토가 일제에 점령당하고 온갖 문화의 유산이 그들에 의하여蹂躪되던 금세기 초반의 역사는 악몽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 자취는 또한 쉽게 이물지 않는다. 그들은 이른바 ‘고적조사사업’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그들이 범한 고대 분묘의 약탈 같은 단 한 가지 사례만을 들더라도 그들은 무엇으로 보상하고 변명하겠는가. 그 중에서도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분묘에 대한 악독한 약탈은 인류역사상 다시 그 유례가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백주에 총검을 들이대고 그 후손들이 필필 뛰고 발을 구르는 눈앞에서 선조의 瑩域을 유린하고 부장품을 강탈하던 만행을 필자는 鄉老들로부터 자주 들었다. 과연 수 만기의 고려고분 속에서 단 1기나마 그들이 오늘도 내세우는 이른바 ‘고적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가.……그리고 이같이 강탈된 수만 점의 고려자기는 지금 일본에 있다고 그들 자신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²⁷⁾

그 후 1912,3년경에는 그 수집열이 최고에 이르렀다. 이미 세상에 나온 막대한 고려자기는 일본으로 유출되어, 당시 오사카의 山中商會는 조선에서 고려자기를 대량으로 사모아 구미 등지로 반출 판매하기까지 하였다.²⁸⁾ 하지만 이때까지도 조선의 지식층 가운데는 고려자기의 존재나 진가에 눈을 뜬 사람은커녕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래 조각가로 1913년에 이 땅에 건너와서 한국의 옛 도자기 문화를 연구했던 일본인 淺川伯教가 창경궁 박물관장으로 있던 末松熊彦에게 들었다는 기록은 이를 증명한다.²⁹⁾ 즉 황제조차 처음 보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고려청자가 일본인들에 의해 고려시대의 왕릉을 포함한 귀인들의 무덤에서 도굴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한일병탄 이전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의 유적·유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은 고려의 ‘古都’인 개성이다. 특히 주로 도항자나 군부·헌병·경찰들에 의한 도굴 사례들이 보이며, 고관들에 의한 유물 ‘수집’ 및 전쟁 전리품으로 문화재를 약탈해 가는 모습들이 빈번하였다.

26) 吉倉凡農, 「古蹟探見」, 『(企業案内)實利之朝鮮』, 1904, 137쪽.

27) 황수영, 〈머리말〉,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고고미술자료』 제22집, 한국미술사학회, 1972.

28) 佐佐木兆治, 「朝鮮古美術業界20年回顧」, 『京城美術俱樂部創業20年記念誌』, 31~32쪽.

29) 淺川伯教, 「조선의 미술공예에 관한 회고」, 1945(이규열, 앞의 책, 71쪽).

(2) 關野貞의 고건축·고적조사

일본에서의 고고학 발전은 대륙 침략 행위와 관련해서 시작하였으며,³⁰⁾ 조선에 대한 연구 역시 일본이 조선 침략의 야욕을 가지면서 학문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그 중에서 특히 정찰적 성격을 지닌 八木熒三郎의 1900년 조사가 ‘일본의 고고학자로는 가장 최초의 연구여행’³¹⁾이었다. 그런데 그의 조사는 조사보고가 남아 있지 않으며, 인종고고·토석 등 인류학적 조사에 집중하였기에 일본 고고학사에서는 1902년에 실시한 關野貞의 한국고건축조사를 그 효시로 잡는다. 關野貞은 1902년의 고건축물 조사와 1909년부터 1911년까지의 고적조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그 조사 대상지로 삼았다.

동경제대 조교수였던 關野貞은 1902년 6월 학교로부터 조선의 고건축 조사를 명령받았다. 당시 關野貞은 谷井濟一과 栗山俊一 등과 함께 62일간 조선에 머물면서 “이 기간 내에 많은 유익이 있는 성과를 얻도록 기획하여”³²⁾ 한국의 古都인 경주개성경성과 그 주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에서는 고건축물, 특히 궁전·성곽·사원·서원·능묘 석조물 등이 주요 대상물이었지만, 조각과 공예품까지도 그 조사 범위에 들었다. 그리고 이 때의 성과물은 1904년 동경제대에서『한국건축조사보고』(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학술보고 제6호)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조선 고적조사의 시작으로 ‘기억될 만한 공적’이었다.³³⁾ 이 책의 서언에는 당시 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처음 나의 출발에 즈음하여 辰野金吾 공과대학장은 특별히 명령하기를 조선 건축의 史的 연구를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관찰하라. 깊지 않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 명령을 명심하고 조선에 있는 중요한 유적은 모두 한 번 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국내의 교통이 불편하고 날짜도 제한이 있고 해서 부득이 이 기한 내에 되도록 많은 유익한 재료를 획득하고자 예로부터 항상 문화의 중심으로서 유물 또한 많은 곳을 선택하니 上古 천 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중세기 오백 년간 고려의 왕도였던 개성 및 근세 오백 년간의 오늘날 조선의 도성인 경성 및 그 주위를 탐험 조사하였다.³⁴⁾

30) 旗田巍, 『朝鮮史』 서문, 1951(김용덕, 『한국학과 역사학』, 『한국학』 제1집, 한국학연구소, 1973에서 재인용).

31) 高正龍, 「八木熒三郎의 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 제6호, 1996년 11월, 34쪽.

32) 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 『한국건축조사보고』(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학술보고 제6호), 1904년, 2쪽.

33)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조선』 1931년 12월, 98쪽.

34) 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 「서언」, 『한국건축조사보고』, 1~2쪽.

여기서 ‘공과대학 학장의 특별한 명령’이란 것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깊지 않더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정책에 자료가 될 수 있는 많은 정보의 탐색에 목적을 두고 조사하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명령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 일에 당시 재한 일본인 관계자³⁵⁾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關野貞에게 특권을 주어 편의를 제공하였다.³⁶⁾ 『한국건축조사보고』는 당시 한국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던 상황에서 한국의 유적·유물에 대한 관심을 두었던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한국의 유적·유물을 중국과 일본의 것과 비교하여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의 ‘모방성’을 특별히 강조하려 하였다.³⁷⁾

그후 1909년 8월 23일 關野貞은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고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고적조사를 위탁받았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 고고학의 조직적인 조사의 시작이었으며, 1915년까지 전국에 걸쳐 건축·고분·성지·사지 등의 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표 1】 1909~1915년 關野貞의 기획에 기초한 고건축 및 고적 일반 조사

연도	조사지
1909년	경기도 : 경성 광주 양주 수원 개성 / 황해도 : 황주 / 평안남도 : 평양 안주 / 평안북도 : 의주 정주 영변 / 충청남도 : 조치원 공주 부여 강경 은진 / 충청북도 : 옥천 / 경상북도 : 대구 영천 경주 / 경상남도 : 울산 부산 김해
1910년	충청북도 : 옥천 보은 / 경상북도 : 성주 고령 선산 / 경상남도 : 창녕 함안 진주 하동 합천 / 전라남도 : 곡성 옥과 창평 광주 남평 능주 구례 나주 목포 영암 해남 / 전라북도 : 전주 금구 익산 군산
1911년	경기도 : 광주 고양 개성 / 평안남도 : 용강 강서 강동 성천 안주 / 황해도 : 봉산 / 경상북도 : 경주
1912년	평안남도 : 강서 / 황해도 : 봉산 / 경기도 : 광주 여주 / 강원도 : 춘천 금강산 고성 간성 양양 강릉 평창 원주 / 경상북도 : 풍기 순흥 춘양 예안 안동 예천 함창 상주 의성 의흥 영천
1913년	평안남도 : 강서 용강 평양 광산 / 황해도 : 해주 / 남만주 : 집안현 고구려 유적 / 함경남도 : 장진 함흥 정평 영흥 문천 안변 / 강원도 : 철원
1914년	함경북도 : 경흥 경원 은성 종성 / 간도 : 용정촌 국가가 동불사가 두도구
1915년	경상북도 : 경주 울산 영일 대구 / 충청남도 : 대전 부여 논산

*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調査及び保存の沿革,” pp. 101~102 참고.

35) 이 조사에는 주한공사, 萩原 서기관, 鹽川 통역관, 大鳥 외교관, 補三增 경성영사, 加藤 인천영사, 幣原 부산영사의 도움과 함께 일찍이 한국 관련 연구에 종사하던 八木樊三郎, 金澤庄三郎, 小山光利, 長田信藏, 伊藤祐晃, 長山乙介, 幣原垣 등의 도움이 있었다(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 『한국건축조사보고』, 5쪽).

36) 『구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상), 국립중앙박물관, 1997, 26쪽에서 전제.

3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25쪽.

특히 1909년 통감부에 의한 조사 목적은 “고건축물을 새로이 행정시설로 전용하고 혹은 파괴되거나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의해 보존하는 것”³⁸⁾이었다. 당시 한반도의 최대 권력기관인 통감부는 한국의 사법 행정권 접수와 함께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고건축물을 해체 혹은 여러 관아 청사로 전용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였다. 바로 이 ‘건축전문가’로 선택된 사람이 이미 1902년에 한반도 전역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關野貞이었으며, 이는 건축소 공사 고문인 공학박사 妻木賴黃가 추천하였다. 이때 關野貞은 건축분야에서 공학사 栗山俊一, 고고학 분야에서는 谷井濟一을 조수로 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⁹⁾ 대한제국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들 일행의 조사 행위는 재정과 행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한국의 전 국토를 마음대로 조사 내지는 발굴할 수 있었다.⁴⁰⁾

당시 이들은 3개월(9월 20일~12월 17일)에 걸쳐 전국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목적은 의견상으로는 고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물 이외에도 고적·불상·동종·석탑·서화 등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철도 노선이 연결된 지방과 경주·부여 부근의 유물을 조사하였다.⁴¹⁾

1909년 조사의 주대상은 건축물이었으며, 조사대상을 갑·을·병·정 네 등급으로 나누어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 關野貞은 1910년에도 궁내부의 촉탁으로 고적조사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10월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으로써 關野貞 팀의 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로 넘어가 더욱 강화되었다. 3개월에 걸쳐 주로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였다.⁴²⁾ 이 해의 성과로는 낙동강 연안의 가야유적 조사를 들 수 있는데, 關野貞 자신은 “당시에 이 지방은 고고학·건축학·인류학과 같은 학술적 조사를 위해 여행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여 학술적 조사가 처음임을 강조하였다.⁴³⁾ 1911년 關野貞 팀은 9월 13일에 경성에 도착해서 경성을 시작으로 평남, 황해도, 경기도, 경상도에 이르렀다. 1911년 조사는 유적·유물의 전반적인 파악에 목적이 있었으며, 고분의 경우는 특히 가야지역에 집중하였다.⁴⁴⁾ 이처럼 1909~1911년에 걸친 3년간의 조사에서는 고건축물·고적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 석조물,

38)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조선학보』 제1집, 1951년 5월, 249쪽.

39) 小川敬吉, 「古蹟に就ての回顧」, 『朝鮮の建築』 제16집 제11호, 1937년 11월, 83쪽 참조. 탁지부 건축소에서는 기사 조씨와 工夫 有村이 조사에 동행하였다.

40) 關野貞, 『朝鮮藝術之研究』, 탁지부건축소, 1910, 1쪽.

41) 日本歴史地理學會 編, 「朝鮮遺蹟調査略報告」, 『歴史地理』 제17권 제2호, 1911.

42) 關野貞, 「伽倻時代の遺蹟」, 『고고학잡지』 제1권 제7호, 고고학회, 1911년 3월, 1~12쪽.

43) 關野貞, 위의 글, 12쪽.

44)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269쪽.

기타 유적 등이 포함되었으며, 처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關野貞 일행은 1909년~19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한국의 지방 도시 약 50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대체로 통감부의 요구에 의해 각 지방의 중심 행정시설에 관한 조사(구건축물인 객사, 군청, 향교 등)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한 사원의 유적 및 유물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1909년의 경우를 보면, 고건축물 관련 유적 194건, 석조물 64건, 유물 30건 총 288건으로 주로 고건축물 위주의 조사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갑 등급을 받은 것은 총 50건으로 고건축물 관련 유적은 23건, 석조물 및 유물은 27건이다.⁴⁵⁾ 그런데 대체로 '새로운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한 고건축물의 가치는 다른 대상에 비해 낮았고, 이에 그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이들 시설물들을 곧 지방행정기구 건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1909년의 조사에서 丁 등급인 의주의 객사이던 聚勝堂은 재판소로, 양산의 雁鷺堂은 경무소(경찰서)로 사용하였다.⁴⁶⁾ 그 결과 일제는 1910년 한일병탄 이후 단기간에 한반도의 전역을 장악하고 기존에 남아 있던 고건축물들을 변용·활용하여 지방 통치를 위한 시설로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식민통치체제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⁴⁷⁾

또한 關野貞에 의한 1909~1911년 3년간 실시한 고건축물 및 고적에 대한 등급부여 작업은 일제강점기에 거의 그대로 문화재 지정에 적용되는데, 1933년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고적 및 보물 가운데 일찍이 關野貞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고적 24건, 보물 66건)이 포함되었다.⁴⁸⁾ 이는 한일병탄 이전의 고적조사가 이후 식민지 문화재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한편 黑板勝美는 총독부와는 별도로 동경제국대학의 명령을 받아 100여 일 동안 “실지를 답사하여 고고학, 역사지리학 방면에서 관찰하여 이를 고대사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⁴⁹⁾

45)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31~38쪽.

46) 關野貞, 『朝鮮藝術之研究』, 39쪽; 55쪽. 지방의 경주 객사는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 진열관으로 개설되었다가 후에 경주박물관으로 변모하였고, 공주의 선화당 건물은 충남청사로 이용되다가 공주박물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강릉 향교는 1919년 首善講習所로, 1928년에는 강릉공립농업학교로 변용되었다. 특히 1914년 총독부령으로 실시된 府制 실시 후 각 지역 도청이나 거류민단 사무소로 지방의 객사나 관아 등이 사용되는 예가 보인다(손정목, 『한국 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조각, 1992, 121~160쪽 참고). 이 외에 해주군청의 경우는 조선시대 구 관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해주보승회, 『海州』, 1929년, 4쪽).

4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38~39쪽. 문화시설로 변용한 예도 있는데 창경궁에는 1909년 창경궁박물관을 설립하면서 궁궐 고건축물들이 전시장으로 변용되었고, 1915년에 경복궁 내 건물은 공진회전시장으로, 경희궁의 정전 승정전은 조계사에 매각되었고, 회상전은 1911년 4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중학교 부설 임시 소학교 교원양성소의 교실 혹은 기숙사로 변용하였다(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216~219쪽).

48)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31~38쪽.

49) 黑板勝美, 『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 『黑板勝美先生遺文』, 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記念會, 吉川弘文館, 1974.

는 목적으로 한반도 남부, 주로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물증적 자료를 찾기에 힘을 기울였다. 이 지역의 패총 발굴을 통해 일찍부터 일본과 조선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同文同種’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한일병탄의 합법성을 고대사 속에서 찾았다.

서남단에 봉황대라 칭호는 岳陵이 有호고 其近에 패총이 유혹인 위선 기처로 往호 즉 長이 50칸이오 廣이 5칸 가량인디 其下까지 海潮가 來호 것은 지형이 명백히 示호았더라.……남조선은 內宮家를 置호處오 조정의 직할지가 되어 일본의 영토된 事가 有호니 일본부의 宰는 太宰府의 宰니 我 勢力의 발전호 時는 임나일본부가 되고 退守호 時는 태재부는 九州의 일본부, 일본부는 조선의 태재부이다라, 구주 동북의 集人 蝦夷보다는 優히 同化호야 風俗生活에 類似호 것이 多호더라. 然호디 任那의 세력이 風廢호미 及호야 日日 영향을 蒙호미 是를 遺憾으로 하여……한국병합은 임나일본부의 부활이니 吾도 上古에 在호 과 如히 同國同文化라는 사상이 有하면 和음이 될 터로다 호는 것이 요점이 되얏더라.⁵⁰⁾

이처럼 한일병탄 전부터 1915년까지 한반도에서의 고적조사는 주로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등 일명 關野貞 팀에 의해 해마다 경성에서 시작하였는데, 조사에 앞서 통감부 혹은 총독부로부터 囑託 임명을 받고, 조사 예정표 작성 및 제출을 위해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 그리고 제출한 일정을 기초로 각종 조사의 편의, 숙박시설의 결정, 도·군청으로부터 수행자를 소개받는 등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대개 9월 혹은 10월에서 12월, 즉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한반도 각지의 건축물, 고적, 공예품을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라는 자료 조사적 성격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1915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물 가운데는 지방 행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방통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주로 關野貞에 의해 실시된 1909년부터 1915년까지의 한반도 고적조사사업은 이후 1916년 법령과 기구의 마련에 따른 본격적인 고적조사사업의 기초단계를 마련하였다.

50) 「任那故地紀行(下)-名越文學士談」, 『매일신보』 1915년 7월 24일.

3. 법률과 기구의 마련을 통한 고적조사사업의 본격화(1916~1920)

(1)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의 제정

병탄 이후 關野丁에 의한 고적조사를 실시하던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고적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⁵¹⁾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의 일반조사는 한국의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나 특히 漢四郡 낙랑지역과 가야지역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고적조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적·유물 수집에 힘을 기울이자 일본인 약탈자들에 의한 고분 도굴과 위법 매매가 더욱 성행하였고, 이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항의가 고조되었다.⁵²⁾ 이에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하「보존규칙」)을 제정하였다.⁵³⁾ 기존에 「寺刹令」(1910년 6월)과 「神社寺院規則」(1915년 8월)이 있었으나 이는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반포한 법률로 사원 소재 고건축물과 유물의 현황 파악에 그쳤기에⁵⁴⁾ 조선총독부에서는 보존 행정책을 보완할 법령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16년 7월 4일 총독부 부령 제52호 「보존규칙」, 총독부 훈령 제29호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발표하였다. 당시 寺內 총독은 「보존규칙」의 실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첫째, 고대문화의 조사와 보존에는 내외 학자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학술적으로 신중을 더하며, 조사·보존은 모두 총독부가 스스로 통일 계획에 의하여 행함. 둘째, 조선의 문화재는 모두 조선 내에 보존하여 국의 산일을 방지하고, 이것으로 널리 학술과 사회교육의 자료로 하여 조선인의 문화적 자각에 충당할 것. 이 의미에서 박물관에서 조사와 보존과 진열의 사무를 겸하여 행하도록 함. 셋째, 이것들의 결과를 내외의 학계에 보고하고 학술연구의 자료로 제공하며, 반도 통치의 문화면을 말함에 실제 증거로 하고 (중략)⁵⁵⁾

즉 조사·보존은 총독부가 통일적으로 계획 관리하며, 조선 내의 문화재는 조선 내에 보존함으로써 국의 산일을 방지하고, 박물관에서 조사·보존·진열의 사무를 겸하여 행한다고 하며,

51) 「古蹟調査計劃」, 『대정5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조선총독부, 1916, 2~3쪽.

52) 「古蹟及遺物保存規則에對 兒玉總務局長談」, 『매일신보』 1916년 7월 9일.

53) 경성부, 『경성부사』 제3권, 1934, 347쪽 참조.

54) 旭邦生, 「朝鮮における古藝術品及び古蹟の保護」, 『朝鮮及滿州』 제64호, 조선잡지사, 1912년 12월, 2쪽.

55)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조선학보』 제1집, 1951, 252~253쪽.

이는 반도 통치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조치라 하여 유물의 '현지보존주의'와 고적조사사업과 박물관 사업의 연계성, 그리고 군사적 무단통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배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⁶⁾

「보존규칙」 내용은 전 8조와 부칙으로,⁵⁷⁾ 특히 제5조를 보면,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된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전·수신하거나 혹은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경찰서장을 거쳐 미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하여 당시 고적조사에서 수집된 유물들 가운데 개인이 소장하거나 일본으로 유출한 경우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산입된 경우일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존규칙」은 소유권 제한에 형식상의 결함이 있었고, 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등의 한계를 지녔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를 보완코자 이후 1933년 「조선박물관·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을 제령 제6호로 반포하였다.⁵⁸⁾ 이 법령의 목적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예부터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여 이를 내지(일본)에 전파한 조선에서 그 역사의 변천 및 고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천명한다”⁵⁹⁾고 밝힘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에 의한 문화재 지정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존규칙」보다 유적·유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보존의 취지도 강화하였으며, 보존대상의 보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까지 마련하였다.

한편 부칙 「古蹟及遺物調査事務心得」⁶⁰⁾ 제6조에 “실지 조사를 명령받은 고적조사위원회는 총무국장의 허가 없이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역사적 실증 자료의 관리 또한 경찰서장 및 총무국장이 맡도록 하여 일제가 고적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를 관 주도 하에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의도하는 대로 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유물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였다.

「보존규칙」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독부 및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관련성이다. 「보존규칙」의 뒤에 수록된 조선총독부 훈령 30호 「고적급유물에 관한 건」에는 보존규칙 시행 시에 조선총독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56)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46쪽..

57)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조선총독부관보』 제1175호, 1916년 7월 4일.

58) 渡邊豊日子,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の發布に就て」, 『조선』 1933년 9월, 85~88쪽.

59) 渡邊豊日子, 위의 글, 88쪽.

60) 「古蹟及遺物調査事務心得」(조선총독부 내훈 제13호),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 조선총독부, 1917.

고적·유물 또는 고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고적유물보존규칙」 제2조의 사항을 갖추어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며, 고적 또는 역사 혹은 공예에 관계있는 유물 기타 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나 금석 문물 기타 유물을 이전, 수선하고 혹은 이를 처분하는 경우, 또는 고적명승지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을 하는 경우는 「고적유물보존규칙」 제5조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전항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항을 집행할 경우는 바로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한다.⁶¹⁾

즉 유적·유물·고문서 등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서장을 거쳐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고,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총독의 인가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없다면 발굴조사가 가능하지 않았기에, 발굴조사는 총독부의 관리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적·유물과 함께 고문서가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사업으로 당시 조선사 편찬이 고적조사와 병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보존규칙」 제3·5·6조에는 경찰서장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유적·유물의 발견, 현상 변경, 이전·수선을 할 경우 그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을 경찰서에 배포하고 등록 시에는 해당 경찰서장을 거쳐 그 취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보존규칙」에 의해 등록된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각 지역의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있었는데, 당시 경찰서장은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헌병분대의 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민간의 일상생활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⁶²⁾

더욱이 「보존규칙」은 등록제도를 시행하였다. 제1호로 등록된 것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며, 1924년 4월 현재까지 총 193건(1건 누락)을 등록하였다.⁶³⁾ 등록 유물·유적을 지방별로 분류해 보면⁶⁴⁾ 192점(186번이 누락) 가운데 경북이 21.2%로 등록 유적·유물의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강원·충남 순이다. 종류별로 보면 탑비류가 104, 불상류(금동, 석불) 44건, 그 외 당간 20건, 기타 24건으로 탑비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등록된 192점 가운데 1909~1912년에 關野貞에 의해 조사 실시된 유적·유물 81점이 포함되어 있어 關野貞의 고적조사의 결과와 한국의 고적조사 및 유물 보존 정책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61) 「古蹟及遺物二關スル件」,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 조선총독부, 1917, 6쪽.

62)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37쪽.

63) 조선총독부,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附參考書類』, 대정13년(1924) 4월.

64) 위와 같.

(2) 고적조사위원회의 설립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유적·유물의 조사 보존을 위해 법령의 마련과 함께 담당기구를 조직하였다. 「보존규칙」 반포에 앞서 4월 26일에 고적조사위원을 임명하였고, 7월 4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9호로 「古蹟調査委員會規程」 11조를 발포하였다.⁶⁵⁾ 고적조사위원회는 고적조사의 계획은 물론 고적, 건축물, 금석물 등의 보존방법을 정하고, 유물의 수집, 고적·유물·명승지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에 관한 논의 등 다양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⁶⁶⁾ 그 내용은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 제5·6조는 심의와 보고사항, 제7~10조는 실지 조사시 보고사항과 범위 등을 명시하였는데, 고적조사위원회는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유적·유물의 조사·보존·공사·등록에 관한 건을 협의 의결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3조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정무총감, 위원은 총독부 관계국의 고등관 또는 학식이 많은 한·일 전문가들 중에서 임명하였고, 그 외 수명의 촉탁을 두고 총독부 고등관 가운데 간사를 임명하여 서무를 담당케 하였다.

발족 당시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조선총독부 관계부국의 고등관(事務管掌의 局部長·課長 및 토목, 건축, 회계, 비서, 문서, 학무, 산림, 지방, 경무의 각 과장) 외에 일본측 학자들과 조선측의 학식 있는 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하였다.⁶⁷⁾ (【표 2】 고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 이 가운데 關野貞(동경대 교수), 黑板勝美(동경대 교수), 鳥居龍藏(동경대 교수), 池内宏(동경대 교수), 原田淑人(동경대 조교수), 藤田亮策(경성대 조교수), 小田省吾(경성대 교수), 今西龍(경성대 교수), 濱田耕作(경도대 교수), 谷井濟一, 小場恒吉, 大原利武, 末松熊彦(이왕직사무관), 岩井長三郎(기사), 柳正秀(중추원 참의), 劉猛(중추원 참의) 등은 지속적으로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인물들이며, 이들에 의해 고적조사사업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진회나 중추원 참의⁶⁸⁾들로 조선총독부와 연관을 가진 인물들로 고적조사위원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인적 구성이었다. 이들은 위원회의 의사를 의결함과 함께 조사·보존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래 내무부에서 고적조사, 사료조사를 촉탁하였던 일본 각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촉탁하여, 학계에서 신천지라 칭할 만한⁶⁹⁾ 한국의 고적에 대한 학술적 조

65) 『조선총독부관보』 총독부훈령 제29호, 1916년 7월 4일.

66) 「古蹟調査委員の設置」, 『조선회보』 1916년 6월, 212~213쪽.

6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61쪽.

68) 柳正秀, 劉猛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조사보고서』 II-3, 2007, 1725~1726쪽 참고.

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별히 이들 고적조사위원들은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논리인 식민사관을 반영한 역사서 편찬을 위해 설립한 조선사편찬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이었던 寺内正毅는 일찍이 靑柳綱太郎과의 대담에서 한국사회의 조사연구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大和魂과 朝鮮魂을 혼합하여 우리 일본인이 저들(한국인)에게 대화혼을 심어주지 않은 채로, 저들이 우리의 문명적 시설로 인하여 지능을 개발하고 널리 세계의 형세에 접하게 되는 날에,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미리 일본 국민의 留意를 요한다. 이것이 대개 조선통치의 최대 난관인데 내개(寺内) 조선인의 철저한 자각을 바라는 동시에 조선 연구에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目前의 정치적 시설 이상으로 다시 영구적,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연구이며 역사연구이다. 저들의 민족정신을 어디까지나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내선동화의 진실한 사업은 아직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식민정책의 근본은 반드시 여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世人이 迂遠하다고 경시하는 학술적 조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조사의 歩武를 진행시키고자 한다.⁷⁰⁾

바로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구관제도 조사⁷¹⁾나 사료 조사⁷²⁾ 등은 이러한 목적 하에서 계획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역사서편찬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 차례 제도의 개혁을 거쳤고, 3.1운동 이후 새로이 『조선사』 편찬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다.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심히 오래되고 또한 우수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경제·문학·예술·풍속가요 등이 갖고 있는 그 특색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고, 수천 년에 달하는 문화 변천의 자취를 더듬어 볼 만한 사료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한·일이 합병되자 寺内 총독은 시정 벽두를 맞이하여 조선에 가장 적절한 시정을 베풀기 위하여 먼저 취조국을 설치하고 옛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사의 편찬을 계획하였던 것이다.⁷³⁾

69)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93쪽.

70) 靑柳南冥, 『總督政治史論』, 1928, 262~267쪽.

71) 박현수, 「조선총독부중추원의 사회, 문화조사활동」, 『한국문화인류학』 제12집, 1980년 12월, 77~86쪽 참고.

72) 1911년에 일본인 고고학자 鳥居龍藏이 실시한 사료조사는 총독부 편찬의 교과서에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새로이 식민지로 편입된 한국에 대한 민정조사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었다(西川宏,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 『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7집, 1970, 102~103쪽).

73)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1938(소화13)(서희건,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1), 고려원,

이후 조선총독부는 1921년 齋藤實 총독의 발의로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하고,⁷⁴⁾ 1922년 12월 4일에 총독부 훈령 제64호로「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을 발표, 조선 역사에 조예가 깊은 한일 학자를 뽑아 고문·위원 등에 임명하여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무총감 有吉忠一이 위원장이 되고, 12월 28일부로 고문에 李完用, 朴永孝, 權重顯이, 위원에는 長野 서기관장 외에 洪熹, 劉猛, 魚允迪, 尹甯求, 李能和, 李秉韶, 鄭萬朝, 玄采, 李商求, 今西龍, 稻葉岩吉, 松井, 栢原昌三 등 한국 역사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역사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⁷⁵⁾ 그리고 종전 중추원의 『조선반도사』 편찬 계획은 1924년까지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선사』 편찬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다가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됨에 따라 1924년 말 『조선사』 편찬사업으로 통일되었다.⁷⁶⁾

1923년 1월 8일 齋藤 총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총독은 修史사업 개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심히 오래되고 문예산업 등 각자 그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까지의 수사사업이 불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도에 산재하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집대성하여 학술적 견지에서 극히 공평한 편찬을 완수하지 못하였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우리 총독부는 과거에도 힘써 문화 방면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옛 관습조사를 비롯하여 고적조사 등 제반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이미 역사에 관한 편찬에도 진력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엔 또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이 계획을 세워서 수사사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다.⁷⁷⁾

수사사업은 당초 5개년(1921~1926) 사업이었으나 黑板勝美, 內藤虎次郎과 의논한 끝에 10개년 사업으로 확대하여 완성도를 높이기로 하였다.⁷⁸⁾ 1927년 9월 22일부로 동경제대 교수인 黑板勝美와 服部宇之吉, 경도제대 교수 內藤虎次郎 등 세 명의 고문을 추가하여 그 조직을 강화하였는데,⁷⁹⁾ 일찍이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黑板勝美의 경우는 조선사편찬위원회 초기

1986 부록에 수록, 151쪽).

74) 『매일신보』 1922년 12월 6일.

75) 「辭令」, 『동아일보』 1923년 1월 10일.

76) 「朝鮮半島史編纂ニ關スル件」,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년, 147~148쪽.

77)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159쪽.

78) 위의 책, 160쪽.

단계부터 깊이 관여하였고, 服部宇之吉은 동경제대 문학부장시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겸임한 사람이었다.⁸⁰⁾ 그 외에 주목되는 인물들은 바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일찍부터 조선총독부 주도의 고적조사사업에 종사하였던 今西龍, 小田省吾, 藤田亮策, 稻葉岩吉 등 식민사학자들이었다.⁸¹⁾

특히 今西龍은 일제의 한국고대사 왜곡에 이론적인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조선사』 제1편(신라통일이전)의 주임을 맡았는데, 그는 단군조선을 고려 중기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고, 한사군 중 진번군의 위치를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비정하는 등 한국사의 타율적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⁸²⁾ 임나일본부의 존재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백제와 임나는 형제가 되어 일본 천황을 君父로 받들었고 백제도 임나처럼 일본조정의 직할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대 일본과 한반도와의 관계사는 실로 백제복속사였다고 단정하여 백제사 왜곡에 주력한 인물⁸³⁾로서 이러한 논리를 증명코자 고적조사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편수회 고문인 黑板勝美는 『조선사』 편찬 계획을 주도한 일본사 전공자로서, 동경제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역사연구의 방법으로서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史蹟을 중요시하였는데, 일찍부터 한국의 고적조사사업에 깊이 관여하였고, 고적조사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가야경주 등의 고적발굴에 참여하면서, 이를 통하여 『일본서기』의 한국관계 기사인 임나일본부와 유적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연구에 주력하였다.⁸⁴⁾ 稻葉岩吉은 『조선사』 편찬의 실무책임자로서, 1897년 외국어학교에서 중국어를 습득하고 1900년 유학한 중국통이었다. 1908년엔 만철조사실에서 만주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15~1922년까지 육군참모본부와 육군대학에서 동양사를 강의하던 중 內藤虎次郎의 소개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⁸⁵⁾ 그는 한국은 반도로서 일본과 중국의 양국 사이에서 항상 힘이 있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한국이 중국의 세력권에 있을 때에도 반도의 북방은 중국풍에, 남방은 일본풍에 混淆되어 있어 한국사 자체의 독자적인 성격은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타율성론, 그 가운데서도 만선사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였다.⁸⁶⁾ 이외에도 劉猛, 崔南善, 李軫鎬 등도 고적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하던 중추원 관리들이며, 조

79) 앞의 책, 173쪽.

80) 『朝鮮功勞者銘感』, 1935년, 30쪽.

81)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93~96쪽, 【표 3-14】 조선사편찬위원회 관련자 명단 참고.

82)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국민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50쪽.

83) 최재석, 「今西龍의 한국고대사론 비판」, 『한국고대사학회사방법론』, 1987, 78~95쪽 참고.

84) 이성시, 「黑板勝美를 통해본 식민지와 역사학」,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 209~227쪽 참고.

85) 동아동문회 편, 『續對支回顧錄』(하권), 原書房, 1973, 757~763쪽(김성민, 학위논문, 48쪽에서 재인용)

86) 黑板勝美, 「南鮮史蹟의 踏査」, 『매일신보』 1915년 7월 29일~8월 17일; 旗田巍, 이기동 역, 『일본인의 한국관』, 일

선사편수회의 한국인 학자로서 참여하였다.⁸⁷⁾

따라서 일찍이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여 각 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였던 고적조사위원들이 이후 조선사 편찬에 중심인물로 적극 참여하면서 일찍이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던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을 곧바로 사서 편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의 고적조사사업과 역사편찬사업은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사관을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사업이었다.

이러한 고적조사위원회는 총독부로부터 고적조사비를 받아 조사보존등록출판 등의 네 가지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⁸⁾

① 조사는 각 시대의 유적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발굴·촬영·측도하고 상세한 학술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보존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적 또는 유물을 실측하고, 중요한 것은 박물관원에 의한 공사설계에 의해 지방청의 경비를 배부해 시공하도록 한다. …… ③ 등록은 고적 또는 유물의 소재, 명칭, 토지소유자, 대소 형상, 유래·전설의 각 항을 기록대장에 기재하여 정리하며, 등록 및 해제, 명칭, 소재의 변경 등은 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 ④ 출판은 고적조사보고서 및 고적도보로 하고, 조사보고는 매년 조사를 보고하기 위한 것과 특별조사보고의 두 종류가 있다. 고적도보는 한사군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고적 및 고건축물, 미술공예품, 사료 등을 각 시대별로 하여 大圖錄으로 하고 주로 關野 公學박사가 편찬을 맡는데, 1915년 처음 간행한 이래 11책에 이른다.⁸⁹⁾

조사는 일반조사·특별조사·임시조사로 나누었으며, 일반조사는 조선 전체에 걸쳐 각 道·郡마다 개괄적으로 유적·유물을 조사하고 그 소재지, 현상, 시대, 성질, 보존의 可否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시간과 인력·경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조사는 특별히 중요한 유적의 조사로 유적의 발굴, 패총의 발굴, 사지·성지의 측량을 주로 하였고, 임시조사는 새로이 발굴한 유물의 실지 검증, 발굴조사 등으로 고분의 자연 붕괴 또는 도굴 발견에 의한 것이 많았다. 조사시에는 상세도와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며, 조사지는 고적조사위원을 주로 하고, 때로는 박물관 직원도 독립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⁹⁰⁾ 이처럼 고적조사위원

조각, 1985, 130~136쪽.

8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98~100쪽, 【표 3-15】 고적조사위원회와 조선사편찬위원회 관련자 명단 참고.

88)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96~97쪽.

89) 위의 글.

회가 발족된 이후 고적조사사업은 고적조사 계획을 세우고 조사 범위를 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전의 몇몇 관련자들의 주요 관심에 의한 조사보다 조사범위가 확대되어⁹¹⁾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3) 고적조사사업의 본격화 : 고적조사 5개년 사업(1916~1920)

일제는 1916년부터 고적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반도 전체의 유적 및 유물의 겨우 일부에 지나지 않아 금후에 조사를 할 만한 것이 극히 많이 있다. 그런데 근년에 토지의 이용이 왕성한 반면 각지의 유적은 날로 함께 훼손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유물의 가치도 점차 세인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 종래 그 취체를 엄하게 함에 구애받지 않고 몰래 이를 도굴하니 대략 이를 도굴하여 파는 자가 오늘날 오히려 자취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태로 지나쳐버린 귀중한 유적 및 유물은 점차 망실하고 다시 이것을 조사 보존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속히 조사를 수행하여 보존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며, 금번에 새로이 근본적 계획을 세워 대략 금후 수년에 걸쳐 조선 전도에 걸친 세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로써 반도 古來의 유적 및 유물을 천명하고 동시에 이의 보존 방침을 확립하도록 한다.⁹²⁾

기존 關野貞에 의한 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한 고적조사 제1차 연도인 1916년의 사업은 황해도 고분 64기, 평안남도 고분 186기, 평안북도 고분 50기 등 먼저 漢四郡 및 고구려 시대의

90)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97쪽.

91) 조선총독부,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1922, 1~3쪽 참고.

조사범위	선사유적조사	패총, 유물포함층, 유물산포지, 수혈과 기타 선사시대 유적의 조사와 유물의 수집
	고적조사	고려시대 이전에 속한 분묘의 조사와 유물 수집, 조선 중기 이전 주요 분묘의 형태 조사
	사적조사	도성, 궁전, 성곽, 관문, 교통로, 驛站, 봉수, 官府, 祠宇, 壇廟, 사찰, 도요지 등의 유지, 전적 기타 주요한 사실에 관련된 유적의 조사와 유물 수집
	고건축물의 조사	역사상 또는 공예상 참고할 만한 궁전, 성문, 樓臺, 祠宇, 壇廟, 客宮, 校舍, 사찰, 교량 등 조사
	금석과 기타 고고물 조사	불상, 탑, 등, 비, 석각, 당간, 석수, 석인, 석조, 종, 향로, 경, 제기, 악기, 회화, 冊板, 懸額, 도자기, 칠기 기타 역사상 또는 공예상 참고가 될 만한 금석제작물, 목제품 등의 조사 또는 수집
	고문서 조사	역시 기타 攷事의 자료가 되는 고문서의 조사와 수집

92) 兒玉秀雄, 「古蹟調査事業」, 『조선휘보』 1916년 8월호, 1쪽.

고분을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새로이 조사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추가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⁹³⁾ 일제가 이 지역 유물·유적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關野貞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은 북으로 압록강을 사이로 만주와 접하고 서로 항해를 사이에 두고 산둥 蘇浙 지방과 맞닿아 있기에 중국과 왕래가 쉬워 일찍부터 그들의 문화를 수입하였고 미술공예는 그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또 남으로는 對馬, 臺岐를 통하여 九州와의 교통이 일찍부터 열리어...일면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일본에 수출하였고, 또한 다소 일본의 감화도 입었다. 이처럼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역대로 그 침략을 받아서 항상 그에 복속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때때로 일본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어떠한 국가로서 영토가 협소하고 인민이 적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항하여 완전히 독립국을 형성할 실력이 없으므로 자연 사대주의와 퇴영 고식주의에 빠져 국민의 원기도 차츰 닳아 없어지기에 이르렀다.⁹⁴⁾

즉, 1916년도 고적조사의 방침은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漢四郡에서 시작하여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역사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조사 지역은 한사군, 고구려 지역과 역사 이전 유적과 유물로 황해도, 평안남북도, 경기도, 충청도에 이르는 곳이었으며, 조사기간은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였다. 이처럼 한반도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의 첫 조사대상지를 漢治郡으로 시작한 것은 고적조사를 통하여 한국 역사의 外因論的이고 他律的인 측면을 강조하여 일제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일제의 식민통치 논리를 증명코자 함이었다.

당시 조사위원으로는 關野貞, 黑板勝美, 今西龍, 鳥居龍藏의 4명과 보조로서 촉탁인 谷井濟一, 栗山俊一 2명, 제도·사진 등을 위하여 박물관 직원 4명(小場恒吉, 野守健, 小川敬吉, 澤俊一)을 분속 동행하고 또 토목국 영선과 기수 1명, 평남도청 기수 1명을 보조로 두었다.⁹⁵⁾ 조사는 조사위원을 중심으로 네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진행하였다.⁹⁶⁾ 특히 관야정 팀⁹⁷⁾이 조사한 낙랑군 지

93) 「대정5년 고적조사개요」, 『대정5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15~16쪽.

94)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1941, 4~5쪽.

95) 「대정5년 고적조사개요」, 『대정5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15~16쪽.

96) 「대정5년 고적조사개요」, 『대정5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17쪽.

97) 이전 멤버(谷井濟一, 栗山俊一)에 小場恒吉(미술), 野守健, 小川敬吉(건축)이 참여하여 팀이 더욱 강화되었다. 關野, 谷井이 총감독과 사진 촬영을 담당하였다.

역인 평남 대동군, 용강군, 순천군, 대동강면 고적군, 정백리와 석암리에 있는 10기의 고분(정백리 1호·2호·3호(小場), 151호·153호(野守), 석암리 6호(栗山, 野守), 9호·99호·120호·253호(小川))⁹⁸⁾ 가운데 석암리 9호분에서는 純金製鉸具(국보 89호), 居攝 3년명의 漆盤을 비롯한 막대한 유물을 발견하여 조사자들을 놀라게 했다.⁹⁹⁾

당시 “낙랑고분에는 순금보화가 무더기로 묻혀 있다”는 소문이 국내는 물론 일본인들 사이에 나돌면서 고려자기를 도굴하던 도굴꾼들이 대거 평양 일대로 몰려들었으며, “평양 부내에는 갑자기 낙랑열이 전염병처럼 만연하여 낙랑의 명성은 천하에 떨쳐 퍼지게 되어”¹⁰⁰⁾ 낙랑고분의 대난굴시대가 전개되었다. 이에 關野貞은 조선총독부에서 속히 적당한 조사 방침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⁰¹⁾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의 제2차 연도인 1917년(대정6)의 조사지역은 전년도의 남은 부분과 함께 1차 연도와는 달리 삼한·가야·백제지역인 남부지역에 집중하였다.¹⁰²⁾ 참여한 조사위원은 黑板勝美, 關野貞, 今西龍, 鳥居龍藏, 谷井濟一 5인으로 1차 연도와 비교해 볼 때 조사위원은 동일하며, 그 외 기술이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원들을 확충하였다. 조사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팀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黑板勝美와 今西龍은 가야유적, 鳥居龍藏은 경상도의 석기시대 유적, 谷井濟一(野守健, 小擅敬吉, 小墻抗吉)은 한치군과 백제의 유적, 關野貞은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였다. 특히 黑板勝美의 경우는 김해군에서 가야의 분묘 및 산성의 형식과 아울러 근대의 일본 관계 축성을 조사 보고하였다. 今西龍은 11월 25일 경성으로 돌아와 가라, 임나에 관한 논문을 연달아 발표하였다.¹⁰³⁾

특히 1917년에는 谷井濟一이 고분내의 사신도와 연화문 벽화를 소개하여 학계는 물론 도굴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谷井은 “이 지방의 고분들은 일찍이 당나라 병사들이 철저히 도굴하여 유물의 잔존이 극히 드물다”¹⁰⁴⁾고 하여 일본인들의 만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후 능산리 일대 고분군은 1937년에도 梅原末治, 澤俊一 등이 다시 발굴조사하였으나 이미 도굴되어 부장품으로는 약간의 잔편들만이 남아 있었다.¹⁰⁵⁾ 이에 關野貞도 거듭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98) 오영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고분 자료와 연구 현황」,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275~276쪽 참고.

99) 八田蒼明, 『樂浪と傳説の平壤』, 평양연구소, 1934, 8쪽.

100) 위와 같음.

101)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1941, 256쪽.

102) 「대정6년도 고적조사계획」, 『대정6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조선총독부, 1~6쪽.

103) 今西龍, 「任那について」, 『조선회보』 1918년 2월호; 「加羅疆域考(상)」, 『史林』 제4권제3호, 1919; 「加羅疆域考(하)」, 『史林』 제4권제4호, 1919.

104) 谷井濟一, 「扶餘郡陵山里古墳調査報告」,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 1920, 628쪽.

제28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古都의 근대’

옛날 백제가 멸망할 당시 당나라 병사가 발굴하였던 것 같이 부장품은 거의 다 도굴해갔으며 오직 종종 당시의 도기 파편이 발견될 뿐이다.¹⁰⁶⁾

즉 이미 이 고분에 대한 도굴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당나라 병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누차 강조함으로써 일제 당국의 도굴 행위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특별조사의 경우는 1차 연도에 특별조사 대상지였던 나주 반남면 고분(전라남도 나주군 / 조사원 1인, 제도사진원 2인 / 15일간)에 관심을 모았는데 “옹관은 당시 내지의 北九州 옹관과 유사하여 출토품에서 일선관계의 고고학상 관련이 흥미를 갖게 된다”¹⁰⁷⁾면서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日鮮同祖論의 증거로 삼으려 했다. 특히 가야 및 신라고분군이 무수히 널려 있는 낙동강 하류와 경주지역은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식민사관의 논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주목한 지역이었다. 창령·고령·함안·김해·성주·선산 등지에서 수많은 가야고분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의 물증을 찾기 위한 마구잡이식으로 발굴됨으로써 도굴꾼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 파괴당하였고 발견된 부장품은 대부분 반출해 갔다.¹⁰⁸⁾

1918년(대정7) 고적조사사업은 전년도와는 달리 黑板勝美, 原田淑人, 濱田耕作, 谷井濟一의 4개 팀¹⁰⁹⁾에 의한 일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전년도 조사 대상지인 삼한·가야·백제의 유적 가운데 잔여 지역의 조사를 마침과 동시에 해당 연도에 속한 신라의 유적,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선사유적 및 조선시대 유적이었다.¹¹⁰⁾ 특히 1918년에는 발굴조사원을 증가시켰는데, 경도 대학의 濱田耕作와 梅原末治,¹¹¹⁾ 그리고 동경대학의 原田淑人¹¹²⁾ 등이 가세하여 濱田과 梅原은 가야지역 발굴조사에, 原田은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고분(보문리 적석총) 발굴에 집중하였다. 黑板勝美는 중국 봉천성 집안현과 함남 함흥군을, 谷井濟一은 황해도 봉산·황주와 경남 함안, 전남 나주를 조사하였다.¹¹³⁾ 谷井濟一의 유적 발굴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엄청난 부장품

105) 「扶餘陵山里東古墳群の調査」, 『소화12년도 고적조사보고』, 1938년, 124~125쪽.

106) 關野貞, 『朝鮮美術史』, 조선사학회, 1932, 61쪽.

107) 梅原末治, 「日韓併合の期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たすさわちつた一考古學徒の回想録」, 『朝鮮學報』 제51집, 1969, 104쪽.

108) 「진주고분조사」, 『매일신보』 1913년 9월 3일.

109) 1918,19년 고적조사에서 關野貞은 빠져 있는데 이는 1918년 2월 문부성의 명령에 의해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조선을 거쳐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가 중국에서 약 7개월에 걸쳐 조사를 한 후 10월 상해에서 인도로 향하였다. 高橋潔 外, 「關野貞의朝鮮古蹟調査」, 앞의 책, 245쪽.

110) 「古蹟調査の狀況」, 『조선회보』 1918년 11월, 90쪽; 『대정7년고적조사보고』, 1922.

111) 濱田耕作·梅原末治, 「경상북도·경상남도 고분조사보고서」, 『대정7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1922.

112) 原田淑人, 「原田委員報告」, 『대정7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1922.

이 출현하여 출토품의 정리와 보고서 작성 작업이 지연되었다.¹¹⁴⁾ 그 중에서도 谷井 일행이 1917년부터 1919년까지 진행한 전남 나주군 반남면 고분군의 조사와 1918년 겨울부터 1919년까지 진행한 경남 창령군 고분의 발굴조사 결과는 100기 이상의 고분으로 그 규모나 출토품이 많았다. 그러나 막대한 출토품은 1921년 谷井濟一이 한국을 떠나면서 1928년 동경제실박물관 역사부에 출품하였다.¹¹⁵⁾

당시 발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수집에만 열중하여 서둘러 마무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데, 1918년 9월 27일부터 10월 23일에 걸쳐, 성산 제1,2,6호분, 지산동 제1, 2, 3호분, 창령군 교동 제21호분(도굴분), 교동 제31호분 등의 발굴과정을 보면 도굴분은 예외로 치더라도 완전한 미공개분을 발굴하면서도 대개 2~3일만에 줄속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¹¹⁶⁾ 그나마 이러한 경우도 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굴에 신중을 기했다고 하는濱田이나 梅原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¹¹⁷⁾ 그 외의 경우는 얼마나 마구잡이식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지산동 제1·2·3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일부는 『조선고적도보』 제3권에 수록하였는데, 고령주산 부근 고분발견 도기(도관 788-790)와 주산 동남산복 고분 부장품(도관 784-787)이 모두 동경공과대학 소장으로 되어 있다.

1919년의 고적조사사업은 3·1운동으로 한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대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가운데 신라의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일부 진행하였으며, 1920년은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10월에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 林漢韶와 함께 경남·평남 등 각지를 조사한 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무촉탁 梅原末治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 濱田耕作이 경남 김해군 김해패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김해패총은 일찍이 西龍이 1907년 8월에 발견하였고, 鳥居龍藏에 의해 1914년과 1917년에 일부가 발굴하였던 유적으로 당시 보고에 의하면 김해패총은 금석병용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출토 유물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고대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적하였다.¹¹⁸⁾ 이 외에도 가야지역의 대표적 고분인 양산 부부총을 1920년에 발굴하였는데(1920년 11월 13일~25일), 출토 유물인 금동보관을 비롯한 장신구류, 토기류 등

113) 「古蹟調査の狀況」, 『조선휘보』 1918년 11월, 90~91쪽.

114) 梅原末治, 『朝鮮古代の文化』, 圖書刊行會, 1972, 11쪽.

115) 梅原末治, 위의 책, 10쪽.

116) 濱田耕作·梅原末治, 『경상북도·경상남도 고분조사보고서』, 2~52쪽 참조.

117) “창녕 교동의 발굴분을 선정하고 그 실시를 통해 조사는 과로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梅原末治, 「日韓併合の期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ゞざわた一考古學徒の回想録」, 『조선학보』 51집, 1969년 5월, 102쪽.

118) 「김해패총발굴조사보고」, 『대정9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1923, 47쪽.

340여 점 일체는 모두 일본으로 가져가 동경국립박물관에 '조선총독부 기증'품으로 보관하였다.¹¹⁹⁾ 이외에도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야토기 및 도기의 다수 가운데 일부는 개인 소장자들에 의한 기증품으로,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 일부는 德川賴貞, 內藤雋輔 등 개인 소장가들에게 매매 혹은 반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⁰⁾

이와 같이 일체는 식민통치의 정당화 논리로 만들어 낸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이 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가야지역 고분 발굴에 주력하였으나 무작위로 파쳐져진 고분들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할 만한 적당한 유물이 발굴되지는 못하였다.¹²¹⁾ 따라서 대부분의 고분들은 발굴이라는 명분하에 도굴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일본으로 반출해갔다. 학자들의 전면적인 발굴조사에 의한 고분의 파괴와 도굴꾼 및 도굴품 수집가들에 의해 가야 고분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파헤쳐진 발굴 유적이 많아지자 대부분은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해버림으로써 유물에 대한 이중 약탈 및 피해 양상을 드러내었다.

요컨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5개년 고적조사사업은 실제로 일반·특별·임시조사 등 조사사업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關野貞, 黑板勝美, 今西龍, 鳥居龍藏, 梅原末治, 濱田耕作 등 고적조사위원 가운데 최소 인원을 팀 책임자로 하고 실무자 한두 명을 동행케 하였다. 또한 1년 가운데 특정기간을 정하여 짧은 기간에 고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와 인력·시간을 들여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대로 한국의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고적조사 지역은 한사군(낙랑)·고구려·신라·임나(가야) 및 백제의 古都 인 평양·경주·가야·부여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식민통치 논리를 증명하는 실증적 자료를 모으는 일에 역점을 두는 등 학술적·정치적 목적까지 포함한 조사사업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유물은 조사연구라는 명분하에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고적조사위원회 5개년 고적조사사업은 출판사업으로 마무리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 후 보고서와 함께『조선고적도보』전 15권을 발행하였는데,¹²²⁾ 그 가운데 제1책에서 제5책은 한국 문화가 역사 이래로 중국 및 일본과 관련성이 있음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자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기록하였다.

119) 문화재관리국, 『해외소재한국문화재목록』, 1986, 21~29쪽. 유물은 총 175점으로 소장유물번호 33987~34161.

120) 『동경국립박물관 도판목록』, 2004년; 『해외소재한국문화재목록』, 1986, 문화재관리국;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86~87쪽, 【표3-13】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가야토기, 도기 목록 참고.

121)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연구」, 87쪽.

122) 자세한 목록은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91쪽.

4. 고적조사사업의 정치적 표상, 박물관 설립

박물관은 관람자들을 정해진 목적에 의해 시각적으로 교육시키는 효과를 낳는 ‘展示性的 想像體’이다.¹²³⁾ 일제는 고적조사사업과 박물관 사업 등 국가가 직영한 구미의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한 바, 특히 일선동종와 한국사의 타율성을 ‘과학적 증거’에 의해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고적 ‘보존’ 사업¹²⁴⁾의 일환으로 박물관 설립을 계획하였다. 박물관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역사상을 입증할 만한 유물에 대한 조작이 학술적 작업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이를 대중에게 사상적으로 주입시키는 이데올로기 정책이었다. 일제는 고적조사를 통해 수집한 유물을 ‘보존’이라는 명분하에 경성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역사 古都인 지방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 혹은 부립박물관의 전시 공간 속에서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곧 ‘만들어진 전통’ 공간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설립한 ‘근대적인’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박물관은 1915년에 설립한 경성의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처음이다.

“박물관이 잠동사나 물품을 모아서 진열하는 시대가 아니며, 그런 진열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의미 있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과 더불어 사적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 이상을 잃게 되므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병행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나아가 ‘국립박물관’이 그 사무를 감독해서 각지의 소 박물관을 비롯해 사적 유물의 보관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다.”¹²⁵⁾

이처럼 黑板勝美는 1912년경 ‘국립박물관’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1918년에 다시 “고분 발굴이나 그 발굴품의 처리 또한 국립박물관이 관장해야 한다. 따라서 경주는 국립박물관이 나서서 고분 등의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적 보존 또한 국립박물관 임무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요컨대 박물관 업무와 고적조사사업 및 보존관리가 국립박물관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¹²⁶⁾을 역설하였다. 즉 고적조사사업과 박물관의 긴밀한 관계성을 거듭 강조

123) B. Anderson, *Imagines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983; 윤희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1991, 10장.

124) 保存의 사전적 의미는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는 의미이지만, 일제에 의해 행해진 보존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보존이라기보다는 보존 주체자의 의도가 포함된 왜곡 보존의 성격이 포함되었기에 여기서는 ‘보존’으로 명기한다.

125) 黑板勝美, 「博物館について」, 『虛心文集』4, 吉川弘文館, 1939, 481~487쪽(원재 : 「東京朝日新聞」 1912년 가을)

126) 黑板勝美, 「國立博物館について」, 『虛心文集』4, p. 516(원재 : 「新公論」33권 15호, 1918년 5월)

하였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시정 5년을 기념하는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거행하였고,¹²⁷⁾ 공진회 행사를 마치자 1915년 11월 고시 제296호로「조선총독부 박물관 설치의 건」¹²⁸⁾을 공포, 그 해 12월 1일 미술관이었던 건물의 명칭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바꾸어 그대로 개관하였다.¹²⁹⁾ 이는 바로 공진회 당시부터 계획 한 일이었기에 단시일에 가능한 변화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설립 당시부터 하나의 독립된 '문화기관'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유지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경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조선 古來의 제도, 종교, 미술, 공예와 기타 역사의 증거·참고가 되는 것들을 모아서, 반도 민족의 근원을 찾아 그 민족성을 밝히고, 이 지역에 발달해온 공예미술의 특질을 조사해 널리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한 예술품을 진열해 새로운 공예미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¹³⁰⁾

즉 한국의 옛 유물을 수집하여 그 근원을 밝히는 것과 공예미술의 특질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박물관은 설립 이후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담기구가 학무국 종교과, 사회과, 사회교육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업무를 지속하였는데, 이것은 그 업무에 대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총독부는 박물관협의회 제도와 고적조사위원회 촉탁제도를 활용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운영하였으며,¹³¹⁾ 조선총독부 산하 기구는 이들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¹³²⁾

자료가 남아 있는 1922년부터 1939년까지 보이는 박물관협의회 협의원은 10여 명 내외인데, 이 시기 두 기관의 인적 구성을 보면¹³³⁾ 박물관협의회와 고적조사위원회의 인물은 상당수 중복되었다. 특히 박물관협의회와 고적조사위원회가 같이 존속한 1922년부터 1939년(1933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설립되면서 이 기관이 대체)까지 계속적으로 두 기구에 참여한 인물은 黑板勝美, 小場恒吉, 藤田亮策, 濱田耕作, 小田省吾이며, 鳥居龍藏, 鮎貝房之進, 今西龍

127) 조선총독부, 『조선휘보』 1915년 9월 조선물산공진회기념호 제1장 공진회 부분, 3쪽.

128) 조선총독부 편찬, 『朝鮮法令輯覽』(하), 1916, 137쪽.

129) 「朝鮮共進會美術館の一瞥」, 『考古學雜誌』 제6권 제3호, 1915년 11월 5일, 64쪽.

130) 「朝鮮總督府博物館略案內」, 『박물관보』 제1권 제1호, 1926년 4월, 3쪽.

131)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53~54쪽.

132)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81~182쪽.

133)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84~189쪽, 【표 5-4】 박물관협의회와 고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

(1932년 사망), 關野貞(1935년 사망), 末松雄彦 등이다. 이 가운데 黑板勝美는 1912년부터 고적 보존에 대해 제언하여 1916년 식민지 조선에서 「보존규칙」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는데, 이는 1919년에 일본에서 공포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보다 3년이나 먼저 실시한 것이었다고 한다.¹³⁴⁾ 그는 일본에서도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제언을 하였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먼저 실시하고 나서 일본에서 실행하였으며, 나아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도 활용하였다.¹³⁵⁾ 또한 關野貞이 실시하던 고적조사와 鳥居龍藏이 하던 사료 조사를 박물관에서 통합하되, 한국의 고적조사를 일본 학자들이 아닌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여 그 소속기관인 박물관이 하도록 하여 “최초의 통일적 문화행정”¹³⁶⁾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黑板勝美의 “그 땅의 것은 그 땅으로”라는 현지주의를 한국과 한국인에게 영원히 자랑할 만한 문화정책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¹³⁷⁾ 이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제국주의자들은 유적의 복원을 통해 식민지 국가의 유적 건설자와 당대 식민지 원주민은 같은 종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즉 원주민은 현재로서는 그들의 선조가 이룩한 것과 같은 위업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자들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을 복원하여 주변 시설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원주민에게 그들 자신은 장기간에 걸친 위업을 이룰 능력도 자치 능력도 결여되어 버렸음을 알리기 위해¹³⁸⁾ 식민지에서 발굴된 유적이나 유물을 식민지 현지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대형 고적도보나 고적조사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그 업적을 무수히 복제하였다. 이는 일본의 힘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유적과 유물을 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일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근대 사회를 만들어가려 하였기에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 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식민지 권력 범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장악함으로써 결국은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 및 서술 그 자체도 ‘식민지적’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¹³⁹⁾ 즉 박물관을 조선총독부 관할 아래에 두어 조선총독부가 의도하는 ‘역사 만들기’의 최전선 기관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고적조사업무를 병행하여 수집한 유물들을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하는 일을 하였다.

134) 이성시,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제23집, 1999년 6월(『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년, 209~229쪽에 재수록) 참조.

135) 이성시, 위의 글, 221쪽.

136)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67~68쪽; 73쪽.

137)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40쪽.

138)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Verso, 1991), 306쪽(이성시, 위의 글, 223쪽에서 재인용).

139) 김진근·정근식 편저,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참조.

따라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일찍부터 실시한 고적조사 및 발굴·도굴로 드러난 유물을 수집·구입·기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박물관에 모아 그들의 역사의식에 따라 진열하였다. 그런데 박물관의 예산 내용을 보면, 1921년의 경우 총 예산 35,784원 가운데 진열품비는 10,000원으로, 이는 주로 박물관의 진열품의 물적 설비를 위해 사용하여 진열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적었고,¹⁴⁰⁾ 대부분의 진열품은 고적조사에서 수집한 유물을 기본으로 하고 서화문서 등 구입품 및 매장물로 국고에 귀속된 것과 아울러 개인 또는 사사 등에서 기부받은 것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¹⁴¹⁾ 이처럼 박물관과 고적조사사업의 관련성은 박물관의 예산규모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¹⁴²⁾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은 2층 6실로 진열품은 “총래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고적조사로부터 발굴 또는 수집한 것으로 出所 및 性質이 가장 확실한 것을 주로 하며 이것은 조선총독부 회계과로부터 인계품, 산림과 인계품, 일반 기증품 및 개인 기증품 및 구입품”¹⁴³⁾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인력 부족으로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다만 입수 순으로 물품대장에 번호만을 붙여 종류별로 분류한 것도 있다. 그 가운데 진열관에 진열한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유물들만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진열품 가운데 西鮮지방의 낙랑군·대방군 등의 유물은 중국 한대 및 삼국의 예술을 알리고, 문화 변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적확한 사료이며, 신라·백제·임나지방의 유물은 남선지방과 내지(일본) 방면과 고대에 밀접한 관계를 알게 하는 자료이고, 또 고구려 및 백제 고분 내에서는 동양 최고의 彩筆, 회화된 벽화는 이를 모사하여 진열하고, 고려·조선 양 시대 각종 도자가·칠기 등은 조선 미술공예의 조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수정전에 진열된 大谷光瑞師 서역탐험대에서 수집한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귀중한 학술연구자료이다.¹⁴⁴⁾

삼국시대를 설명하면서는 “특히 大和 朝廷의 통치하에 있던 가야(임나)가 신라와 백제의 중간

140) 島田屬, 『朝鮮總督府博物館二關スル調査』, 1924, 27~31쪽.

141) 위와 같음. 『조선총독부시정연보』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박물관 진열 유물 총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진열유물수	8,400	8,600	9,700	9,894	9,894	10,221	10,394	10,736	11,908	12,329
연도	1931-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진열유물수	12,983	13,263	13,375	13,375	13,861	13,946	14,157	14,413	14,625	14,704

142) 島田屬, 『朝鮮總督府博物館二關スル調査』, 1924, 31쪽.

143) 위의 책, 15~16쪽.

144) 편집부, 『朝鮮の博物館と陳列館(1)』, 『조선』 1938년 6월, 95~96쪽.

에 있어 실제로는 이상의 삼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가야와의 사국대립시대”¹⁴⁵⁾라고 설명하며, “가야는 大和 조정의 보호하에 신라백제의 공격을 면하였으며, 형태가 아름다운 구옥·이식·마구·무기 등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것이 많으며, 특히 대화 민족의 특색을 나타내는 구옥이 임나·신라 유적에서 다수 발견”¹⁴⁶⁾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유일한 유적인 고분은 고려소와 기타 유물을 얻기 위해 전부 도굴·소멸되어, 이 전시실에 있는 유물도 학술적 조사를 거친 것은 적어 유감이다”¹⁴⁷⁾라고 하여 고려고분의 도굴상황의 심각성도 지적하였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박물관 진열품은 일찍부터 한국의 문화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석기시대와 ‘금속병용기시대’(청동기시대)에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간자로서의 한국의 유물을 전시하였고, 평양 부근에서 발견된 ‘낙랑 유물’은 한국 고대사에서 중국 한나라 문화의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반도 남쪽의 신라·백제·임나·가야의 유물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고대 문화와 한반도 남부 문화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일제가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정책’의 하나로 총력을 기울여 편찬한 『조선사』의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고대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 외세의 영향 아래에서 문화를 받아 발전시켰다는 ‘타율성론’과 그나마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라·고려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문화를 일구어 나갔으나 유교를 도입한 조선시대에는 논리에 치우쳐 문화를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정체성론’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발행한 『박물관진열품도감』(전 17권)에 수록한 유물 목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판수로 보면¹⁴⁸⁾ 대략 201점인데, 박물관 진열품 전체¹⁴⁹⁾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석기·금속병용기 13점(6.5%), 중국 한 대(낙랑·대방시대) 및 당나라와 관련된 유물은 41점(20.5%), 삼국시대 82점(41%), 고려시대 52점(26%), 조선시대 8점(4%), 기타 5점(2%)이다. 전체 유물 가운데 삼국시대 유물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신라나 백제의 유물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발굴한 것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 고대부터 한일 문화의 교류를 실제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반면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가까

145) 「조선총독부박물관」, 『박물관보』 제1편 제1호, 조선총독부 1926년 4월호, 6쪽.

146) 위의 글 8쪽.

147) 위의 글, 9쪽.

148)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205쪽.

149) 각주 146) 참고.

운 조선시대의 유물은 4%의 낮은 비율로 이는 한국을 식민통치로 몰아갔던 조선왕실의 무능함을 강조하여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이들 유물의 소장처를 보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앞뒤 정원 내에 옮겨다 놓은 석탑·석등·석비·부도 등과 고분 벽화 및 사찰 범종과 함께 거의 대부분은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종류별로는 금속공예류, 석기류, 토기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¹⁵⁰⁾ 이처럼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얻어진 역사유물이나 고미술품의 전시를 통하여 얻으려는 것은 관람자들이 전시의도에 따라 재구성되어 있는 유물 전시품을 통하여 주변국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멋있는' 유물들을 총독부가 '보살펴' 주고 있다는 것에 '감동'하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한편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유물들을 역사적인 시대순에 따라 전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대사회부터 한국 역사의 外因論 강조 및 고대 일본과의 문화적 긴밀성·동원성을 증명하고자 비교전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입나의 유물이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신라나 백제의 것보다도 변함없이 일본의 유물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입나 유물의 진열은 삼한지방 유물로 끝나는데 다음의 진열장에는 이상의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한 토기들을 진열하고 그것과 나란히 일본에서 출토된 祝部土器의 일군을 배치하여 그 형식이나 燒成의 유사성에서 上代 日鮮文化의 균등성(동일성)을 교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¹⁵¹⁾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와 구성 방식은 1915년 설립 초기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30년대 후반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관장을 지낸 佐瀬直衛¹⁵²⁾는 시국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사회교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⁵³⁾ 특히 일제는 1932년부터 해마다 10월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약 1주일 동안 박물관주간을 정해 일반인들에게 박물관을 홍보하며 박물관의 사회교화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전을 마련하였다.¹⁵⁴⁾ 대표적으로는 1938년

150) 국성하,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 연구」, 145쪽.

151) 小泉顯夫,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 1933년 4월호, 33쪽.

152) 佐瀬直衛는 명치 41년 동경제대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들어가 식민정책을 전공하였다. 명치 43년 11월 문관고등시험에 합격, 동월 조선으로 건너와 한국농상공부 주사가 되고 동 44년 1월 총독부 屬에 임명되었다. 이후 충청남도 사무관, 臨時土地調査局副事務官係爭地係長, 東洋拓植株式會社 參事로 경성지점에 근무한 후 1928년엔 함경남도 감산군수를 역임했다(『朝鮮紳士錄』, 1931, 195~196쪽).

153) 佐瀬直衛, 「博物館週間に於ける特別展觀と内鮮一體の史實に就て」, 『조선』 1938년 12월, 38쪽.

제6회 박물관주간에는 고대의 일본 '내지'와 한국 관련 자료 100여 점을 선정하여「古代內鮮關係資料特別展觀」이라는 특별전을 기획하였는데,¹⁵⁵⁾ 주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은 '내선일체'의 강조였다.¹⁵⁶⁾

鮮滿一如, 內鮮一體라는 것은 남총독 각하가 반도통치상의 모토로서 일찍부터 제창한 것으로 총독은 앞서 충청남도 순시 때 백제 최후의 수도인 부여에 도착하여 산하가 수려한 부소산에 올라 친히 그 경관을 보면서 천수백년 전에 일찍이 백제가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었고, 一體不離 관계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여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¹⁵⁷⁾

즉, 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특히 불교예술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여,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을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두루 강조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해로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때 총독이 부여를 방문하여 고대로부터 일본과 백제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날로 인내가 필요한 난국을 극복할 필요를 통감해서 반도 2,300만 동포와 함께 한 몸으로 결속을 공고히 하여 統後國民의 赤誠을 피력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방문하니, 여기서 나는 반도 2천년 전 역사를 돌아보아 이미 천수백년 전부터 일찍이 우리들의 조상은 반도 주민과 그 문화를 같이하고 彼我友好的의 관계를 맺고 특히 백제는 그 건국 시작부터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 종시 아궤일본과 친선 호의를 유지하였고, 저들로부터 우리의 제반 문물을 수입함과 동시에 저들은 오히려 아궤의 원조하에 그 나라를 유지하였음은 역사상 현저한 사실이다”¹⁵⁸⁾라고 강조하여 내선일체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전시 기획의도를 살리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출토품을 거의 일대일로 나란히 비교 전시하여 양자의 문화적 동질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출토품은 실제 유물을 전시한 데 반해 일본의 유물은 사진과 모사품으로 전시하였다.¹⁵⁹⁾ 특히 석기시대부터 시작하여 문화

154) 박물관주간 지정 특별전 이전에도 1926년 11월에는 경주 서봉총에서 발굴한 신라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개최하였고(『조선일보』, 1926년 11월 17일) 1930년 5월에는 조선사료전람을 열었다(조선총독부, 『조선사료특별전람목록』, 1930).

155) 조선총독부, 『古代內鮮關係資料特別展觀案内』, 1938.

156) 「고대 조선 관계 자료, 백점 특별진열, 금일부터 박물관에」, 『조선일보』 1938년 11월 2일.

157) 佐瀬直衛, 「博物館週間に內鮮一體の往時を語る」, 『萬二千峰』, 大海堂, 1939, 217쪽.

158) 佐瀬直衛, 「博物館週間に於ける特別展觀と內鮮一體の史實に就て」, 위의 책, 37~38쪽.

159) 조선총독부, 『古代內鮮關係資料特別展觀案内』, 1938년 참고.

의 교류와 동질성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자 각종 석기 유물과 토기 등을 전시하였다. 더욱이 삼국시대 관련 유물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드러내고자 하여 남선 방면의 고분에서 발견된 장신구 및 기와와 일본 고분 출토품과의 동질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백제로부터 제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보다는 오히려 백제가 늘 일본의 원조 하에 나라를 유지하였고, 멸망 후에도 황실에서 백제의 귀화인을 우대하여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일찍이 없던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 내선일체의 사실을 회고하고 우리 동포는 더욱 그 결속을 다져 총후국민의 적성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⁰⁾

따라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은 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물을 수집하였고, 이를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박물관에 전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싶은 역사를 대변하는 유물로 재구성하여 제대로 된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해외로 유출·산일되는 다양한 왜곡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인 경주·부여박물관과 평양부립박물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은 '신라박물관'¹⁶¹⁾이라고 할 정도로 진열품이 모두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로¹⁶²⁾ 경주분관 본관을 둘러본 有光廣穰은 관람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먼저 본관인 溫古閣 제1실은 석기시대, 금석빙용시대실로 타제석기는 4개의 돌화살이 전부이며, 다수의 돌도끼, 돌화살, 石鑿의 마제석기가 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입실리 한대 유적과 같은 것이 영천군에서도 발견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서도 일찍부터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반출토기에서는 彌生式 토기 계통이 있지만 조사의 불충분으로 수집의 진열에 그치고 있다. 제2실에는 경주 남쪽 근교의 평야에 분포하고 있는 수혈식 적석총의 출토품으로 진열하였다. 이는 대략 5세기 경에 성행된 묘제로 이른바 중국 육조 예술문화의 혜택을 다분히 받고 있다. 토기는 黝色陶質의 新羅燒로 일본 내지의 祝部土器와 비슷한데, (중략) 제4실에는 신라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물이 좁은 공간에 여유 없이 진열하였다. 한 구석에는 통일신라시대의 황혈식석실분에서 출토했다고 전해진 석곽·석침, 골호의 석함을 전시하였다. 신라의 멸망으로 고고학적인 문화 발전은 그치고 말아 고려소와 조선 예술은 이곳

160) 佐瀬直衛, 「博物館週間に於ける特別展觀と内鮮一體の史實に就て」, 앞의 책, 42~43쪽.

161) 조선총독부, 『박물관진열품도감』제10집, 1937. “경주분관의 진열품은 모두 신라의 구 도성인 경주에서 수집된 것이다.” 『박물관진열품도감』제10집과 제11집을 중심으로 경주분관의 전시물을 시대별·종류별로 정리해 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난다. 총 102점의 전시물 가운데 삼국이전은 35점, 신라 21점, 신라통일 46점이다. 종류별로 보면 불교예술품이 37점, 석기류 29점, 공예 17점, 기타 19점으로 대부분 신라 이전 문화는 석기류를, 신라 문화에서는 불교, 공예류를 중심으로 전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국성하, 학위논문, 147쪽 참고)

162) 有光廣穰, 「慶州の博物館」, 『ドルメン』 1933년 4월호, 45쪽.

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¹⁶³⁾

이것은 일본인의 눈으로 본 경주분관에 대한 감상으로, 석기시대 유물을 통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고대문화를 연결시켰고, 고신라시대가 중국 한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에 대한 전시 유물을 통해서도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함으로 그 시대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하였다. 물론 이것은 일본인이 바라본 한국의 박물관에 대한 관람기였으나 이러한 인식의 정도는 이곳을 관람한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대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이었을 것이다.

5. 맺음말

한일병탄 이전부터 일본은 한국 유적·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군부·헌병순사고 관·일본인 도항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關野貞의 ‘합법적인’ 고건축·고적조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關野貞에 의한 조사사업은 처음 1902년에 시작하여, 1909년에 다시 한반도에서 체계적인 고적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 조선에 걸쳐 고분·건축·성지·사지 등의 조사를 1915년까지 매년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지방제도의 완성에 따라 고건축물을 새로운 행정시설로 전용하고, 혹은 파괴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따라 보존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 외에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일본이 한국 지배를 위한 사전 자료 조사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조사 대상인 고건축물을 보존 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함으로써 그후 한국 문화재 지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1909~1911년 간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조사였던 만큼 고건축물을 변용하여 행정시설 혹은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방통치를 순조롭게 실시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고적조사사업은 식민통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에 의한 고적조사사업이 시작된 것은 1916년으로, 이 해부터 5개년 사업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고대사회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을 발굴조사 대상지로 삼고,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사군과 고구려에 관한 유적 및 경남

163) 有光廣禮, 앞의 글, 44~48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 경주 중심의 신라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함으로써 처음부터 조사 목적이 있는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적조사사업의 '정리시대'로 일컬어지는 1920년대도 지속되어 매년 발굴조사하여 나름대로 한국의 유적·유물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1910년대에 비해 발굴조사지역이 더 확대되지는 못했다. 이것은 1920년대 긴축 재정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조사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조사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조사지역이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0년대 전시 체제기를 맞아 부진하였던 고적조사사업을 黑板勝美가 자금을 모아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하고 평양연구소와 경주연구소를 마련하여 진행함으로써 더욱 더 경주와 평양지역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은 1910년대 조사사업의 목적이었던 유물을 통한 식민사관의 구체화 작업이 전시기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법령과 기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1916년의 「보존규칙」과 조선총독부 산하 고적조사위원회가 그것이다. 특히 고적조사위원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한 인물들 가운데는 조선사편찬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일제에 의한 한반도의 유적·유물의 조사와 사료의 조사 및 편찬 작업이 '따로 또 같이' 형태로 진행되면서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해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제가 실시한 고적조사사업은 식민정책의 이데올로기를 역사 유적과 유물을 통해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고적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 지역을 옛 도움이었던 한사군 치지지역인 평양 부근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집중한 이유는 단순한 학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타율적 역사를 문헌뿐만 아니라 유적·유물을 통해 확인코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즉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걸었던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등을 유적·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자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고적조사사업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자 수집된 유물들은 왜곡 혹은 재구성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에서 수집된 유물들은 정치적 표상으로 재구성되었다. 즉 古都인 경성의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부여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 평양·개성의 부립박물관 설립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박물관은 진열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박물관 진열품 기부자 가운데는 일찍이 고적조사사업에 관여하였던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법령을 통해 발굴 유물의 관리를 규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및 유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거나 조선총독의 묵인하에 발굴업무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한 유출이 빈

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도굴 혹은 매매 등으로 개인 소장가들의 소장품으로 산일되는 경우도 많았다.

요컨대 일제의 고적조사사업은 한국의 유적·유물을 조사하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실시하였으나 결국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역사, 말하고 싶은 역사를 대변하는 증거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왜곡·재구성되는 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보존’이라는 명분하에 유물이 유출되는 이중성을 드러낸 사업이었다.

(이 글은 필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에서 일부 발췌 수정·보완한 논문임)

제28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古都의 근대'

직책\연도	1916(대정5)	1917(대정6)	1923(대정12)	1925(대정14)	1926(대정15)	1927(소화2)
위원장 (정무총감)	山縣伊三郎	山縣伊三郎	有吉忠一	下岡忠治	湯淺倉平	湯淺倉平
위원 및 위원총탁	關野貞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岩井長三郎 柳正秀 劉猛 持地六三郎 關屋貞三郎 兒玉秀雄 淺見倫太郎 上林敬次郎 荻田悅造 澤田豐丈 郡山智 黑田甲子郎 中野有光 具義書 時永浦三 田中卯三 宇佐美勝夫 馬場是一郎 工藤壯平	關野貞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岩井長三郎 柳正秀 劉猛 持地六三郎 關屋貞三郎 淺見倫太郎 荻田悅造 澤田豐丈 郡山智 中野有光 具義書 時永浦三 田中卯三 宇佐美勝夫 馬場是一郎 工藤壯平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池內宏)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岩井長三郎 柳正秀 劉猛 長野幹 守屋榮夫 松村松盛, 中村寅之助 岡崎哲郎 石黑英彦 倉橋詰, 金漢睦	李軫鎬 小田省吾 岩井長三郎 松村松盛 後藤眞咲 石黑英彦 倉橋詰 小河正儀 藤田亮策 黑板勝美 關野貞 濱田耕作 池內宏 原田淑人 末松熊彦 柳正秀 鳥居龍藏 今西龍 未松熊彦 柳正秀 劉猛 金漢睦 谷井濟一 大原利武 小場恒吉	李軫鎬 岩井長三郎 石黑英彦 黑板勝美 關野貞 今西龍 柳正秀 劉猛 金漢睦 鳥居龍藏 大原利武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岩井長三郎 小田省吾 谷井濟一 小場恒吉 末松熊彦 藤田亮策 後藤眞咲 田中武雄 藤原喜藏 小河正儀 倉萬兼 樺葉孝平 中村寅之助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岩井長三郎 柳正秀 劉猛 金漢睦 小河正儀 後藤眞咲 李軫鎬 藤原喜藏 倉萬兼 樺葉孝平 中村寅之助 穗積眞六郎 富永文一
간사	小田幹治郎		小田省吾		倉萬兼	倉萬兼
직책\연도	1928(소화3)	1929(소화4)	1930(소화5)	1931(소화6)	1932(소화7)	
위원장 (정무총감)	池上四郎	池上四郎	兒玉秀雄(伯)	今井田清德	今井田清德	
위원 및 위원총탁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池內宏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岩井長三郎 柳正秀 劉猛 李軫鎬 樺葉孝平 中村寅之助 穗積眞六郎 富永文一 矢島杉造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池內宏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岩井長三郎 柳正秀 劉猛 李軫鎬 樺葉孝平 中村寅之助 張間源四郎 後藤眞咲 矢島杉造 富永文一 甘薦義邦 澤慶治郎 福士末之助 依光好秋 李昌根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池內宏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柳正秀 武部欽一 近藤常尙 山縣三郎 富永文一 澤慶治郎 萩原彦三 田中武雄 李昌根 樺葉孝平 後藤眞咲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池內宏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柳正秀 近藤常尙 山縣三郎 富永文一 澤慶治郎 萩原彦三 菊山嘉男 田中武雄 李昌根 樺葉孝平 後藤眞咲	關野貞 藤田亮策 黑板勝美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田省吾 今西龍 鳥居龍藏 大原利武 池內宏 濱田耕作 原田淑人 末松熊彦 柳正秀 林茂樹 樺葉孝平 澤慶治郎 萩原彦三 菊山嘉男 田中武雄 安井誠一郎 西岡芳次郎 倉萬兼	
간사			李昌根	李昌根	倉萬兼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해당 연도.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수수오빈(蘇碩斌) | 世新大學

1. 머리말-대만 정치 밖으로 밀려난 학술문제

타이베이는 언제 현대도시가 되었는가? 대만처럼 여러 정권의 통치를 겪어 온 사회에서 이 문제는 학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토착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 글자를 직선진화(rectilinear evolution)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진보'의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 대만에는 두 가지 정치 노선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타이베이의 현대도시화」에 대해 각각의 그릇된 인식과 답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당의 경우 현대화의 의미는 전통적인 중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은 현대화의 의미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에서 찾기 때문에, 현대화의 공적을 일본 식민지 시대의 성과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하나의 단순한 문제를 놓고도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심각한 집단 의식이 형성된 것이다¹⁾.

이 글은 '공로/과오'의 시각을 벗어나, 타이베이의 현대도시화가 일본 식민통치 기간에 완성된 것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대화 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대화 과정이 "토지와 인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1) 대만 사회는 주로 4대 집단으로 구성된다. 분류해보면 본성민남인(本省閩南人)(73%), 본성객가인(本省客家人)(12%), 외성인(外省人)(12%), 원주민(原住民)(2%)으로 나누어진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주민은 1700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대만에 거주한 남도어(南島語) 계통의 토착민이다. 본성민남인과 본성객가인은 1700년부터 1895년까지 중국 남방 지역인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만에 밀입국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민남인은 푸젠성에서, 객가인은 광둥성에서 왔다.) 외성인은 1949년 중국 내전 후 대만으로 옮겨 온 각성의 이민자들이다.

논중에 앞서 우선 몇 년 전 뉴스에 보도되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2001년 대만에서 중국어로 출판된 일본 우익 정치만화가 小林善紀의 『대만론: 신교육정신』을 보자. 이 책에는 일본의 전통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탄식하며, 이 정신을 대만의 노련한 정치·경제인(예를 들어 리덩후이(李登輝))들에게서 발견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만 식민통치 성공을 치하하고, 동시에 식민 전후에 존재했던 중국의 두 정권(1895년 이전의 전통 중국, 1945년 이후의 국민당 정권)의 실패를 비교한다.

小林善紀는 책에서 전후 국민당 군대가 타이베이에 진격하여 정권을 이양 받을 때 중국 사병이 현대화 건설에 대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처음 수도꼭지를 보았을 때 놀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즉시 철물점으로 달려가 앞다투어 수도꼭지를 샀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 벽에 수도꼭지를 달아본 후 또다시 철물점으로 달려가 화를 내며 말했다. :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야!」(小林善紀 2001:144)

小林善紀는 책에서 중국 사병이 일본 식민 건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풍자했다. 그리고 제국중국 시대에는 대만의 현대화가 개진되지 못했고, 전후 국민당 시대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며, 오직 일본만이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대만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간주했다. (小林善紀 2001:74)²⁾

이 책은 대만에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친 중국적 성향의 어느 국민당 인사는 심지어 국회에서 『대만론』을 조사 및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이 대만의 현대화를 완성했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전통적인 중국이 대만의 현대화를 완성했다”는 주장을 점진적이며 공개적으로 형성해나갔다. 2002년 9월 타이베이 시정부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타이베이 현대화의 공로를 제국중국에게로 돌리고, 1890년대 대만의 지방행정장관 리우밍촨(劉銘傳)이 바로 “타이베이 현대화의 기수”(연합보2002.9.7)라고 높였다. 당시 타이베이 시장(현 총통) 마잉지우(馬英九)는 리우밍촨을 “영웅”으로 더욱 격상시켰다(연합보 2002.9.8). 2006년 타이베이 시정부는 타이완 광복 60주년을 경축하는 특별전시회 <식민시기 현대화의 진상>에서 일본의 타이완 현대화 완성이라는 의론을 더욱 강력하게 폄하하고, 일찍이 대만의 도시 건설에 공헌을 한 “현

2) 수도꼭지로 1945년 중국군인이 현대 과학 기술에 무지한 것을 풍자한 내용으로, 이는 대만 민간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돌고 도는 우스갯소리가 되었다. 민진당 정치지도자 평명민(彭明敏)(1988:66)은 회고록에 아버지 평청카오(彭清靠)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어떤 이는 수도·전기 취급점에서 수도꼭지를 얻어와서 벽에 난 구멍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 줄 알았던 것이다.”

대화의 아버지 리우밍촨”의 존재를 재차 강조했다(자유시보 2006.12.2).

그러나 마잉지우가 현대화의 표준을 구축한 리우밍촨을 지켜세우며 언급한 내용은 타이베이에 최초로 철로를 부설하고 전등을 설치하는 등의 ‘물질적인 건설’에만 국한되어 있다. 봉건중국을 숭배하는 마잉지우와 일본 식민을 숭배하는 小林善紀의 판단 기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수도꼭지를 현대적인 상징물로 판단”³⁾하는가에 따라 현대 혹은 비 현대로 나누고 있다.

타이완 역사학계는 타이베이 현대화의 기원에 대해 줄곧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국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리귀치(李國祿, 1982), 다이귀후이(戴國輝, 1985) 등이 있고, 일본 식민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황자오탕(黃昭堂, 1988), 양비촨(楊碧川, 1994)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노선에서 영향을 받았다. 최근 정치계는 현대화 배경에 대한 쟁론 중 식민과 현대화 문제의 분석에 여지없는 압박을 가하여 정치적 정서의 배출구로 삼고 있다.

본문은 ‘수도꼭지’라는 물질건설을 현대 도시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협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현대 도시가 수도꼭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현대국가의 통치권력이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비교적 심도있게 지적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을 통해 타이베이가 일본 식민지 하에서 도시로 변화한 의미를 분석했고, 도시계획이야말로 국가권력이 작동한 결과임을 주장했으며, 아울러 공간시각화(visualization of space)의 개념을 분석 이론의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은 깨달음이기도 하다. 바로 도시현대화의 과정이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또한 칭송하거나 경탄할 필요도 없고, 앞다투어 공적을 논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현대도시화를 대동한 것은 바로 투명하고 형태도 없지만 아주 명확한 폭력성을 띤 통치체제이기 때문이다.

2. 서로 다른 두 개의 타이베이-제국의 타이베이와 식민의 타이베이

타이베이의 현대화는 왜 일제 치하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는가? 만약 단순한 물질건설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우선 제국통치 말기의 타이베이(1895년)와 식민통치하의 타이베이(1920년)의 인구분포도를 살펴보자.

3) “수도꼭지의 현대적 상징(水龍頭的普世象徵)”은 타이완 당대 작가 정홍성(鄭鴻生, 2006)의 용어에서 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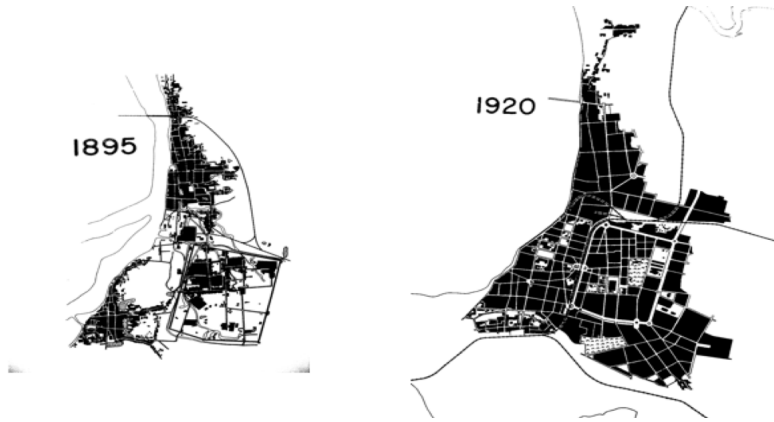


그림1: 식민 전(1895)과 식민 후(1920) 타이베이 도시인구분포도
자료출처: 천정시앙(陳正祥, 1959)

이것은 타이완 지리학자 천정시앙(陳正祥, 1959)이 인구분포에 근거하여 그린 타이베이 지도이다. 1895년 타이베이는 완화(艋舺, MANKAH), 다다오청(大稻埕, Dadaocheng), 청내이(城內, Inner City) 세 지구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분리된 '세 개의 시가지(三箇市街)'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0년의 타이베이는 전체가 '하나의 도시(一個都市)'이다.

그럼 다시 두 연대에 각각의 정부 관리가 「타이베이 건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인물은 제국중국의 타이완 순무(지방행정관리) 리우밍환으로 다음은 그가 1892년(광서15년)에 쓴 상주문이다.

신은 타이베이에 광서 초년부터 군 단위로 설치 및 관리되는 시설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성벽, 문묘, 과거시험장, 관공서 등이 점진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그 밖의 지방 공정은 민력(民力)을 동원하기 힘들어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타이베이를 정비하는데, 법으로 원조를 금하고 있는 데다, 백성들은 이미 지쳐있고, 지형 또한 험난합니다. 이에 거둬 계획을 세운 바,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의 최저가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황제께 바치오니 해당 부서에 명하시어 입안케 하시고, 영에 따라 바르게 청구하였는지 사실을 확인하시도록 바라옵나이다. (리우밍환 1958:290)

리우밍환은 제국중국 말기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관리였다. 이 상주문에서 그는 정부가 1884년에 새로 건설하는 타이베이의 행정도시—속칭 '청내이(城內)(walled inner city)'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벽, 관공서 등 부속 시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주택도 부족하고, 도로는 거

의 없다시피 하며, 관리조차 주거할 곳이 없는 지경이지만, 도시를 세우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재원이 소진된 상태이므로 중앙 정부에 건설 자금을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 정부는 당연히 건설 비용 보조를 인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국중국은 당시 영불 연합군의 공격, 중일 갑오전쟁을 겪으며 재정이 이미 고갈되어 지방 건설을 돌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895년 이후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자 타이베이에는 관공서 주변의 소규모 건설만 남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 전등이나 몇몇 학교가 세워지긴 했지만 대규모의 도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 계획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았다.

이어서 일본 식민시기인 1929년 8월, 타이완 총독부 영선과장(營繕課長) 井手薰의 담화를 살펴보자.

이 도시는 ……녹음(綠蔭), 도로, 상하수도, 전기 시설을 모두 정리하였고, 주택 지구의 외관도 통일시켰다. 가로수는 울창하고, 시의 모습이 난잡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고, 청결하고 깔끔하다. 도시 면적은 그리 넓지도 협소하지도 않으며,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을 천천히 지어나갔다. 비록 소규모의 도시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유쾌한 느낌을 주는 도시이다.(井手薰, 1929)

井手薰은 타이베이 도시 계획을 집행한 가장 중요한 관리이다. 이 내용은 ‘타이베이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타이베이의 도시미(台北の都市美)』라는 주제로 강연했을 때 언급한 내용이다. 1929년 당시는 일본이 타이완을 통치한 지 30여 년이 되는 해였고, 타이베이는 더 이상 제국중국이 무기력하게 건설했던 세 개의 시가지(三個市街)가 아니라, 명백한 하나의 도시(一個都市)였다. 게다가 국가 권력이 제어할 수 있게 된 도시였다.

일본 관리가 도시를 제어할 수 있었는가? 井手薰이 『타이베이의 도시미(台北の都市美)』에서 언급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전에 타이베이 시의 개선을 단호하게 진행했다……예쁘고 아담한 중형 도시라 부를 만하다. 만약 계속 개선을 단행한다면 아직도 향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귀하고 아담한 타이베이를 더욱 완전한 모범 도시로 변화시키는 이상을 향해 매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井手薰 1929)

제국중국의 리우밍촨은 현대 국가의 권력이 지역사회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획과 제어가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고,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는’ 도

시 건설은 더더욱 어려웠다. 이것은 각기 다른 시대의 통치 기술의 차이로, 통치자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이 두 시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건데, 본문은 제국중국 말기의 타이베이는 결코 현대 도시가 아니며 당시 중앙 정부에서 건설 경비가 지원되었더라도 현대 도시 건설을 불가능했을 것임을 설명한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이베이이 도시가 된 것은 그림 1 속의 1920년대라는 것이다. 이 시기는 井手薰 등의 관리가 장악하고 제어했던 시기였으며, '현대국가통치' 권력이 지역 사회를 관통하던 시기였다. 상대적으로 이전의 타이베이는 전통적인 중국제국이 시행한 '이단통치(二段式統治)'의 산물이었다. 여기에서 우선 몇 가지 문장을 통해 제국 통치 시기부터 1895년까지 타이베이가 어떻게 세 개의 시가지로 발전되었는지 설명해 보겠다.

3. 제국 시기 타이베이의 세 시가(三市街)-국가가 볼 수 없었던 지역사회

한인(漢人) 사회는 타이완의 원형이 아니다. 타이완의 원주민은 난다오어(南島語) 계통의 토착민이다. 1640년대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두 개의 항구를 점령한 후에야 중국의 한족들이 이주하여 개간에 협조하게 된다(尹章義, 1989:31-32; 中村孝志, 1991:336). 당시, 타이베이가 있던 지역은 개간 범위에 들지 않았으므로 십 여 개의 토착민 부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개하고 황량한 상태였다.

18세기 초 제국중국은 타이완을 통치령에 포함시켰으나 조정은 타이완을 경영할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인근 성(福建)의 경지가 부족해지자 지나치게 많은 중국 인구 중 대량의 인구가 타이완으로 옮겨가 개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타이베이는 제국중국 통치 초기(1709년에 시작) 대규모 한족들의 주도로 농지개간사회가 된 것이다(溫振華, 1981; 尹章義, 1985).

농업의 안정으로 지금의 타이베이 지역 제 1지구가 형성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완화(艋舺, Manka)이다. 완화의 도시화는 국가의 역량이 아닌 이민자 집단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1850년경 완화에서는 항구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집단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진다. 패배한 쪽은 북쪽의 또 다른 항구 '다다오칭(大稻埕, Dadaocheng)'으로 옮겨가 타이베이 제 2지구를 형성하였다(王世慶, 1976:73).

두 지구는 바로 제국 시기 타이베이의 모습이다. 추측컨대 1880년대 완화와 다다오칭 '두 시가(二市街)'의 인구는 각 5만 명, 합하여 10만 명으로 당시 타이완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이었다

(章英華, 1986:253).

완화와 다다오청 두 시가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량은 거의 개입되지 않았다. 두 시가에는 정부측 행정사무소가 단 한 곳 밖에 없었고, 오늘날의 부현장(副縣長) 정도의 관리가 반년에 한번 다녀갈 뿐이었다. 따라서 두 시가는 사실상 현지 사회의 유지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두 사회의 유지들의 권력 기반은 ‘자오(郊)’라고 불리는 일종의 상업공동연합회(trade union)였다. 표면상 ‘자오’는 부두의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의 점포상이었다. 하지만 두 지구와 중국 대륙간의 무역 왕래(쌀과 차 잎 수출, 일용품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두의 점포는 시가지의 절대다수에 이르는 상점들과 결합하였다(卓克華, 1978). 시가지의 모든 상점들은 여기에 가입해야 했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文崇一, 1975:25).

완화에는 ‘첸자오(泉郊)’와 ‘베이자오(北郊)’라고 하는 두 개의 대형 조직이 있었다. 다다오청에는 단 하나뿐인 ‘샤자오(廈郊)’ 조직이 있었다. 자오는 명의상으로는 상업공동연합회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들은 곧 동일 祖籍 집단(ethnic group)과 결합했고, 동일 姓氏 집단(clans)과도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일 신앙 집단(beliefs)과도 결합했다. 첸자오(泉郊), 베이자오(北郊), 샤자오(廈郊) 모두 각각 부두를 소유했고, 중국 푸젠성(福建) 남방 지구에서 이민 온 집단으로 황(黃), 우(吳), 린(林) 등의 성씨가 대부분이었다(廖漢臣, 1953:15). 그 밖에도 각 자오마다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이자오(北郊)의 주신은 관세음보살이었고, 첸자오(泉郊)의 주신은 마조(媽祖)였으며, 샤자오(廈郊)의 주신은 성황(城隍)이었다. 자오에서 일상적인 사무를 책임지는 이는 제사를 주관하는 이와 동일했다. 구역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자오는 작전 지휘소가 되기도 한다(王世慶, 1972:123).

이처럼 타이베이의 예전의 두 시가지는 ‘자오’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사회 형태였다. 도량형 공구(measuring instrument)의 법정 표준 제정 등 시가지의 공공 업무는 ‘자오’에 의해 결정되었다(曾酒碩, 1982:1008; 卓克華, 1990:77). 그 밖에도 자오는 중불전쟁 중 자체적으로 병력을 소집하여 지역방위를 실시하기도 했고(伊能嘉矩, 1991b:4), 어떤 때에는 사법 안건을 심의하고, 심지어는 정부측의 허가를 얻어내기도 했다(戴炎輝, 1979:339; 卓克華, 1990:72; 타이완 사법상사 판:17).

1870년대 이전 두 개의 시가였던 타이베이는 ‘국가의 공식’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회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러면 제3지구인 ‘칭네이(城內, Inner City)’에 대해 살펴보자. 칭네이는 국가의 주도하에 건설되었는가? 칭네이는 현대 도시의 효시인가?

이 글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아래에서 타이베이 건설의 원인을 설명해보겠다. 제국중국 말기

의 1874년, 청(淸)은 외교 문제에 대한 좌절로 타이완 통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875년 타이베이의 행정등급을 높인다. 타이완 관리를 명 받은 대신 리루밍촨(劉銘傳)은 타이베이를 성도(省都: 성 정부 소재지)로 정하였다.

청 제국은 성 정부 소재지를 반드시 하나의 구역형태로 짓도록 법률로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1883년 성벽 건축을 시작으로 1885년에 완공하였다. 타이베이의 성 정부 소재지는 완화와 다다오청의 중간에 있는 공터에 위치했는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었다(溫振華, 1986:33). 청 조정은 타이베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날 익숙한 수학 계산이나 정밀한 측량 등의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래는 청 제국이 진행했던 타이베이 '청내(城內)'의 개발 과정이다.

- (1) 국가는 건설 비용이 없었으므로, 지방의 부유한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았다. 타이베이 축성 공사 진행 시, 청 제국의 재정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 재력가 중 14명을 '이사(理事: 원문에는 董事)'로 지정하여 20만 냥 남짓 모금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건설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경비를 지원한 이사들은 일정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Lamley, 2000:199), 심지어는 실제 '관직'과 교환하기도 하였다(『光緒朝東華續錄選集』:85). 그러므로 국가가 타이베이를 건설한 것은 아니며, 역시 지역사회가 타이베이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다.
- (2) 성벽 기지는 갑자기 이유 없이 방향이 바뀌었다. 추측컨대 이는 아마도 풍수 때문일 것이다. 원래의 계획은 '북-남'을 축으로 하였지만, 시공 1년 전 부임한 관리리우아오. 劉璈는 갑자기 동북으로 개편했고, 모든 성벽은 이에 따라 위치가 바뀌었다. 추가비용은 20만 은화였다. 이 비용 역시 지역 재산가들에게 지출토록 하였으며, 역사가들은 리우아오의 습성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좋은 풍수'를 위해 타이베이의 지형에 부합시키려고 변경한 것이라고 추측한다(廖春生, 1988:117).
- (3) 철도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바꿀 수 있었다. 관리는 타이베이 축성 계획을 실행할 때 중국 최초의 철로도 함께 부설하였다. 이는 타이베이의 현대화 건설이라고 칭송되는데, 사실 지역사회의 엄청난 방해로 받았다. 철로의 노선은 서방 기술을 모방하여 설계되었지만, 철로 부설을 집행한 중국 군대는 자신의 논밭과 조상의 무덤을 경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지역 유지들이 건넨 뇌물을 받고 노선을 변경시켰다. 그래서 철로는 비합리적으로 구부러지기 일쑤였다(Davidson, 1972:178-179).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4) 청내이 도로는 서로 관통하지 않는다. 타이베이 성에는 다섯 개의 성문이 있는데, 이들도 서로 관통하지 않는다. 도로는 종종 절반 정도에서 끊어져 그림 2의 형식으로 뻗어있다(溫振華, 1986:40). 이는 현대 도시 건설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도시는 유동성(mobility)을 강조하는데, 타이베이의 청내이는 유동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도시 사학자 章生道(Sen-Dou Chang)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성의 통로는 두 개의 성문을 직통할 수 있는 길을 피하는데, 이는 귀신이 직선으로 다닌다는 민간 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성의 통로에서 그림 3의 A, B 형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Chang,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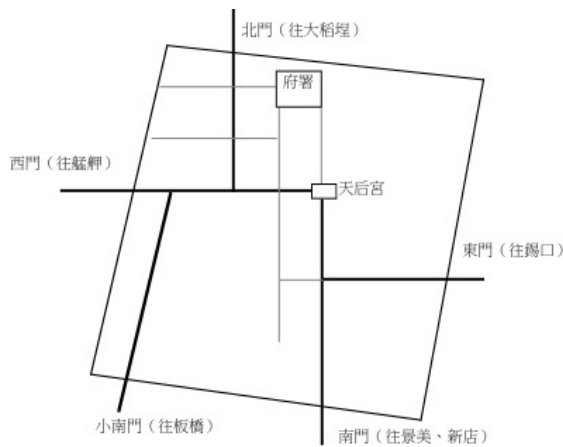


그림2: 제국 중국 말기 타이베이의 성문과 도로
 자료 출처: 溫振華(1986:40), 李乾朗(1984:178)의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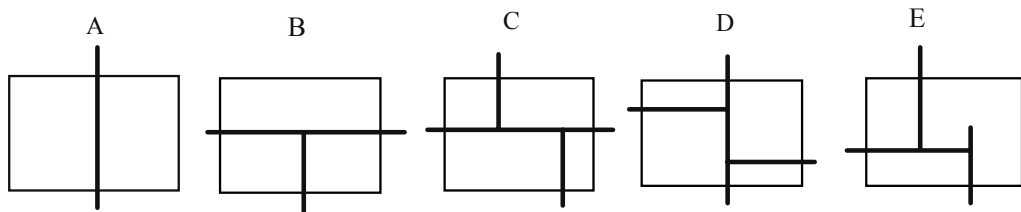


그림3: 중국 전통 성의 성문과 도로 유형
 자료출처: Chang(1977)

그 밖에도 타이베이 축성 시 현대적인 건설이라 여겨진 것은 전등 부설과 도로 정비 등이었다. 사실 1890년(원문에는 1990이라 되어 있으나, 오키임.) 리우밍촨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도로 정비국은 폐쇄되었고, 전등은 관공서 부근만 겨우 밝힐 뿐이었다(高賢治, 1978:287-288). 대부분의 현대 시설은 모두 수년 내에 소실되었다. 이상의 예와 같이 성벽 건설, 철로 개통 등 표면적으로 건설된 물질은 모두 서양 현대화의 산물이며, 사회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중국의 전통적 사유가 존재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청 왕조가 건설한 도시는 현대 사회가 측량과 계산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시스템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베이의 완화와 다다오청은 확실히 지역 사회의 역량에 의해 지배받는 구역이었고, 청내이는 국가가 건설한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사실상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이 또한 중국 역사가들이 일컫는 '이단통치(二段式統治)'에 해당한다. 즉, 중국은 방대하고 느슨한 제국 통치를 펼쳤는데, 정치가 아닌 문화를 통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도 두 유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관료가 이끄는 중앙 기구에 의한 통치였고, 또 하나는 무수한 지역사회의 통치였다(Yang, 1965; 金耀基, 1984:7-8). 따라서 국가의 권력 기관과 피통치자인 기층민들 사이는 사실상 분리되어「중간 계층」에 의해 연결되었다(Duara, 1988). '자오'의 상인들이 바로 타이베이 지역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자들이며, 제국중국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였던 것이다.

주의할 것은 제국중국이 지역사회의 인구와 토지를 실제로 주도면밀하게 통치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제국중국은 지역에서 바치는 세금이 필요했을 뿐이었고, 지나치게 정확한 계산은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평형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국중국은 타이완 인구와 토지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정확한 계산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이러한 사실이 제국중국이 타이완이나 타이베이의 인구와 토지를 추산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제국중국이 타이완을 통치한 이백여 년 동안 타이베이 지역의 호구조사를 실시 하긴 했지만 1764년과 1841년 두 차례만 기록되었다(王國璠, 1977:48). 이 수치는 믿을만한 것은 못되며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 토지 조사 또한 똑 같은 상황으로, 사료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1788년에 한 차례 「민반계답사(民蕃界踏查)」(임시 타이완 토지조사국, 1900)가 있었고, 1886년 리우밍환의 '토지측량(淸丈: 토지세 조사를 위해 토지 측량)'에도 기록이 있다. 그런데 리우밍환의 토지조사가 실제 토지의 측량을 위한 작업이긴 했지만, 1900년 일본 『임시토지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중전의 조세를 합치기 위한 것으로, 토지측량을 바탕으로 한 토지제도에 근거하여 세금의 양을 안배했고, ……조세와 무관한 토지는 측량하지 않았다.”(임시타이완 토지조사국 1900:9).

제국중국 통치하의 타이베이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납부하여 기본적인 통치관계가 잘 유지된 셈이다. 이것은 역사학자 황런위(黃仁宇, 1988:161)가 주장한 “중국은 숫자로 관리

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다. 이제 청 제국의 타이베이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관련된 세 개의 시가지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이베이의 인구와 토지 상태는 제국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보이지 않는’ 모호한 상태였던 것이다.

4. 식민도시 타이베이의 도시계획 - 「시각화공간」으로 정비

일본은 1895년 타이완 통치권을 획득하는데, 이는 타이완의 통치 양식이 또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다. 일본 식민 통치자에게 있어 타이베이와 타이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1895년, 타이완에 온 일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은 항일 유격대(guerilla)가 아니라 ‘熱病’이었다.

타이완이 일본 식민지였던 시기에 유명한 의사 堀內次雄(1942:22)은 1895년 타이베이에 진입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타이베이 곳곳에서 열병, 콜레라, 각기병이 창궐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고 썼다. 또 “열병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타이완의 어느 지방에 전염병이 도는지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었고, 학교나 병원도 없어 ‘마치 암흑 속으로 뛰어든 것 같았다’라고 썼다(范燕秋, 1996:140).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대에 이미 서양의 현대 의학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병의 기제를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완의 열병 원인은 당시의 새로운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치 암흑 속으로 뛰어든 것 같았다’는 공포감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堀內次雄은 이러한 공포감을 ‘볼 수 없는’ 공포감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누구도 본 적 없고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타이완에 뛰어들었으리라고는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이렇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겪는 공포감은 전쟁이나 도적들보다 더 소름 끼친다(堀內次雄, 1942:22~23).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열병 자체’가 아니라 ‘열병에 대한 무지’였다. 열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포감에 휩싸인 것이다. 온몸을 감싸는 암흑 속의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일본은 타이완 통치 중 처음 2년 동안 타이베이의 가장 중요한 공정, 위생공정을 실시했다. 바

꾸어 말하면, 타이베이의 도시건설은 바로 공공위생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일본인이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기 전 타이완의 '열병'은 일본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1874년 일본이 목단사(牡丹社) 사건으로 타이완 남부에 진격했을 때, 7개월간의 전쟁 중 실제 전사자는 8명, 부상자는 25명에 불과했지만 전쟁 중 병을 얻은 사람이 16,409명에 이르고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547명이었다. 일본군의 의학 통계에 따르면 환자 중 66%가 전염병 감염자였고, 전염병 감염자 중 66%가 '이장열(弛張熱)'이었다고 한다(范燕秋, 1996).

'이장열'이란 무엇인가? 당시 일본인은 아직 몰랐다. 1895년 일본군이 타이완에 상륙했을 때 또 다시 이 열병의 위협을 받았다. 1895년 5월 11일 타이완에 상륙한 일본군 중 전사자는 164명, 부상자는 515명인 데 반해 병사자는 4,624명에 달했다(병을 얻은 사람은 26,094명). 군을 이끌고 타이완을 공격한 근위 사단의 통솔자 기타시라가와 요시히사(北白川宮能久, Kitashirakawa Yoshihisa) 친왕(親王)도 타이완에서 열병으로 사망했다(井出季和太, 1936:29).

堀内次雄가 묘사한 공포감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유행병'이야말로 당시 일본군 최대의 적이였다. 열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최초로 타이베이에 온 일본인은 타이베이가 '중국(支那)식 도시'라서 그렇다고 비난할 뿐이었다. 당시 문헌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타이완에 대한 수식어는 불결함, 위험, 구역질 등이었다. 1936년 井出季和太가 쓴 『台灣治績史』 중에서 식민 초기에 상륙한 일본 위생부대의 기록을 인용해보겠다.

타이베이 시가지는 가옥 주위와 정원에 불결한 오수가 넘쳐 흐르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고인 물이 못을 이루고 있다. 사람과 가축이 뒤섞여 살고 공공 화장실이 있지만 아무 곳에서도 대소변을 본다(井出季和太, 1936:25).

일본의 서양의학은 1880년대에 이미 풍성한 성과를 거둔다 하지만 타이완의 열창(熱瘡) 만큼은 병의 기제나 전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키니네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공공 위생에 대한 원칙도 달랐다. 어떤 이들은 오염된 공기가 유동하고 있고, 일본인은 무더운 기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밤이 되면 장기(瘴氣, 열대나 아열대 산림의 습하고 더운 공기)가 스며들기 때문에 취침 시 병에 걸리기 쉽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타이완 열병'에 대한 공포심이 여전히 심각함을 알려준다(范燕秋, 1996). 열병의 기제를 몰랐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했고, 중국인의 생활 습관을 거칠게 닦할 뿐이었다.

1896년 6월, 타이완 총독 桂太郎이 부임하여 ‘중국식’ 시가의 때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일본 내무성 위생국장 後藤新平을 타이완으로 초청해 의견을 물었다. 後藤新平은 대략적인 현지조사 후 ‘공공위생’을 우선적인 타이완 식민정책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井出季和太, 1936:35). 앞서 말한 공포감이 조성된 상황하에서 桂太郎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위생우위의 정책 방향을 공포했다.

타이완의 기후는 열대 기후에 가깝다. 비바람과 더위와 추위의 변화가 내륙과 차이가 있다. 게다가 청국(淸國)은 위생 법규를 추진하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어떤 이는 타이완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거나 혹은 섬 전체가 말라리아나 아편독의 소굴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용과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위생조치를 취하여 타이완 거주자의 질병을 막고 향후 타이완에 이주하여 타이완관리에 협조할 이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겠다(引自張景森 1991:38).

이러한 공포는 소위 ‘위생제일주의’(尾辻国吉, 1943:134)의 전개를 확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타이베이 통치 초기 개진되었던 도시 건설은 확실히 공공 위생이라는 의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 중, 하수도 시설 정비, 주택 정비, 비위생적인 요소 격리 등은 도시건설 초기에 가장 구체적인 사업이었다.

桂太郎과 後藤新平의 관념대로 통치 대상 지역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변하면 사실 두려울 것도 없다. 글 뒷부분에서는 1898년부터 타이완 총독부에서 네 번째로 민정국장을 역임한 後藤新平이 타이완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켰는지 묘사되어 있다. 일본이 타이베이의 도시 계획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분석하기 전에 여기에서 일본 통치자의 내심에는 ‘공간시각화’라는 현대 통치 개념이 숨어 있었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겠다.

공간시각화란 국가가 영토 곳곳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을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전통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권력 운용 방식인데, Michel Foucault(1980:147)의 권력 이론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전통 사회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은 「권력의 근원」을 보여주고 경외심(공개, 의식, 참배와 같이)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서양 사회는 하나의 권위(신권)가 종식되었고, 권력은 더 이상 하나의 근원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권력은 작동 형식을 전환해야만 했다. 역사상 권력은 ‘공간’이라는 도구를 빌어 작동했다. 권력 자체는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숨겨져 있었고, 반대로 피통치자들은 ‘보이는’ 공간에 위치했다. 그 결과 국민은 국가의 응시(gaze) 대상이 되었고 국가는 국민을 볼 수 있지만, 국민은 국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감시 효과가 생성되었다.

Foucault(1977: 200)는 Jeremy Bentham이 설계한 원형감옥(panopticon)이 이러한 권력의 작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여겼다. 원형감옥은 “외곽이 원형으로 되어있는 건축물로 중앙에 놓은 탑이 설치되어 있다. 탑 위에는 바깥의 원형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 원형 건축물에는 감방이 칸칸이 배치되어 있는데 …… 이렇게 새장 같은 감방은 작은 극장과 같아서 그 속에 홀로 고독하게 있는 배우는 모두 개별화되어 있고 수시로 보여진다.” 범인은 간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감시를 당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에는 하루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고, 최후에는 스스로 감시하게 된다. 이는 규율(discipline)을 통한 권력의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공간시각화의 의미이다. 볼 수 없는 암흑의 공간을 없애고 밝으면서도 시선이 직선으로 관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한 것은 현대 통치의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공간은 구체적인 기능을 갖춘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주거와 활동을 구속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Anthony Gidden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도시가 현대도시로 변천하는 과정은 단절이지 연속은 아니다. 일상생활의 영역(place)이 공간(space)이 되는 것은 현대 도시 형성의 중요한 특성이다(Giddens, 1981:141~142).

제국 중국 통치자에게 타이베이 공간이 ‘보이지 않는’(invisible) 모호한 상태였다면 서양의 이성주의적 지식 체계를 습득한 일본 식민 통치자에게 있어서 타이베이의 공간은 ‘볼 수 있는’(visible) 또렷한 공간이었다. 본문은 ‘볼 수 있는 공간’의 수학적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만 도시계획이 완성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타이베이 시정 이십년사』에 의하면 일본이 통치 50여 년간 진행한 도시계획 중 ‘계획’을 명확히 공고한 경우가 모두 여섯 차례이다. 그 단계성을 분석하여 초기 도시 개조의 숨은 뜻은 찾아 보고자 한다. 여섯 차례에 걸친 타이베이 시가지 정비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표 4)와 같다.

표1: 일본통치시기 타이베이 시가 6차 중요 정비 계획

계획분기	실시 및 공고일	계획명칭 및 내용
제1차 계획	1896년 5월	청내이 임시 하수도 긴급 설치
제2차 계획	1898년	청내이 하수도 설치(William Burton건의)
제3차 계획	1900년 8월 23일	《타이베이 청내이시 계획》
제4차 계획	1901년 6월 1일	《타이베이 청와이(城外) 남방시 계획》
제5차 계획	1905년 10월 7일	《타이베이 지구 개정 계획》
제6차 계획	1932년 3월 7일	《타이베이 시 도시 계획》

자료출처: 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542

여섯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896년과 1898년의 두 차례 사업이다. 이 때는 공공위생을 핵심개념으로 한 도시정비였고, 범위는 이미 조성되어 있던 청내이 지구에 집중되었다. 주요 사업은 오수폐기인데, 상하수도와 주택정비도 포함되었다. 2단계는 1900과 1901년의 두 차례 사업이다. 범위는 여전히 청내이 지구와 그 주변이었고, 주요사업은 도로정비, 성문개통 등이었다. 3단계는 1905년과 1932년으로 계획범위는 이미 청내이 지구를 초월하여 완화와 다다오청 두 구(舊)시가를 포함하는 등 타이완 전체로 확장된 사업이었다.

본문은 타이베이의 현대 도시화의 완성은 3단계에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3단계 즉 1905년 이후를 말한다. 물론 앞선 두 단계의 계획도 비록 질병에 대항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작된 것이며, 단지 위생을 강구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성문을 개통하는 등 국부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상 도시화에 대한 현대국가의 ‘공간시각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5. 식민초기의 도시계획-밝음과 유동성으로 오염과 폐쇄성을 대체하다

우선 1896년과 1898년 두 차례의 도시위생 사업을 살펴보자. 1896년 5월 참을 수 없는 섬 도시 타이베이는 곳곳에서 오수가 넘쳐 흘렀다. 타이완 총독부 민정국은 ‘임시토목부’를 설립하고, 북문 성벽 바깥쪽에 임시 하수도를 설치했다. 임시로 타이베이 청내이의 오수의 물질을 성 밖 수로로 돌린 후 단수이(淡水)강과 만나도록 방류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타이베이에 대한 일본의 ‘제1차 도시계획’이었고, 목적은 거주지 주변에 오수가 흐르지 못하게 하고, 단수이강이 청내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조치였다(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544)

1896년 8월 後藤新平은 도시 주거환경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영국 위생사 William K. Burton 를 추천하여 타이베이에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했다⁴⁾. Burton은 1897년 4월 보고서를 통해 신속하게 위생 사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 했는데, 타이베이를 1순위로 삼고,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건의했다(越澤明, 1993:188).

Burton의 건의로 타이베이의 '제2차 도시계획'이었던 하수도 부설 공사가 시작되었고, 목표는 '오염과 악취가 가득한 거리'를 청결화하는 것이었다. 하수도 계획에는 '물길을 터서 합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빗물과 오수를 모두 수로에 받은 후 하수도를 설치하여 청네이 동남부를 거쳐 북쪽으로 흘러보내어 단수이 강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공사는 청네이 지구에 국한 된 것으로, 푸첸제(府前街), 푸호우제(府後街), 베이먼제(北門街) 등에 하수도를 수로를 파서 지형을 따라 흐르다가 완화 부근의 암거를 거쳐 단수이 강으로 유입되도록 처리한 것이다. 성문에는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가 범람하면 수문을 닫고 펌프로 고인 물을 빼낸다(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542).

타이베이 청네이의 하수도 공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899년 타이완 총독부는 법률 효력이 있는 정식 법령 제6호 《타이완 하수 규칙》 및 시행 세칙을 발표하였고, 타이베이 현(縣)도 연이어 《타이완 하수 규칙 시행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공하수'를 정부가 건설 및 관리하고, '사설하수'는 도면을 첨부한 청원서를 올려 현청(縣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재, 경사도, 형상 모두 관이 정한 규격에 부합되어야 했다(黃武達, 1997:59).

《타이완 하수규칙》은 비록 하수도 부설에 대한 규약일 뿐이었지만 일본 식민 정부가 도시 시설을 서민 생활에 적용시킨 첫 법령이었고, 그 후에도 도시개정의 기본 절차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생사업은 사실 알 수 없는 '열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서양 세균학의 발달로 1898년 주 인도 영국 군의관 Ronald Ross에 의해 '병을 옮기는 모기'가 말라리아의 질병 기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침내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의문이 풀렸다. 일본 의사들은 타이완 유행병 연구에 매진하여 堀內次雄, 今村保, 木下嘉七郎 등이 타이완의 '열병'이 말라리아임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모기가 전염시킨다는 이론을 알아내어 타이베이는 물론이고 타이완 각처에서 말라리아 모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일본 의사들은 수로를 청결하게 하고, 늪과 못을 메우고, 석유를 뿌려 유충을 죽이고, 또는 연기를 피우거나 국화 기름을 바르고, 모기장을 치는 등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할 수 있도록 새로

4) Burton은 1887년 동경제국대학에 초청되어 위생공학기사를 맡았고, 동경·오사카·교베·요코하마 등 중요한 도시에도 초청되어 상하수도 공사를 설계한 적이 있었다.

운 의학을 통한 방역작업을 전개했다(范燕秋, 1996:146).

의학지식의 발달로 유행병은 예방치료가 가능한 대상이 되었고, 학질 등 전염병으로 인한 치사율은 일정 수준까지 내려갔다. 1905년경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안정적인 수치까지 감소되었다(아래 표2 참조). 일본치하의 도시건설 제1의 결전은 ‘공공위생’이었고, 단계적으로 임무를 완성함에 따라 도시 건설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표2: 1897-1909년 타이완 인구 별 말라리아 사망률

연대	1897	1899	1901	1903	1905	1907	1909
말라리아사망/총인구	0.4%	1.8%	3.2%	4.5%	3.1%	3.8%	3.3%
말라리아사망 /일본인	23.9%	11.6%	6.27%	4.4%	2.5%	3.1%	2.2%
말라리아사망 /타이완 인	0.3%	1.7%	3.3%	4.6%	3.1%	3.8%	3.4%

자료출처: 范燕秋(1996:160~161)

공공위생의 기본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불결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는 곧 불결한 장소를 보이게(visible)하여 해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成田龍一, 1993). 따라서 공공위생을 전개하여 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는 항상 ‘불결한 부분을 청소’한 후 ‘밝음을 더하는’ 적극성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통해 도시 속에서 시선을 관통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1854년 유명한 Baron Georges Haussmann에 의해 주도된 Paris 개선 계획은 바로 하나의 시선이 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Haussmann은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방사형 도로를 건설했고, 도시에는 360도 조망이 가능한 ‘관찰점’이 형성되었다. 본래의 어두웠던 Paris는 밝은 Paris로 변모했고, 본래 보이지 않았던 모든 구역이 정복되어 완전히 보이는 획일화된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Benevolo, 1993:171~179; 若林幹夫, 1992:97~105).

타이베이에서 ‘불결한 공간을 제거’하는 기술이 완성된 후 본래의 어두웠던 구역을 어떻게 밝은 곳으로 바꾸는가 하는 문제는 1899년 식민정부 도시관리자의 숙제였다.

Haussmann의 파리 정비는 동경의 1888년 및 1920년대의 ‘시가지 정비’에 큰 영향을 미쳤고(石塚裕道, 1991:10; 石田頼房, 1987:27), 타이베이는 이러한 동경의 시가지 정비 계획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청내이의 도로 관통 계획에는 자연스럽게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사실 1897년 4월 Burton은 타이베이 하수도 정비계획을 위한 1차 보고서에서 하수도 신설을 건의하는 동시에 이에 맞는 도로 부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도시를

밝게 개조하기 위한 좀 더 명확한 계획은 타이완 총독부가 1900년 8월에 공포한 《타이베이 청네이 도시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黃武達, 1997).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선 두 차례의 도시계획은 오수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었으므로 1900년의 계획이야말로 《타이베이 시정 이십년사》에서는 세 번째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정비 계획인 것이다. 1900년의 《청네이 도시계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과 의의가 있다.

- (1) 직선 도로, 성문 증설: 이 계획은 이미 청네이 중앙에 기획된 ‘총독부 부지’로 도시 속에서 시선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공간 통치의 ‘시각화’ 원칙 아래 청네이의 구부러진 도로를 반드시 직선화하고 서로 통하게 하였고, 가능한 한 성벽을 뚫고 나오도록 했다. 그리고 성문을 증설했는데 이는 직선 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본래 있던 다섯 개의 성문 외에도 아홉 개의 새로운 성문이 증설되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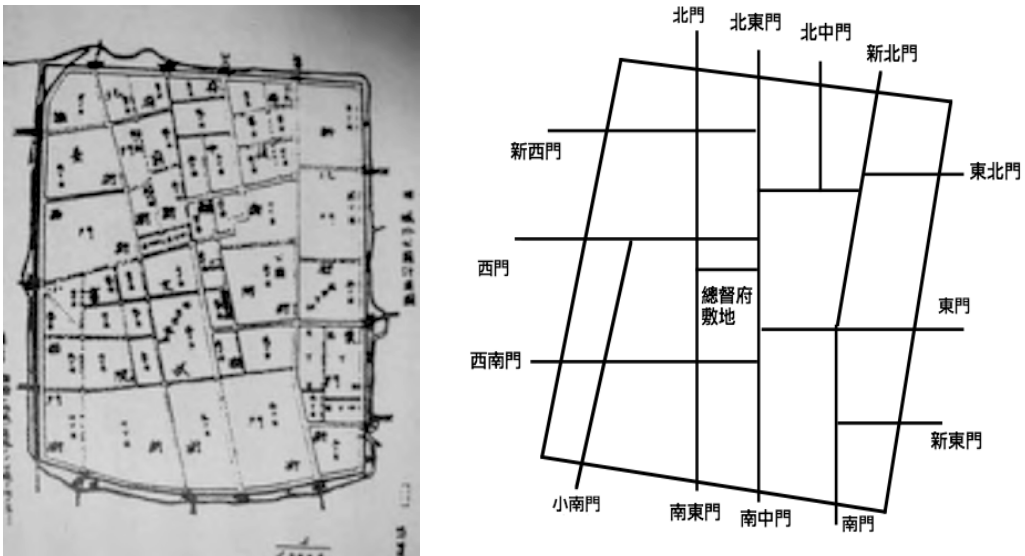


그림4: 1900년 《타이베이 청네이 도시계획》의 성문 및 도로 배치

새로 증가된 성문은 모두 총독부의 예정대로 시선을 외부에까지 확대시키고 관통시킬 수 있었다(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544). 개정 전의 도로 구조와 비교한다면 제국 중국은 풍수의 원칙

에 따라 도로나 성문이 서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려고 모진 애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시대에는 이와는 달리 신지식 체계하에서 시선의 장애를 차단했다. 따라서 도로의 관통, 성문 개통은 모두 통치 시선을 위해 창조된 산물일 뿐이다.

(2)블록 형태의 출현:도시 직선화 후 관통성을 지닌 도로가 교차하면서 청네이에는 크고 작은 53개의 '블록'(block)이 형성되었다(黃武達, 1997:69). 블록은 중국 혹은 타이완 전통 거리의 선형 양식과 아주 달랐다. 블록은 고도의 인위적 형식이며 평면 논리의 산물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을의 구조(일반적으로 불규칙한 형태)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Mumford, 1961).

1900년의 《타이베이 청네이 도시계획》이 후일 타이베이 시 전체의 발전 상황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성벽 내부의 계획'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계획은 성벽을 따라 북측, 동측, 남측으로 수로를 짓는 계획으로서 '성밖 공원'을 짓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黃武達, 1997:72).

1900년의 《청네이 도시계획》은 '시각화'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지리적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성벽 내부에만 머물렀다. 당시의 『타이완 일일신보』에 실린 선전문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비평을 찾아볼 수 있다.

시내 전체를 변경하지 않고, 정비계획 또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만 그쳤다. 이는 사람들이 예상한 대폭 개정은 아니다.(『타이완 일일신보』, 1900. 8. 23).

소위 '사람들이 예상한 대폭 개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타이베이 청네이도 아니고, 완화, 다다오청만 일컫는 것도 아닌, 이보다 더 위대한 타이베이 전체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권력의 눈'의 각도에서 보면 아홉 개의 성문을 설치하고, 여러 갈래의 도로를 관통시키는 계획에는 통치자의 시선이 이미 벽을 뚫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청네이'에 한정된 타이베이가 통치는 얼마 안 가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 한다.

1900년경 타이베이의 위생과 치안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타이베이로 이주해 온 일본 관료와 이민자들은 늘어났다. 1900년 이전에 일본의 타이베이 계획은 청네이에만 국한되었고, 청네이 내부의 주요 시설도 모두 관공서, 병원, 공원 등 공공 건축물 뿐으로 주택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이에 '도시 계획 위원회'는 성 밖 남부의 개발을 건의했고, 1901년 성벽을 넘어서 도시계획으로서 제 4차 도시계획 즉 《타이베이 성외(城外) 남부 도시계획》이 출현했다.(徐裕健, 1993:95)

《타이베이 성외(城外) 남부 도시계획》을 실시하던 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을 파견하여 '청네이 주변지구', 즉 성밖의 동측, 서측, 북측 및 완화와 다다오청의 대만인 거주 밀집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다.(臺灣總督府民政局, 1905:200)

1905년 타이완 총독부가 또 한차례 도시 계획을 공포했을 때 도시계획의 대상과 범위가 전적으로 새롭게 설정되었다. 제국중국 말기 세 개였던 시가지지를 모두 합하여 하나가 된 진정한 '타이베이'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1901년 이후의 변화 과정 중 일본의 타이베이 도시공간 안배가 순전히 식민지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확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도록 계획 속에 모종의 합리적이고 고상한 과학성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05년 타이베이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도시계획의 출현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 합리적인 계획의 배후에는 어떠한 통치 기초가 깔려 있는지 탐구해 보아야 한다.

6. 타이베이는 어떻게 시각화 되었는가?-임시 토지 조사를 통한 통치 효과

일본은 '조사'의 개념을 통해 타이완을 이해했고, 여기에 메이지 유신 이후의 현대국가 통치이념을 반영했다. 그리고 타이완을 접수하자마자 조사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1895년 11월 일본 대장성 주세관(主稅官) 吉井友兄은 타이완에 와서 『타이완 재세시찰복명서(財稅視察復命書)』를 통해 대략적인 조사를 진행했다.(江丙坤, 1972:31). 그러나 통치 초기에는 토적의 반란이 여전히 심했고, 기층 정부도 장악할 수 없었으므로 일본은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군대를 위주로 한 조사뿐이었다. 실제로 전면적인 조사는 1898년 後藤新平이 4대 민정장관으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後藤新平은 원래 의사였다. 그는 '국가위생'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국가, 광의의 위생(國家即廣義的衛生)'이라는 논점을 제안했다. 그리고 위생 행정 개념을 사회에 보급시키고 '생명통계학'과 '인구경제가치'를 국가 통치 기술에 도입시킬 것을 주장했다.(村上綱實, 1989:237) 後藤新平은 자신의 숙련된 조사 기술과 통계 기술을 일본 본국에서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던 식민지에서 이것들은 운용할 장소를 찾은 것이다. '철저한 과학적 실태조사'의 진행을 통해 타이완은 後藤新平 개인의 실험실로 변했다.(溝部英章, 1976:64)

後藤新平이 타이완에서 실시한 가장 중요한 조사는 1898년 7월 타이완 총독부가 공포한 법령 14호 《타이완 토지조사규칙》이었다. 1898년 8월 타이완 총독부는 '임시타이완토지조사국'을 설립하고, 9월 타이베이 청내이에 '타이베이 지국'을 설치하여 동시에 정식 조사를 전개했다.(임

시타이완토지조사국, 1905).

임시토지조사 작업은 ‘조사/측량/제도’로 구성되었고, 지적조사, 삼각측량, 지형조사 세 가지 작업에 이어 후속 토지 신고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절차는 1899년 지적 조사로 시작되었다. 지적 조사는 우선 본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지조사 후 ‘견취도(스케치)’를 제작한다. 견취도에는 경계선, 지목, 면적, 지주, 임차인 등의 자료를 명기한다. 그런 후 관리, 촌장 등이 사정한다. 이 지적도는 축필(逐筆)로 연결된 ‘촌락 지도(庄圖)’였다.(施添福, 1996).

두 번째 절차는 1901년에 시작된 삼각 측량이다. 이는 육군 육지 측량부의 지원을 받았다. 삼각 측량의 용도는 지형의 기복으로 인한 지도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삼각 측량법은 우선 지형이 비교적 높은 계열의 삼각점을 정하고 이 점들을 서로 연결하여 삼각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한 점에서 각 방향의 수평각을 관찰한 다음 다시 변의 길이를 측정한다. 변의 길이를 기선으로 하면 각 점의 경위도 좌표를 추산할 수 있다.(盧良志, 1982:181)⁵⁾ 삼각측량 후 1:1,200 지적도를 완성한다.(촌락 지도)

세 번째 절차는 지형조사, 지형도 제작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측량’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지측량, 왜부도 측량, 근측도 측량 등 세부 측량 작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1904년에는 ‘타이완 요새 지도’를 완성하는데, 이는 식민시기 일본이 대만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江丙坤, 1972:82)

세 절차를 완성한 후, 토지대장과 지도를 편제하고, 각지에 규정에 맞는 ‘토지신고’를 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토지신고에 근거해 토지 측량을 진행했다.(竹越興三郎, 1905:209; 대만총독부 관방문서과 편, 1908:12~13)

임시토지조사를 진행하기 전, 리우밍촨이 측량한 결과(361,447甲)와 비교했을 때 토지가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1905년 조사가 끝난 후 측량된 토지는 의외로 리우밍촨이 조사한 것을 1배 초과했다. 임시토지조사가 측량한 총계를 보면 지적 777,850갑(甲), 토지 1,647,347필(筆), 마을지도 37,859장, 토지대장 9,610권, 지세 명부3,253권, 대조(大租) 명부2,371권, 1:1만과 1:10만 축적으로 제작된 수 백장의 지형도 등이다. 타이완의 전 면적과 해안선 전체 길이가 역사상 최초로 명확한 통계 숫자로 나타난다.(대만총독부관방문서과 편, 1908:12~13; 陳豔紅, 1987:72)

5) 일본 식민 시기, 타이완에는 1급 삼각본점 94개, 2급 삼각점 251개, 3급 삼각점 1,101개, 4급 삼각점 542개, 모두 1,988개가 지정되었다.(施添福, 1996)

이 때의 토지 조사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공간시각화’ 효과를 생성해냈다. 어느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국가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시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용도의 토지에 대해 얼마든지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있었다. 토지를 볼 수 없었던 제국중국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토지조사가 행해지자 지도를 통해 타이완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1895년 타이완을 점령한 후부터 일본 참모 본부 육지 측량부는 ‘임시측도부(臨時測圖部)’를 설립하여 대량의 인원을 타이완으로 파견하여 85장의 지형도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는 타이완 지도 사상 최초의 비례적 지형도였다. 식민 정부는 1898년부터 타이완에서 대규모의 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임시토지조사국 외에도 경정(警政), 번정(蕃政)이 1906년 이후에 제작한 번지 지도와 군부 측에서 1909년부터 새로 제작한 삼 백여 장의 1:2만5천 지형도 등 총 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3: 일제시대 타이완 실측지형도

지도명칭	비례척	장수	측량시기	측량기관
타이완 지형도	1: 50000	85以上	1895-1896	타이완임시측도부
타이완 보도(堡圖)	1: 2000	466	1904	임시타이완토지조사국
타이완 지도	1: 100000	36	1905	타이완총독부경찰본서
타이완 번지 지형도	1: 50000	68	1907-1916	타이완총독부번무본서
타이완 지형도	1: 25000	177	1921-1945	참모본부 육지측량부
타이완 지형도	1:50000	117	1924-1945	참모본부 육지측량부

자료출처: 施添福(1996; 1999)

지도는 시각의 산물이다. 각기 다른 시대의 지도가 표현하고 반영하는 것은 공간을 바라보는 사회의 논리가 이동한 흔적이다.(若林幹夫, 1996:11) 이처럼 공간을 바라보는 능력은 동시에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제국중국어와 식민 일본은 모두 타이베이 동남부의 동일한 곳을 지도로 제작한 적이 있다. 《대가예보도(大加蚋堡圖)》가 그 예이다. 하지만 제국중국어의 대가예보도(그림5)에 비해 일본 식민 정부의 것은 정확한 측량으로 완성된 대가예보도(그림6)로서 그 통치 효과는 아주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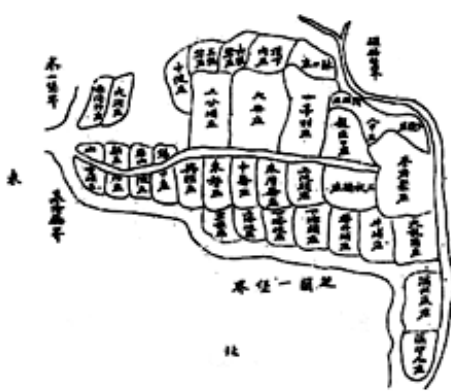


그림5: 리우밍찬이 제작한 대가예보도
자료출처: 夏黎明(1996:20)



그림6: 1904년 일본이 실측한 대가예보도
자료출처: 《타이완 보도(堡圖)》:18

두 지도는 정밀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 체계도 다를 수 있다. 일본의 임시 토지조사 과정 중, 여러 개의 삼각점과 여러 개의 기준선은 타이완 상공에서 편제 부서의 정밀한 지식 시스템에 의해 짜여졌다. 1905년 일본 기자 竹越與三郎이 임시토지조사국을 참관하고 나서 찬미의 글을 실었다. 과장되긴 했지만, 정밀한 통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나는 토지조사국에서 지도와 토지 대장을 보았고, 관원들의 웅대함과 과학성을 보았기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각 구역은 모두 수학적 측량의 결과였고, 모두 천문학을 아우르는 선위(線緯)였다. 도처의 전원이 모두 탁자 위의 지도 속에 들어있었고, 크기는 섬 전체의 면적이, 작기는 논밭에 이르기까지 없어서 그 면적이나 위치를 알 수 있었다.(竹越與三郎, 1905:209)

섬 도시 타이베이는 식민정치와 군사집결의 소재지이며, 더우기 타이완의 토지를 볼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통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범례였다. 토지조사 및 호구조사는 관청이나 현 정부에 제공되어 지방을 통제하는 수치 자료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주로 지적자료, 실측지도, 인구통계 등 각 항목에서 거둔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지방 정부에 넘겨졌다. 1905년 3월 말, 임시토지조사국은 단계적 임무를 모두 끝냈고, 타이베이 청 또한 토지대장과 대형 지도를 인계받아(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170)타이베이 통치와 계획의 기준으로 삼았다.

7. 정밀한 통치하의 타이베이시:1905년 도시계획의 주요 의의

임시토지조사국이 제작한 지적과 지형도는 기타 행정 기구에 전달된 후, 군대의 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민정국 경찰본서와 식산국(殖産局), 각 관청과 현의 토목부서도 이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용도로 서로 다른 지도를 제작했고, 도시 계획을 주장하는 기관은 도시계획과 시가지 정비 등 도시 관련 지도들을 운용하였다.(黃武達, 2000:135~136). 타이베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또한 완화와 다다오청 두 개의 구 시가지에서도 조사를 착수하여 1904년에 거의 완성하였다. (台灣總督府民政局, 1905:200).

그 밖에 임시 토지 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타이베이 시는 1903년 호구조사 규정에 근거하여 호구조사 일지를 만들었고, 1905년에 경찰 기구는 인구 관리를 위해 임시 호구조사를 이용했다. 앞서 말한 1905년의 《토지등기규칙》에서 실시한 토지 및 건축물 등기를 살펴보면 토지와 인구 관리를 위한 기초 공정이 대부분 1905년에 순차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식 민정부는 1905년 '하나의 타이베이'를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그 때 이미 인구와 토지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과 유관하다.

1905년 10월 타이베이 청은 제200호 「타이베이시 정비계획」을 공포했다(그림7). 타이베이의 세 시가지는 역사적으로 연관이 되기도 하고 분리되어 있기도 한 특수한 관계였는데, 바로 이 《타이베이시 정비계획》을 통해 하나의 시 단위로 새로이 정비 및 결합되었다.



그림7: 1905년 「타이베이시 정비도」 2쪽
자료출처: 黃武達(1997:83)

《타이베이시 정비계획》의 도면에서 성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계획의 범위는 크게 새로워졌고 세 개의 시가지가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계획된 ‘하나의 도시’가 정말로 출현한 것이다. 우리는 또 1900년에서 1904까지의 변화 과정을 보며 일본이 타이베이의 도시공간에 취했던 일체가 폭압적인 식민 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이고 고상한 과학적 계획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지면에서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것 외에도 세 개의 시가지를 연결한 것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다. 이 계획안에는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제안되었는데, 그 중 ‘수치 관리’법이 대량으로 생겨난 것을 볼 수 있다.

- (1) 연결작업: 도로망 계획을 보면 이렇다. 도로를 구 시가지에 연결하고, 너비가 서로 다른 일곱 개의 규범 지역 도로를 표준으로 정한 뒤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너비의 도로를 개통한다. 아울러 청내이를 중심으로 외부까지 확장하여 80킬로미터 길이의 도로 건설을 계획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노선은 청내이 주위의 간선 도로였다.
- (2) 장애제거: 세 개로 나누어져 있던 본래 지역의 지리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항목이 있다.
 - ① 성벽철거: 본래의 성벽 위치에 그늘진 도로를 산보 도로의 형태로 만든다. 즉 세 도로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 ② 저지 매립: 원화 북쪽과 다다오청이 만나는 지점에 물이 고이는 지대가 있는데, 본래 계획은 선박장을 만들어 단수이 강에 보호용 제방을 쌓을 예정이었다. 그래서 흙으로 메운 후 도로를 건설했다.(黃武達, 1997:84)

성벽은 계획 공포 전인 1904년에 철거 준비가 시작되었고, 1910년에 철거 공사가 완성되었다. 성벽에는 원래 보루식 성문이 다섯 개 있었다. 그 중 서문만 철거되어 역사의 재가 되었고, 그 외의 동문, 남문, 소남문, 북문은 모두 보류되어 기념이 되었다. 남은 성벽은 타원형의 공원을 둘러싸고 있어 원형식 정경을 이루고 있다.(徐裕健, 1993:95-97).

청 말 1884년에 세워진 타이베이의 성벽은 제국이 정한 규정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 지방 권력 다툼의 산물이었다. 단 20년 만에 성벽은 모든 것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건축물이 되어버렸다. 성벽의 터는 넓은 도로가 되었다. 당시 단위로 25칸에서 40칸 정도였는데, 국

제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5.5미터에서 72.7미터이다. 새 도로의 중앙은 차도이며 양측에는 3미터 길이의 녹지대를 설치했다. 세 개의 도로에 의해 구역이 나뉘었으므로 '삼선도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徐裕健, 993:95~97). 1913년 이후 삼선로는 더욱 넓은 범위에 가로수가 심어져 타이베이 녹화의 모범이 될만한 경관을 이루었고, 도시 미화 기능과 위생 기능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다.(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621~622)

富永茂樹(1977)은 Haussmann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를 '암흑에 대한 외과수술'이라고 묘사했다. 또렷한 도시계획 지식의 기초는 시각화에서 기인한 '가견성(可見性)'이다. '가견성'의 역사적 계보는 병에 대한 외과의사의 지식 능력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사실상 앞서 서술한 後藤新平의 '생물학 원리'와 고도의 유사성을 가진다.

Haussmann는 파리 정비 중, 큰 도로, 사각지대 관통 외에도 광장, 조각상, 기념비 등을 적극 활용했고, 상상 속의 성인을 구체화 시켰다. 동시에 초월적인 시선을 만들어내어 기념비적인 지역이 모두 시선 안에 들어오도록 했다.

드넓은 도시에 복잡하게 교차되는 무수한 시선들, 중심 없는 시선들. 이 혼란스러운 시선들을 질서 있는 시선으로 변화시킨 것이다.(若林幹夫, 1990)

성벽을 철거하고 삼선도로로 개조한 것, 성문 유적을 원형의 단점(端點)공원으로 만든 것은 Haussmann이 구축한 질서있는 단점의 의미와 유사하다. 조각상과 기념비는? 그렇다. 이것들은 중국에서 아직 볼 수 없었던 특수한 건축물이었는데, 당시 타이베이의 거리에 출현한 것이다. 도시의 시선을 정비하던 시기 타이완 최초의 공공 조각상은 1903년 타이베이시의 타이베이 공원에 세워졌다. 後藤新平은 초대 민정장관 水野瀧을 기념하고 조각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水野瀧의 동상이 시내에 세워진 후 1940까지 조각상 14개, 각종 기념비 13개가 더 세워졌다.(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850~853) 이처럼 올려다보는 공공 건축물이 거리에 다량으로 설치된 것이다.

동상 외에도 지속적으로 세워진 관공서 중 가장 전형적인 건물은 타이완 총독부이다. 타이완 총독부의 위치는 1900년 도시계획 중 선정되었다. 바로 4개의 주요 성문을 통하는 도로의 교차 지점이었다. 총독부의 건축 설계도는 공개적인 도면 모집을 통해 長野宇平治의 작품으로 정해졌다. 본래 중앙에는 6층 높이의 탑 모양의 고층건물이 있었으나 도쿄 정부가 나중에 중앙의 고층 건물을 9층 높이로 개조하여 본래의 건물에 위엄과 기세를 더했다. 총독부 공사는 1919년 3월에 완공되었다. 중앙의 높은 건물에서는 타이베이 시 각지의 높은 탑을 모두 조망할 수 있었다.(溫振華, 1986:83~84) 높이가 상승된 총독부의 위치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시선의 확장'을 통해 질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서 있는 방사형 시각 효과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내이에 분포한 조각상, 기념비와 함께 명확한 질서의 기점을 구성하고 있다.

타이베이시의 물리적 형태는 대폭 변화되었다. 도로망은 완화와 다다오청 두 시가지까지 연장되었고, 서양의 바둑판식 구획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타이베이'가 완성되었다. 공공위생을 기초로 한 도시계획은 이러한 공원식 계획으로 이어졌다.

도시 통치의 기초는 충분히 안정되었다. 당시의 타이베이는 가장 큰 규모의 행정 체제 변화를 맞이했다. 1922년 전통적인 지역사회에 속했던 155개의 거리와 마을이 모두 철폐되고 64개의 정(町)으로 개조된 것이다.(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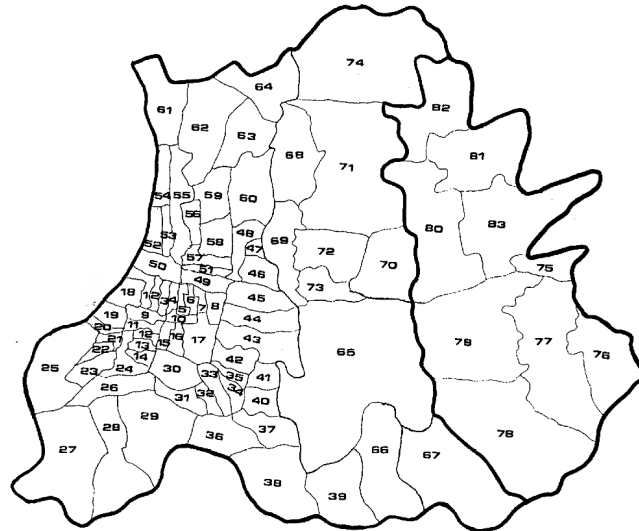


그림9: 1922년 타이베이 64정(町) 지도
자료출처: 簡博秀(1992)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던 지명은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명칭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완화 발원지인 환츠(歡慈)시는 르촨(入船)정으로, 통안(同安)인 부락의 바지아제(八甲街)는 라오송(老松)정으로, 위잉탕 비엔제(育嬰堂邊街)는 루(綠)정으로 바뀌었다.(劉劍寒 주편, 1985:35~46). 완화, 다다오청, 청내이 세 시가지는 또한 행정 체제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역사 속의 명칭이 되어 버렸다. 이를 대신하여 국가가 '시각화 공간'에서 통치하는 하나의 타이베이가 등장했다.

1932년 일본식민정부는 또 하나의 《타이베이 도시계획》(그림10)을 기획했다. 비록 뒤이은 2

차 대전으로 인해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과거 삼십 년 간의 '수치계획'의 개념은 타이완 도시계획의 잣대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확하고 분명한 「과학적 이성」의 개념이 출현했다.



그림10: 1932년 타이베이 도시계획

1932년 타이베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전통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미래계획'으로서의 의의를 가졌다. 타이완 통독부가 발표한 《도시정비계획 관련규정》에는 이미 '도시정비'계획서에 필수 불가결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치, 면적, 지세, 연혁, 현황, 공정 예산표, 각종 지도 외에도 최근 10년 간의 풍향, 기온, 강수량, 인구조사표, 사망자 조사표, 교통량 조사표, 산업 조사표,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예산, 계획결정서 등도 지적했다.(黃武達, 1997:61). 수치관리의 정신은 각 세부 항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① 도시범위의 계산: 타이베이 우편국 앞을 중심으로 반경 6킬로미터 범위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한다. 신도시 계획의 범위는 동쪽 송산(松山)구, 서쪽 단수이(淡水)강, 남쪽 신디엔시(新店溪) 원산(文山)군 경계, 북쪽 스린지에(士林街)로 정한다.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 ② 토지면적의 계산: 계획 면적 6,676묘(약 2,020만평)으로 1905년 계획의 9.5배, 포용 인원 십만 명으로 1905년 계획의 4배.
- ③ 교통시간의 계산: 도심 교통 시간으로 30분~40분을 표준으로 정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통근시간이다.
- ④ 1인당 평균면적의 계산: 언뜻과 늪지대 및 산지와 하천을 제외하고 시가지 내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4,780묘(1,445만평)이다. 인구 1인당 평균 0.8묘에 해당하는데, 유럽과 미국의 표준 밀도인 1인당 1묘인 것과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미래의 타이베이 계획에는 '이상적인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 ⑤ 거리비율의 계산: 계획 중에서 도로는 모두 59개이며, 총 길이 157킬로미터, 면적 450묘인데, 이용 가능 면적 비율은 9.5%이다.
- ⑥ 공원면적의 계산: 공원 예정 계획은 17곳이며, 면적은 388묘이다. 여기에 기존의 4개 공원 49묘를 합하면 총 437묘이며, 이용 가능한 면적 비율은 9%이다. 만약 여기에 어린이 유원지 등의 광장까지 합하면 약 10%에 달한다. 6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8평방미터씩 나누어진다.
- ⑦ 녹지 위치 설계의 계산: 신도시 계획 중 17개의 공원 예정지는 도시 내 각 지점에서 1.5킬로미터 내에 최소한 하나의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였다.(타이베이 시역소 편, 1940:544~545)

수치로 가득한 1932년의 도시계획은 고도의 과학적 이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현대 지식으로 타이완을 관리했다는 새로운 통치의 대표적 사례이다. 토지, 인구, 인간과 토지의 관계 등을 장악하면 하나의 도시를 제어하고 계획할 수 있는 단위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지역사회를 통할 필요도 없고, 지역사회의 견제를 받지도 않게 된다.

8. 결론

일본 식민정권은 타이베이를 통치할 때, 1895년부터 공공위생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1932년에 이르러 고도의 '수치관리'를 설계했고, 타이베이 시의 모든 지역이 종이 위에서 추상적인 작업 대상이 되었는데, 인류의 구체적 활동이 포함된 사회집단은 아니었다.

현대 민족주의 학자 Benedict Anderson은 유명한 저서 『Imagined Communities』에서 현대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국가의 주권은 법적 영토 내에 있는 1평방 센티미터(square centimeter)에 까지 평정하고 균등하게 작용한다.'(Anderson, 1983: 20)

타이베이에서 권력은 '1평방 센티미터(square centimeter)에까지 평정하고 균등하게 작용'했고, 도시계획 주관 관료들은 하나의 타이베이를 설계하고 기획했다. 공간의 지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도시의 지도 상에 표현된 것은 구체적인 사람과 단체가 아니라 토지와 인구에 대한 자료였다. 지역사회의 사람과 사물은 모두 균질성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일본 식민 통치자들은 타이베이 시에서 보이는 구역마다 토지계획을 설계했고, 이에 식민지 국민을 관리할 수 있었다. 1905년 竹越與三郎이 타이완 방문 후 썼던 저작 『타이완통치지(台灣統治志)』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통치를 심도 있고 날카롭게 관찰한 내용이다.

우리가 정복자로서 지혜롭게 관리(wise administration)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무력으로 새 영토를 손에 넣거나, 무력 통치 기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패배와 와해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Takekoshi, 1907:1)

竹越與三郎은 일본의 통치를 칭송했는데, 그의 말은 맞다. 그들은 타이베이를 식민통치자의 낙원으로 개조했고, 타이베이의 형태를 통치자의 자랑거리로 만들었다. 근 수백 년간의 중국 통치와 비교했을 때 놀랄 만큼 신속한 발전이었다.

1932년의 도시 계획도는 일본 식민 통치 기간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수십 년 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1992년 타이베이시 최고급 주택지구 '다안(大安)구'에서 타이베이시 최대 공원이 완공 및 공개되었다. 소재지와 원래의 명칭은 바로 1932년 계획도 상에 있던 '7호 공원'이었다. 1999년 타이베이시의 주요 상업 지구 난징동루(南京東路)에서도 두 개의 중형 규모의 공원이 완공 및 개방되었는데, 이 역시 소재지와 명칭이 1932년의 계획도에 있던 '14호, 15호 공원'이었다. 이성적 과학의 위력은 시간을 초월한다. 이는 타이베이가 일본 식민지 하에서 진정으로 계획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시였음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의 최초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제어 가능한 '하나의 도시'가 되었는가? 그 시기는 제국중국 시대가 아닌 식민지 시기였다. 하나의 완전한 현대적 타이베이시가 출현한 것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히 '사회'적인 연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타이베이에 대해 시행된 계획, 공정, 건설 등으로 인해 도시 공간은 깨

시각화의 힘(力量) : 타이베이는 언제 어떻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끗하고, 가지런하고, 아름다워졌다. 그러나 그 '공간' 깊숙한 곳에는 통치 권력이 은닉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 공간이며, 통치 권력의 진정한 완성을 의미한다. 결국 타이베이의 현대화는 사실 좋은 일이라고 볼 필요 없이 단지 역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일본 식민 통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현대 통치의 과정일 뿐이다.

(번역 : 박미남, 동국대 대학원 중문과)

* 참고문헌은 뒤로 이어지는 원문 참조

看見的力量：台北何時及如何成為現代都市

蘇碩斌 | 世新大學社會心理學系(台北)

一、前言：台灣政治之外的學術問題

台北何時成為現代都市？在台灣這個經歷不同政權統治的社會，這不僅是學術問題，也是政治圖騰。現代這個字眼，在直線演化論的觀點下，通常會誤認為進步。台灣兩種主要的政治支持者，也都有這樣的誤認，因此也各自有一套「台北成為現代都市」的支持答案，例如支持中國統一的國民黨，希望將這個現代化功績能與傳統中國延續；相反的，支持台灣獨立的民進黨，則希望將這個現代化功績與中國斷絕，因而歸功於日本殖民的成果。因此看似一個單純的問題，就因為歷史命運而牽動了深沈的族群情緒¹⁾。

本文試圖跳脫「歸功 / 怪罪」的角度，試圖說明台北成為現代都市，是完成於日本殖民統治期間，但也反省這個現代化的過程，主張這個過程也是「更有效統治土地和人民」的過程。

在論證之前，先由多年前的一個新聞事件談起。日本右派政治漫畫家小林善紀的《台灣論：新傲骨精神》2001年在台灣出版中文譯本，這本書感嘆日本失落的傳統精神，竟然在台灣資深的政商人物的(例如李登輝)身上找到，因此稱讚日本在台灣殖民統治成功，並以殖民前後兩個中國政權(1895年以前的傳統中國、1945年後的國民黨政府)的失敗作為對照。

小林善紀書中有一段描繪戰後國民黨軍隊進入台北接收政權時，中國士兵如何驚訝於現代建設：

1) 台灣社會主要由四大族群所構成，分別稱為本省閩南人(73%)、本省客家人(12%)、外省人(12%)、原住民(2%)。簡略來說，原住民是1700年以前久居台灣的南島語系土著，本省閩南人和本省客家人是1700年到1895年陸續由中國南方福建省、廣東省偷渡到台灣的移民(閩南人來自福建省、客家人來自廣東省)，外省人是1949年中國內戰後遷移到台灣的中國各省移民。

當他們第一次看到水龍頭，簡直大為震驚，立刻跑到五金行搶購，結果回家裝上牆壁後，又怒氣沖沖跑回五金行理論：「這怎麼不會出水！」(小林善紀 2001：144)

小林善紀在書中譏諷中國士兵來誇耀日本殖民建設，認為台灣在帝國中國時代沒有開展現代化，戰後國民黨時代則又倒退化，唯有日本「充滿熱情、積極推動台灣的現代化」(小林善紀 2001：74)²⁾。

這本書在台灣造成很大的爭議，親中國的國民黨籍民意代表甚至在國會中要求查禁《台灣論》，並發動反對「日本造成台灣現代化」的說法，再逐漸公開形成「傳統中國造成台灣現代化」的說法。2002年九月台北市政府就舉辦了一場展覽，將台北現代化歸功到帝國中國，並尊稱1890年代的台灣巡撫劉銘傳才是「台北現代化的推手」(聯合報2002.9.7)，當時台北市長(現任總統)馬英九更稱劉銘傳是「偶像」(聯合報 2002.9.8)。2006年台北市政府慶祝台灣光復60年的特展〈殖民時期現代化的真相〉，更是強烈貶低日本造成台灣現代化的意義，再次強調「現代之父劉銘傳」對台北城建設早有成就(自由時報2006.12.2)。

但是，馬英九稱許劉銘傳推動現代化的標準，其實也只是稱許台北當初鋪設鐵路、裝設電燈等「物質建設」。也就是說，馬英九推崇帝國中國，與小林善紀推崇日本殖民，判斷的標準其實並無差異，都同樣是以「水龍頭作為普世象徵」³⁾來決定現代或非現代。

台灣歷史學界一直都在討論台北現代化的起源，例如主張始自帝國中國的李國祁(1982)、戴國輝(1985)等人，或主張始自日本殖民的黃昭堂(1988)、楊碧川(1994)、等人，而且也一直受到政黨意識型態的影響。但是近年政治界對於現代化光環的爭奪，則無疑更加擠壓對殖民與現代問題的分析，而成為政治情緒的出口。

本文試圖跳出以「水龍頭」物質建設來決定現代都市的狹隘觀點，希望較深刻指出現代都市不只是水龍頭而已，而是系統性的現代國家統治權力的運作結果。分析的資料將以「都市計畫」來解釋日本殖民時代的台北都市意義之變化，主張都市計畫正是現代國家權力運作的結果，並使用空間視覺化(visualization of space)概念來作為解釋的理論基礎。這樣的解釋，同時也是提醒，都市現代化的過程不全是「好事」，不必歌頌敬嘆，更不必去搶功。因為伴隨現代都市計畫而來的，是更透明、更無形、更精確的管理暴力。

2) 以水龍頭譏諷1945年中國軍人對現代科技的無知，是台灣民間長久流傳的笑話。民進黨政治領袖彭明敏(1988：66)在回憶錄中也曾引述其父彭清靠的說法：「有的從水電行取得水龍頭而往壁上的洞一塞，以為這樣水就會流出來。」

3) 「水龍頭的普世象徵」是借用台灣當代作家鄭鴻生(2006)的用語。

二、两个不同的台北：帝国的台北与殖民的台北

台北都市的現代化為什麼是在日治才開始？如果不是簡單的物質建設，什麼才是？這裡先來看帝國統治末期的台北(1895年)、以及殖民統治的台北(1920年)二幅人口分布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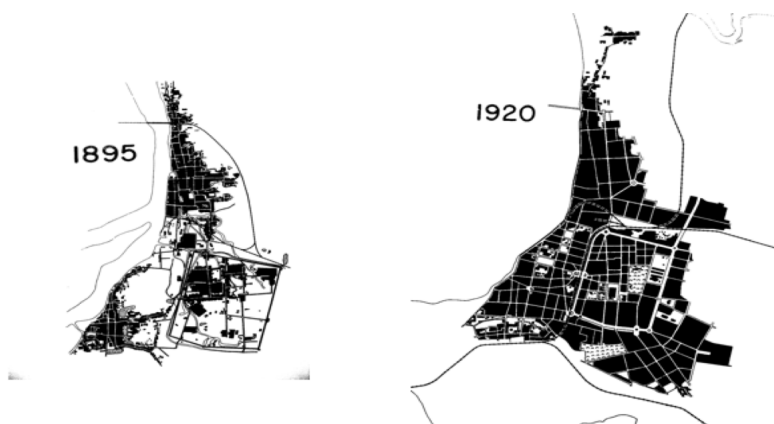


圖1：殖民前(1895)與殖民後(1920)台北都市人口分布圖

資料來源：陳正祥(1959)

這是台灣地理學家陳正祥(1959)根據人口分布描繪的台北地圖。1895年的台北，是由艋舺、大稻埕、城市三個既相關連、又有區隔的「三個市街」所構成，而1920年的台北，則是具有整體的「一個都市」。

再來看這二個年代的二位政府官員對於「建設台北」的說法。第一位帝國中國的台灣巡撫劉銘傳1892年(光緒15年)的一份官方奏摺：

竊查台北自光緒初年分設郡治，僅將城垣、文廟、試院、府署，陸續粗成，其餘地方工程，因民力難籌，多未興辦。……台北修造城工，並法防捐助，民力已勞，地方亦形竭蹶，再四籌畫，惟有將各工物料地價銀兩據實開單，恭呈御覽，仰懇飭部立案，准令作正報銷，以昭核實(劉銘傳 1958：290)。

劉銘傳是帝國中國晚期台灣最重要的官員，在這份奏摺中，他明白說出官方在1884年

新建的台北府城——俗稱「城內」(walled inner city)，除了城牆、府署等一些零星建設，其餘的民宅房舍並不多，道路也幾乎沒有，致使官員無處居住，然而建城過程已經榨乾民間財富，因此要求朝廷中央補助建設款項。

結果，朝廷中央的建設補助款當然沒有核下，因為帝國中國政府面對英法聯軍、中日甲午戰爭，財政已經枯竭，無力顧及地方建設。1895年之後台灣割讓於日本，台北城的樣貌，就只有府署周遭的一些零星建設，雖然裝設了少許電燈、設置了幾個學校，但沒有大規模的都市建設，更不用說都市計畫。

接下來看日本殖民時期1929年8月，台灣總督府官房營繕課長井手薰的一段談話：

這個都市……無論是綠蔭、道路、上下水道、電氣設施，都大略整理過了，民宅家屋的外觀，也已經統一改正，路樹豐茂，市容不雜沓也不喧囂，既清潔又明亮，都市面積不過大也不狹小，慢慢建造起了官府、學校、公共設施。雖然還只是小規模都市的形態，但是放眼望去，則是令人愉快的市街(井手薰 1929)。

井手薰是台北都市計畫最重要的執行官員。這段話是在「台北放送局」一個廣播節目中的演說，主題是《台北の都市美》。1929年之時，日本統治台灣已經三十餘年，台北不再是傳統帝國中國無力建設的三個市街，而是清清楚楚的一個都市，且是國家權力可以控制的一個都市。

日本官員可以控制都市嗎？從井手薰在《台北の都市美》的另一段談話，應該知道他們確實有信心：

以前毅然決然進行改善的台北市，……可以稱得上是美麗可愛的中型都市，如果要繼續改善的話，還有很多向上提升的餘地，這一點我很有信心。希望我們這個難得的可愛台北市街，能夠朝向完全模範都市的理想邁進(井手薰 1929)。

帝國中國的劉銘傳，沒有現代國家權力直接統治地方社會的基礎，因此也沒有辦法打造一個「可以規畫、可以控制」的都市，更沒有辦法打造一個「有信心改善」的都市。這是不同時代統治技術的差異，無關統治者的個人能力。藉由這二個時代的論述，在以下的分析，本文將說明帝國中國末期的台北，並不是現代都市，即使當年朝廷中央核下建設經

費，也無法成為現代都市。

本文想說的是，台北市成為一個都市，是發生在圖1裡的1920年代，是井手薰等等都市官員掌控的年代，是「現代國家統治」權力可以貫穿地方社會的年代。相對的，之前的台北，則是中國傳統帝國的「二段式統治」的產物。在這裡，先用一些篇幅來描述台北在帝國統治時期至1895年，是如何發展成三個市街的台北。

三、帝国时期的台北三市街：国家看不见的地方社会

漢人社會並不是台灣的原貌。台灣的原住民是南島語系的土著，在1640年代荷蘭、西班牙佔領兩個港口，才開始引進中國漢人移民協助開墾(尹章義 1989：31-32；中村孝志 1991：336)。在當時，台北所在的區域並不在開墾的範圍之內，因此除了十幾個土著部落，幾乎是蠻荒狀態。

18世紀初期，帝國中國將台灣納入統治版圖，但是朝廷並沒有經營台灣的意圖。但因為鄰近的中國省份(福建)耕地不足，因此過多的中國人口就大量遷移到台灣開墾。台北就是在帝國中國統治初期(1709年開始)，大規模的出現漢人主導的農墾社會(溫振華 1981；尹章義 1985)。

穩定的農業促使現今的台北地區出現第一個聚落，也就是艋舺(Manka)。艋舺的市街發展，並沒有國家的力量輔功，完全是由移民聚集而成。到了1850年左右，艋舺因為港口的利益糾紛，發生族群的流血衝突，落敗的一方移居到北邊的另一個河港「大稻埕」(Dadaocheng)，成為台北地區第二個大聚落(王世慶 1976：73)。

這兩個聚落，就是帝國時期台北的社會狀態。估計1880年代，艋舺和大稻埕「二市街」，人口各約五萬人，合計十萬人，已經是全台灣最繁榮聚落(章英華 1986：253)。

艋舺和大稻埕二市街的發展過程中，幾乎都沒有國家的力量介入。二個市街之內，只有一座官方的臨時辦公室，官員半年才來一次，位階約略是今天的副縣長等級。因此，兩個市街其實是由當地的社會領袖所掌控。這個社會領袖的權力基礎，是一種稱之為「郊」的商業同業公會(trade union)。「郊」表面上是一家管理碼頭搬運工人的店號，但由於二個市街與中國大陸的貿易往來(輸出稻米和茶葉、輸入日常用品)比重極高，因此碼頭店號也結合了市街上絕大多數的商店(卓克華1978)。市街的所有商店都必須加入，也沒有入會和退會

的可能(文崇一 1975 : 25)。

艋舺主要有「泉郊」和「北郊」二個大型組織；大稻埕主要則是一個「廈郊」所組織。郊雖然名義上是商業同業公會，但實質的社會影響力更大，既與同祖籍的族群(ethnic group)勢力結合，也同姓氏的宗族(clans)勢力結合，並與同祭祀的信仰(beliefs)勢力結合。不論是泉郊、北郊、廈郊，都各擁有一個碼頭，都是中國福建南方某地區的移民，都受控於黃、吳、林等宗族姓氏，(廖漢臣 1953 : 15)。另外，每一個郊都有各自獨特的信仰神祇，北郊的祭祀主神為觀世音菩薩，泉郊的祭祀主神則有媽祖，廈郊的祭祀主神是城隍。郊的日常事務負責人，就等同於祭祀活動的主持人。遇到地區間的衝突，郊還是作戰的指揮所(王世慶 1972 : 123)。

因此，台北的兩個舊市街，就是以「郊」為中心而支配日常生活的社會形態。市街的公共事務，例如度量衡工具(measuring instrument)的法定標準，就是由「郊」來決定(曾迺碩 1982 : 1008 ; 卓克華 1990 : 77)。另外，郊也曾在中法戰爭期間自己召集兵力防衛地方(伊能嘉矩 1991b : 4)，有些還會對司法案件進行審判，審判結果甚至會得到官方的採納(戴炎輝 1979 : 339 ; 卓克華 1990 : 72 ; 台灣私法商事編 : 17)。

台北在1870年代以前的二個市街，其實是「國家缺席」，而由地方社會勢力掌控。那麼，接下來討論的第三個市街，也就是「城內」(Inner City)，是不是國家主導的都市建設呢？是不是現代都市的開始呢？

本文的答案是否定的。以下先討論台北建城的緣由。帝國中國晚期的1874年，清廷因為外交事件挫敗，因此決定加強管理台灣，並於1875年提高台北的行政層級，受命管理台灣的大臣劉銘傳，也決定以台北為實質首都。

由於清帝國的律法規定府城必須蓋城，因此，在1883年動工興建城牆，1885年完工。台北府城的基地，是在艋舺、大稻埕之間的空地，照道理是可以施行規畫(溫振華 1986 : 33)。清帝國朝廷的確對台北府城做了一些規畫，但是，這種規畫卻不是我們今天熟悉的數學計算、精密測量的知識系統下。以下列舉一些清帝國對台北「城內」開發的過程：

(1) 國家無錢修造，要求地方富商出錢興建：台北築城工程進行時，清帝國的財政能力已經很困窘。因此官府建城的費用，就指名14名當地士紳當「董事」，募得二十萬餘兩的經費，並由董事實際監工造城。捐錢的董事，則可以在某些地方交換利益(Lamley 2000 : 199)，甚至是用實際的「官銜」來交換(《光緒朝東華續錄選集》 : 85)因此，並不是國家建造台北城，而是地方社會建造了台北城。

(2) 城牆基地突然無理由的更改方向，推測可能因為風水：原本的規畫是按照「北－南」的軸線，但開工前一年上任的官員(劉璈)，卻突然改為略偏東北，全部的城牆隨著更動位置，額外耗費20萬銀元。這個費用還是要求富商支出，歷史學家根據劉璈的習性，推測應該是為了「好的風水」，要求配合台北周邊的山和河流的形勢(廖春生 1988：117)。

(3) 鐵路可以應地方人士要求更改路線：官員在規畫台北築城時，也建造了全中國第一條鐵路。這個譽稱台北現代化的建設，其實大量受到地方社會的干擾。鐵路路線雖然聘請西方技師設計，但執行鋪設鐵路的中國軍隊卻常接受地方領袖的賄賂而更改路線，目的是繞過一些田園或祖墳，因此鐵路常有不合理的過大彎道(Davidson 1972：178-179)。

(4) 城內道路互不貫通：台北城開有五個城門，但卻彼此不相貫通，道路經常開到一半就停止，成為圖2的形式(溫振華 1986：40)。這不是現代都市建造城市的邏輯，因為現代都市強調流動(mobility)，但是台北城內的道路大大妨礙流動。根據中國城市史學家Sen-Dou Chang(章生道)的研究，中國城市街道常會避免兩座城門之間可以直通，是因為民間信仰相信鬼魂沿著直線行走，因此中國城市街道幾乎沒有圖3中A、B二種形式，而多為道曲的形式(Chang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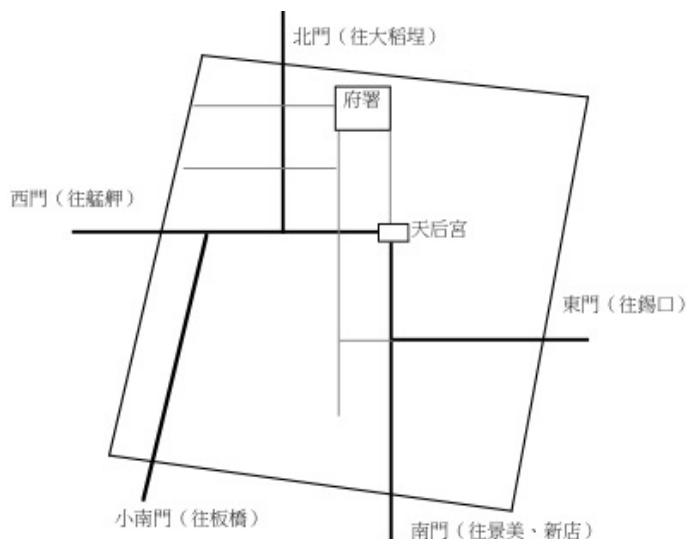


圖2：帝國中國晚期台北城的城門與街道

資料來源：參考溫振華(1986：40)、李乾朗(1984：178)繪製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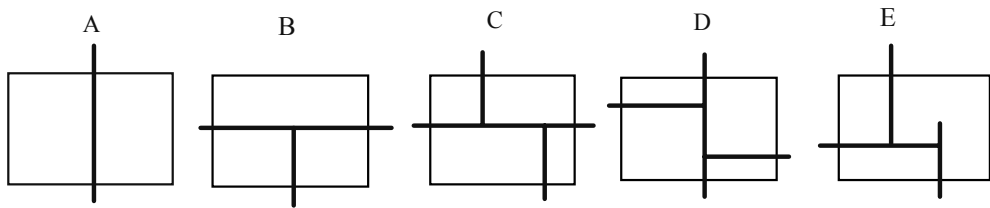


圖3：中國傳統城門與街道模式

資料來源：Chang(1977)。

另外，台北建城時，曾有一些被認為是現代化的設施，例如裝設電燈、打掃公共街道等，其實在1990年劉銘傳調離台灣之後，清理街道局就廢除了，電燈只准在官府旁邊點亮(高賢治 1978：287-288)。絕大部分的現代設施，都在幾年之內消失。從以上案例，不論是城牆建設、開通鐵路等等，都僅有物質表面設施是西方現代產物，在社會底部則是傳統中國的思維結構。從此處看來，清朝對都市建設的施為，與現代以測量計算來掌控空間、規畫城市的邏輯並不相同。

台北艋舺和大稻埕，是明確由地方社會力量所支配的聚落，而城內雖然像是國家重大建設，但其實國家的影響力量，仍然是遠遠不及地方社會。這也就是中國歷史學者所稱的「二段式統治」，亦即中國是一個龐大而鬆垮的帝國統治，以文化而不是政治為統治基礎，因此國家也就分裂為二段：第一段是科層的中央機構統治、第二段是無數的地方社會統治(Yang, 1965；金耀基 1984：7-8。因此，國家的權力機關與被統治的基層人民之間，其實是分離的，是隔著「中介階層」來接觸的(Duara 1988)。「郊」的商人，正是台北地方社會秩序的主控者，也就是帝國中國和人民之間的中介者。

要注意的是，帝國中國對地方社會的人民、土地，其實並沒有意圖想要精準掌控，帝國中國只要地方上繳的稅收足額即可，過於精確的計算反而可能破壞中央與地方社會的平衡。在這種情況下，台灣的人口與土地，帝國中央其實無從知悉，更不可能精準計算。

這並不是說帝國中國對台灣或台北從未做過人口土地的估算。帝國中國統治台灣的將近二百年間，官方對於台北地區的戶口估算工作，只有1764年和1841年兩次紀錄(王國璠主修 1977：48)。這個數字是否可靠，是個很大的疑問。土地調查也是同樣的狀況，史料所記載的，只有1788年有過一次「民蕃界踏查」(臨時台灣土地調查局 1900)，以及1886年劉銘傳的「清丈」(清查田賦丈量土地)。不過，即使劉銘傳的土地調查做了不少實地測量的工

作，但是根據1900年日本《臨時土地調查局》的報告書，劉銘傳仍然只是「將以往的租目合而為一、建構出錢糧歸於清丈之下的土地制度，……與租稅無關的土地則不置問。」（臨時台灣土地調查局 1900：9）。

也就是說，帝國中國統治下的台北，只要不叛亂、有繳稅，基本上統治關係就能維持。這也是歷史學家黃仁宇(1988：161)所說的「中國不能在數目字上管理」的意義。清朝帝國的台北，呈現為三個雖有關聯、卻彼此分離的市街聚落，也就不難理解了。在此意義上，台北的人口與土地狀態，對帝國中國而言，是一種「看不見」的模糊狀態。

四、殖民都市台北的都市計畫：「視覺化空間」的整備

日本在1895年取得台灣的統治權，也使得台灣的統治模式邁入另一個階段。對於日本殖民統治者而言，台北和台灣仍然是一種「看不見」的狀態。

在1895年，威脅來到台灣的日本人生命的大敵，並不是抗日的游擊隊(guerilla)，而是「熱病」。

日本殖民台灣時期的著名醫師堀內次雄(1942：22)，在一篇回憶1895年進入台北的景象時，描述台北到處可見熱病、霍亂、腳氣，卻不知從何著手調查，「何謂熱病，台灣哪些地方有傳染病，向來沒有人調查過，也沒有學校及醫院，『好比突然闖進黑暗中一般』」。(引自范燕秋 1996：140)

日本在明治維新時代已透過西方現代醫學知識，唯有知道致病機制才能治療病症。而台灣熱病的致病機制，卻是當時新式醫學還不知道的，因此才會出現「好比突然闖進黑暗中一般」的恐懼。堀內次雄明確指出這種恐慌的是「不可見」的恐慌：

誰也沒有見過、甚至沒有聽過的狀態下，就這樣子闖到台灣，大概也沒有人想得到。……由這種不可見、不可知的狀態而體會到的恐慌，比戰爭、土匪更加令人驚悚(堀內次雄 1942：22-23)。

威脅生命的並不是「熱病本身」，而是「對熱病的無知」，也就是不知道熱病是什麼，因而陷入一種「看不見」的害怕。為了排除置身黑暗的恐懼，因此，日本統治台灣的前二年，對台北的最重要工程，就是衛生工程。換個方式說，台北的都市建設，就是從公共衛生開始。

在日本人殖民統治台灣之前，台灣的「熱病」就曾嚴重傷害日軍。1874年日本因牡丹社事件進攻南台灣，在七個月的戰事之中，真正戰死者僅8人、戰傷者25人，而征戰途中罹病人次高達16,409人次，因病亡故者有547人。日本軍醫統計，這些病患中66%有是傳染病，傳染病中66%為「弛張熱」(范燕秋 1996)。

弛張熱是什麼？日本人當時還不知道。1895年日軍登台時，再次受到這些熱病的威脅，1895年五月至十一月登台的日軍中，戰死者164人，戰傷者515人，然而病死者則多達4,624人(罹病者26,094人次)，率軍攻台的近衛師團統帥北白川宮能久親王，也因熱病死在台灣(井出季和太 1936：29)。

堀內次雄描述的恐慌，不是沒有道理的。「流行病」才是當時日本軍的最大敵人。因為不知道熱病是什麼，因此最初來到台北的日本人，就只好怪罪台北是「支那式城市」，當時文獻裡稱呼台北都市最常見的形容詞，就是污穢、危險、嘔心。1936年井出季和太《台灣治績史》中引述殖民初期甫登陸的日本衛生隊之記錄：

台北市街，房屋周圍及庭院漫流不潔之污水，並在各處瀦留成沼，而人民與犬豚雜居，雖有公共廁所之設備，卻隨處排散糞便。(井出季和太 1936：25)。

日本的西式醫學訓練雖在1880年代已有豐碩成果，但對台灣的熱瘧疾病，仍無法掌握致病機轉及傳染途徑，僅知以奎寧治療，公共衛生處理原則也不一致，有人推斷為污濁空氣流動、日人不適炎熱氣候，有人推斷為瘴氣入夜上侵，在就寢時最易致病；這些想法，都表達了對「台灣熱病」的恐懼仍然很深(范燕秋 1996)。但是又因為不知道熱病的致病機制，因此不能根治，只好粗魯的怪罪中國人的生活習慣。

1896年六月，台灣總督桂太郎上任，就開始掃除「支那式」市街的髒污，邀請當時日本內務省衛生局長後藤新平來台灣提供建議。後藤新平大略勘察後，提出以「公共衛生」作為台灣殖民的首要政策(井出季和太 1936：35)。在前述的驚恐背景下，桂太郎採納建議，並宣示衛生優位的政策方向：

台灣氣候接近熱帶，其風雨冷熱變化較諸內地相隔懸殊，加之在清國一般不推行清潔法規，難免有害及健康情事，以致有人對台灣情況難免不知其詳，或誤認為整島皆屬瘴癘煙毒之區者。故應於經費及環境所許範圍，實行衛生設施，以使現住台灣者免其疾病，而使將來移住台灣以贊助台灣之

經營者，不生畏懼之心。(引自張景森 1991：38)

這種宣示，也就是確認了所謂的「衛生第一主義」(尾辻国吉 1943：134)的開展，日治台北早期的都市建設，完全都環繞公共衛生議題。其中，下水工程、家屋管制、髒污隔離，就是都市建設初期時期最具體的工程。

按照桂太郎及後藤新平的觀念，只要統治的地方成為可知的、可見的，其實沒有值得畏懼的。文章後面將可看到，1898年起成為台灣總督府第四任民政局長的后藤新平，如何把台灣變成可知的、可見的。在分析日本如何進行台北的都市計畫之前，這裡想要指明的是日本統治者隱含的，其實是一種「空間視覺化」的現代統治概念。

所謂空間視覺化，意指國家看到每一寸土地、每一個居民。這是一種與傳統社會不同的新式權力運作，亦即Michel Foucault(1980：147)的權力理論所解明的，傳統社會展現權力的方法是使「權力來源」被看見、被畏懼(如公開、儀式、瞻仰)；但現代西方社會終結了單一權威(神權)，權力不再透過單一來源支配萬物，權力因此必須改變運作形式。歷史上，權力的運作借助「空間」作為工具，權力自身隱蔽為空間上的「不可見」，反而使被統治者成為空間上的「可見」。這個結果是人民成為國家凝視(gaze)的對象，國家看得見人民，人民看不見國家，因而也就能產生一種現代監視效果。

Foucault(1977：200)認為Jeremy Bentham設計的一望監獄(panopticon)，最能代表這種權力運作。一望監獄是：「外圍是環形的建築，中央設了一座高塔，塔上有窗戶可以望向外圍的環形建築。環形建築則隔成一間間的牢房……，這些籠子般的牢房像個小劇場，裡面演員都是孤獨一人，完全被個別化並且隨時被看見。」犯人因為看不見管理者，所以不知道何時被監視，卻形成全天廿四小時被監視的效果，最後就自我監視，構成了規訓(discipline)權力的運作。

這就是空間視覺化的意義。把不可見的幽暗地方毀棄，改造成明亮而且視線可以直線穿透的空間，現代統治的效用才有可能淋漓盡致發揮。所以，空間不僅是具體的功能建築，而且還約束了人的居住、活動。而這也就如同Anthony Giddens指出的，傳統都市轉變到現代都市的過程，是斷裂而不是延續的。日常生活的地方(place)被掏空而成為空間(space)，正是現代都市形成的重要特徵(Giddens 1981：141-142)。

對帝國中國的統治者而言，台北空間是「看不見」(invisible)的模糊狀態，那麼運用西方理性的知識系統的日本殖民者，台北空間將是「看得見」(visible)的清晰資料。本文試著說

明，都市計畫是建立在「空間可見」的數學資料基礎上，才有可能完成。

根據《台北市政二十年史》，在日本統治五十年間對台北進行的都市計畫，明顯有公告的「計畫」共有六次，我們可試著分析其階段性，以了解早期改造都市的內涵。這六次台北市街地整備，分別如下表(表4)所列：

表1：日治時期台北市街六次重要整備計畫

計畫分期	實施或公告日	計畫名稱或內容
第一次計畫	1896年五月	城內應急式設置臨時溝渠
第二次計畫	1898年	城內設置下水道(William Burton建議)
第三次計畫	1900年8月23日	《台北城內市區計畫》
第四次計畫	1901年6月1日	《台北城外南方市區計畫》
第五次計畫	1905年10月7日	《台北市區改正計畫》
第六次計畫	1932年3月7日	《台北市都市計畫》

資料來源：台北市役所編 1940：542。

這六次都市計畫的實質內容，大致可區分為三個階段：第一階段包括1896年及1898年兩次，是以公共衛生為核心概念的市區改正，範圍集中在既有的城內地區，主要的工程清除污水，包括上下水道、家屋管制等；第二階段包括1900年及1901年兩次，範圍仍集中在城內地區及周邊，主要的工程是道路取直、開通城門等；第三階段則包括1905年及1932年，範圍已經超越城內地區，含蓋了艋舺、大稻埕兩個舊市街，擴張為整個台北市的計畫。

本文推論台北現代都市的完成，主要是指第三階段、也就是1905年以後。但本文也將指出，前兩個階段雖然是由抵抗疾病而開始，可能只是講求衛生、修整道路、開通城門等局部工程，但其實已經開啟現代國家對都市進行「空間視覺化」的過程。

五、殖民初期的都市計畫：明亮和流動代替污穢和封閉

先來看1896年及1898年的前二次的都市衛生工程。在1896年五月，不堪島都台北四處漫流的污水，台灣總督府民政局設立「臨時土木部」，在北門城壁外側設置臨時溝渠，應

急式地將台北城內的污水導流到城外水路，再放流至淡水河。這個工程，正是日本對台北的「第一次都市計畫」，目的只是消極性地防止污水滯流住居地、並避免淡水河水患侵入城內(台北市役所編 1940：544)。

1896年八月，後藤新平推薦英國衛生技師William K. Burton來台實地勘察⁴⁾，俾解決都市住居環境的問題。Burton在1897年四月即送上報告書，建議儘速建設衛生工程，且以台北為第一優先，下水道工程尤是最主要建議項目(越澤明 1993：188)。

依照Burton的建議，被列為台北都市「第二次計畫」的下水道鋪設工程在 1898年開動，目標在清潔「充斥著污穢惡臭的街道」。下水道計畫採取「開渠式合法法」，亦即雨水和污水均以明溝承接，再設置下水道引流至城內東南部向北方流放，最後排入淡水河。這個工程只處理城內地區，在府前街、府後街、北門街等處挖設明溝，配合地勢導向艋舺附近的暗渠，再導流進入淡水河。在城門上則裝置閘門，如果洪水氾濫則關閉水閘，並以幫浦抽出積水(台北市役所編 1940：542)。

台北城內的下水道工程頗有成效，1899年台灣總督府發布具有正式法律效力的律令第六號《台灣下水規則》及其施行細則，台北縣亦隨後發布《台灣下水規則施行規程》，規定「公共下水」由官方建設管理，「私設下水」則須檢附圖面呈經縣廳許可，材料、坡度、形狀均須合於官訂規格(黃武達 1997：59)。

《台灣下水規則》雖然只是規約水溝鋪設，但卻是日本殖民政府將都市設施限定到庶民生活的第一條律令，日後也成為市區改正的基礎程序。

這些衛生工程，其實都是對抗不可知的「熱病」。不過，因為西方現代細菌學的發展，1898年間英國駐印度軍醫Ronald Ross確定「蚊媒傳染」是瘧疾致病機轉，才解開困擾世界的迷團。日本醫師因此投入台灣流行病的研究，包括堀內次雄、今村保、木下嘉七郎等，不僅證實台灣的「熱病」就是瘧疾，也知道瘧蚊傳染的理論，並在台北及全台各地發現多種瘧蚊。從此，日本醫師展開了控制瘧蚊的新式醫學防疫方法，包括清理水溝、填平沼澤、噴灑石油等撲殺幼蚊的方法，以及薰煙、塗菊花油、裝置防蚊網等保護個人的方法(范燕秋 1996：146)。

醫學知識的發達，使得流行病的處理有了精準的防治對象，瘧疾等傳染病的致死率，也才下降到某個水準。大約在1905年左右，因瘧疾死亡人數就開始降到穩定數字(參見下表

4) Burton在 1887年受聘東京帝國大學擔任衛生工學教師，並受聘為東京、大阪、神戶、廣島等重要都市設計過上下水道工事。

2)。日治都市建設的頭號戰將「公共衛生」，也在這時完成階段性任務，都市的建設才能進入到下一個層次。

表2：1897-1909年台灣人口別瘧疾死亡率

年代	1897	1899	1901	1903	1905	1907	1909
瘧疾死亡 / 總人口	0.4%	1.8%	3.2%	4.5%	3.1%	3.8%	3.3%
瘧疾死亡 / 日本人	23.9%	11.6%	6.27%	4.4%	2.5%	3.1%	2.2%
瘧疾死亡 / 台灣人	0.3%	1.7%	3.3%	4.6%	3.1%	3.8%	3.4%

資料來源：范燕秋(1996:160-161)。

公共衛生的基本工作，表面上看來就是「排除不潔」，然而公共衛生的更深層意義，則是使不潔的場所成為可見(visible)，進而解體或轉變(成田龍一 1993)。因此，由公共衛生開展的都市建設，總是進行由「掃除不潔」再到「增加明亮」的積極性原則，以取得對都市的視線穿透。

1854年著名的Baron Georges Haussmann對Paris的改造計畫，就是一個視線穿透都市的模範工程。Haussmann以凱旋門為中心，開闢了十二條放射性的道路，都市成為可以360度眺望的「觀看點」，原本黑暗的Paris轉變為明亮的Paris，原本看不見的區域全被征服，成為完全可見的劃一都市(Benevolo 1993：171-179；若林幹夫 1992：97-105)。

當台北「排除不潔」的空間技術完成之後，原本黑暗區域如何成為光亮，也成為1899年的殖民政府的都市官員的考量。

Haussmann對巴黎的改造，對東京1888年及1920年代的「市區改正」，都有深刻的影響(石塚裕道 1991：10；石田賴房 1987：27)，而接受東京市區改正計畫指導的台北，對城內街道系統的貫穿工程，自然也有其影子。

其實早在1897年4月Burton第一次為台北規劃的下水道報告書，就已經要求新建下水道時，必須配合修築道路同時實施。更明確的都市明亮改造計畫，出現在台灣總督府1900年八月公布的「台北城內市區計畫」(黃武達 1997)。

就如前述，因為前兩次都市計畫只著重改善污水措施，因此1900年這個計畫雖被《台北市政二十年史》列為第三次計畫，但實際上卻是第一次真正的市區改正計畫。1900年的「城內市區計畫」，有幾個重要的內容及意義：

(一)取直道路、增設城門：這個計畫已在城內中央規劃出「總督府敷地」，設計為都市視

線的中心。在空間統治「視覺化」的原則下，城內原本彎曲折繞的道路必須取直、打通，並儘可能穿透城牆而出。而增設城門，即為街道取直意含的衍生，在原有的五個城門之外，再開闢九個新城門(圖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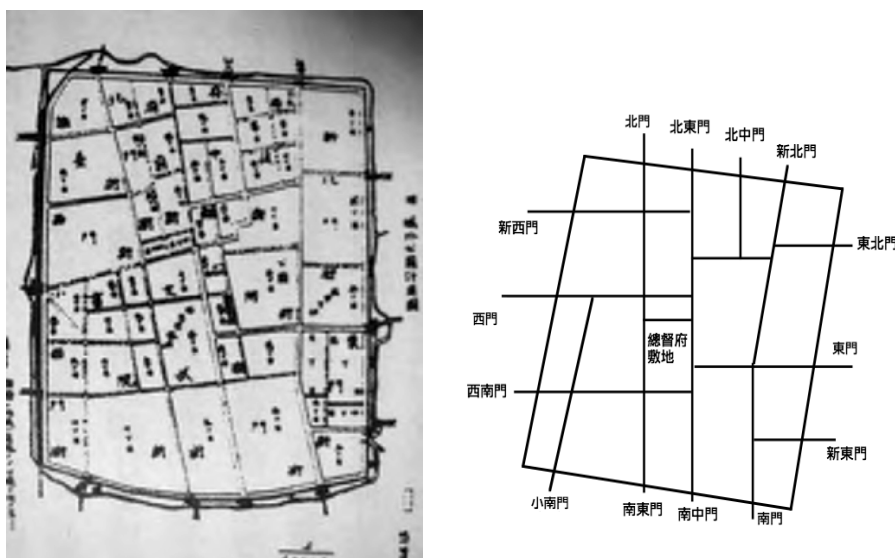


圖4：1900年「台北城內市區計畫」的城門及街道布局

新增加的城門，皆由總督府預定地向外延伸、貫穿到城內之外(台北市役所編 1940：544)。若與改正前的街道結構相對比，帝國中國在風水原則下刻意使道路及城門不相貫通的構造法，在日本時代不同的新式知識系統下，就成為阻擋視線的障礙，因此街道的貫穿、城門的打通，無非都是創造統治視線的概念產物。

(二)街廓形態的出現：街道取直後，貫穿性道路的交錯，使城內首度出現街廓「街廓」(block)形式，大大小小共52個(黃武達 1997：69)。街廓與中國或台灣傳統沿街道二側發展的線型模式大不相同，街廓是高度人為的形式，是平面邏輯產物，也不須考量自然形成的鄰里組織(通常為不規則形)(Mumford 1961)。

1900年的「台北城內市區計畫」，與後來台北市整體發展的最大差異，還是在於它只是個「城牆內的規畫」。尤其是這個計畫還沿著城垣的北、東、南三側外圍濠溝，預備建為「城外公園」(黃武達 1997：72)。

1900年的「城內市區計畫」，與後來臺北市整體計畫的最大差異，還是在於它只是個「

城牆內的規畫」。尤其是這個計畫還沿著城垣的北、東、南三側外圍濠溝，預備建為「城外公園」(黃武達，1997：72)。1900年的「城內市區計畫」，雖透露了對「可見性」的渴望，但仍未突破既有地理界域，使得都市計畫還只包裹在城牆之內。就如當時《臺灣日日新報》一篇宣導文章對這個市區計畫的批評：

對市內現狀不予變更，改正只限計畫上萬不得已須變更之處，而不是世人所預想的大幅改正。(臺灣日日新報，1900. 8. 23)。

所謂「世人所預想的大幅改正」是什麼呢？不只是臺北城內，也不只是艋舺、大稻埕，而是一個更遠大的臺北。從「權力之眼」角度看來，開了九個新城門、貫通多條道路的計畫，隱含了統治者的視線已準備破牆而出。受限於「城內」臺北治理，也在不久後即受到顛覆。

1900年左右台北的衛生、治安逐漸穩定，由日本移住到台北的官僚和移民也增多。但是，在1900年以前，日本對台北的規畫只在城內，而城內主要又都是官署、醫院、公園等公共建築，沒有餘地建造住宅。「市區計畫委員會」因此開發建議城外南區，1901年，第四次的都市計畫，也是第一個範圍跨出城牆的市區計畫出現，即「臺北城外南方市區計畫」(徐裕健，1993：95)。

「城外南方市區計畫」實施的同年，市區計畫委員又指派委員對「城內周邊地區」進行連串調查，亦即城外東、西、北三方空地，以及艋舺、大稻埕臺人居住密集區(臺灣總督府民政局，1905：200)。

至1905年台灣總督府再公布一次都市計畫時，都市建設的計畫對象、計畫範圍，則有了全新的概念，一個將帝國中國晚期三市街全部包含在內、作為一個整體的「台北」，才真正出現。

但也要注意一點，在1901年後的變化過程中，日本對台北都市空間的管理分配，並不完全是以殖民者的欺壓與強迫進行擴張，反而是在其中透露出某種合理的與優雅的科學計畫。因此，在談到1905年以整個台北為對象的都市計畫出現之前，更應該先探討這個合理計畫的背後是什麼樣的統治基礎。

六、台北如何是可見的：臨時土地調查的統治效果

日本以「調查」的思維來了解台灣，反映的正是明治維新以後現代國家的統治內涵，而且一接收台灣就開始佈局。例如1895年11月，日本大藏省主稅官吉井友兄就來到台灣，完成《台灣財稅視察復命書》的概略性調查(江丙坤 1972：31)。不過，統治之初日因為土匪騷動仍然很多，基層行政也沒有掌握，因此，調查既不能全盤進行，至多也只以軍事為主。真正的全面性調查，是始自1898年第四任民政長官後藤新平。

後藤新平原本是醫師，並發展出「國家衛生」的概念，提出「國家即廣義的衛生」之論點，主張衛生行政概念擴及社會調查，亦即將「生命統計學」和「人口的經濟價值」引進國家統治技術之中(村上綱實1989：237)。後藤新平嫻熟的調查、統計技術，在日本本國並未完全發揮；而在殖民地這個素無淵源的土地上，則找到了運用的場所。透過「徹底的科學性實態調查」進行，台灣彷彿成為後藤新平個人的實驗室(溝部英章 1976：64)。

後藤新平在台灣最重要的調查，是1898年7月台灣總督府公布的律令14號《台灣土地調查規則》。1898年8月台灣總督府設立「臨時台灣土地調查局」，9月在台北城內成立「台北支局」，正式調查也同時展開(臨時台灣土地調查局 1905)。

臨時土地調查工作由「調查 / 測量 / 製圖」所構成，亦即地籍調查、三角測量、地形調查三種事業，以及後續的土地申告。

第一道程序是1899年開始的地籍調查。地籍調查先由本地人組成委員會，實地調查後製作「見取圖」，圖內註明界線、地目、面積、地主、租戶等資料，然後再由官員、庄長等人核定。這些地籍圖逐筆連結，就製成「庄圖」(施添福 1996)。

第二道程序是1901年開始的三角測量，由陸軍的陸地測量部支援。三角測量的用處，是為補足地形起伏造成的地圖誤差。三角測量法要先選定地形較高的系列三角點，以構成相互連接的三角形，由已知的點觀察各方向的水平角，再測定起始邊長，以此邊長為基線，即可推算各點的經緯度座標(盧良志 1982：181)。⁵⁾三角測量之後，即完成一千二百分之一地籍圖(庄圖)。

第三道程序是地形調查、製作地形圖。這道程序主要是進行「水準測量」，進行實地測量、碎部圖、根測圖等細部測量工作，並於1904年完成「台灣堡圖」，是殖民時期日本對台

5) 日本殖民時期，台灣設置有一等三角本點94點，二等三角點251點，三等三角點1,101點，四等三角點542點，總共1,988點(施添福 1996)。

灣土地全貌的最重要工具(江丙坤 1972 : 82)。

調查三程序完成之後，即編製土地帳目及地圖，然後命令各地業主依規定提出「土地申告」，官府再根據土地申告進行丈量(竹越與三郎 1905 : 209 ; 台灣總督府官房文書課編 1908 : 12-13)。

在臨時土地調查進行之前，原本預估可以比劉銘傳清丈結果(361,447甲)再增加20%的土地；但是1905年調查結束之後，測量出來的土地竟然超過劉銘傳調查的一倍。總計臨時土地調查測得的地籍777,850甲，土地1,647,347筆，繪就庄圖37,859張，土地台帳9,610冊，地租名冊3,253冊，大租名冊2,371冊，完成數百張縮尺二萬分之一與十萬分之一的地形圖。台灣的全部面積和海岸線全長，在歷史上第一次出現明確的統計數字(台灣總督府官房文書課編 1908 : 12-13 ; 陳豔紅 1987 : 72)。

這次的土地調查相當成功，並產生了「空間視覺化」效果：哪一塊土地應該歸哪一人所有，國家已經看得清清楚楚了。對都市政府而言，所有國家需要用到的土地，都可以找到主人，都可以預測結果。帝國中國那個看不見土地的時代，已經結束了。

土地調查開始了以地圖觀看台灣的新境界。自1895年接數台灣開始，日本參謀本部陸地測量部就已成立「臨時測圖部」，派遣大量人員來台灣，繪製了八十五張地形圖，是台灣地圖史上第一次具有比例尺地形原圖。殖民政府在1898年開始，在台灣進行了大規模的製圖工作。除了前面提到的臨時土地調查局，還有警政、蕃政單位在1906年以後做出的番地地圖，以及軍方在1909年起重新做出的近三百張二萬五千分之一的地形圖，總數大致如表3所列。

表3：日治時代實測台灣地形圖

地圖名稱	比例尺	張數	調測時間	調測機關
台灣地形圖	1: 50000	85以上	1895-1896	台灣臨時測圖部
台灣堡圖	1: 2000	466	1904	臨時台灣土地調查局
台灣地圖	1: 100000	36	1905	台灣總督府警察本署
台灣蕃地地形圖	1: 50000	68	1907-1916	台灣總督府蕃務本署
台灣地形圖	1: 25000	177	1921-1945	參謀本部陸地測量部
台灣地形圖	1:50000	117	1924-1945	參謀本部陸地測量部

資料來源：施添福(1996, 1999)。

地圖是視覺的產物，不同時代的地圖表現，反映的即為社會觀看空間的邏輯之移動痕跡（若林幹夫 1996：11）。這種觀看空間的能力，同時也是掌控空間的能力。帝國中國和殖民日本，都對台北相同的地方製作過地圖，以《大加蚋堡圖》為例，但是與帝國中國的大加蚋堡圖（圖5）相比，日本殖民者以精準測量完成的大加蚋堡圖（圖6），統治的效能也大不相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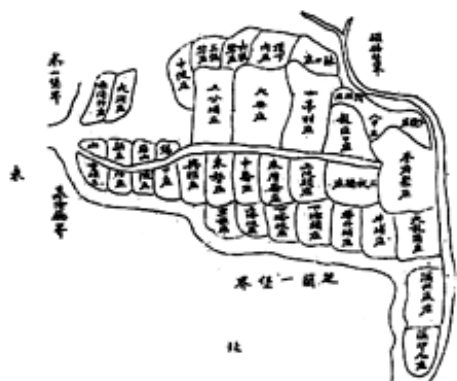


圖5：劉銘傳調製之大加蚋堡圖
資料來源：夏黎明(199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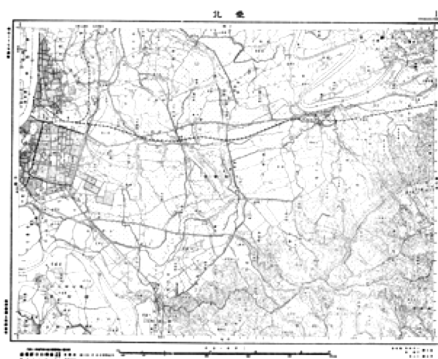


圖6：1904年日本實測大加蚋堡圖
資料來源：《台灣堡圖》：18。

二種地圖不僅精密程度有別，更是兩個不同的空間認識體系。在日本臨時土地調查的過程中，諸多的三角點、諸多的基準線，在台灣上空編織部署精準的知識系統。1905年一名日本記者竹越與三郎在參觀臨時土地調查局後，在書中寫下了一段嘆美之詞，雖然誇張，卻也說出一個精準統治時代來臨：

我到土地調查局看到了地圖、看到了土地帳冊、看到官員勤務的龐大及科學性，不禁發出嘆美。每一個町村都是數學測量的結果，都一定繫著天文學上的線緯，每一處田園，都一定會進到桌上的地圖，大至全島面積、小至一枚田園，坐著就可以知道其面積位置(竹越與三郎 1905：209)。

島都台北是殖民政務與軍事集結的所在地，更是台灣土地被看到、被調查、被分析、被統計、被規畫的範例。土地調查及戶口調查，提供了廳、縣政府進行統御地方的數字資料基礎。這主要包括地籍資料、實測地圖、人口統計的各項成果，都交付地方政府接收。1905年三月底，臨時土調局完成階段性任務，台北廳也繼承了土地台帳及大批地圖(台北市役所編 1940：170)，成為統治、規畫台北的基準材料。

七、精准统治下的一个台北市：1905年都市计划的重要意义

臨時土調局繪製的地籍及地形圖，在交付其他各行政機構後，不僅軍事部門繪製地圖，民政局警察本署、殖產局、各廳縣土木部門也都加入，依據不同的用途測繪不同之地圖，市區計畫及市區改正等相關市街圖，也交由主掌都市計畫之單位測繪運用(黃武達 2000：135-136)。台北市區計畫委員會亦同時著手調查艋舺和大稻埕兩個舊市街，這個調查在1904年接近完成(台灣總督府民政局 1905：200)。

另外，在臨時土地調查成果下，台北市也在1903年根據戶口調查規程編製戶口調查簿 1905年開始由警察機構以臨時戶口調查作為人口監管的工具。若再加上前述1905年《土地登記規則》所實施的土地及建築物登記，可以發現，這些對土地、人口掌握的基礎工程，大致都在1905年次第形成。因此，日本殖民政府在1905年推出可以規畫「一個台北」的市區計畫，並不是隨興、偶然的結果，而是因為已經有能力計算人口與土地的關係。

1905年10月，台北廳告示第200號「台北市區改正計畫」公布(圖7)。台北三市街在歷史上既聯結又分離的特殊關係，就在這個「台北市區改正計畫」中重新整編、結合為單一的市區單位。



圖7：1905年「台北市區改正圖」二幅

資料來源：黃武達(1997：83)。

「台北市區改正計畫」圖面上已不再有城牆，都市計畫的範圍大幅更新，統攝三個市

街、整體規劃的「一個都市」真正出現。而我們也將發現，從1900年到1904年間的變化過程，日本對台北的都市空間做的一切，不只是依靠壓榨剝削的殖民暴力，更是依靠合理優雅的科學計畫。

除了紙面作業上的整編之外，將三市街連接為一個都市的具體施設。在這個計畫案中，同時也提出了兩案，我們將在其中看到「數目字上管理」的作法開始湧現：

(1) 製造聯結：計畫路網以道路將新舊市街連接，並規範市區道路為七種不同的寬度標準，對不同重要性道路開通不同寬幅的道路，並以城內為中心延展向外，計畫修築道路里程約86公里，其中最重要的路線，即為城內四周聯外之幹道；

(2) 破除障礙：將原本區隔三市街的地理屏障去除，主要包括二項：1、拆除城壁：利用原城牆位址修建林蔭道路之散步道路形態，即三線道路，物理屏障確定消除。2、填平窪地：艋舺北邊與大稻埕交接處之積水低地，原本計畫設置泊船場，預定配合淡水河護岸工程，進行填土，並建設路網(黃武達 1997：84)。

城牆在計畫公布前的1904年就開始準備拆除，1910年完成拆除工程，城牆上原有的五處堡壘式城門，除第一個拆除的西門來不及阻止，而成為歷史的灰燼，其餘下東門、南門、小南門、北門四個城門，皆被保留下來為紀念，並將城門圍成橢圓公園，成為圓環式端景(徐裕健 1993：95-97)。

建於清末1884年的臺北城牆，因為帝國律典的規矩而建，是地方士紳權力爭逐的帝國時代產物；才二十年時間，城牆就變為礙手礙腳礙眼的多餘之物。城牆原有基址，則變成寬大的道路，當時的單位計算為25間至40間，換算為公制約為45.5公尺至72.7公尺，新道路中央為車道，兩側各設置三公尺的綠帶，區隔出三條道路，因而得名「三線道路」(徐裕健 1993：95-97)。到1913年之後，三線路更被廣泛植上行道樹，成為台北綠化的基本景觀場所，持續展現在都市美化及衛生的功能。(台北市役所編 1940：621-622)

富永茂樹(1977)形容Hausmann的都市計畫與改造為「對黑暗的外科手術」，正是彰顯都市計畫的知識基礎，就是來自視覺的「可見性」，而且這種「可見性」的歷史系譜，是源自外科醫師對付病患的知識能力。這與前述後藤新平的「生物學原理」，事實上具有高度的相通性。

在Hausmann的巴黎改造中，除了大條的道路、打通的死角之外，還大量利用了廣場、雕像、紀念碑，將原本存在於想像中的聖人實體化，同時營造出一種超越的視線，使得看得到紀念碑的地方，都瀰漫在某種視線之下。原本散布在廣大都市中的是無數交錯混雜、無中心點的視線，使得混雜的視線被化為有秩序的視線(若林幹夫 1990)。

拆除城牆而改造的三線道路，以城門遺址成為圓環式的端點公園，就具有Haussmann 構築秩序端點的意味。而雕像和紀念碑呢？沒錯，這兩種從未在中國都市顯露的特殊建築，也在這段期間出現在台北街頭。在都市視線整備的年代，台灣的第一座公共雕像在1903年豎立在台北市的台北公園內，紀念第一任民政局長水野遵，而發起設置的人就是後藤新平。水野遵銅像在市內設立之後，到1940年陸續又設置14個塑像，以及各式紀念碑13個(台北市役所編 1940：850-853)，上仰式觀看的公共建築物，大量散布在街頭。

除了銅像，還有不斷興築的官署，最典型的代表，就是台灣總督府。台灣總督府的位置，在1900年的市區計畫中即選定，位在貫穿四個主要城門街道的交點上。總督府的建築物設計圖，是經過公開競圖之後，挑選出長野宇平治的作品，原本中央塔樓是六層樓高度，但東京官方後來又特別把中央塔樓高度改為九層樓，較原先的設計圖增加大量的威嚴與氣勢。總督府工程在1919年3月完工，中央塔樓也成為可以一眼望見台北市區各地的高塔(溫振華 1986：83-84)。這個高度的提升，加上總督府所在的位置，顯示的正是這種以「視線延伸」作為構築秩序的放射狀視覺效果，與散布在城內的塑像、紀念碑，構成明亮化秩序的基點。

台北市的物理形態大大改變，計畫路網延伸到艋舺和大稻埕兩個市街，西方棋盤式規畫的乃得以推到「一整個台北」。以公共衛生為基礎的市區規畫，持續就在這種公園式的規畫中延長。

都市統治的基礎，至此已經十分穩固。此時的台北，也經歷了一個最大幅度的行政體制變化。1922年，原本以傳統地方社會為基礎的155個街庄，重新打散重編成為64個町(參見圖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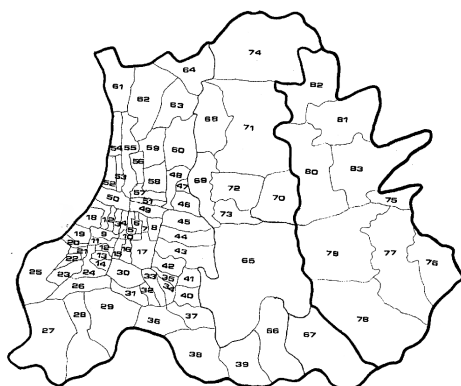


圖9：1922年台北64町地圖
資料來源：簡博秀(1992)

一些意義豐富的地名，都換新為官方指派的名稱，例如艋舺發源地的歡慈市街變成入船町、同安人聚落的八甲街變為老松町、育嬰堂邊街變為綠町……等(劉劍寒主編 1985：35-46)。艋舺、大稻埕、城內三個市街，也首次完全消失在行政體制之中，正式成為歷史名詞。代之而起的，是國家在「視覺化空間」統治下的一個台北。

1932年，日本殖民政府又在台北規畫了一個「台北市都市計畫」(圖10)。雖然隨後的二次大戰使得這個都市計畫沒有實施，但過去三十年「數字規畫」的概念成為台灣都市改造的標竿，對都市空間的使用開始出現異常清楚明白的「科學合理性」。



圖10：1932年台北市都市計畫

1932年台北市市區計畫，超越市區計畫的傳統意涵，而具備了都市計畫「規畫未來」的意義。台灣總督府發布的《關於市區改正計畫之有關規定》中，已要求「市區改正」提報計畫書應該包含的各項資料，除了位置、面積、地勢、沿革、現況，以及工程預算表和各種圖冊之外，還要求最近十年的風向、風速、氣溫、雨量、人口調查表、死亡者調查表、交通量調查表、產業調查表，及最近五年之歲入歲出預算及決算計畫書(黃武達 1997：61)。數字管理的精神，清楚浮現在各項細部計畫之中：

(1) 關於都市範圍的計算：以台北郵便局前為中心，半徑六公里之周圍為都市計畫區，新都市計畫的範圍東至松山區、西至淡水河、南與新店溪文山郡交界，北至士林街；

(2) 關於土地面積的計算：預計計畫面積6676畝(約2020萬坪)，為1905計畫的9.5倍，預計包容六十萬人，為1905年計畫的四倍；

(3) 關於交通時間的計算：以都心交通時間三十至四十分鐘可以到達為基準，是為合理的通勤時間；

(4) 關於人均面積的計算：扣除沼澤低濕地及山地河川，市街實際可利用地面積為4780畝(1445萬坪)，每人口平均為0.8畝，較歐美標準密度的每人平均1畝略少，但已使未來的大台北區計畫留有「理想的餘裕」；

(5) 關於街道比率的計算：計畫中的街路有59條，總長度157公里，道路面積450畝，占可利用市地面積比率9.5%；

(6) 關於公園面積的計算：公園預定十七所，面積388畝，加上既有的四座公園49畝，合計437畝，可占市區利用面積的9%，若再加上兒童樂園等廣場，約可達到10%的數字標準，以計畫的六十萬人口來計算，平均每人可分得8平方公尺；

(7) 綠地設置位置的計算：新都市計畫的17所公園預定地，必須使市區的每一處地點，在距離1.5公里之內都至少有一座公園(台北市役所編 1940：544-545)。

1932年這個充滿數字的都市計畫，具有高度的科學理性，代表日本運用現代知識管理台灣的新統治典範。掌握土地、人口，以及人地之間的關係，才有可能將都市作為一個可操控的、可計畫的單位，而不須透過地方社會，也不會受到牽制。這是一個坐擁數字就可以清楚看見的台北市。

八、结论

日本殖民政權在台北的統治，從1895年在公共衛生的需求下，開始進行都市計畫，直到1932年已經高度進行「數目字管理」的設計，台北市的任何地區，都成為紙上作業的抽象對象，而不是人類具體活動的社群。

現代民族主義學者 Benedict Anderson在著名的Imagined Communities一書曾經對現代國家下了一個漂亮的定義：「國家主權在法定領土內的每一平方公分之上平整、均等地起作用」(Anderson 1983: 20)。

讓權力在台北「每一平方公分上平整、均等的起作用」，都市計畫官僚也才能設計、規

畫一個台北市。空間的支配成為客觀、科學的產物。這樣一來，現身在都市地圖上的不是具體的人與團體，而是土地與人口資料。地方社會的人事物，都必須被視為均質性的「空間」來規畫。日本殖民統治者，在台北市中看到每一個區域，設計每一塊土地，也才能對人民進行真正的管理。1905年竹越與三郎的訪台巨著《台灣統治志》中有這麼一段話，正是這種深層統治的敏銳觀察：

我們或許可以依靠武力取得新的領土，並且依靠武力統治一段時間，除非征服者擁有智慧管理 (wise administration) 所需要的條件，否則必將步上衰敗和瓦解之途 (Takekoshi 1907 : 1)。

竹越與三郎這段稱頌日本統治，說得其實沒錯，他們把台北打造為殖民者的樂園，把台灣模塑成統治者的驕傲，種種物質上的成就，的確較諸幾百年的中國統治進展神速。

1932年的那一張都市計畫圖，在日本殖民統治時期沒有實現。但那一張都市計畫圖，卻驚奇的在幾十年後繼續發生作用。1992年台北市最高級住宅區「大安區」，有一個台北市最大的公園完工開幕，所在地和原有名稱，就是1932年計畫圖上的「七號公園」。1999年在台北市重要商業區南京東路上，也有兩個中型規模的公園完工啟用，所在地和原有名稱，就是1932年計畫圖上的「十四號、十五號公園」。理性科學的威力跨越時間，證明台北在日本殖民的手中，真正是可以規畫、可以預想未來的都市。

最後，再回到本文最初的問題：台北是何時成為這樣可控制的「一個都市」？不是在帝國中國，而是在殖民時期。完整一個現代台北市的出現過程，並不「自然」，而是非常「社會」。日治殖民時期在台北所做的計畫、工程、建設，看來使都市空間更乾淨、更整齊、更美麗，但也隱匿了深藏在「空間」裡頭的統治權力。正是透過視覺化空間，統治權力才真正完成任務。如此看來，台北現代化，其實未必是什麼好事，只是一個歷史過程，一段發生在日本殖民時期無可抵擋的現代統治過程。

Bibliography

(1) 中文及日文部分

- 小林善紀(2001)《台灣論：新傲骨精神》。賴青松、蕭志強譯，台北：前衛。
- 文崇一(1975)「萬華地區的群體與權力結構」，《中央研究院民族研究所集刊》39：19-56。
- 井手薰(1929)「臺北の都市美」，《臺灣時報》昭和四年11月號，頁96-102。
- 井出季和太(1936)《臺灣治績志》。台北：台灣日日新報社。
- 王世慶(1972)「民間信仰在不同祖籍移民的鄉村之歷史」，《臺灣文獻》23(4)：3-38。
- 王世慶(1976)「海山史話(上)」，《臺北文獻》直字37：49-132。
- 王國璠主修(1977)《臺北市志·卷三·政制志·戶政篇》。臺北：臺北市文獻會。
- 尹章義(1989)〈臺北平原拓墾史研究(1697-1772)〉，收錄於《臺灣開發史研究》。台北：聯經。
- 中村孝志(1991)「十七世紀中葉的淡水、基隆、臺北」，《臺灣風物》41(3)：118-131。
- 石田賴房(1987)《日本近代都市計畫の百年》。東京：柏書房。
- 石塚裕道(1991)《日本近代都市論，東京：1868-1923》。東京：東京大學出版會。
- 台北市役所編(1940)《台北市政二十年史》。台北：台北市役所。
- 《台灣堡圖(上)》(1996)，台灣總督府臨時台灣土地調查局調製，台北：遠流。
- 台灣總督府民政局(1905)《台灣總督府民政事務成績提要第10篇》。台北：台灣總督府民政局。
- 台灣總督府官房文書課編(1908)《台灣統治綜覽》。東京：台灣總督府官房文書課。
- 江丙坤(1972)《臺灣田賦事業改革之研究》。臺北：臺灣銀行經濟研究室。
- 伊能嘉矩(1991b/1928)《台灣文化志中譯本(下卷)》。江慶林等譯，台中：台灣省文獻會。
- 成田龍一(1993)《近代都市と民衆》。東京：吉川弘文館。
- 《光緒朝東華續錄選集》(1969)，朱壽朋輯，臺北：臺灣銀行臺灣文獻叢刊第277種。
- 竹越與三郎(1905)《台灣統治志》。東京：博文館。
- 李國祁(1982)《中國現代化區域研究—閩浙台地區：1860-1916》。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李乾朗(1984)《臺灣建築史》。臺北：雄獅。

- 村上綱実(1989)「植民地調査と後藤新平」，收錄於川合隆男編《近代日本社會調查史》，頁219-250。東京：慶應通信。
- 尾辻国吉(1943)「臺灣建築界の回顧」，《臺灣建築會誌》15(4)：133-136。
- 卓克華(1978)〈行郊考〉，《臺北文獻》直45/46：427-444。
- 卓克華(1990)《清代臺灣的商戰集團》。臺北：臺原出版社。
- 金耀基(1984)「現代化與中國現代歷史」，收錄於《中國現代化與知識分子》。臺北：時報。
- 施添福(1996)「台灣堡圖－日本治台的基本圖」，《台灣堡圖－1904(明治三十七)年調製》。台北：遠流。
- 施添福(1999)「日治時代的陸地測量部和臺灣地形圖」，收入《日治時代二萬五千分之一臺灣地形圖》。臺北：遠流。
- 若林幹夫(1990)「都市空間と社會形態－熱い空間と冷い空間」，《時間と空間の社會學》。東京：岩波新書。
- 若林幹夫(1992)《熱い都市 冷い都市》。東京：弘文堂。
- 若林幹夫(1996)「空間、近代、都市－日本における近代空間の誕生」，收錄於吉見俊哉編《都市の空間 都市の身體》。東京：勁草書房。
- 范燕秋(1996)「醫學與殖民擴張－以日治時期台灣瘧疾研究為例」，《新史學》7(3)：133-173。
- 高賢治編(1978)《臺灣三百年史》。台北：眾文。
- 徐裕健(1993)《都市空間文化形式之變遷：以日據時期台北為個案》。台北：台灣大學土木工程學研究所博士論文(未出版)。
- 陳正祥(1959)《台灣地誌(上)》。台北：敷明產業地理研究所。
- 陳豔紅(1987)《後藤新平在台殖民政策之研究》。台北：淡江大學日本研究所碩士論文(未出版)。
- 堀內次雄(1942)「台灣衛生事始－領台の當時と思い出(下)」，《民俗台灣》2(11)：22-25。
- 張景森(1991)《台灣現代城市規劃：一個政治經濟史的考察(1895-1945)》。台北：台灣大學土木工程學研究所博士論文(未出版)。
- 章英華(1986)「清末以來台灣都市體系的變遷」，收入瞿海源、章英華編《台灣社會與文化變遷》。頁233-276台北：中央研究院民族所。

- 富永茂樹(1977)「オスマンとパリ改造事業」, 收入河野健二編《フランスブルジョア社會の成立》。東京：岩波書店。
- 曾迺碩(1982)「司法」, 收錄於王國璠主修《臺北市發展史(二)》。頁983-1052, 臺北：臺北市文獻會。
- 彭明敏(1988)《自由的滋味：彭明敏回憶錄》。台北：前衛出版社。
- 越澤明(1993)「台灣、滿洲、中國的都市計畫」, 收入《近代日本と植民化—植民地化と産業化》。頁183-241, 東京：岩波書店。
- 黃仁宇(1988)《放寬歷史的視界》。台北：允晨。
- 黃武達(1997)《日治時代(1895-1945)台北市之近代都帝計畫》。板橋：台灣都市史研究室。
- 黃武達(2000)《日治時代(1895-1945)台灣都市計畫歷程之建構》。板橋：台灣都市史研究室。
- 黃昭堂(1988)《台灣總督府》。東京：教育社。
- 溫振華(1981)「開關」, 收入王國璠主修《台北市發展史(一)》。台北：台北市文獻會。
- 溫振華(1986)《二十世紀初之台北都市化》。台北：台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未出版)。
- 溝部英章(1976)「後藤新平論(一)」, 《法學論叢》100(2)：62-96。
- 楊碧川(1994)《後藤新平傳：台灣現代化奠基者》。台北：克寧出版。
- 廖春生(1988)《台北之都市轉化—以清代三市街(艋舺、大稻埕、城內)為例》。台北：台灣大學土木工程學研究所碩士論文(未出版)。
- 廖漢臣(1953)「艋舺沿革志」, 《台北文物》2(1)：12-17。
- 鄭鴻生(2006)〈水龍頭的普世象徵—國民黨是如何失去「現代」光環的?〉收錄於《百年離亂—兩岸斷裂歷史中的一些摸索》頁71-90。台北：台灣社會研究季刊社。
- 劉銘傳(1958)《劉壯肅公奏議》。台北：台灣銀行台灣文獻叢刊第27種。
- 劉劍寒主編(1985)《臺北市路街史》。台北：台北市文獻會。
- 蔡采秀(1996)「從日治到戰後的台北：一個都市性質轉變的歷史過程」, 《台灣史研究》3(2)：5-50。
- 盧良志(1982)《中國地圖學史》。北京：測繪出版社。
- 戴炎輝(1979)《清代臺灣之鄉治》。台北：聯經。
- 戴國輝(1985)《台灣史研究：回顧與探》。台北：遠流。

臨時台灣土地調查局(1900)《清賦一斑》，台北：台灣總督府土地調查局。

臨時台灣土地調查局(1905)《台灣土地調查事業概要》。台北：台灣總督府土地調查局。

Davidson, James W.著(1972)《台灣之過去與現在(二)》。蔡啟恆譯,台北：台灣銀行台灣研究叢刊107種。

(2) 英文部分

Anderson, Benedict.(1983)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 Verso.

Benevolo, Leonardo.(1993) *The European City*, Cambridge, Mass. : Blackwell.

Chang, Sen-dou.(1977) “The Morphology of Walled Capitals,” in G.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Pp. 75-1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Duara, Prasenjit. (1988) *Culture, power, and the state: rural North China, 1900-1942*,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Foucault, Michel.(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and translated by Colin Gordon et al., New York: Pantheon Books.

Giddens, Anthony.(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a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Macmillan.

Lamley, Harry. (1977) “The Formation of Cities: Initiative and Motivation in Building Three Walled Cities in Taiwan,” In G.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Pp. 155-21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Mumford, Louis. (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Takekoshi, Yosaburo. (1907/1905) *Japanese Rule in Formosa*. Trans. by George Braithwaite,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청결’의 帝國, ‘오물’의 古都: 경성의 위생 담론과 공간정치

김백영 | 광운대

1. 근대 식민주의와 ‘위생 신드롬’의 이중성

19세기를 통틀어 다양한 갈래로 전개된 인종주의 담론 가운데에서도 청결과 불결,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통념적 이분법을 통해 가시화되는 위생 담론은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일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과 더불어 신체적 불결함은 피식민지들의 인종적 열등성을 낙인찍는 영구적 증표로서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핵심적 구성요소였다. 문제는 제국이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문명인이 열대의 오지에 들어가 ‘불결’한 야만인들과 하나의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데 있었다. 유럽인들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상상의 지리’를 통해 열대 지방을 질병의 온상으로 간주하였고, 비위생적 습속의 원주민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이처럼 외래 식민자들을 가장 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질병과 위생의 문제에 대한 식민주의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장 지배적인 것은 인종간 주거지의 공간적 격리(segregation)였다.¹⁾ 예컨대 인도의 식민지도시는 대체로 영국인지역, 병영지역, 인도인지역의 3개 지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영국인 지역이 넓은 직선가로에 유럽풍 건물이 들어선, 질서정연하고 위생적인 형태를 띤 데 반해, 인도인 지역은 밀집된 주택, 부족한 녹지,

1) 격리가 도시계획으로 제도화된 가장 큰 원인은 19세기의 위생문제,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콜레라에 대한 공포였다. 콜레라는 1826년 인도에서, 1829년 페르시아에서, 1830년 러시아에서, 1831년 유럽 각지에서 출현하였으며, 1832년 파리에서만 18,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Rabinow, 1989: 34쪽). 조선에는 1821년 중국을 통해 처음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죽었다(이이화, 2004: 94쪽). ‘호열자(虎列子)란 ‘호랑이가 찢듯이 아프다’는 뜻으로 격심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콜레라의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모습을 띠었다.²⁾ 최초로 토착민과의 격리정책을 낳은 것은 질병이 오염된 공기로부터 기인한다는 '毒氣이론(miasmatic theory)'이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고지주둔지(hill station)의 입지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이러한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誤認이었다.³⁾

19세기 유럽의 열강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구 전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킨 영국에게 있어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는 질병은 심각한 위협이었다. 19세기말-20세기초 대영제국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페스트였다.⁴⁾ '페스트와의 전쟁'은 1897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위생회의의 주제였는데, 당시 전염병에 의한 치사율은 열악한 식민지 관리의 징표로 간주되었고, 영국령 인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콜레라 공장'으로 비난받고 있었다. 경쟁국 프랑스는 인도로부터의 승객과 화물에 대한 항만 폐쇄를 제안했다. 페스트의 원인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의료당국은 식민지 항구도시의 높은 치사율의 원인을 토착민들의 생활관습에 돌렸고, '비위생적이고 부도덕한 아시아인종의 생활'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상황의 불평등과 모순, 빈곤과 경제적 궁핍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고, 토착민 거주지의 과밀하고 열악한 거주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영국인 거주지에 대한 환기·급수·배수·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인종간 거주지 격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Home, 1997: 74-7). 영국이 인도제국의 신수도 델리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가르는 전례없이 광대한 위생 녹지지대를 만들어낸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격리 전략의 효과가 의문시되면서 식민지 위생 문제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세기초 영국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대의 주요 식민지도시에서 '개량신탁(improvement trust)'을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도시환경의 개선에 주력한 것은 페스트의 직접적 결과물이었다.⁵⁾ 이들 신탁조직은 '공중보건'을 위하여 질병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인구과밀지역

2) 대개 양자 사이에는 대규모의 위생용 격리지대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예컨대 델리와 뉴델리를 가르는 격리지대는 폭 300m에 이르는 녹지지대로 설계되었다. 그 폭은 인도인 지역의 쥐와 해충과 나쁜 공기가 영국인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쥐와 해충의 행동범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었다(Home, 1997: 56; 飯塚キキ, 1984: 296쪽).

3) 이러한 오인의 사례는 적지 않다. 가령 한중막과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중세 유럽사회에서 16세기 이후 돌연 공중 목욕탕이 자취를 감춘 것은 페스트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사적 오인의 결과였다(조르주 비가렐로, 2007).

4) 19세기말 봄베이와 캘커타는 '세계 최악의 슬럼'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이들 도시에서는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같은 시기 영국의 3-4배에 달했다. 중국 내륙으로부터 시작하여, 1890년 홍콩을 거쳐 1896년 봄베이에 상륙한 페스트로 인해 1899년 봄베이에서는 1주일에 2,800여명씩 사망했다. 연이어 철도 네트워크를 따라 봄베이와 캘커타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페스트로 인해 1896-1914년간에 약 7백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1904년 한해에만 150만명이 사망했다. 14세기 이래 유럽인들의 집단적식에 깊이 잠재된 '흑사병'의 공포는 영국인들에게 제국 붕괴의 위협으로까지 인식되었고, 1890년대의 전염병은 커다란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다(Home, 1997: 74-5쪽).

5) 1898년 봄베이 개량신탁(Bombay Improvement Trust)이 창설된 이래 이를 뒤쫓아 1912년 캘커타 개량신탁, 1920

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실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밀집된 슬럼지대를 일거에 철거하고 환기와 통풍을 목적으로 한 직선대로 건설계획으로 악명이 높아진 개량신탁의 ‘파괴적’ 활동은 토착민들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혀 곳곳에서 좌초했다. 전통적 주거·생활문화를 무시한 채 서구적 주거문화와 근대적 위생규율에 입각하여 진행된 철거와 개조는 특히 이슬람·힌두교도들의 사회적·종교적 관습과 충돌하면서 인도인들의 폭동을 유발시켰다.⁶⁾ 따라서 개량신탁의 활동은, 식민도시 위생환경의 전면적 개선이라는 선의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도시과밀과 열악한 주거 등등 도시문제들에는 거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싱가포르 개량신탁의 활동도 이와 유사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⁷⁾ 도시개량은 애초에 식민권력이 의도했던 서구적 원칙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국인·인도인 등 타인종집단들의 전통적 주거문화에 적응하는 ‘타협’의 길을 택해야만 했다 (Yeoh, 1996: 제3장, 제5장).⁸⁾

이처럼 보건위생은 19세기 식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이었다. 질병에 대한 집단적 히스테리가 낳은 19세기의 ‘위생 신드롬(sanitation syndrome)’은 의사와 공공위생 전문가를 비롯한 서양의학 전문가들로 하여금 1880-1930년間に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 분야를 뛰어넘는 폭넓은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들었다. 의사는 ‘전방위 전문가’로서, 토착지 문제나 도시계획의 다방면에 자문역을 수행했으며, 군사고문, 즉석 외교관, 지질학자, 탐험가, 인류학자로 차출되기도 했다. 식민지 도시계획 초창기에 인종별 주거지의 공간적 격리를 구상하고 설계한 이들은 대부분 이들 의사들이었다.⁹⁾

년 랑군 개발신탁(Rangoon Development Trust), 1927년 싱가포르 개량신탁, 그리고 1928년에 라고스 개발집행위원회(Lagos Executive Development Board)가 창설된다(Home, 1997: 80쪽).

- 6) 게데스(Patrick Geddes)는 개량신탁의 무모한 활동을 비판하여 ‘선의의 위생 광신도들에 의한 ‘사생결단의 오스만주의(death-dealing Haussmannising)’라고 꼬집었다(Home, 1997: 81쪽).
- 7) 1907년 싱가포르시 조사위원회가 결성된 이래, 이를 주도한 심슨(Simpson) 박사는 새로운 스타일의 위생감시를 정열적으로 주창하여, 도시과밀화와 주택부족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엄격한 건축과 계획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신작로가 환기 효과로 질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규모 철거가 진행되었고, 상수도를 통한 급수를 중요시하여 말라리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전통적인 저수지 방식을 철저히 금지했다. 그 결과 수천년간 기후와 풍토에 맞게 형성되어온 전통적 주거형태를 파괴하고 식민적 주거형태를 강요하면서,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Home, 1997: 78-79쪽; Yeoh, 1996).
- 8) “일상생활의 통합적 부분으로서의 주거는 식민권력이 상징하는 사회질서와 피식민 대중에게 습속화된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고 타협하는 공간이었다. 대영제국의 비백인 노동자들의 주거는 여러 가지 문화적 영향들의 당혹스런 혼합을 보여준다 ... 아프리카적 복합물, 인도의 시골집, 중국식 상점가옥은 식민지 도시경관에 널리 침투된 토착적 주거양식으로서, 식민지 사회질서의 요구와 갈등, 타협, 적응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았다.”(Home, 1997: 114-5쪽)
- 9)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의 열대의학은 1898-99년 런던과 리버풀에 열대의학학교가 창설되면서 영국에 도입되어 곧 여러 대학에 정규과정이 설치되었다. 식민지에서 의사들이 수행한 전염병과의 전쟁은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과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주의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제국의료사는 파스퇴르와 ‘세균(germ)이론’, 모기와 말라리아의 관계에 대한 맨슨과 로스의 설명 등과 같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위대한 발견’에

결국 19세기 서양 열강의 원격지 식민주의가 낳은 위생 신드롬은 한편으로는 인종적 타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찍기의 도구이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의 온상인 암흑의 땅에 의학적 지식과 기술문명의 설비를 전달하는 문명화의 도구로서 모순적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식민권력의 보건위생정책은 수세적 격리 전략과 공격적 개선 전략 사이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전술적 타개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서구 열강의 원격지 제국주의와는 사뭇 다른 지리적 판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패권국가로서 근린 제국주의의 형태를 띠고 전개된 제국 일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2. 제국 일본의 위생정책과 식민지 도시계획

메이지유신 이후 뒤늦게 국가적 차원의 문명개화 프로젝트에 나서게 된 일본사회가 근대적 공중위생의 사상과 실천으로 무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외래 전염병인 콜레라의 빈번한 발병이었다. 이미 바쿠후 말기 때부터 일본의 대도시에는 콜레라, (폐)결핵 등의 질병이 만연했는데, 특히 콜레라는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이 70%를 넘었기에 당시 도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¹⁰⁾

이에 따라 당국은 콜레라 감염환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민들에게 「虎列子病豫防法心得」(1877)을 보급시켰다. 이 규칙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콜레라 예방을 위한 가옥과 가로의 청소였는데, 1890년에는 각 市·町·村에 위생조합이 설립되어 관민 협동으로 일제히 각 지역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중위생활동과 위생관념의 형성은 '청결'에 대한 선호와 '불결'에 대한 혐오감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을 전통적인 '나쁜' 생활습속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유도했다. 이처럼 '위생' 담론의 출현과 함께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담론적 공격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슬럼가'와 '도시빈민'이었다.¹¹⁾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식민정책과 식민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친 의사들의 공중보건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Home, 1997: 42-4쪽).

10) 19세기 후반 콜레라는 거의 매년 일본의 대도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망자수가 8000인을 넘는 해만 꼽더라도 1858년을 시작으로, 1862, 1877, 1879, 1882, 1885, 1886, 1890, 1895년으로 이어진다(成田龍一, 1993: 15쪽).

11) 전통적으로 초년지(町人地)의 밀집된 나가야(長屋)에서 생활해온 '細民' 혹은 '窮民', 즉 슬럼가의 도시하층민들은 근대적 도시규범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제거해야 될 '타자'로서, 급속하게 대중적 담론의 장에 비중있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슬럼의 존재의 '가시화'는 슬럼의 '발견'이자 곧 '창출'이었다. 그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문명사회의 '외부'에 위치한 별개의 세계, '불결'하고 '범죄'와 연루된 '最暗黒'의 세계로서 간주되었다. 19세기 전세계를 지배한 문명

근대 일본의 위생정책은 제도적으로는 1897년 공포된 전염병예방법, 1899년 공포된 海港檢染法에 의해 그 기초가 세워졌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공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890년 수도 조례가 제정되었거 1893년에는 지방청의 위생 사무가 경찰부의 소관이 되어 이후 오랫동안 경찰 행정의 일부로 집행되었다.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일본의 대도시들은 19세기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경험한 도시 위생환경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물청소법과 하수도법(1900), 나병예방법(1907), 정신병원법과 결핵예방법(1919) 등 보건위생 관련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장주선, 1993: 74).

초창기 帝都 도쿄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구개정사업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도시계획이 상하수도 건설을 위주로 실행된 것도 이러한 위생 신드롬의 결과물이었다. 시구개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국운이 걸린 대전란기를 거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계획이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었다. 도쿄시구개정사업의 시행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크게 1888~1999년의 제1단계, 1900~1910년의 제2단계, 1911~1918년의 제3단계로 나누는데, 각 시기별로 사업실행의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남을 볼 수 있다.¹²⁾ 제1단계에서는 사업비의 2/3를 상수도에 투입하는 등 위생사업에 주력했다면, 제2단계에서는 도로개선에 압도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제3단계에서는 도로개선 위주의 사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초로 하수도 건설에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다.¹³⁾

이처럼 근대 도쿄 도시공간의 기본틀을 형성시킨 시구개정사업은 상하수도 건설로 집약되는 보건위생정책과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실현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식민지 대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¹⁴⁾ 대만은 일본이 ‘제국’으로서의 준비를 채 갖추기도 전에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

/미개, 질서/혼돈, 청결/불결, 근면/나태의 이분법적 맥락 속에 배태된 ‘도시하층사회’ 담론은 ‘일반사회의 陰書’이자 ‘내재하는 타자’로서 일본인들의 생활규범의 문명화, 근대화, 서양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담론적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成田龍一, 1993).

12) 각 단계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石田頼房(1987: 85쪽)의 표3-1을 참조.

13) 제1기에 상수도가 우선시된 이유는 메이지 초기에 반복된 수인성 전염병(콜레라)에 대한 공포였다. 전염병 문제는 당시 시구개정법안이 오랜 반대 논란과 부결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 의해 기습적으로 채택될 수 있게 만든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도시문제였다. 제2기부터는 투입자금이 급속히 팽창하는데, 이는 국고재원의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노면전차회사로부터 도로개선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계획은 축소되어 원안에 있던 대부분의 소도로에 대한 개량계획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이후의 도로개선사업이 노면전차가 설치되는 간선도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3기 계획에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은 간선도로에 투입하면서, 도시 중심부지구에 하수도체계가 시작된다. 영국인 기술자 버튼(W. K. Burton)에 의해 설계된 도쿄의 하수도는, 1888년 시구개정계획 원안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1918년에 와서야 일부분만이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 밖의 소량의 재원 중 공원에 할당된 재원은 대부분 히비야(日比谷)공원 개발에 소비되었는데, 이는 의무성이 기안했던 원대한 帝都건설계획 중 실현된 유일한 부분이었다.

14) 식민지시기 대만의 도시계획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와의 쟁탈전에서 승리한 댓가로 얻어낸 뜻밖의 '전리품'으로서, '신예' 식민열강 일본이 그동안 같고 닮은 근대화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실험실'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일본 식민주의의 전략적 심장부와는 거리가 먼 '제국의 장식물'에 불과했다(Peattie, 1984: 16). 따라서 대만에 대한 초기 일본의 통치는 한편으로는 지배의 토대구축을 위한 군정에 의한 엄혹한 탄압을 자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한 조사사업에 입각한 '과학적 식민주의'의 실시를 표방했으므로(葉倩璋, 2001: 42), 대만의 도시건설과정에서는 —대부분 일본인 거주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식민 모국의 도시에서조차 실현을 보지 못한 구미 도시계획의 선진적인 제도와 기술이 도입·적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열대성 기후를 띤 대만의 풍토적 특성에 맞춰 상하수도를 비롯한 위생설비에 극히 주의하는 '과학적 도시계획'을 도입하였다.¹⁵⁾

반면 식민지 조선의 도시에서는 대만과 같은 선진적 도시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식민 초기 타이페이(臺北)와 경성의 도시공간의 골간을 형성한 시구개정사업을 비교해보면, 같은 식민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작업에서나, 계획이념에서나, 법제도에서나, 실제 집행과정 및 결과에서나— 모든 면에서 타이페이에 비해 경성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조악한 것이었는가가 확연히 드러난다.¹⁶⁾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상하수도 설비를 중심으로 한 식민권력의 위생전략에 초점을 맞춰 밝혀보고자 한다.

3. 古都 京城의 상하수도과 위생문제

한반도는 본래 화강암 지대로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전통적으로 농업 및 생활용수가 풍부한 곳에 취락이 입지하였기에 수질도 식수원이 될만한 양질의 물을 자연수 상태로 공급받을 수

(부분적으로는 군사적) 도시계획이라는 점, 둘째, 일본인거주지구의 안녕·靜閑·안전을 배려한 주택도시라는 점, 셋째, 상업도시로서, 상업도시계획이자 문화도시계획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 넷째, 열대의 자연적 조건에 맞도록 계획된 열대도시계획이라는 점 등이다(日本建築學會(編), 2001: 1063-5쪽).

15) 이와 관련해서는 1898년부터 대만총독부 민정국장으로서 대만 식민지 경영의 기초를 닦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이후 그는 1906-8년간 초대 滿鐵총재, 1920년에는 東京市長을 역임했으며, 關東大震災 때에는 내무상 겸 제도부흥원 총재로서 획기적인 제도부흥계획을 입안하기도 했다. 일본 근대도시계획사 연구의 권위자 고시자와(越澤明)는 그를 '일본 근대도시계획의 아버지'로 평가한 바 있다.

16) 식민지도시에서의 시구개정에 관하여 자세히는, 타이페이의 시구개정에 대해서는 黃蘭翔(1992)를, 경성의 시구개정에 대해서는 김기호(1995)와 五島寧(1996)을 참조할 것. 타이페이와 경성의 시구개정을 비교한 연구로는 五島寧(1999)를, 경성과 도쿄의 시구개정을 비교한 연구로는 김백영(2003)을 참조할 것. 또 식민지 조선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손정목(1984)를, 대만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越澤明(1987)를 참조할 것.

있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개울물이나 우물물을 중심으로 한 용수 문화가 발달한 이 때문이다.¹⁷⁾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면 지역에 따라서는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남을 목격할 수 있다. 가령 개항기 서울 남촌 일대에 거류지를 형성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우물이나 하천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조선인들의 생활습관을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간주하여¹⁸⁾ 초기부터 보다 청결한 음용수를 구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결과 이미 통감부시기에 접어들면 주요 거점도시의 거류민단은 제각기 상수도를 부설하기 시작한다.¹⁹⁾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당시 수질에 대한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것은 양질의 물 배달 사업으로 19세기 한양의 고급 생수시장을 독점한 ‘북청물장수’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10년경 上京한 함경남도 출신의 한 苦學生이 우물물 배달로 학자금을 마련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는 북청물장수들은, 이후 한양에 함경남북도의 細民層 출신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사업으로 발전시켜갔는데, 이러한 상업적 음용수 시장의 확대 양상은 당시 한양 시내 자연수 수질의 악화 현상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실제로 조선왕조는 후기에 들면서 퇴적된 토사와 이물질로 도성 개천의 인색(堙塞)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조 36년(1760)의 ‘경진준천(庚辰濬川)’을 계기로 준천을 전담하여 관장하는 기구로 준천사(濬川司)를 설치한 이래 고종대까지 주기적으로 준천을 시행해왔다. 준천은 대개 3-4년에 한번씩 시행되었으며 공사기간은 대략 40~60일 이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염정섭, 1998). 하지만 왕조 말기에 이르면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단면이 좁아짐으로 인해 우기에 개천이 범람하여 홍수가 나는 등 하수 상태가 극히 불량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 서울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귀귀한 물웅덩이와 초록색 점액질의 걸쭉한 것들이 고

17) 물론 근대 개항장의 거류지나 조계지로 시가지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부산, 목포, 인천 등지의 사례는 전통적 취락지와는 다른 예외적 경우이다. 이 지역은 애초에 자연수가 부족하여 사람이 살지 않던 주거부적합 지역에 외래 이방인들에 의해 새롭게 거주지가 건설된 곳으로, 정착 초기부터 상수도 시설이 생활의 필수재로서 요구되는 곳이었다. 대표적 사례인 목포 개항장의 물 사정에 대해서는 고석규(2004: 제9장)를 참조할 것.

18) “경성시가의 우물물은 모두 염분을 함유, 적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鮮人이 幾百年間 放棄한 분뇨의 액이 混和된 것으로, 이 물로 밥을 지으면 황색을 띠고 짠맛이 있으며 먹을 수 없다. 조선인은 예사로이 이를 사용하지만, 내지인은 불결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 유해하므로…”(岡良助, 1915. 京城繁昌記, 250쪽)

19) “조선은 지질관계상 우물의 湧出량이 극히 적고 위생설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수도 부설의 필요가 절실하여, 보호정치 확립이후 구한국정부로 하여금 기업자금의 일부를 할애하여 명치39(1906)년 이후 인천과 평양의 수도를 기공”하였다. 또 같은 시기 부산과 목포 양 개항장에서는 거류민단 경영의 수도가 기공된다(朝鮮總督府, 1926. 朝鮮水道の概況, 1쪽)

20) 이들은 일제 시기에도 경성수상조합(京城水商組合)이라는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상류층들을 주고객으로 질 좋은 음용수를 배달하는 상업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조선총독부, 1928. 朝鮮土木事業誌, 1124-1128쪽, “京城水商組合の沿革及現況” 참조.

여있는 ... 더럽고 악취나는 수돗도랑”(비숍, 1994: 52-3)은 퇴락해가는 고도의 불결한 하수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당시의 상황은 『京城府都市計劃要覽』에도 “청계천은 埋沒되고, 支溝들은 전부 계통을 상실하여 극히 불결하여, 한번 비가 오면 빗물, 분노가 도로, 주택 한쪽으로 범람하여 교통·위생상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구한말 ‘늘어가는’ 王都 한양의 노후화된 도시시설에 대해 기술한 대부분의 책들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순환하는 물의 속성상, 효과적인 배수장치나 하수설비가 없는 곳에서 깨끗한 자연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1903년 고종황제가 미국인 콜브란(H. Collbran)과 보스트위크(H.R. Bostwick)에게 대한수도공사(Korean Water Works Co.)의 시설·경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여 뚝섬(蠶島)에 공설 상수도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 시기 이전 서울의 수도시설로는 뚝섬 공설 상수도 와 남산 일원에 일본인 거류민단이 소규모로 만든 사설(私設)상수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중 후자는 남산의 샘물을 이용한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였으므로,²¹⁾ ‘일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전자를 매수하여 경성의 수도시설을 정비하고자 했다. 1910년 9월 통감부령 제61호로써 수도상수보호규칙(水道上水保護規則)을 발표하여²²⁾ 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일제는, 1911년 1월 일본의 유력한 재벌인 시부자와(澁澤)²³⁾ 신디케이트의 손을 거쳐 대한수도공사를 매수한²⁴⁾ 총독부는 경기도장관에게 관영(官營)을 위탁하였다가, 1923년 4월 경성부에 수도설비 일체를 무상양여함으로써 부영(府營)으로 전환하게 된다.

21) “和將臺의 경성신사 아래에 神池라는 것이 있는데, 수도 布設 이전에 거류민이 이 물을 飲用했다. 그 당시에 설치한 引用管이 경성호텔에 1개소 남아있다.”(岡良助. 1915. 京城繁昌記. 250쪽)

22) 1910년 9월 29일 발표된 통감부령 제61호의 제1조는 “수도상수보호구역내에서 瓦礫와 塵芥와 동물의 屍體 등을 投棄커나 或 家畜放飼와 捕鳥 기타 수질을 汚損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함이 可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총독부는 1915년 9월 10일 훈령 제50호로 다시 한번 수도에 관한 건을 발표한다(『官報』 및 『每日申報』 해당 일자 기사 참조).

23) 澁澤榮一은 당시 일본 재계의 실력자로서, 주요 이력을 보면, 第一(國立)銀行 頭取(1875-1916), 東京會議所會頭, 東京商業會議所創立會頭(1891-1905), 東京商工會發會會頭, 農工商高等會議議長, 東京銀行集會所會長, 貴族院議員 등을 역임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東京瓦斯株式會社 사장으로 京城전기주식회사를 창립했으며, 제일은행장으로 조선에서 은행권을 발행했고, 경부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인철도 부설권을 인수했고, 櫻山금광회사와 조선농업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으로 독보적인 활동을 펼쳐 당시 ‘조선개발’에 있어서 민간으로는 ‘제1인자’로 불리었다.

24) 대한수도공사로부터 경성수도설비의 매수비로는 2,926,345원이 들었다(朝鮮土木事業誌, 1133쪽).

〈표 1〉 1914-1932년 경성부내 전염병 환자 사망자수 (단위: 명)

연도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사망자수	조선인	79	73	114	27	37	68	983	46	77	76
	일본인	110	156	115	91	64	125	266	314	285	129
연도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합계
사망자수	조선인	34	118	58	86	150	80	98	106	382	2692
	일본인	87	216	146	123	309	162	112	142	624	3576

* 출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93: 392-397)를 참고로 재구성.

1910년 전후 상수도 이용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대다수 조선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우물과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었다.²⁵⁾ 그런데 1920년대 초반에 이르면 조선인 인구 가운데 수도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반 사이에 상수도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1920년 서울을 강타한 콜레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시기 전 기간에 걸쳐 경성부내 전염병 사망자 수는 일본인이 압도적이었지만, 1920년 콜레라 사망자의 경우는 역으로 조선인이 일본인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인사회에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근대적 방역 사상과 위생 관념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우물물을 저버리고 급격하게 수돗물로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 계기(김영미, 2007: 49-50)였다는 추론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물에서 상수도로의 전환이란 단순히 보다 나은 대체재를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장기지속적인 습속이 바뀌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변화의 양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서와 분위기의 급변이라는 사건사적 요인의 이면에 작용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식민지 상하수도 문제의 모순적 동역학

192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조선인 상수도 사용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를 통틀어 우물은 조선인 7할이 이용하는 음용수의 주된 원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의 수

25) 1910년 경성의 수도 사용자는 천오륙백호인데 이중 조선인은 삼사백호에 불과했다(「수도 신청자 증가」, 『每日申報』 1910년 11월 26일). 1912년 통계에 따르면, 경성부내 총56,148호 중 상수도 사용호수가 18,033호(32.2%), 우물(井水) 사용이 30,008호(53.3%), 하천수 또는 샘물 사용이 8,107호(14.4%)로 집계되고 있다(朝鮮總督府. 1912. 朝鮮の水道).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조선인들이 상수도를 요구한 것은 단지 위생 관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 우물은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위험성은 점점 더 심각해져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하수정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상수정책’ (홍성태, 2006: 305)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성부 우물 수질 악화의 주원인은 하수의 문제제 있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 시기 경성에서의 하수도 건설사업은 간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극히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으로 진행된 각양각색의 사업방식들의 집합체였다. 그 외현상의 지속성과 일관성 속에 작동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리는 재정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임시방편적 성격과, 그로 인한 우선적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 특히 일본인 거주지역에 대한 특혜이다.

〈표 2〉 경성부 하수도 건설사업 연혁(1910-1941)

사업 성격	제1기 하수도 개수계획	용산 배수 공사	제2기 하수도 개수계획	분뇨처리 시설공사	용산 배수 공사	시구개정노선상 하수건설	제3기 하수도 개수계획	공민구제 사업	제4기 하수도 개수계획
기간	1918-24	1921-23	1925-32	1926-27	1929-30	1929-30	1933-35	1934-36	1936-41

* 자세한 내용은 朝鮮土木事業誌. p.1239-1265 및 京城府都市計劃要覽 참조.

일제 시기 경성의 상하수도 건설은 장기적 전망이나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은 언제나 예산부족으로 계획의 실행에 차질을 빚곤 했다. 우선 경성의 상하수도 건설은 도쿄(東京)나 타이페이(臺北)와는 달리,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구개정사업의 일환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메이지기 ‘부국강병’론에 밀려 내무부의 시구개정 요구가 줄곧 기각되고 있던 일본에서 도쿄에서나마 시구개정이 극적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직접적 원인은 당시 기승을 부리던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한 도시위생환경 개선의 절실한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동경시구개정사업은 초기부터 상수도 설비를 중심으로 시구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타이페이는 ‘일본 도시계획의 아버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민정국장의 주도로 타이완의 열대기후에 적합하고, 척박한 본국 도시들보다도 더 훌륭한 도시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도시계획이 실행되었으므로, 당시로서는 일본 최첨단의 근대적 도시계획의 기술과 설비가 도입되었다.²⁶⁾

경성의 시구개정은 이들 도시, 특히 도쿄에서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참조한 것인 만큼, ‘시구개

정에 상하수도 건설을 같이 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재원부족이라는 현실논리에 밀려²⁷⁾ 간선도로개수사업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김백영, 2004). 또한 경성수도의 급수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인천수도 분수(分水)공사도 애초에는 1915년초부터 시공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예산부족으로 연기되어²⁸⁾ 1919년에야 착공, 1922년에야 완공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병합’ 초기부터 논의가 진행되던 하수도 건설도 예산마련의 난관에 부딪혀 1918년에야 제1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도 전구간을 ‘암거식’을 채택한 타이페이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주종을 ‘개거식’으로 한 ‘혼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시구개정사업의 내용으로부터 배제된 이래, 하수설비는 사실상 총독부와 경성부의 도시계획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위생을 도시계획의 최우선으로 건설된 도쿄나 타이페이의 암거식(暗渠式) 하수구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경성의 하수구가 주종을 개거식(開渠式)으로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재원의 부족이었다.²⁹⁾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식민지도시 건설 초기 단계에 있어서 경성의 체계적인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등한시한 것은 총독부뿐만이 아니라, 경성의 유력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1915년 경성부에서 총공비 1백만원의 7년간 계속사업으로 경성하수공사 시행안을 내놓았으나,³⁰⁾ 경성부협의회에서 부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하수계획은 중지되었다.³¹⁾ 이 경우 그들은 남북촌을 아우르는 경성부민 전체의 공공적 이해를 추구한 경성부의 제안에 반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미 도시 인프라 구축의 혜택을 누리던 재경성 일본인거주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하수공사에 할당된 경성부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청계천과 북촌의 하수정비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으며,³²⁾ 경성 시내 전체 개천의 총연장 가운데 암거식은 겨우 15% 정도에

26) 越澤明. 1987. “臺北の都市計劃 1895-1945”. 第7回日本土木史研究會發表會論文集 참조.

27) “하수의 開鑿과 수도관의 埋設 등의 공사비를 건적해보면 1,3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므로 현재의 총독부 재정상 어려운 일...”(『매일신보』 1912. 11. 8)

28) “예산불성립에 伴하여 경성수도의 인천수도 分水工事 연기 ...”(『매일신보』 1915. 1. 8)

29) “... 원래 시가지의 하수공사는 암거식을 理想으로 하나, 이는 거액의 경비를 요함으로 조선 現下의 民度에 맞추어 본계획은 總히 개거식을 채용하여 ...”(『매일신보』 1915. 7. 25)

30) “경성하수계획-총경비 1백만원: 대정2년도부터 총독부에서 착수중인 경성하수조사는 今回 점차 完료를 告하여 이 시설에 對한 大體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원래 시가지의 하수공사는 暗渠式을 理想으로 하나 이는 거액의 경비를 요함으로 조선 現下의 民度에 비추어 本計劃은 總히 開渠式을 採用하여 총경비 1백만원을 計上하였는데, 이에 대한 國고보조액은 不明하나 계속사업으로 明年度부터 起工할 듯 하다더라.”(『매일신보』 1915. 7. 25)

31) “하수계획 중지-府民부담에 不耐: 경성부는 근래의 대사업으로 발표한 백만원의 하수공사계획은 수일 府協議員會에서 諮문에 붙였으나 倅결에서 至치 못하고 다시 16일 오후 1시부터 제2회의 협의원회를 열고 협의하였는데, 현재의 府에 對하여는 대사업이 될뿐 아니라 백만원의 工費用 40만원은 이를 7년간에 發起負擔하기로 하고 府民 今 日의 재정상태로 곤란한 점도 不尠하므로 諸種관계상 일시 계획을 中止하여 宿題로 하고 연구를 續行하기로 決하고 散會하였더라.”(『매일신보』 1915. 8. 18)

불과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³³⁾

그 결과 장기간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청계천과 북촌의 하수상태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30년대 중반 간선하수구인 청계천의 오염은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 악취가 코를 찌르고 각종 '전염악질(傳染惡疾)'의 저균장(貯菌場)이자 '북부 시민의 큰 위협물'이 되어 '청계천(淸溪川)'이 아니라 '탁계천(濁溪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도시내 대표적 혐오 시설이 되어버리고 만다.³⁴⁾ 방치된 북촌의 하수상태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어, 그야말로 경성부 "위생행정의 암종(癌腫)"³⁵⁾이 되어 경성이 공업대도시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구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수설비의 문제는 우물 수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70%에 육박하는 조선인들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성부내 우물 가운데 상당수는 음용에 부적합한 불량수로서, 그 수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예컨대 1924년의 경성부내 관할서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음용수 부적합 우물의 비율이 전체평균 약 60% 수준이었던데 비해(〈표 3〉 참조), 1933년에 경성부 수도과에서 다시 경성부내 약 5천개의 우물 가운데 2백개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중 약 80%가 음료 부적합수로 판정되고 있다.³⁶⁾ 이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약 10년 사이에 경성부내 불량우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수설비의 미비와 그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과 직접적인 관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수도과 전문가들은 경성부내 우물물의 경우 지하 1,600척 이상 깊이의 심층수를 뽑아쓰지 않는 이상 오물의 침적으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³⁷⁾

32) "빈궁한 경성부 북촌공사 중지, 인사동·관훈동 하수공사 마침내 중도에 폐지한다 ... 작년 여름 장마로 인한 수해로 시내 대소도로와 하수의 손해가 의외로 심하여 복구하는데 ... 수선비가 들어 총액 15만원에 달하였는데, 府의 재정형편상 한번에 전부 수선할 수 없으므로 ..."(『매일신보』 1926. 9. 24)

33) 『조선일보』 1936. 4. 18.

34) "... 長安의 더러운 물이라는 것은 다 모여드는 이 淸溪川 아니 濁溪川 위에 暗渠를 닦아주십시오!"(『조선일보』 1936. 4. 19)

35) 「전염병 발생의 張本, 청계천과 하수구 ... 돈이 없어서 고치지는 못하고 ...」(『매일신보』 1934. 4. 24)

36) 『조선일보』 1933. 1. 21.

37) "경성부내의 우물물이 어찌하여 그와 같이 불결하나 하는 원인을 들어보면, 대개 역사가 오랜 늙은 도시는 어디를 물론하고 도시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염분이 밀로 가라앉고 불결한 오물이 쌓이는데 ... 불결물이 沈積이 많아 ... 더욱이 경성부내에는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변소의 배출구설비를 하지 않고 고층건물로부터 배출되는 오물은 전부 그대로 빠지게 되었으므로 ... 음용에 적합한 우물물을 구하려면 1천6백척 이상의 지하를 파지 않으면 안된다."(『조선일보』 1933. 1. 21)

〈표 3〉 「경성부내 관할서별 우물 음용수 적합 여부 검사결과표」 (출처: 『조선일보』 1924. 11. 20)

管内	本町署	중로서	동문서	서문서	용산서	합계
검사수	742	258	98	567	226	1,891
적합	201	147	57	180	177	762
부적합	541	111	41	387	48	1,129
부적합비율(%)	72.9	43.0	41.8	68.2	21.2	59.7

경성의 상수문제에 대한 식민당국의 기본적인 정책노선은 ‘우물의 활용’이 아니라 ‘상수도의 확장’이었다(김영미, 2006: 56). 1914년 총독부가 뚝섬수원지의 개량확장을 통해 송수즐통을 증설하고 취수구를 신설하면서 경성수상조합의 배달급수를 금지시키고³⁸⁾ 그 대신 수도총대(水道總代)를 선정하여 관설공용(官設共用)급수제를 실시한 이래³⁹⁾ 경성부 조선인 수도 사용자는 점차 증가하여⁴⁰⁾ 그에 따라 경성수도의 운영도 확실한 흑자 수익구조로 돌아서게 된다.⁴¹⁾ ‘일한병합’ 초기 총독부가 하수도 설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채 상수도의 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인 이면에는 이같은 수도사업의 수익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 애초부터 수도의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운영을 원칙으로 했던 총독부가 경성수도의 경성부 이양을 1923년에 가서야 하게 되는 것 또한 경성수도가 ‘흑자’기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⁴²⁾

38) 「경성수도의 배달급수는 폐지」(『매일신보』 1914. 4. 24)

39) 「水道總代 선정」(『매일신보』 1914. 5. 15 및 6. 12)

40) 경기도 水道係에서 1915년말 현재 경성부내 수도사용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14년말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자—내지인이 2,210, 조선인이 433, 외국인인 58이오, 계획에 의한 자는 내지인이 482, 조선인이 44, 외국인인 68이오, 私設共用에 係한 자는 내지인이 4,557, 조선인이 213, 외국인인 22이며, 官設共用에 係한 자는 내지인이 3,790, 조선인이 5,935, 외국인인 149라. 이를 사용자 총호수에 대한 급수사용호수 비례천분에 대하여 見할 때는 내지인이 693, 조선인이 174, 외국인인 564이니 … 著大한 증가를 示하였더라”고 한다(『매일신보』 1916. 4. 8).

41) 「경성수도 收入—實收25만원」(『매일신보』 1916. 4. 16)

42) 경성수도의 府營은 1921년초부터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 다만 당시에는 국비로 노량진수원지확장공사(1919-22)가 진행중이었으므로 府營移讓 시점을 완공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매일신보』 1921. 1. 27).

〈표 4〉 경성부 상수도 건설사업 연혁(1910-1939)

시기구분 (공사기간)	공사업명	주목적	공사진행내용	재원(원)	급수량 증가분(㎥) (누계총합)	비고
- (1914)	뚝섬 수원지 개량확장 공사	급수량 증가	송수즐통의 증설, 수원지 護岸공사, 배수지복개공사, 취수구 신설, 吸揚井 신설	국고 약830,000	+16,000 (28,500)	대한수도회사가 건설한 뚝섬수원지 설비를 총독부에서 개량확장
제1기 확장공사 (1919-22)	노량진 수원지 확장공사	용산지역거주 일본인 주민들에 대한 급수	노량진소재 인천수도수원지를 확장, 한강철교에 가설된 송수관으로 경성부내에 급수	국고 1,056,733	+7,800 (36,300)	경성부 급수난의 미봉책으로 인천수도의 여분을 용산지역에 수급
제2기 확장공사 (1928-31)	뚝섬 수원지 확장공사	1920년대 급수수요 증가로 인한 만성적 급수부족 해소	뚝섬수원지의 확장·개보수 및 경성부내 배수관의 증설	국고 240,000 부비 990,441 도합 1,230,441	+9,200 (45,500)	수년간 연기되어온 확장사업을, 국고보조와 기채인가로 실현
제3기 확장공사 (1936-39)	구의 수원지 건설공사	1930년대 전반 인구증가 및 府域확장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대응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철관 등 자재미 상승 및 공급통제로 공사중단	2,350,000 (계획)	미확인	공사중단 이후 ‘防空防護’를 위해 수도 대신 우물(井)신설

* 출처: 京城府都市計劃要覽, 朝鮮土木事業, 『毎日申報』.(단, 1940년 이후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자료 미확인).

1923년 수도의 부영화를 계기로 경성부는 수도물의 도용(盜用)과 수질 오염 등 수도규칙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계량기에 의한 수도미터제를 도입하였다. 경성부는 그 취지를 ‘부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내세웠지만,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사실상 수도물을 상품화하여 빈민층의 수도사용을 봉쇄함으로써 ‘물기근’ 사태와 함께 우물 음용자를 증가시켜 심각한 부민위생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⁴³⁾ 수도사업을 독점적 영리사업화한 경성부의 횡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우선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경성부의 수도요금은 조선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의 수도요금 수준은 일본 본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반면 수질관리는 형편없어서, 시내도처의 수도에서 지렁이와 같은 벌레가 출현하는

43) 이 점에 대해서는 『매일신보』와 『조선일보』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물이 상품화하고 수도가 府廳의 독점사업이라 할지라도 府民의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한갓 이익만 취한다 하면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폭리만 취하려 하는 奸商輩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매일신보』 1923. 11. 26; 1924. 9. 27, 10. 28); “경제학상의 소위 自由貨에 속하는 물은 경성에 있어 가장 부자유한 高價의 상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公衆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公法단체인 경성부의 독점적 경영으로써이다. 보라, 給水栓의 완화를 위하여 실시한 경성수도의 계량제가 벌써부터 매일 殺風景한 수도의 騷動이 끊일 새 없다. 이리하여 府와 民과는 점점 反目이 甚할 뿐이다.”(『조선일보』 1924. 10. 23)

일도 드물지 않았다.⁴⁴⁾ 따라서 고가이면서도 저질의 서비스로 폭리를 취하는 경성수도의 폐해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⁴⁵⁾

〈표 5〉 경성부 수도료의 다른 도시와의 비교표

도시명	東京	京都	大阪	横浜	名古屋	경성	평양	부산	인천	대구	원산
파운드당 수도료	7錢	5錢5厘	5전5리	8전5리	7전8리	11전	12전	13전	15전	9전	10전

* 출처: 『조선일보』 1931. 3. 15에서 필자 재구성.

무엇보다도 수도사용자들의 생활에 가장 큰 불편을 야기한 것은 만성적인 급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여름철의 잦은 단수 및 겨울철의 혹한기 동파사고, 그리고 설비의 미비와 노후화로 인한 수질의 저하였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 급수요구가 증가하는 여름철의 단수는 연례행사와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부민들에게 당국은 끊임없이 허울좋은 시설확장계획을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여 기약없이 공사를 연기하는 행태를 거의 매년 반복하고 있다. 수질의 저하문제는 20년대에는 설비의 미비와 관리의 부실로 수도에서 별레가 나오는 정도의 문제였으나, 30년대에 이르면 수도설비의 노후화로 철관이 부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설비의 전면교체를 실행할 예산이 부족하여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만다.⁴⁶⁾ 또한 겨울철 수도전 동파사고도 거의 매년 문제가 되었으며,⁴⁷⁾ 방만한 경영이 극심

44) 『매일신보』 1929. 5. 18; 『조선일보』 1929. 6. 14

45) “경성의 수도요금은 동양 제일의 高價, 識者間에서 非難聲 沸騰”(『조선일보』 1927. 2. 18); “價格론 제1위, 水質론 제23위 … 경성수도 내용은 … 전 조선 29處 수도 가운데 品質로서는 스물셋째 간다”(『조선일보』 1927. 2. 24).

46) “경성부의 수도는 여름마다 지렁이가 나오느니 또 무슨 이름모를 물벌레며 모래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구나 그것이 전염병도시라는 별명을 듣고 있느니만치 수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신경이 날카로워서 적지않은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다. … 현재 지하에 묻혀있는 送水管은 20만7천미터나 된다. 그런데 송수관의 생명은 30년밖에 안되어서 그전에는 새것으로 갈아내야 하는 것을, 오늘까지 경성부에서는 재정이 許하지 않아 대규모로 송수관을 갈아 못내고 일년에 약 2천미터 한하고 약 45만원의 경비로 일부분씩 갈아냈으나, 30년전에 묻은 송수관 중에 아직도 그대로 묻혀있는 것이 약78만미터에 달하여 그중에는 거의 쓰지 못하도록 부식된 것이 적지 않으리라 … 더 문제되는 것은 … 아직껏 손을 못 대어본 것 중에는 渴渴에서 配水地로 들어오는 것과 滄로통, 황금정통의 幹線地帶가 모두 그런 옛것이라 함으로, 그 餘의 支線은 아무리 새것이라 하여도 幹線이 상하였다면 당연히 수질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 이에 대하여 경성부 수도과에서도 改修하고 싶기는 하나 府의 재정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송수관의 연령이 30년이라고는 하나 그리 큰 관계는 없으리라고도 보고 있다.”(『조선일보』 1936. 3. 7)

47) 특히 영하 17도 이하로 떨어진 1936년 겨울의 혹한으로 수도전 동파사고가 속출하여 1월말-2월초의 20일 동안에만 시내수도 수리 신청이 13,000여건에 달했는데, 그 시설보수비는 고스란히 부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조선일보』 1936. 1. 17; 2. 8). 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수도설비가 점점 더 노후화하여 겨울철 수도전의 고장이 전체 수

해져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안하무인적 행정을 일삼고, 직무태만과 기강의 해이를 드러내는가 하면, 담합사건의 추문도 곧잘 일어나곤 했다.⁴⁸⁾

〈표 5〉 1924년 각 민족별 수도사용호수

구분	專用	私設公用	公設公用	계
일본인	7,617	5,388	2,440	15,445
조선인	1,067	186	7,247	8,500
기타 외국인	183	33	600	816

* 출처: 中間人, 「外人의 세력으로 觀한 조선인 경성」, 『開闢』 제48호, 1924. 6. 참조.

그러나 저질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수도물은 여전히 경성부민 중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재였다. 〈그림 1〉과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에 수도라는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차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적 경계와 상당 부분 일치했으며, 이는 청계천을 경계로 한 남촌과 북촌의 공간적 분리로도 표현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에도 지속되어 1932년의 부내 수도선(水道線) 통계에 따르면, 경성부의 총 호수 77,701호, 인구 365,432인 가운데 급수호수는 41,111호, 186,834인 불과한데, 더구나 일본인은 98%가 수도의 급수를 받으나, 조선인은 32%밖에 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인은 2만2천여호가 거의 전용(專用)수도전을 사용하는 반면, 32%가량 되는 수도물을 사용하는 조선인들은 전용수도 사용호수는 2천여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천여호는 공동(共同)수도전에서 물을 사서 먹는 것으로 드러나,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제력과 그에 따른 민족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⁴⁹⁾

이러한 수도 설비에 있어서의 민족적 격차 및 그로 인한 남촌과 북촌 간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은 30년대 중반 '대경성'으로의 부역 확대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⁵⁰⁾ 다시 말해서 종래의 남촌-북촌 간의 도시인프라의 불균형에 중첩되어, 그보다 더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는 도심부 구부역과 변두리 신편입지역, 즉 중심부-주변부간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경성부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⁵¹⁾ 그 결과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것이 단순히 조선인

도시의 절반 가량을 점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조선일보』 1938. 12. 11).

48) 「밀구린 경성부 醜聞 또 하나, 수도과의 현쇠를 중심으로 談合事件이 발생」(『매일신보』 1934. 5. 31)

49) 『조선일보』 1932. 12. 17; 『조선일보』 1933. 1. 21

50) 중심-주변의 지역분화현상으로 요약되는 1930년대 경성지역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는 김영근(2003) 참조.

51) 「영등포, 이름만이 경성부, 村邑態를 未免 … 현재의 음료수를 가지고는 주민위생 큰 문제」(『매일신보』 1937. 3.

개개인의 위생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경성부민 전체의 보건위생의 문제라는 논의가 공론화된다. 전문가·관료들의 지적⁵²⁾과 경성부회에서의 논의가 이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3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그 결과로 경성부는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 수도확장을 계획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신부역에 대한 상수도공사는 계획을 축소, 변경하거나 백지화하게 된다.⁵³⁾

북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프라의 미비가 더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경성부가 인접한 1읍8면71개리 전부 및 5개리 일부를 포함하여 부역(府域)을 이전 면적의 약 4배로 확장한 행정구역 확장이 시행되면서였다.⁵⁴⁾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3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의 기본구상은 기존 도심부는 현상유지 위주로 하고, 그동안 방치되어온 신원입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는데,⁵⁵⁾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자재난과 자금난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계획은 급격히 축소되거나 무효화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40년대 이후 ‘총동원체제’에 접어들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내핍과 금욕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되면서 사실상 도시위생설비는 도리어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중일전쟁 이후 경성부는 주민들에게 우물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불과 1938년 1월에 ‘전염병의 온상’으로 치부된 우물이 같은 해 8월에는 ‘非常時의 脚光’으로 추켜세웠다(김영미, 2006: 66-7). 1939년 최초로 이루어진 부내 우물의 수질에 대한 전수조사는 ‘우물 활용’이라는 상수도 정책의 대전환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비위생적 우물 폐쇄와 상수도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략과는 전혀 상반되고 모순되는, 총독부의 갑작스런 우물의 적극적인 ‘재발견’ 전략은, 상수도의 공급이 폭발적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입된 고육지책이었다. 식민권력의 이러한 상수도 공급전략의 전환은 총동원체제기 제국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국민체력의 향상과 국민복지의 증진과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변화이다. 건강보험상담소 설치(1934), 보건소법 제정(1937),

29) “우리에게도 물을 다오. 龍江·鹽里·大興町民들의 절규 … 내 용강정·염리정·대흥정2구는 수도의 설비가 없으므로 3천여호 주민이 크게 곤란을 받고 있어서 하루바삐 수도를 설치해달라는 요망이 일어나고 있다.”(『조선일보』 1937. 4. 16)

52) 荻野正俊(경성부 위생과장). “水に關する衛生的考察”; 坂本嘉一(총독부 내무국 토목사무관). “上水道經營に就て”. 이상 京城都市計劃研究會(편). 1936. 朝鮮都市問題會議錄.

53) “市内 舊府域내의 확장공사만! 新부역내 신설은 無望 … 전조선 각도시의 상수도 시설확장이나 신설공사가 중단되는 운명에 빠졌다 … 신부역의 새부민들은 상수도시설의 혜택을 입을 날이 아직도 까마득하다.”(『조선일보』 1937. 7. 23)

54) 『京城彙報』 1936년 3월, 33면.

55) 『조선일보』 1936. 8. 2.

厚生省의 설치(1938) 등 인구증가와 健民健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본의 전시 위생행정은 전시 총동원체제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 전개되었다(장주선, 1993). 이처럼 보건위생은 제국 본국에서조차도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국주의 제국의 승리를 위한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5. 식민주의의 모순, 위생전략의 동요

더러운 우물물을 이용하는 조선인과 깨끗한 수도물을 이용하는 일본인, 어두침침하고 악취나는 오물투성이 복촌과 휘황찬란하고 청결한 문명의 진열장 남촌. 식민지도시 경성에는 이질적인 두 가지 주체, 대조적인 두 가지 공간이 병존하고 있었다. 식민지제국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두 주체, 두 공간을 균질화하고 통합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질성과 차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경성부의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위생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제국 일본의 사회적 통합 전략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생과 청결과 질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식민권력은 근대권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근대성'은 대개 기표와 기의가 일치되지 못하거나, 발화내용과 발화방식이 모순되는, 혹은 발화장소와는 동떨어진 담론을 생산하는, 탈맥락적이고 폭력적인 발화행위의 산물이었다. 문명과 위생을 전파한다는 명목하에 일제는 상수도를 건설했고 조선인들에게도 그 사용을 장려하였지만, 그것이 대다수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체험된 방식은 공공성이 결핍된 사영기업의 폭리와 민족간 차별의 구조적 재생산이었다.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폐기되었던 우물은 전시 동원체제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부활하였다.

상하수도는 도시생활의 필수재이자 공공재이다. 도시생활은 인간의 삶을 더 이상 자연적 소여에만 의존할 수 없게 만들며, 기술문명에 의해 창출된 인위적 建造環境과 상품시장에의 의존을 불가피하게 강요한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화는 기술문명의 규율권력에 의한 일상생활의 재편과정이거나 할 수 있다. 전통시대 맑은 샘물이 넘쳐났던 서울의 자연수가 근대 초기에 경험한 급격한 수질 악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도시화와 근대화와 식민화라는 중첩된 역사적 변화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그 과정은 공공재인 우물의 품질이 훼손되고 필수재인 상수원에 대한 접근 자격을 박탈당하는 폭력적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결국 그들에게 강요된 선택지는 고가이자 저질인 상수도이거나 과거보다 훨씬 더

더러워진 우물 사이의 양자택일이었다.

식민주의는 전통적 생활양식을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문명적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식민지 대중에게 그것은 넘어설 수 없는 차별의 구조물 건너편에 놓인 것이었다. 식민주의의 역동성을 ‘同化’의 다테마에(建前)와 ‘異化’의 혼네(本音)의 간극 사이에서 움직이는 진자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식민지 위생전략의 변화는 서론에서 제기한 수세적 격리 전략과 공격적 개선 전략 양방향간의 선택과 동요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 군국주의 제국 일본이 500년 왕조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古都 서울에 식민화의 본거지를 건설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었으며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들의 위생전략이 초기에 내세웠던 야심찬 다테마에와는 달리, 전 시기를 통틀어 그다지 공격적이고 전면적인 변화의 노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동요하다가 끝내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국 일본의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官報』, 『조선일보』, 『동아일보』, 『每日申報』, 『京城彙報』, 『단세보』
- 岡良助, 1915, 『京城繁昌記』, 京城: 博文社
- 京城府, 1939, 『京城府都市計劃要覽』
- 荻野正俊, 1936, 「水に關する衛生的考察」, 京城都市計劃研究會, 『朝鮮都市問題會議錄』
- 朝鮮總督府, 1912, 『朝鮮の水道』
- 朝鮮總督府, 1926, 『朝鮮水道の概況』
- 朝鮮總督府, 1928, 『朝鮮土木事業誌』
- 中間人, 1924, 「外人의 세력으로 觀한 조선인 경성」, 『開闢』 제48호
- 志賀潔, 1920, 「衛生事業の一致協力」, 『朝鮮及滿洲』 大正9年11月20日
- 志賀潔, 1923, 「朝鮮人の衛生思想と朝鮮の衛生問題」, 『朝鮮及滿洲』 大正12年5月9日
- 坂本嘉一, 1936, 「上水道經營に就て」, 京城都市計劃研究會, 『朝鮮都市問題會議錄』
- 고석규, 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백영, 2004, 「왕조수도에서 식민도시로: 경성과 도쿄의 시구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韓國學報』 112
- 김백영, 2005,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근, 2003, 「일제하 경성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서울학연구』 20
- 김영미, 2007, 「일제시기 도시의 상수도 문제와 공공성」, 『사회와 역사』 73
- 김제정, 1999, 「일제 식민지기 경성지역 전기사업과 부영화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다케쿠니 토모야스(竹國友康), 소재두 역, 2006, 『한국 온천 이야기: 한일 목욕문화의 교류를 찾아서』, 논형
- 박세훈, 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서울학연구』 15
- 박인순, 2003, 「일정기 조선총독부 보건복지행정의 내용 분석—전염병 퇴치활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3-1
- 앤소니 킹, 이무용 역, 1999, 『도시문화와 세계체제』, 서울: 시각과언어
-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역), 1995, 『문화와 제국주의』, 창

- 엄정섭, 1998, 「조선후기 한성부 준천의 시행」, 『서울학연구』 11
- 윤철환, 2001, 「서울 20세기 위생조건의 변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특별시
- 이사벨라 버드 비숍, Korea and Her Neighbors(1898),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 이옥순, 2006, 「19세기 식민지 인도의 위생」, 『담론 201』 9-1
- 장주선, 1993, 「일본 전시하의 위생행정과 경찰행정」, 『자치연구』 3-2
- 조르주 비가렐로(Georges Vigarello), 정재곤 역, 2007, 『깨끗함과 더러움: 청결과 위생의 문화사』, 들베개
- 홍성태, 2006, 「식민지 근대화와의 물 생활의 변화」,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 飯塚キヨ, 1984, 『植民都市の空間形成』, 東京: 大明堂
- 石田頼房, 1987, 『日本近代都市計劃の百年』, 東京: 自治體研究社
- 石塚裕道, 1991, 『日本近代都市論—東京: 1868-1923』,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成田龍一(編), 1993, 『都市と民衆』, 東京: 吉川弘文館
- 小野芳朗, 1997, 『〈清潔〉の近代—「衛生唱歌」から「抗菌グッズ」へ—』, 東京: 講談社
- 越澤明, 1987, 「臺北の都市計劃 1895-1945」, 『第7回日本土木史研究會發表會論文集』
- 齋藤純一, 2000, 『公共性』, 東京: 岩波書店
- 鯖田豊之, 1983, 『水道の文化—西歐と日本—』, 東京: 新潮社
- Home, Robert, 1997, *Of Planting and Planning: The Making of British Colonial Cities*, E & FN SPON, London & New York.
- Rabinow, Paul, 1989, *French Modern: Norms and Forms of the Social Environ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Yeoh, Brenda S. A., 1996, *Contesting Space: 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in Colonial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조선의 전국 수도시설 일람표 (1926년 현재)

수도명	水源	방식	기공년월	준공년월	급수개시년월	총공비(圓)	내역			급수구역내총인구	현재급수인구	급수능력(인)	예정1일1인당급수량(리터)	경영자
							국고	지방비	주체					
경성	한강 뚝도 한강 노량진	펌프식	1906 8	1908 8	1908 8	5,127,059	지면 4,708,786 보조 52,643	-	365,631	302,711	138,384	192,250	111	경성부
인천	한강 노량진	펌프식	1906 11	1910 12	1910 12	2,438,287	지면 2,286,571 보조 32,987	-	118,729	53,594	21,027	70,000	107	인천부
청주	청주군 浪城面 溪流水	自然 流下式	1921 4	1923 10	1922 3	196,000	98,000	98,000	-	11,789	3,600	7,500	36	청주면
공주	州外面 貯水池	自然 流下式	1921 9	1923 3	1923 3	177,525	85,000	30,377	62,148	10,035	3,931	15,000	56	공주면
강경	논산군 九千谷面 저수지	自然 流下式	1922 11	1924 10	1924 9	365,000	182,500	60,833	121,667	9,520	4,232	8,794	56	강경면
전주	全州川	自然 流下式	1922 3	1924 3	1924 6	500,000	250,000	100,000	150,000	27,482	7,702	20,000	85	전주면
군산	新豊里저수지 益沃수리조합 수로	自然 流下式보조 펌프식	1912 5	1915 3	1915 4	312,500	100,000	-	212,500	21,027	9,596	10,000	56	군산부
광주	池漢면雲谷리 저수지	自然 流下式	1917 7	1920 5	1920 6	237,625	130,228	81,327	2,363	21,037	6,863	10,000	日 83 鮮 42	광주면
목포	二老면저수지 溫錦동저수지 三鄕면저수지	自然 流下式	1908 11	1910 5	1910 5	443,534	147,500	1,000	295,043	25,762	13,052	18,000	83	목포부
대구	嘉昌面新川 上流水	自然 流下式	1914 7	1918 3	1918 1	617,008	207,500	-	409,508	72,127	17,962	33,000	139	대구부
포항	迎日군遠田면 저수지	自然 流下式	1923 11	1926 3	1926 3	240,000	80,000	80,000	80,000	8,763	-	11,000	42	포항면
김천	通防難川하수	自然 流下式	1925 3	1926 추정	不明	265,000	88,000	88,300	88,700	13,059	-	15,000	72	김천면
부산	九德谷 聖知谷저수지 高遠見谷	自然 流下式	1907 4	1910 9	1902 5	1,499,655	520,500	-	979,155	97,522	41,710	55,000	83	부산부
진주	낙동강지류 남강	펌프식	1910 4	1911 12	1912 3	120,182	69,411	50,771	-	17,148	4,261	15,000	日 108 鮮 72	진주면
통영	통영면 山陽면저수지	自然 流下式	1922 5	1924 3	1923 10	187,999	93,000	46,500	48,499	16,784	3,968	15,000	36	통영면
진해	軍用水道分與	自然 流下式	1908 2	1914 4	1915 4	75,367	75,367	-	-	15,034	4,769	5,000	97	진해면

‘청결’의 帝國, ‘오물’의 古都: 경성의 위생 담론과 공간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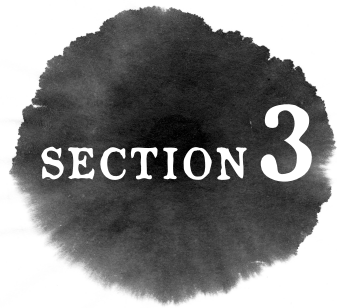
수도명	水源	방식	기공년월	준공년월	급수개시년월	총공비(圓)	내역			급수구역내총인구	현재급수인구	급수능력(인)	예정1일1인당급수량(리터)	경역자
							국고	지방비	주체					
해주	廣石川하수	自然流下式	1916.10	1917.9	1917.9	50,094	20,000	15,873	14,221	17,295	7,496	14,100	18	道지방비
평양	대동강河水	펌프식	1907.4	1910.5	1910.6	1,315,902	1,215,155	-	96,747	19,285	70,847	120,000	111	평양부
진남포	大代面저수지 三和川하수	自然流下式 펌프식	1911.6	1914.11	1914.11	921,536	671,144	53,000	197,392	27,361	12,130	33,000	83	진남포부
신의주	古津面계류하수 보조저수지	自然流下式	1918.8	1921.3	1921.6	354,687	205,276	15,800	133,611	23,136	8,550	10,000	36	신의주부
의주	압록강하수	펌프식	1915.10	1916.9	1916.10	32,771	20,000	9,841	2,930	8,570	7,325	9,000	33	의주면
춘천	照陽江하수	펌프식	1923.9	1925.3	1925.4	127,000	42,000	42,000	43,000	5,453	不明	5,000	43	춘천면
평강	漢難川하수	펌프식	1925.3	1926.3	1926.5	58,500	20,000	20,000	18,500	2,773	-	3,000	36	평강면
원산	洙田川하수	自然流下式	1913.7	1916.3	1916.3	388,303	190,000	-	198,303	31,027	13,669	20,000	97	원산부
함흥	城川江하수	펌프식	1918.9	1921.3	1921.5	218,894	157,121	61,773	-	30,799	9,188	20,000	20	함흥면
나남	군용수도분역	自然流下式	1914.11	1914.12	1915.1	83,130	9,000	55,251	18,879	11,800	3,672	-	-	나남면
청진	輪城川하수	펌프식	1917.6	1920.5	1920.4	304,180	157,827	-	146,353	20,583	10,483	10,000	100	청진부
회령	회령천하수	自然流下式	1923.11	1926.3	1926.3	240,000 外 8,776	75,000 5,376	- -	165,000 3,400	12,461	3,757	-	56	회령면
성진	漢泉川하수	自然流下式	1925.3	1926.3	1926.5	117,000	39,000	15,000	63,000	8,355	-	10,000	36	성진면

* 출처: 朝鮮總督府, 1926. 『朝鮮水道の概況』

〈그림 1〉 京城水道 일반평면도 (1928년 현재)



* 출처: 朝鮮總督府, 1928. 『朝鮮土木事業誌』



식민지 조선의 '고도'의 근대

제국 일본의 ‘만선(滿鮮)’ 관광지(觀光誌)와 고도 경주의 표상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 愛媛大学

1. ‘만선’ 관광의 계절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성행한 제국 일본의 ‘만선’ 여행과 고도 경주에 대한 묘사 방식을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인 문학자를 사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룬 대상은 오마치 게게쓰(大町桂月)의 『만선유기(滿鮮遊記)』,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만선의 행락(滿鮮の行樂)』, 지즈카 레스이(遲塚麗水)의 『만선취미의 여행(滿鮮趣味の旅)』이다. 원래 ‘만선’ 여행으로 경주를 방문한 일본인 문학자는 그 외에도 다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은 1916년에 경주 석굴암의 방문을 계기로 조선 미술에 반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개 야나기와 대조적으로 그야말로 관광으로서의 ‘만선’ 여행에 그친 경우가 일반적인 여정이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기에 간행된 많은 ‘만선’ 여행기 중 ‘만선’ 관광의 가이드북과 같은 역할을 한 여행기를 통해서 1) 1910년대 후반부터 고양된 ‘만선’ 여행, 2) 청일·러일전쟁기의 종군기와 ‘만선’ 여행기의 관계성, 3) 고도 경주의 표상, 4) ‘만선’ 여행과 경주 탐방에 있어서의 여행자와 관광사업의 연대에 관해서 고찰하겠다. (인용문이나 그 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

식민지 통치기의 조선에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듯이 관광 개발이 식민지 사업의 중요한 정책 항목으로 거론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내지인’이라고 불렀던 일본인을 한반도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경주 등 조선의 고도에 있어서 관광 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거기에는 고적조사나 역사서를 편찬한 재조선 일본인 학자나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재직했던 관료들에 의한 학술조사·연구활동이 연계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 고도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고도의 이미지가 언어에 의해서 표상되고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어가는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금강산 관광을 예로 들어보자.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나 오마치 게게쓰, 다야마 가타이, 그리고 이후 지즈카 레스이와 같은 유명인들이 금강산을 칭송하는 문장을 씌으로써 금강산의 이미지가 종주국 사회에 전파되고, 그와 동시에 내금강에 이르는 금강산전기철도나 외금강에 이르는 조선총독부의 철도교통망이 정비됨에 따라서 금강산은 조선여행의 일대 명승지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오마치 게게쓰의 『만선유기』(1919.10)라는 여행기는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조선에 건너와 곧바로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이라는 승지를 찾아 3주 동안 괴엄(怪巖), 기계(奇溪), 단풍의 미관을 둘러봤으며 평양에서 1박하며 목단대에 올랐다. 나아가 만주에 들어가 처음에는 대련(大連)을 근거지로 하여 세 차례 여순(旅順)의 전적지(戰蹟地)를 방문하였으며, 전후 8일에 걸쳐서 당해의 충훈을 기리고 금주(金州) 이북의 전장(戰場)도 기리며 심개합(心開合)의 철교를 비롯해 남산, 북산, 노철산(老鐵山), 대화상산(大和尚山), 소흑산(小黒山).¹⁾

오마치 게게쓰(1869-1925)는 미문가로서도 알려진 저명한 기행문 작가이다. 『만선유기』는 19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친 여행을 근거로 기록한 여행기이다. 이 여행기의 서두에는 우선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이라는 승지를 찾아”라고 쓰고 있다. 3개월에 걸친 여정 속에서 금강산 관광에 3주간이나 시간을 할애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마치가 ‘만선’ 여행을 떠났던 것은 이전부터 “세계적 명산”이라 유포되어 있던 금강산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덧붙여 인용문에서는 당시 조선여행이 ‘만주와 한 세트였던 점과, 그리고 “세 차례 여순(旅順) 전적지를 방문”했다고 했던 것처럼 주로 ‘만주’에서는 러일전쟁의 전적지를 둘러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여정은 오마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일반화된 ‘만선’ 여행의 전형적인 코스였다.

또한 조선여행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관광과, 금강산이나 평양 등 풍광 명미(風光明媚)한 경승지 탐방과 함께 고도나 옛 전장을 둘러보는 역사 관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오마치의 『만선유기』의 경우는 특히 ‘고도(故都)’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1) 大町芳衛, 『滿鮮遊記』, 大阪屋號書店, 1919. 10, 1쪽.

조선에 돌아와 경성을 건물하고 고려의 고도(故都)인 개성, 신라의 고도인 경주, 백제의 고도인 부여, 압나(任那)의 고도인 김해, 고바야카와다카카게(小早川隆景), 다치마나 무네시게(立花宗茂)가 공명을 남긴 벽제관(碧蹄館),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아사노 요시나가(淺野幸長)가 농성(籠城)했던 울산 등 조선의 고도와 옛 전장(戰場)을 둘러보고 조선 제일의 온천인 동래온천에서 여행의 진(塵)을 씻어냈다. 옥내(屋內)에 있으면서는 불과 며칠이면 돌아볼 수 있으나 주로 산수(山水)와 사적을 찾았다.²⁾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마치에게 조선의 고도 탐방은 금강산 탐승에 이은 여행의 목적이었으며, “산수와 사적을 찾았다”고 했듯이 조선여행은 그의 개인적인 취미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마치가 조선이나 ‘만주’를 여행했던 1910년 후반부터 1930년에 걸친 시기는 말하자면 ‘만선’ 관광의 계절이 도래했던 시대였다. 그가 ‘만선’ 여행을 시작한 그 해에 금미문연당(金尾文淵堂)에서 『신일본견물(新日本見物)－타이완(臺灣)·가라후토(樺太)·조선(朝鮮)·만주(滿洲)·청도(靑島)의 권(卷)』(1918.6)이라는 책이 간행되었다. 그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선전포고한 제국 일본이 남양군도와 함께 점령했던 중국 내 독일의 조차지인 청도(靑島)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청도를 포함해서 ‘신일본’이라고 명명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일본견물』은 많은 사진이나 일러스트와 함께 저명한 9명의 여행탐방기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와 이와야 사자나미(岩谷小波)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대련을 도쿄에 비견한다면 경성은 교토(京都)”라고 평하는 시마무라의 「신일본견물」에서는 “내가 만유(漫遊)한 것은 타이완이 한 차례이고 만주와 조선이 두 차례이다. 이 세 곳 식민지는 각각 색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그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³⁾고 적고 있다. 또한 이와타니의 「신일본 소감」에서는 ‘신일본’의 묘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고 “내가 신일본의 각지를 편력했을 때도 그러했다”며 1913년의 ‘만주’ 여행과 1916년의 타이완 여행을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한번 이들 지방에 응비하여 그 공기를 맛보는 것이 좋다. 절실히 만인의 관광을 권한다.”⁴⁾ 즉 『신일본견물』은 일본인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국 일본의 식민지·조차지·점령지를 여행하라는 메시지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신일본견물』 한 권에 의해서 ‘만선’ 관광의 계절이 도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2) 위의 책, 2쪽.

3) 島村抱月, 「新日本見物」, 『新日本見物--臺灣·樺太·朝鮮·滿洲·靑島之卷』, 金尾文淵堂, 1918.6, 1쪽.

4) 岩谷小波, 「新日本所感」, 앞의 책, 13쪽;25쪽.

관광여행에 대한 당시 시대적 요청의 산물로서 이와 같은 서적이 간행되었고 텍스트화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소개해보자. 1924년 4월에는 일본여행협회로부터 『여행(旅)』라는 여행잡지가 창간되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 잡지가 아니었다. 그 발행처로서 같은 해 2월에 창립된 일본여행문화협회의 회원에는 철도성(鐵道省)을 비롯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일본우선(郵船)주식회사, 오사카상선주식회사, 타이완철도주식회사 등의 대표자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행』 창간호에서 일본여행문화협회의 초대 회장 노무라 류타로(野村竜太郎)는 “자연아(自然兒)로서의 일본인의 생활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최근 각지에서 발흥하는 여행열(旅行熱)과 그와 관련된 여행단체의 조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⁵⁾ 덧붙여 이 일본여행문화협회 설립의 취지는 만철이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만선’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행이 적어도 안락하고 유쾌할 수 있도록 교통업자와 일반 민중의 중간에 서서 고찰하고, 건전한 여행 취미의 육성, 여행에 관한 안내, 주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내지, 조선, 만몽(滿蒙), 지나(支那) 등의 인정(人情), 풍습의 소개 등 모든 방면에서 일본인 본래의 성정(性情)을 보육하고 수성(守成)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문화에 다소나마 공헌할 바가 있다면 그 지망(志望)을 이뤘던 것이라고 해야 한다.⁶⁾

이상의 정보에 따르면, 1920년대 전반기의 시점에서 “최근 각지에서 발흥하는 여행열(旅行熱)”이 있었고, 동시에 민간의 ‘여행열’ 고양에 대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행단체의 조직”이 탄생한 것이 된다. 일본여행문화협회는 이 관광여행에 관한 수용자와 공급자를 결합하는 ‘지도기관’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설립된 단체이다. 인용문 중 “교통업자와 일반 민중의 중간에 서서” “건전한 여행 취미를 육성”한다고 하는 부분이 그 취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내지, 조선, 만몽(滿蒙), 지나(支那) 등의 인정(人情), 풍습의 소개 등 모든 방면에서 일본인 본래의 성정(性情)을 보육하고 수성(守成)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진다.

즉, 조금 첨예한 견해인지 모르지만 일본여행문화협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관광여행을 ‘내지’뿐만 아니라 제국 일본의 판도로 확장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여행』 창간호에는 회사명의 이니셜 M과 레일의 단면을 형상화한 사문(社紋)과 함께 “여행의 시즌이 온다/조선으

5) 野村竜太郎, 「日本旅行文化協會創立に際して」, 『旅』1-1, 3쪽.

6) (S生) 「日本旅行文化協會發會式」, 『旅』1-1, 83쪽.

로!/만주로!/지나로!"라는 만철 광고도 실려 있다. 오마치가 동경(憧憬)의 금강산을 탐승하고 조선의 고도를 둘러보는 관광 여행을 했던 것이 1910년대 후반이며,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신일본 견문—타이완·가라후토·조선·만주·청도의 권』이 간행되었고, 또 1924년에는 일본여행문화 협회의 기관지 『여행』이 창간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국 일본은 '만선' 관광의 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종군기자에서 관광여행자로

다음으로 다소 멀리 우회하는 감이 있으나, 일본인 문학자에 의한 '만선' 관광과 고도 표상의 전사(前史)에 대해서 살펴보자. 종주국의 저명한 문학자가 식민지를 관광하는 것, 그 여정은 당연히 새로운 관광지를 '만선'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의 문화제국주의적 요소와 그 관광에서 얻은 견문을 가지고 '만선'을 지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에서의 식민주주의적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만선' 관광의 원형(prototype)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것을 조선 그리고 '만주'로 향하는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파악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청일·러일전쟁기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조선에 관한 문화·풍속의 소개가 성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를 한 마디로 개설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일본인 문학자의 '만선' 관광의 원형은 청일·러일전쟁의 종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 종군기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문학자에 의한 청일·러일전쟁의 종군기에는 훗날 '만선' 여행기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담론을 엿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은 오마치 게게쓰와 함께 기행문 작가로 알려진 지즈카 레스이(1866-1942)가 청일전쟁 때 호치(報知)신문 기자로 종군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의 심경을 늘어놓은 부분이다.

나는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기뻐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해졌다. 기쁜 것은 미견(未見)의 산하를 밟고 이수(異殊)의 풍속을 본다는 것, 그리고 한번 양국의 전투(干戈) 양상을 보는 날에 이르러서는 관광의 객이 다시금 붓을 놓고 군려(軍旅) 사이를 쫓아 豊公(도요토미 히데요시-오키나와)이 한국을 정벌한 후 오백년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것에 있으며, 우울한 것은 백발의 노모가 집에 계셔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보살피지 못함이라.⁷⁾

여기에서는 “미견(未見)의 산하를 밟고 이수(異殊)의 풍속을 본다”라는 이(異)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豊公이 한국을 정벌한 후 오백년의 장관”으로서 파악되는 근대 전쟁으로의 종군·관전(觀戰)의 원망(願望)과 함께 병기되어 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종군·관전의 원망은 러일전쟁에 제2사진반원으로 종군한 다야마 가타이(1871-1930)의 회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는 전쟁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포연(砲烟)이 하얗게 작열하는 야산을 생각했다. 나 자신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산(牙山) 전투, 경성과 인천의 점령, 이어서 평양의 그 큰 전쟁이 벌어졌다. 달 밝은 밤에 십오야의 아름다운 밤…….”⁸⁾ 근대 전쟁에 종군하고자 하는 바람과 증첩되어 그 전장이 된 이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표출되는 이러한 사례에서는 전장을 스펙터클하게 견문활사(見聞活寫)하는 미학적인 욕망을 곳곳에서 지적할 수 있다. 다야마의 『제이군종정일기(第二軍從征日記)』(1905)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근래 미증유한 러시아 정벌에 내가 종군한 것은 실로 더 없는 행운이다. 포연탄우(砲烟彈雨), 그것이 나 자신의 유치한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인간 최대의 비극, 인간 최대의 사업을 보았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다.⁹⁾

왜 당시 문학자는 종군한다는 행위에 마음이 끌렸던 것일까. 근대 전쟁을 스펙터클하게 파악하고 그 전장을 눈앞에서 본다는 경험이 “자신의 유치한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것은 다야마의 경우 비일상적인 근대전쟁을 본다는 것이 자기 채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러일전쟁의 종군경험을 가지고 문학계에서 주목을 받아 그 후 계속해서 문학사에 남을 소설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즈카와 다야마 가타이의 사례를 들었던 것은 훗날 그들이 조선이나 ‘만주’를 만유하며 고도나 전적지를 둘러보는 여행기를 집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즈카는 기행문, 다야마는 그것에 덧붙여 자연주의문학의 기수이기도 했다. 여행을 좋아하고 기행문을 많이 쓴 문학자들이 이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강하게 가지고 그 심성이나 시선이 조선이나 ‘만주’의 ‘미견’하고 ‘이수’한 문화풍속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위를 살핀 것은 청일·러일 전쟁기의 종군기에서 1910년대 후반 이후의 ‘만선’ 여행기로 이어지는 흐름이 관광이라는 개념을 경유하여

7) 遲塚麗水, 『陣中日記』, 春陽堂, 1894, 3쪽

8) 田山花袋, 『明治大正文学回想集成2 東京の三十年』, 日本圖書センター, 1983. 91~92쪽.

9) 田山花袋, 『第二軍從日記』, 博文館, 1905, 1쪽.

조선 고도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관광이라는 단어의 어의는 원래 유교의 오경 중 하나인 『역경(易經)』에 있는 '관국지광(觀國之光)'이 전거이다. 다만 당시 일본에서는 관광이라는 말이 반드시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관국지광'이라는 의미는 지금의 sightseeing이라는 의미와도 그다지 관계가 없었는데, 이 '나라의 빛을 보다'라는 말은 제국 일본의 '만선' 관광지(觀光誌)를 생각했을 때 지극히 적합한 어의였다고 생각한다. 앞서 다룬 오마치의 『만선유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조선은 이제 황국(皇國)이다. 남만주 땅은 최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우리 동포가 선혈을 흘린 곳이며, 현재 우리 동포가 활약하는 곳이다. 여행하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야 할 것이며, 그리고 정치에서, 산업에서, 학술에서, 군사에서, 미술에서, 풍속에서 각각의 사람에 따라 관찰의 방면도 달라야 할 것이다.¹⁰⁾

청일·러일 전쟁의 역사와 그 전장이 되었던 1918년 당시의 조선과 '만주'는 이와 같이 '관국지광', 제국 일본의 국가적 위신을 나타내는 관광의 땅으로서 파악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학자의 종군·관전 원망에는 비일상적인 근대 전쟁을 보는 것이 자기 쇄신으로 이어진다는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관광여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종군기자와 관광여행자는 일상생활로부터 일탈한 것을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본래 지즈카는 종군·관전을 '미견', '이수'한 이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중첩시키고 있었다. '만선' 여행에서는 가령 그것이 청일·러일 전쟁의 역사라는 제국 일본의 '관국지광'에 다다른 프로세스로 치환되는 것이다.

청일 전쟁에 종군기자로 조선에 건너온 지즈카는 1930년에 『만선취미의 여행(滿鮮趣味の旅)』라는 여행기를 쓰고, 자신이 종군한 경험을 밝히고 있다. 거기에서는 옛 종군체험이 이렇게 적혀 있다.

30여 년 전, 내가 처음 붓을 들고 조선에 종군했을 때의 해로(海路)는 바칸(馬關-시모노세키(下関)의 다른 이름-울진)에서 나가사키(長崎)로, 나가사키에서 쓰시마(對馬)의 이와하라(岩原)에 기항하여 이후 부산, 인천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것을 오늘날은 바칸에서 바로 아름다운 연락선을 타고 아침과 밤 두 차례

10) 大町芳衛, 앞의 책, 2~3쪽.

로, 불과 7시간에 왕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당시 신문기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금의 신문기자와 비교해서 지극히 비박한 대우를 받았지만, 누구나 국사(國土)라 자임하며 붓을 던지고 용헌(戎軒)에 종사할 의기가 있었다.¹¹⁾

『만선취미의 여행』에서는 이상과 같이 젊은 날의 종군체험이 특히 강조되며, 그때마다 건문한 조선의 문화풍속과 비교하는 것으로 1920년대 말의 조선이 이야기되고 있다. “비 내리면 진흙덩이 속에 신발이 빠지던 이현(泥峴)도 이윽고 고상한 집들이 늘어서고 평탄한 포장도로가 되었고 은방울꽃 모양의 등(燈)을 늘어 걸은 영란등(鈴蘭燈·은방울꽃등)은 거리 양편에 세워졌으며, 한 밤중에도 대낮같은 경성 제일의 변화가가 되었던 것이다.”¹²⁾ 이런 일본인 거류지의 왜성대에 있었던 ‘이현’이 현재 ‘혼마치(本町)’이라는 “경성 제일의 변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서사는 지즈카의 제국주의적인 심성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그것이 인용문에서는 철도해상교통망의 근대화로서 서술되어 있다. 경부선이 모두 개통됨에 따라 1905년에 취항한 관부연락선은 이듬해 철도국유법을 가지고 철도성이 운영하는 철도연락선이 되었고, 1910년 이후는 국내 항로의 취급을 받았다. 러일 전쟁기에 있어서의 철도는 군수물자의 수송이 주요 역할이었다. 그 후 도쿄에서 시모노세키(下関)로, 그리고 관부연락선을 경유해 경부선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조선·만주로 향하는 중주국과 식민지의 유통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인적 이동이라는 시점에서 말하자면 일본인의 식민지·관광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로서 기능하였다.

지즈카는 자신을 포함해서 당시 종군기자를 “누구나 국사(國土)라 자임하며 붓을 던지고 용헌(戎軒)에 종사할 의기가 있었다”고 평하고 있었다. 『당시선(唐詩選)』의 권두를 장식한 위징(魏徵)의 「술회」 중에 있는 “투필사용헌(投筆事戎軒)”은 국가의 비움을 결정하는 지금이야말로 붓을 던지고 전쟁터로 향하는 기개를 의미하는 말이다. 청일전쟁의 종군기자가 지니고 있던 이런 심성이 30여년 후에 조선과 ‘만주’를 두루 돌아보며 그 모습을 활사하는 존재증명일 수 있는 것이다. 청일 전쟁을 종군기자로서 관전하며 『진중일기(陣中日記)』를 쓴 지즈카가 기행문 작가로서 이름을 떨친 후 30여년이 지나서 『만선취미의 여행』을 세상에 내놓은 것. 이 경위는 그대로 제국 일본의 확장주의의 노정과 중첩되어 있다. 본래 지즈카나 다야마와 같은 종군 경험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청일·러일 전쟁의 전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자는 옛 전장에 서서 그곳에서 제국 일본의 노정을 상기함으로써 「관국지광」을 추체험하게 된다. 특히 ‘만주’ 관광의 메인은 러일 전

11) 暹塚麗水, 『滿鮮趣味の旅』, 大阪屋號書店, 1930, 4, 7쪽.

12) 위의 책, 41쪽.

쟁의 전적지 관광이었다.

3. 고도 경주의 표상

제국 일본의 ‘만선’ 여행기의 담론은 청일·러일 전쟁의 종군기에 그 가까운 기원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이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어떻게 고도의 묘사방식에 나타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지즈카와 다야마 가타이에 의한 경주 표상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경주는 야나기 무네요시를 비롯해 기노시타 모쿠타로(木下柵太郎)나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등 많은 문학자가 이끌려서 방문했던 고도이다. 가령 화가 이시이 하쿠테이(石井栢亭)는 “신라의 역사를 생각하거나 그 예술을 감상하려고 하는 자에게 경주는 반드시 견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적고 있으며, 또한 투숙했던 여관에서는 우연히 아베 지로(阿部次郎)와 만났다는 에피소드도 남기고 있을 정도이다.¹³⁾ 우선 지즈카의 『만선취미의 여행』에서 경주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겠다.

경주는 우리의 나라(奈良)이다. (중략) 오니요시(青丹よし, 奈良를 의미하는 마쿠라고토바-옴긴이). 옛 도읍의 옛 모습은 그 면모를 지금에 남기고, 고사(古寺)며, 고탕이며, 고분이며, 고허(古墟)가 있어 이른 봄을 쫓아 한만(汗漫)의 놀이에 며칠 밤을 이 근처에서 보낸 나는 그 온아한 산하의 모습을 보고 황홀하게 나라의 교외 길을 걷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곳에 만지(滿地)의 금을 갈아 이른 봄 평야를 분장하는 아마토지(大和路, 교토에서 나라까지 통하는 길-옴긴이)의 푸성귀 꽃을 전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었다.¹⁴⁾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산출된 일본인 문학자에 의한 경주 표상에는 “경주는 우리의 나라(奈良)이다”와 같은 표현과 유사한 기술이 산견된다. 금관총의 발굴로 알려진 고고학자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는 경주와 나라를 “당나라의 문화로부터 탄생한 두 가지의 자매 문화”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라의 구도(舊都)를 동경하는 것은 동일한 이유에서 반드시 경주에 깊은 애착을 느낀다. 나라의 문화에 동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라의 고경(古京)

13) 石井栢亭, 「附録」, 『旅の絵—朝鮮支那の巻』, 日本評論社出版部, 1921.6, 7쪽.

14) 위의 책, 12쪽.

에 한없는 감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¹⁵⁾ 이와 같은 학술적 견식을 초석으로 삼은 견해와 비교하면, 지즈카의 경우는 경관의 유사성에 근거한 상상력으로부터 문장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도 이 인용문은 ‘오니요시(靑丹よし)’라는 나라(奈良)를 의미하는 마쿠라고토바(枕詞-와카和歌에서 주로 쓰는 수사법)를 문두에 쓰고 “아마토지의 푸성귀 꽃”이 없음을 유감스러워 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경주라는 미지의 조선 고도를 나라라는 기지(既知)의 고도 이미지로 채색하는, 황홀한 의사(擬似)적 감각에 특징이 있다. 이렇게 경주를 나라로 파악하는 감성은 선행하는 텍스트인 다야마 가타이의 『만선의 행락』(1924.11)에도 공유되어 있다.

경주는 나라와 같은 곳이라고 들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천이백년 이래의 유적이 그대로 똑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중략) 반월성 터에 섰을 때 나는 분명하게 천 년 전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¹⁶⁾

경주를 방문하고 그곳이 나라인양 파악하는 이러한 감성은 지즈카나 다야마의 경주 표상이 단적으로 고도를 발견한 놀라움과 그 영탄의 정(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야마는 “어디에 또한 이만큼 완전하게 남아 있는 옛 ‘폐허’가 있을까”라고 하고, ‘나라’에서는 물론 ‘서경’이나 ‘히라이즈미(平泉)’에서조차도 그렇게는 느낄 수 없었다며, 그대로 남아있는 조선의 고도의 ‘폐허’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향에 있어서의 고도 표상은 그것이 식민지 표상이더라도 고도 발견의 놀라움과 영탄의 정(情)의 영역을 결코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 고도에 대한 칭송이자 그 경승이나 사적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만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다야마의 경주 표상에서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석굴이 있는 곳은 그곳에서 이미 그다지 멀지 않았다. 산 그림자와 같은 곳을 조금 지나가면 앞은 앞은 계곡이 되어 있는 듯한 곳에 임하며 그 석굴은 동면(東面)하여 서 있었다. 우리들은 주저 없이 그 석굴 안에 새겨진 커다란 석불에 대면할 수 있었다.

“흐음”

“정말 훌륭하다.”

15) 濱田靑陵(耕作), 『百年觀音』, 平凡社, 1969.10, 62쪽.

16) 田山花袋, 『滿鮮の行樂』, 大阪屋號,書店, 1924. 11, 453쪽.

우리들은 오로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 단려한 얼굴, 그 큰 표정, 우리들은 오직 녀을 잃고 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굴 안에 매몰되어 있었던 때의 일을 상상했다. 돌인지 탐인지 발도 들여놓을 곳이 없던 때를 상상했다. 누구도 그 때는 이것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조금씩 정돈됨에 따라 광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한다.¹⁷⁾

이것은 불국사 근교에 있는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의 문장이며, 석가여래상에 대한 칭송은 다야마 가타이의 『만선의 행락』 안에서도 절창(絶唱)에 가까운 것이다. 본래 여기에서는 식민지를 여행하는 종주국의 저명한 문학자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대의 한일관계의 유대를 풀어내는 듯한 역사적 사적의 발견에 이끌린다고 하는 지배적인 시선을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지배적인 시선을 초래한 심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야마의 '만선' 여행의 산물로는 『만선의 행락』 외에 『아카시아』(聚芳閣, 1924.11)라는 단편소설집이 있다. 그 안의 「석굴(石窟)」이라는 단편소설에서는 위에 인용한 『만선의 행락』과 같은 장면이 소설화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다야마를 모델로 한 소설가 M과 서양화가 A인데, 마찬가지로 석굴암의 석불을 마주한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두 사람은 몸이 서로 영켜 감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어제 이 오랜 역사를 지닌 토지에 와서 한동안 그대로 남겨진 연못, 성터, 절탑, 제왕의 능, 일본에서는 지금은 쉽게 볼 수 없게 된 귀부(龜趺)와 이수(麟首), 그리고 커다란 종 등을 보고 지난 오랜 인생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리고는 또 홀연히 스쳐간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고, 그 공기며 감정들에 깊이 빠져들어 간밤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감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완전히 뭔가 커다란 것에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만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석각의 불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누가 와서 그것과 상대하든지 말든지, 감동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숙연하게 그곳에 서 있었다.¹⁸⁾

조선의 고도 경주를 방문하여 나라(奈良)와 닮은 그곳의 모습을 칭송하는 다야마는 석굴암의 석불 앞에서 그 장엄한 미에 녀을 잃고 말을 잃었다. 장엄한 미는 초연하게 눈앞에 있는 '엄숙'한 그 존재성에 썩워진 것이며, "뭔가 커다란 것에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만 듯한" 감각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 오랜 인생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리고는 또 홀연히

17) 앞의 책, 465~466쪽.

18) 田山花袋, 『あかしや』, 聚芳閣, 1924.11, 81쪽.

스쳐간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고"라는 대목이다. "갑자기 나타나" "홀연히 스쳐간 사람들"이란 소설가 M의 헤어진 애인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인물들이다. 본래 「석굴」이라는 단편소설의 플롯은 "M이 이렇게 2개월이나 전부터 이향으로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모두 던져버리고 쓸쓸한 들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서 기록된 여자관계의 갈등으로부터의 도피—'lovesick'—일 뿐이었다.

다야마와 같이 경주를 묘사하는 방식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만선' 여행의 경험이 "이향으로 방황"하는 단편소설집을 낳은 배경에는 웬지 여유와 같은 것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오마치 게게쓰, 지즈카 레스이, 다야마 가타이에 의한 '만선' 여행과 고도 경주의 표상을 고찰했다. 지즈카와 다야마는 과거 청일·러일 전쟁에서 종군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오마치도 또한 러일 전쟁기에는 종합잡지 『태양(太陽)』의 문예란 주필로서 전쟁을 찬미하는 평론을 쓰고 전시하의 문학계에서 힘을 가졌던 인물이다. 이 세 사람은 결국 일본의 원호로 말하자면 메이지(明治) 시기 후반에 활약했던 문학자이며, 다이쇼(大正)·쇼와(昭和) 시기에는 노태가로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시기는 다르지만 세 사람은 모두 '만선' 여행을 떠났고, 여행기를 상재했다. 다야마 가타이의 여행기는 '행략'이며, 오마치 게게쓰의 경우는 '유기(遊記)'이고, 지즈카 레스이의 경우는 '취미의 여행'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취미에 근거한 경주로의 여행이 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형성해왔던 것이다.

4. '만선' 여행과 경주 관광의 네트워크

지금까지 주로 검토해온 오마치 게게쓰의 『만선유기』와 다야마 가타이의 『만선의 행략』, 그리고 지즈카 레스이의 『만선취미의 여행』은 각각 개인의 '만선' 여행기라는 체제로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이 조선과 '만주'를 돌아보는 관광 여행이었으며, 경주에서는 신라의 고도로서의 양상을 특필하고 있으며, 석굴암이나 불국사의 소개로 시작해서 신라의 석탈해왕이 시림(始林)을 고쳐 계림(鷄林)이라 명명하기에 이르렀다는 『삼국사기』의 고사 등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에 관한 여행기는 많은 경우 비슷한 감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1910년대 후반에는 경주의 관광지화가 진행되어 여행자를 나르는 철도교통망이나 각지의 명소와 유적의 인프라도 정비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일본인 문학자의 '만선' 여행과 경주 관광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었을까. 다야마 가타이의 『만선의 행략』에는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별로 다른 관찰도 없을 것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한편의 내 만선 인상기이다. 가능하다면 이 작은 책자가 연고가 되어 나아가서는 그 지방의 자연이나 인사(人事)에 깊이 빠져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만철의 제군(諸君)-그 중에서도 다카야나기(高柳) 장군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다카야마 고지(高山孝治) 씨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다이쇼 13년 추우(秋雨)의 창에서 가타이생(花袋生).¹⁹⁾

다야마 가타이는 그 여행기를 간행할 목적을 “이 작은 책자가 연고가 되어 나아가서는 그 지방의 자연이나 인사에 깊이 빠져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쓰고 있으며, 이를테면 『만선의 행락』은 ‘만선’ 여행의 가이드 맵과 같은 것으로서 편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일본의 국책회사·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언급되어 있듯이 다야마나 오마치의 ‘만선’ 여행은 만철의 초빙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이나 ‘만주’에 관한 그 내용을 여행기로 만들어냄으로써 일본의 독자에게 조선이나 ‘만주’의 문화풍속을 소개하는 것. 이런 영위 또한 만철이나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국책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인용문 중의 ‘다카야나기(高柳) 장군’, 즉 다카야나기 야스타로(高柳保太郎)는 육군을 퇴역한 중장이며 이때는 만철의 고문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야마가 조선과 ‘만주’를 여행한 1923년에 이 다카야나기가 중심이 되어 만철사장실에 홍보계(弘報係)를 설치했다는 사실이다. 이 만철 홍보계는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의 기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²⁰⁾ 다야마가 그것을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만철의 홍보 활동과 다야마의 ‘만선’ 여행, 그리고 가이드 맵(guide map)적인 내용의 여행기 『만선의 행락』은 밀접히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이 정도로 명료하지는 않더라도, 고도 경주의 표상을 생각했을 때,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인 문학자를 맞이하는 주최측인 재조선 일본인의 네트워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오마치 게게쓰가 경주고적보존회 진열관을 방문했을 때의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천이백년 전의 옛날 법흥왕 때, 불교가 처음 신라에 들어올 때 왕의 사인(舍人)인 이차돈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물어 참수에 처해졌는데, 피에서 흰 것이 솟아났다는 등. 석부(石斧)는 대

19) 田山花袋, 『滿鮮の行樂』, 쪽표시 없음.

20) 眞山孝治는 백마회(白馬會)에 속했던 화가로 1912년에 만철에 초청받은 인물이다.

개 양쪽을 갈아 날을 세우는데, 여기에서는 한쪽만을 갈은 것이 보인다. 안내해준 오사카 긴타로(大阪金太郎) 씨의 말에 따르면, “내지에서는 이즈모(出雲, 시마네현의 동부)지방에서 나온다”고 하더라. 또 “곡옥(曲玉)은 추풍령 이북에서는 출토되지 않는다”고 한다. 석부와 곡옥만으로도 일선(日鮮) 관계의 고대가 보인다.²¹⁾

여기에서는 그 당시 경주공립보통학교 교장이었던 오사카 로쿠손(大阪六村) 즉 오사카 긴타로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는 경주고적보존회에 소속되어 훗날 경주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인데, 훗날 일본어 작가로 데뷔하는 장혁주가 그의 영향을 받아 일본어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에피소드도 남기고 있다. 또한 경주의 시내 관광에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찬과에 소속되어 이후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는 가토 간카쿠(加藤灌覺)가 동행하고 있으며, 오마치 게게쓰는 ‘조선총독부의 박학’으로 알려진 그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²²⁾ 다시 말해 오마치의 『만선유기』는 또한 오사카 로쿠손이나 가토 간카쿠 등의 관광 안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마치 게게쓰가 경주를 방문했을 때 관광 안내를 한 오사카 로쿠손이 쓴 『경주의 전설(慶州の傳説)』(1934.4)에는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신라의 구도(舊都) 경주는 일면 전설의 도읍이다. 그 유적이라는 유적에는 거의 전설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신라의 유적은 전설에 의해 보존되어 왔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략) 따라서 만약 경주를 방문했을 때 이런 전설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경주는 단지 황량한 기와돌 터로밖에 여겨지 않을 것이다. 보는 이에게나 보이는 경주에게나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³⁾

이제까지 이 글에서는 주로 일본인 문학자의 ‘만선’ 관광과 고도 경주의 표상에 대해서 고찰했다. 1910년대 후반부터 널리 행해지기 시작한 ‘만선’ 여행은 제국 일본의 확장주의적 문화정책으로서 추진된 관광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일본인 문학자도 ‘만선’ 여행에 나

21) 大町芳衛, 앞의 책, 77~78쪽.

22) 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가토 씨는 말했다. ‘계림을 조선어로 혼독하면 닭숲(たくすば)이다. 신라 마쿠라고 토바(枕詞)의 다쿠부스마는 그로부터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고. 재래의 국학자는 신라의 시라(しら)를 백(白)으로 놓고, 다쿠부스마를 고금(桤)이라 풀었다. 나도 그렇다고 믿지만 지금 가토 씨의 설명을 들으니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다. 이 계림은 지금도 있다. 가보니 무릇 일정사방(一町四方)이나 되어서 樵, 榎, 槐 등의 고목이 무성하다.”(大町芳衛, 위의 책, 81쪽) (즉 다쿠부스마는 신라 앞에 붙는 마쿠라고토바인데, 이는 다쿠부스마도 희며 신라의 일본명인 시라기(しらぎ)에서 시라(白)가 흰 색을 나타내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옮긴이)

23) 大阪六村, 『慶州の伝説』, 田中東洋軒, 1932.4, 1쪽.

아가 그 여행기를 썼던 것이다. 그곳에는 '만선' 관광이 청일·러일 전쟁기의 종군기에서 단초를 보인 듯한 제국주의적인 심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이른바 경주는 이러한 '만선' 관광 안에서 조선의 고도로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지즈카 레스이와 다야마 가타이의 사례와 같이 일본인 문학자는 경주의 명소와 유적을 방문하여 그곳을 일본의 고도 나라(奈良)에 비유했다. 신라의 고도 경주를 나라와 비교하는 이러한 상상 행위는 야나기 무네요시를 비롯해 기노시타 모쿠타로나 와쓰지 데쓰로 등 다양한 논의를 볼 수 있어 결코 단순한 문제로서는 논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유형적인 표현을 공유하는 여행기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만선' 관광이 개인적인 취미에 근거한 여행이고 여행자가 고도 경주에 일상생활과는 다른 본래성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광여행인 한 그 여정이나 명소와 유적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 가이드 맵이나 현지의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경주의 다나카동양헌(田中東洋軒)에서 발행된 오사카 로쿠손의 『경주의 전설』은 그러한 현지 거주 일본인이 쓴, 여행자를 위한 서적이다. 여기에서 오사카 로쿠손은, 여행자가 경주에 전해오는 전설을 알지 못하고 방문한다면 “보는 이에게나 보이는 경주에게나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라의 고도 경주의 이미지는 관광하는 측과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측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번역 : 박광현, 동국대 국문과 교수)

帝国日本の「満鮮」観光誌と古都慶州の表象

中根隆行 | 愛媛大学

1. 「満鮮」観光の季節

1910年代後半から1930年代にかけて盛んになった帝国日本の「満鮮」旅行や古都慶州の描かれ方について、観光という視点から日本文学者を事例に検討したいと思います。おもにとりあげるのは、大町桂月『満鮮遊記』や田山花袋『満鮮の行楽』、遅塚麗水『満鮮趣味の旅』です。もとより、「満鮮」旅行で慶州を訪れた日本文学者は他にも多数います。なかでも有名であるのは、1916年に慶州の石窟庵を訪れたことが契機となって朝鮮美術に惹かれた柳宗悦で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なかば彼とは対照的に、まさに観光としての「満鮮」旅行に終始した場合のほうが一般的な旅程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本発表では、日本による植民地統治期に刊行された数多く「満鮮」旅行記のなかで、「満鮮」観光のガイドブック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た旅行記をとりあげ、(1)1910年代後半から高揚した「満鮮」旅行、(2)日清・日露戦争期の従軍記と「満鮮」旅行記との関係性、(3)古都慶州の表象、(4)「満鮮」旅行と慶州探訪における旅行者と観光事業との連携について考察します。なお、引用文やその他の関連資料についてはハンドアウトを適宜参照してください。

日本による植民地統治期の朝鮮では、金剛山観光に象徴されるように、観光開発が植民地事業の重要な政策の柱として掲げられていました。これはいうまでもなく、「内地人」と呼ばれた日本人を韓半島に呼び込むためです。慶州などの朝鮮の古都における観光開発の場合も同様です。もちろん、そこには古蹟調査や歴史書を編む在朝鮮の学者や朝鮮総督府囑託の役人らによる学術調査・研究活動との連携もなされていたと推察できます。

そもそも朝鮮の古都のイメージが社会的に形成されるためには、観光地開発事業は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そして当然それは、古都のイメージが言語によって表象され、メディアを通じて流布されていくプロセスに重なります。金剛山観光を例にとりましょう。徳富蘇峰や大町桂月、田山花袋、のちには遅塚麗水に若山牧水といった著名人が金剛山を称える文章を書くことによって金剛山のイメージが宗主国社会に伝播され、それと同時に、内金剛にいたる金剛山電気鉄道や外金剛にいたる朝鮮総督府の鉄道交通網が整備されることによって、金剛山は朝鮮旅行の一大名勝地となったのです。最初に一例を挙げておきましょう。大町芳衛『満鮮遊記』（1919.10）という旅行記は、このように書き始められています。

朝鮮に渡るより早く、世界的名山なる金剛山の勝を探り、三週間に亘りて、怪巖、奇溪、紅葉の美観を縦にし、平壤に一泊して牡丹台に上り、進みて満洲に入り、初めには大連を根拠地として、三たび旅順の戦蹟を訪ひ、前後八日を費して、当年の忠魂を弔ひ、金州以北の戦場をも弔ひて、心開合の鉄橋にも及び、南山、北山、老鉄山、大和尚山、小黑山。¹⁾

大町桂月（1869-1925）は美文家としても知られる著名な紀行文家であり、『満鮮遊記』は1918年9月末から翌年1月にかけての旅行をもとに記された旅行記です。この冒頭部にはまず「世界的名山なる金剛山の勝を探り」とあります。三ヶ月に及ぶ旅程のなかで金剛山観光に三週間も日数を割いていることからわかるとおり、大町桂月を「満鮮」旅行に駆り立てたのは前もって流布されていた「世界的名山」と謳われた金剛山のイメージです。加えて、引用箇所からは当時の朝鮮旅行が「満洲」とセットであったこと、「三たび旅順の戦蹟を訪ひ」とあるように、おもに「満洲」では日露戦争の戦蹟をめぐるもの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後述するように、こうした旅程は大町桂月に限るものではなく、むしろこの頃に一般化された「満鮮」観光の典型的なコースでした。

さらに朝鮮旅行についていえば、京城を中心とした都市観光、金剛山や平壤など風光明媚な景勝地探訪とともに、古都や古戦場をめぐる歴史観光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ます。大

1) 大町芳衛『満鮮遊記』大阪屋號書店 1919.10' p.1

町桂月『満鮮遊記』の場合は、とりわけ「故都」なる語が多用されます。

朝鮮に戻りて京城を見物し、高麗の故都なる開城、新羅の故都なる慶州、百済の故都なる扶余、任那の故都なる金海、小早川隆景、立花宗茂の功名を残せる碧蹄館、加藤清正、浅野幸長の籠城せし蔚山など朝鮮の故都古戦場に低回し、朝鮮第一の温泉なる東萊温泉に旅の塵を洗ひ落しぬ。屋内に在りたるは、僅々数日にして、日々歩き廻りけるが、主として山水と史蹟とを探りたり。²⁾

最初の一文からわかるように、大町桂月にとって朝鮮の古都探訪は金剛山探勝に次ぐ旅の目的であり、「山水と史蹟とを探りたり」とあるように、朝鮮旅行は彼の個人的な趣味に即した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

大町桂月が朝鮮や「満洲」を旅行した1910年代後半から1930年代にかけての時期は、いかなれば「満鮮」観光の季節が到来した時代でした。この同じ年に金尾文淵堂から『新日本見物——台湾・樺太・朝鮮・満洲・青島之巻』（1918.6）という書籍が刊行されています。その副題に見てとれるように、ここには第一次世界大戦でドイツに宣戦布告した帝国日本が、南洋群島とともに占領した中国におけるドイツの租借地青島が含まれており、この青島を加えて「新日本」と銘打ったであろうことが推察できます。

『新日本見物』は、数々の写真やイラストとともに、九名の著名人の旅行探訪記が収められています。ここでは島村抱月と巖谷小波の事例を紹介します。「大連を東京に見立てれば、京城は京都」と評する島村抱月「新日本見物」では、「私が漫遊したのは台湾が一度と、満洲と朝鮮とが二度である、此の三つの殖民地は各々違つた色彩を持つて居て、其特有の情趣を感ずる」³⁾と記しています。また、巖谷小波「新日本所感」では、「新日本」の妙味は百聞は一見に如かずとして「私が新日本の各地を遍歴した時もさうであつた」と1913年の「満鮮」旅行と1916年の台湾旅行を回顧しています。そして次にこう述べるのです。「少しも知らない人は、一度此等の方地へ雄飛して、其空気を味はつて見るがいゝ、切に万人の観光を勧める」⁴⁾。すなわち、『新日本見物』は、日本人読者に対して積極的に帝国日本の植民

2) 同上' p.2

3) 島村抱月「新日本見物」『新日本見物——台湾・樺太・朝鮮・満洲・青島之巻』金尾文淵堂' 1918.6' p.1

4) 同上' 巖谷小波「新日本所感」p.13' p.25

地・租借地・占領地を旅行せよというメッセージを訴えかけているのです。

もちろん、この『新日本見物』一冊によって「満鮮」観光の季節が到来した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観光旅行に対する当時の時代的要請の産物が、このような書籍の刊行となってテキスト化されたのだと考えます。そこで、もう一例紹介しておきます。1924年4月には日本旅行文化協会から『旅』という旅行雑誌が創刊されています。ちなみに『旅』はたんなる旅行雑誌ではありません。その発行元である同年2月に創立された日本旅行文化協会の参会者は、鉄道省を始め南満州鉄道株式会社、日本郵船株式会社、大阪商船株式会社、台湾鉄道株式会社等の代表者が名を連ねているからです。この『旅』創刊号で日本旅行文化協会の初代会長・野村龍太郎は「自然児としての日本人の生活が最も克く表明されてゐるのは近時各所に勃興する旅行熱と之に関連する旅行団体の組織とである」と述べています⁵⁾。加えて、この日本旅行文化協会設立の趣旨は、満鉄が関係していることからわかりますが、「満鮮」観光と密接に繋がっていました。

旅行が少しでも安楽に且愉快に出来るやうに、交通業者と一般民衆との中間に立つた考察をなし、健全なる旅行趣味の育成、旅行に関する案内、注意をすることから、更に進んで内地、朝鮮、満蒙、支那等に於ける人情、風習の紹介等総ての方面に日本人本来の性情を保育守成しようといふのがその目的である [。] 然して現代社会文化と幾分でも貢献するところがあればそ [の] 志望を遂げたものと言はねばならぬ。⁶⁾

以上の情報に従えば、1920年代前半の時点で「近時各所に勃興する旅行熱」があり、同時に民間の「旅行熱」の高揚に対応して「之に関連する旅行団体の組織」が随所に誕生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日本旅行文化協会は、この観光旅行に関する受容と供給の側を取り結ぶ「指導機関」を担うものとして設立された団体です。それが引用箇所の「交通業者と一般民衆との中間に立」ち「健全なる旅行趣味の育成」という部分にあたります。そしてそれは、より端的に言えば、「内地、朝鮮、満蒙、支那等に於ける人情、風習の紹介等総ての方面に日本人本来の性情を保育守成しようといふのがその目的である」という部分

5) 野村龍太郎「日本旅行文化協会創立に際して」『旅』1-1' p.3

6) [s生]「日本旅行文化協会発会式」『旅』1-1' p.83

に繋がります。

すなわち、やや穿った見方かもしれませんが、日本旅行文化協会の大きな目的のひとつは、観光旅行を「内地」のみならず、帝国日本の版図へと拡張することにあつたと考えられるのです。この『旅』創刊号には、社名のイニシャルMとレールの断面を象った社紋とともに、「旅行のシーズン来る [/] 朝鮮へ！ [/] 満洲へ！ [/] 支那へ！」という満鉄の広告も載せられています。大町桂月が憧れの金剛山を探勝し朝鮮の古都を巡る観光旅行をしたのが1910年代後半、時を同じくして『新日本見物』『新日本見物——台湾・樺太・朝鮮・満洲・青島之巻』が刊行され、1924年には日本旅行文化協会の機関誌『旅』が創刊されます。こうして帝国日本は「満鮮」観光の季節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す。

2. 従軍記者から観光旅行者へ

さて次に、やや遠回り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が、日本文学者による「満鮮」観光と古都表象の前史について考察します。宗主国の著名文学者は植民地を観光すること。当然ながらその旅程は、新たな観光の地を「満鮮」に拡張するという意味での文化帝国主義的要素と、その観光で得た見聞をもって「満鮮」を知的に支配するという意味での植民地主義的要素に特徴づけられます。それでは、このような「満鮮」観光のプロトタイプは、いつどのように形づくられたのでしょうか。これを、朝鮮そして「満洲」へと向かう帝国主義的な欲望と捉えれば、いうまでもなく日清・日露戦争期につくられたと考えられます。この時期に朝鮮に関する文化・風俗の紹介が盛んに行われていることを考えれば十分に理解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この時期をひと言で概説するのは難しいのですが、あえていえば、日本文学者の「満鮮」観光の原型は、日清・日露戦争の従軍記に求められ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なぜ従軍記が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特に日清・日露戦争の文学者による従軍記には、のちの「満鮮」旅行記にみられる典型的なディスコースが窺えます。以下の引用は、大町桂月とともに紀行文家として知られた遅塚麗水（1866-1942）が日清戦争に報知新聞記者として従軍することが決まった際の心境を綴った部分です。

余は之を聴きて、初は大に喜び、而して終に憂へり、喜ぶものは未見の山河を踏み
て、異殊の風俗を觀、而して一朝両国干戈相見ゆるの日に當りては、觀光の客、復
た筆を載せて軍旅の間に従ひ、豊公征韓後、五百年の壯觀を睹ることを得るに在
り、憂ふるものは垂白の老母、堂に在り、誰れに頼りて甘脆の養を尽さん、⁷⁾

ここには、「未見の山河を踏み、異殊の風俗を觀」という異文化への好奇心が、「豊公
征韓後、五百年の壯觀」として捉えられる近代戦争への従軍・觀戦願望とともに併記されて
います。これとはほぼ同様の従軍・觀戦願望は、日露戦争に第二写真班員として従軍した田
山花袋(1871-1930)の回想記にも窺えます。「私は戦争を思ひ、平和を思ひ、砲烟の白く
炸裂する野山を思つた。自分も行つてみたいと思つた。牙山の戦、京城仁川の占領、つゞ
いて平壤のあの大きな戦争が戦はれた。月の明るい夜に、十五夜の美しい夜に……」⁸⁾
近代戦争への従軍願望と折り重なって、その戦場となった異文化への好奇心が表出される
こうした事例には、戦場をスペクタクルとして見聞活写する美学的な欲望が随所に指摘で
きます。田山花袋『第二軍従征日記』(1905)には、次のような記述があります。

振古未曾有なる征露の役に、自分が従軍したのは、実に此上も無い幸運である。砲
烟弾雨、それが自分の稚い思想に大なる影響を及ぼしたのは無論のことで、自分は
人間最大の悲劇、人間最大の事業を見たとすら思つたのである。⁹⁾

なぜ当時の文学者は従軍するという行為に憑かれたのか。近代戦争をスペクタクルと
して捉え、その戦場を眼前に觀るといふ経験が「自分の稚い思想に大なる影響を及ぼすこ
と。田山花袋の場合、それは非日常的な近代戦争を觀ることが自己刷新に繋がるというこ
とです。そして、そのとおり彼は日露戦争の従軍経験をもって文学界に注目され、この後
続々と文学史に残る小説を発表することにもなります。

ここで遅塚麗水、田山花袋の事例をとりあげたのは、のちに彼らが朝鮮や「満洲」を漫
遊し、古都や戦蹟をめぐる旅行記を執筆しているからでもあります。遅塚麗水は紀行文、

7) 遅塚麗水『陣中日記』春陽堂 1894年' p.3

8) 田山花袋『明治大正文学回想集成2 東京の三十年』日本図書センター' 1983年' pp.91-2

9) 田山花袋『第二軍従征日記』博文館' 1905' p.1

田山花袋はそれに加えて自然主義文学の旗手でもありました。旅を好み紀行文をよくした文学者たちが異文化への好奇心を強くもち、その心性やまなざしが朝鮮や「満洲」の「未見」「異殊」なる文化風俗を求めたということです。ここで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るのは、この日清・日露戦争期における従軍記から1910年代後半以降の「満鮮」旅行記へという流れが、観光という概念を経由して朝鮮の古都の発見へと繋がっていると思われるからです。

観光という熟語の語義は、元来は儒教における五経の一『易経』にある「観国之光」が典拠です。もっとも当時の日本では観光という言葉は必ずしも一般化しておらず、また「観国之光」という意味は現在のsightseeingという意味とはあまり関係がないのですが、この「国の光を観る」というのは帝国日本の「満鮮」観光誌を考える上できわめて的を射た語義だと思われまます。前述した大町桂月『満鮮遊記』には、このような記述があります。

朝鮮は今や皇国也。南満洲の地は、近く日清戦争に、日露戦争に、我同胞の鮮血を流したる処にして、現に我同胞の活躍せる処也。旅行する者年を追うて多かるべく、而して政治に、実業に、学術に、軍事に、美術に、風俗に、それぞれ人に由りて観察の方面も異なるべし。¹⁰⁾

日清・日露戦争の歴史とその戦場となった1918年当時の朝鮮と「満洲」は、このように「観国之光」、帝国日本の国家的威信を示す観光の地として捉えられています。先述したとおり、文学者の従軍・観戦願望には、非日常的な近代戦争を観ることが自己刷新に繋がるという考え方が潜んでいたと述べました。この考え方は、観光旅行についても類似した構造から捉えることができます。つまり、非日常的な異文化を観ることが自己刷新に繋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従軍記者と観光旅行者は、日常生活からかけ離れたものを観るという点で共通します。そもそも、遅塚麗水は従軍・観戦を「未見」「異殊」なる異文化への好奇心と重ねていました。「満鮮」旅行では、たとえばそれが日清・日露戦争の歴史という帝国日本の「観国之光」をたどるプロセスに置き換えられるのです。

日清戦争に従軍記者として渡韓した遅塚麗水は1930年に『満鮮趣味の旅』という旅行記を記し、みずから従軍した経験を語っています。そこには、かつての従軍体験がこう記され

10) 前掲 大町芳衛『満鮮遊記』p.23

ています。

三十余年の昔、私が始めて筆を載せて朝鮮陣に従軍した時の海路は、馬関から長崎へ、長崎から対馬の巖原に寄港して、しかる後に釜山、仁川とたどり行つたものである、これを今日の、馬関より直ちに美しい連絡船に載せられて、朝と夜との二回、僅かに七時間にして往来し得るに較べては、殆んど隔世の感がある、当時の新聞記者は、物質的にも亦た精神的にも恵まれてゐる今の新聞記者に較べて、極めて菲薄な待遇を受けては居たが、何れも国土をもつて自から任じて、筆を投じて戎軒を事とするの意気があつた、¹¹⁾

『満鮮趣味の旅』では、以上のように若き日の従軍体験が殊更強調され、そのおりに見聞した朝鮮の文化風俗と比較することで1920年代末の朝鮮が語られています。「雨ふれば泥濘靴を没するその泥岨も、やがては高荘な家並と平坦な舗装道路となつて、鈴蘭の花のさまに数燈を並べ懸けた鈴蘭燈は、両行に立てられて、暗夜も昼を欺く京城第一繁華の町となつたのである」¹²⁾。この日本人居留地の倭城台にあった「泥岨」が現在「本町」という「京城第一繁華の町」となったという語りは、遅塚麗水の帝国主義的な心性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それが引用箇所では、鉄道海上交通網の近代化として述べられています。京釜線が全通したことによって1905年に就航した関釜連絡船は翌年の鉄道国有法をもって鉄道省が運営する鉄道連絡船となり、1910年以降は国内航路扱いになります。日露戦争期における鉄道は軍需物資の輸送が主な役割でした。その後、東京から下関、関釜連絡船を経て京釜線へと接続された鉄道網は、朝鮮・「満洲」へと向かう宗主国と植民地の流通経済圏を形成する重要な役割を担うことになり、人的移動という視点からいえば、日本人の殖民・観光事業に欠かせないインフラとして機能します。

遅塚麗水はみずからを含めて当時の従軍記者を「何れも国土をもつて自から任じて、筆を投じて戎軒を事とするの意気があつた」と評していました。『唐詩選』の巻頭を飾る魏徴「述懐」のなかにある「投筆事戎軒」は国家の雌雄を決するいまこそ筆を擲ち戦場へと向かう気概を意味する言葉です。日清戦争の従軍記者がもっていたこのような心性が、三十余年

11) 遅塚麗水『満鮮趣味の旅』大阪屋號書店 1930.4 p.7

12) 同上 p.41

後に朝鮮と「満洲」を経めぐりその模様を活写する存在証明たりえているのです。日清戦争に従軍記者として観戦し『陣中日記』をものした遅塚麗水が、紀行文家として名を馳せたのち、三十余年を経て『満鮮趣味の旅』を世に出すこと。この経緯はそのまま帝国日本の拡張主義の路程に重なります。もとより、遅塚麗水や田山花袋のような従軍経験を持たずとも、日清・日露戦争の戦蹟をめぐる旅行者は、かつての戦場に立ちそこで帝国日本の路程を想起することで「観国之光」を追体験することになります。殊に「満洲」観光は日露戦争の戦蹟ツアーがメインとなっていました。

3. 古都慶州の表象

帝国日本の「満鮮」旅行記のディスコースは、日清・日露戦争の従軍記にその近き起源をもっていました。そこで、朝鮮という異文化への好奇心がいかに古都の描かれ方に示さ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ここでは遅塚麗水と田山花袋による慶州表象を対象に考察します。慶州は柳宗悦を始め、木下杢太郎や和辻哲郎など多くの文学者が惹かれ訪れた古都です。たとえば、画家の石井柏亭は「新羅の歴史を考へたり其芸術を鑑賞しようとするものにとつて慶州は是非共見舞はねばならぬ所である」と記しており、また、投宿した旅館では偶然にも阿部次郎と出会ったというエピソードも残っているほどです¹³⁾。まずは遅塚麗水『満鮮趣味の旅』から慶州の記述をとりあげます。

慶州は我が奈良である。[/] 青丹よし、故き都の昔のさまは、その面影を今に留めて、古寺あり、古塔あり、古墳あり、古墟あつて、徂春を追ひつゝ汗漫の遊びに幾夜かをこのあたりに過ごした私は、その温雅なる山河たゞづまるを観て、恍として奈良郊外の路を行くかの想ひがした、但、憾むらくは、そこに満地の金を敷いて、徂春の平野を粉粧する大和路の菜種の花を、絶へてこの地に見ることが出来ないことであつた。¹⁴⁾

13) 石井柏亭「附録」『旅の絵——朝鮮支那の巻』日本評論社出版部 1921.6' p.7

14) 同上' p.12

1910년대後半から1930年代にかけて産出された日本文学学者による慶州表象には、「慶州は我が奈良である」といった表現に類する記述が散見されます。金冠塚の発掘で知られる考古学者の浜田耕作は、慶州と奈良を「唐の文化から生れた二つの姉妹の文化」と位置づけ、こう述べています。「奈良の旧都に憧憬れるものは、同じ理由でかならずや慶州に深い愛着を感ずる。奈良の文化に同情を有するものは、新羅の古京に限りなき感興を起こさずにはいられない」¹⁵⁾。このような学術的知見を礎にした見解と比較すれば、遅塚麗水の場合は景観の近似性に基づく想像力から文章が記されているのがわかると思います。なかでもこの引用箇所は、「青丹よし」という奈良を意味する枕詞を文頭に冠し、「大和路の菜種の花」なきを憂うといった記述になっており、その意味で慶州という未知なる朝鮮の古都を奈良という既知の古都のイメージで彩る、恍然とした擬似的感覚に特徴があります。慶州を奈良と捉える感性は、先行するテキストである田山花袋『満鮮の行楽』（1924.11）にも共有されています。

慶州は奈良のやうなところとは聞いてゐたけれども、これほどとは思はなかつた。そこでは千二百年以来のものがそのまゝそつくりと置かれてあるのを見た。【/】半月城の址に立つた時には、私ははつきりと千年前のさまを眼にしたやうな気がした。¹⁶⁾

慶州を訪れそこが奈良であるかのように捉えるこうした感性は、遅塚麗水や田山花袋の慶州表象が端的に古都を発見した驚きやその詠嘆の情に基づいているからです。とりわけ田山花袋は「何処にまたこれほど完全に残されてある昔の『廢墟』があるであらうか」として、「奈良」にも「西の京」や「平泉」でさえもそうは感じられなかった、そのまま残されている朝鮮の古都の「廢墟」性をより強調しています。こうした異郷における古都表象は、それが植民地表象ではあっても、古都発見の驚きや詠嘆の情の域を決して出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朝鮮の古都の称揚でもあり、その景勝や事蹟を紹介する限りにおいて二重性もっています。けれども、田山花袋の慶州表象にはもうひとつの特徴が窺えます。

15) 浜田青陵（耕作）『百濟觀音』平凡社 1969.10' p.62

16) 田山花袋『満鮮の行楽』大阪屋號書店 1924.11' p.453

石窟のあるところは、もはやそこからいくらもなかつた。山のかげのやうなところを少しく行くと、前は浅い谷になつてゐるやうなところに臨んで、その石窟は東面して立つてゐた。私達は迷ふことなく、その石窟の中に刻まれてある大きな石仏に對することが出来た。

『ふむ』

『これは立派だ——』

私達は唯かう言つただけだつた。その端麗な顔、そな表情、私達は唯見とれた。私は長い間それが窟中に埋没されてあつた時のことを想像した。石やら塔やらで足の踏むところもないやうになつてゐた時を想像した。何でもその時は、これがこんなにすぐれたものであるとは思へなかつたさうだ。段々片付けるにつれて、光輝があらはれ出してきたのださうだ。17)

これは仏国寺近郊にある石窟庵を訪れた際の文章で、釈迦如来像に対する称赞は田山花袋『満鮮の行楽』のなかでも絶唱に近いものです。もとよりここには、植民地を旅する宗主国の著名文学者が、そこに住む人々ではなく、古代の日韓関係の紐帯を紐解くような歴史的事績の発見に惹かれるという支配的なまなざしを指摘するべき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ここではそうした支配的なまなざしをもたらした心性について検討します。田山花袋の「満鮮」旅行の産物には、『満鮮の行楽』のほかに『あかしや』（聚芳閣、1924.11）という短編小説集があります。そのなかの「石窟」という短編小説には、上に引用した『満鮮の行楽』と同様の箇所が小説化されています。主な登場人物は田山花袋をモデルとする小説家Mと洋画家Aで、同じく石窟庵の石仏を前にした場面が継のように語られています。

二人は体が引緊められるやうな気がした。かれ等は昨日この古い歴史を持つた土地に来て、久しい間そのまゝに残つてゐる池や、城址や、寺の塔や、帝王の陵や、日本では今日は容易に見ることの出来なくなつてゐる亀趺螭首や、大きな鐘などを見て、過ぎ去つた長い人生の上に倏忽に現はれてそしてまた倏忽に過ぎ去つた人達のことを思つて、その空気やら感じやらに深く捉えられて、現に昨夜もよくは眠られ

17) 同上' pp.465-66

ないくらいであつたが、今はさうした感傷的な心持どころではなく、全く何か大きなものに圧倒的に支配されて了つたやうな感じがした。石刻の仏像は、しかも何も知らぬやうに、何者が来てそれと相対しやうが対すまいが、感動しやうが感動しまいが、そんなことには頓着ないといふやうに、寂としてそこに立つてゐるのであつた。18)

朝鮮の古都慶州を訪れ、その奈良の都に似た姿を称揚する田山花袋は石窟庵の石仏の前でその荘厳な美にみとれて絶句します。荘厳な美は超然として眼前にある「寂」たるその存在性に負うものであり、「何か大きなものに圧倒的に支配されて了つたやうな」感覚として捉えられています。しかし、看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過ぎ去つた長い人生の上に倏忽に現はれてそしてまた倏忽に過ぎ去つた人達のことを思つて」という部分です。「倏忽に現はれ」「倏忽に過ぎ去つた人達」とは、小説家Mの別れた愛人に象徴される過去の人物たちです。そもそも「石窟」という短編小説のプロットは、「Mはかうして二月も前から異郷に彷徨は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何も彼も捨て、さびしい野に呼吸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つた理由」として記される女性関係のもつれからの逃避——「ラブ・シツク」——で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田山花袋のような慶州の描き方は決して一般的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彼の「満鮮」旅行の経験が「異郷に彷徨」する短編小説集を生んだ背景には、何かしら余裕のようなものが感じられます。これまで大町桂月、遅塚麗水、田山花袋による「満鮮」旅行と古都慶州の表象を考察してきました。遅塚麗水と田山花袋は、かつて日清・日露戦争で従軍した経験をもっており、大町桂月もまた日露戦争期には総合雑誌『太陽』の文芸欄主筆として戦争賛美の評論を書き戦時下の文学界で力をもっていた人物です。この三人はつまり、日本の元号でいえば明治期後半に活躍した文学者であり、大正・昭和期には老大家とみなされる人物でした。時期こそ異なっているものの、三人はともに「満鮮」旅行に向かい、旅行記を上梓しました。田山花袋の旅行記は「行楽」であり、大町桂月の場合は「遊記」、遅塚麗水の場合は「趣味の旅」です。このような個人的な趣味に基づく慶州への旅が古都慶州のイメージを形成していったのです。

18) 田山花袋『あかしや』聚芳閣 1924.11' p.81

4. 「満鮮」旅行と慶州観光のネットワーク

これまでおもに検討してきた大町桂月『満鮮遊記』や田山花袋『満鮮の行楽』、遅塚麗水『満鮮趣味の旅』は、それぞれ個人の「満鮮」旅行記の体をなして編まれています。そして、それぞれが朝鮮と「満洲」を経巡る観光旅行であり、慶州では新羅の古都としての様相が特筆されており、石窟庵や仏国寺の紹介に始まり、新羅の脱解王が始林を改め鷄林と名づけるにいたった『三国史記』の故事などにおおむね紙面が割かれています。けれども、慶州をめぐる旅行記は、多くの場合、似たり寄ったりの感が拭えないのも事実です。1910年代後半には慶州の観光地化が進んでおり、旅行者を運ぶ鉄道交通網や各地の名所旧蹟のインフラも整備されつつありました。それでは、そうしたなかで日本文学者の「満鮮」旅行と慶州観光は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るのでしょうか。田山花袋『満鮮の行楽』には冒頭に以下のように記されています。

別に変つた観察もないであろうが、兎に角、これが通り一遍の私の満鮮の印象記である。出来ることならば、この一小冊子が縁故となつて、更にその地方の自然や人事に深く浸る機会が出て来れば好いと思つてゐる。満鉄の諸君——中でも高柳將軍には一方ならぬお世話になつてゐる。真山孝治氏にも深く謝意を表したい。大正十三年秋雨の窓にて花袋生。19)

田山花袋はその旅行記を刊行する目的を「この一小冊子が縁故となつて、更にその地方の自然や人事に深く浸る機会が出て来れば好い」と記しており、いわば『満鮮の行楽』は「満鮮」旅行のガイドブックのようなものとして編まれたことが推察できます。さらにいえば、ここで日本の国策会社・南満州鉄道株式会社が挙げられているとおり、田山花袋や大町桂月の「満鮮」旅行は満鉄の招聘によるものでした。朝鮮や「満洲」をめぐるその内容を旅行記にすることで、日本の読者に朝鮮や「満洲」の文化風俗を紹介すること。こうした営為

19) 田山花袋『満鮮の行楽』頁表記無

もまた満鉄や朝鮮総督府の掲げた国策の意図に添う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ちなみに引用文中の「高柳将軍」こと高柳保太郎は、陸軍退役中將でこのときは満鉄の顧問でした。そして重要なことは、田山花袋が朝鮮と「満州」を旅行した1923年に、この高柳保太郎が中心となって満鉄社長室に弘報係が設置されたという事実です。この満鉄弘報係は日本における本格的な広報を専門とする部署の起源だといわれています²⁰⁾。田山花袋がそれを意図したのか否かにかかわらず、満鉄の広報活動と田山花袋の「満鮮」旅行、そしてガイドブック的内容の旅行記『満鮮の行楽』は密に連動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もとより、これほど明瞭でないとはいえ、古都慶州の表象を考える上で、訪れる日本人文学者を迎えるホスト側の在朝鮮日本人のネットワークが無視できない重要な条件であったと思われます。たとえば、大町桂月が慶州古蹟保存会陳列館を訪れた際の文章には次のような箇所があります。

今より千二百二年の昔、法興王の時、仏教始めて新羅に入りけるに、王の舎人なる異次頓、仏教を信じたるが為めに、罪に問はれて斬首に処せられたるが、血にはあらで、白乳迸り出でたりとかや。石斧は多く両方を殺ぎて刃にしたるものなるが、こゝには一方のみを殺ぎたるものを見る。案内せる大坂金太郎氏の言に、『内地にては、出雲地方より出づ』と云へり。又『曲玉は秋風嶺以北には見出されず』と云へり。石斧と曲玉とのみにても、日鮮の關係の古きを見る也。²¹⁾

ここには、その当時慶州公立普通学校校長であった大坂六村こと大坂金太郎の名前が記されています。彼は慶州古蹟保存会に所属しのに慶州博物館館長を務めた人物で、後年日本語作家としてデビューする張赫宙は彼の影響を受けて日本語や歴史に関心を寄せたというエピソードも残されています。また、慶州の市街観光では、朝鮮総督府学務局編纂課に所属しのに京城帝国大学教授となる加藤渥覚が同行しており、大町桂月は「朝鮮総督府の博学」として知られる彼から数々の知識を得ています²²⁾。つまり、大町桂月『満鮮遊

20) ちなみに真山孝治は白馬会に属していた画家で1912年に満鉄に招かれた人物である。

21) 前掲 大町芳衛『満鮮遊記』p.77-8

22) 一例を挙げると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加藤氏曰く『鶏林を朝鮮語にて訓読すれば たくすば也。新羅の枕詞のたくすまは之より出でたるなるべし』と。在来国学者は新羅のしらを白に掛けて たくすまを栲衾と解したり。余も斯く信じたりしが 今加藤氏の説を聞いて 忽ち夢の覚めたる心地す。その鶏林

記』もまた、大坂六村や加藤渥覚らの観光案内なくしては成立しないということです。大町桂月が慶州を訪れた際に観光案内をした大坂六村による『慶州の伝説』（1932.4）には以下のような一節があります。

新羅の旧都慶州は、一面伝説の都だ。其の遺蹟といふ遺蹟には、殆んど伝説のついて居ないものはない。つまり新羅の遺蹟は、伝説によつて保存されて来たやうなものだ。[/] だから若し慶州を訪ふに、此等の伝説を知らずに通つたならば、慶州は単に荒れ果てた瓦石の跡としか思はれないであらう。観る人にとつても、観らるゝ慶州にとつても、遺憾といはねばならぬ。²³⁾

これまで本発表では、おもに日本文学者の「満鮮」観光と古都慶州の表象について考察してきました。1910年代後半から盛んになる「満鮮」旅行は、帝国日本の拡張主義的文化政策として推進された観光事業と密接に繋がっており、多くの日本文学者也「満鮮」旅行に出かけ、その旅行記を記したのです。そこには、「満鮮」観光が日清・日露戦争期の従軍記に端を発するような帝国主義的な心性も窺えました。いわば慶州はこうした「満鮮」観光のなかで朝鮮の古都として発見されたのです。

遅塚麗水や田山花袋の事例のように、日本文学者は慶州の名所旧蹟を訪れそこを日本の古都奈良にたとえました。新羅の古都慶州を奈良と比較するこうした表象行為は、柳宗悦を始め、木下杢太郎や和辻哲郎などさまざまな議論をみることができ、決して単純な問題としては論じられないのですが、他方では、きわめて類型的な表現を共有する旅行記も多々確認できるのです。それは、「満鮮」観光が個人的な趣味に基づく旅行であり、旅行者が古都慶州に日常生活とは異なる本来性を求めたとしても、それが観光旅行である限り、その旅程や名所旧蹟に関する知識を提供するのは観光ガイドブックや現地の案内者であるからです。慶州の田中東洋軒から発行された大坂六村『慶州の伝説』は、そうした現地在住日本人による旅行者のための書籍です。ここで大坂六村は、旅行者が慶州に伝わる伝説を知らずに訪れたとしたら「観る人にとつても、観らるゝ慶州にとつても、遺憾といはねば

今もなほ存す 往いて見たるに 凡そ一町四方もありて 樺 榎 槐などの古木生ひ茂れり」(大町芳衛『満鮮遊記』p.81)。

23) 大坂六村『慶州の伝説』田中東洋軒 1932.4 p.1

ならぬ」と述べています。この意味では、新羅の古都慶州のイメージは観光する側と観光客を受け入れる側との間で相互補完的に形づくられたといってもよいと思われます。

以上で発表を終わります。

식민지 상상 지리 속의 경주

황종연 | 동국대

I. 경주의 재공간화

조선이라는 공간은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조선의 영토에 대한 지배를 확립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에 맞는 새로운 공간을 그 영토 위에 만들어냈다. 그래서 조선은 지리상의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일본제국의 한 변방 지역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경성을 비롯한 일본인 정착민 지구를 중심으로 식민지적 공간의 급속한 팽창을 보았다. 일본인의 이주 촉진, 철도, 항만, 도로 등 교통망의 신설, 통감부시기 이래의 구관 조사와 고적조사, 1912년부터 조선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토지조사, 1914년의 12부 24면의 행정 구역 창설 등과 같은 일련의 관제사업이 추진된 결과, 조선은 종래에 그것이 가지고 있던 편제와 형세, 이미지와 연상물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으며 식민지 통치의 목적에 맞게 측정, 통제, 표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재공간화는 과거에는 조선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장소와 구역을 탄생시키기도 했지만 유서 깊은 장소에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렇게 식민지주의 하에서 면모를 일신한 역사적 장소의 하나가 경주이다.

경주는 신라의 도읍지라는 이유에서 식민지시기 이전에도 관료와 문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16세기 중엽 중종 대에 편수된 『신증 동국여지승람』 「경주부」에는 고려조 및 조선조의 저명한 관료와 문인들이 그곳의 경관과 사적에 흥취를 느껴 지은 시문이 다수 실려 있어서 그곳이 오랜 세월 동안 영남의 명승고적 가운데 하나로 정평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주를 유람한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그곳이 변화하고 아름답기로는 “동남 여러 고을 중에 으뜸”이라고 칭송하는 한편, 그곳으로부터 연상되는 문명의 대업을 종종 유교의 용어로 말했다. 15세

기의 대신 서거정은 경주 소재 누각의 하나인 의풍루(倚風樓)의 중수를 기념해 지은 문장 중에서 신라의 영화를 회고하며 “이것이 바로 당사(唐史)에서 인인(仁人)과 군자(君子)와 시서(詩書)의 나라라고 칭찬한 바”라고 쓰고 있다.¹⁾

경주의 사적을 고려와 조선의 유교문명에 통합시켜 바라보는 태도는 20세기 전반까지 표준적인 경주지(慶州誌) 역할을 했던 『동경잡기 東京雜記』에도 얼마간 암시되어 있다. 1669년 당시 경주부윤이었던 민주면(閔周冕)이 그 지역 유생들과 함께 구래의 『동경지 東京誌』를 보충하여 처음 간행했고 이어 후임 부윤들이 여러 번 보정했으며, 1911년에는 조선광문회에서 연활자본(鉛活字本)으로 출판한 이 사찬읍지(私撰邑誌)는 조선시대 지지(地誌)의 일반 체제에 따라 경주의 역사, 지리, 인물, 고적, 풍속 등을 기술하면서 그 문화가 이색적인 신라 고도로서의 특성보다는 유교적, 관료제적 통치하의 부읍으로서의 풍모를 강조하고 있다. 경주의 역사적 인물들의 약력이나 일화를 기록한 ‘명환 名宦’ ‘인물 人物’ ‘우거 寓居’ ‘과목 科目’ ‘음사 蔭仕’ ‘효행 孝行’ ‘우애 友愛’ ‘충의 忠義’ ‘정렬 貞烈’ 등의 조목은 유교정치와 도덕을 선양하는 편수자의 입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설화들이 말해주듯이 경주는 신비로운 것(神)과 이상한 것(異)의 땅이었지만 역사상의 과거에 대한 유교적 감각은 그 신이의 자취를 정치와 도덕을 위한 교감(教鑑)으로 변안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한시의 주요 장르 중 하나인 영사악부(詠史樂府)를 보면 경주 전설은 종종 이상적인 군주와 신민의 우화로 축소된다. 예컨대 이복휴(李福休 1729~1800)는 경주의 백성들이 “도(道)가 있는 나라”를 세운 박혁거세 왕과 평화와 풍요를 선사한 용의 현신인 왕비 알영(閼英)을 두 성인(二聖)이라고 한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시를 지어 “두 성인이 노니니 백성 중에 옥에 갇힌 자가 없고 두 성인이 즐기니 백성 중에 염려하는 자가 없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노닐(遊)과 즐기(樂)는 요(堯)와 순(舜)처럼 덕치(德治)를 달성한 성스러운 군주의 특징적 행위이다. 이복휴의 신라시편 중에는 박혁거세가 재상 호공(瓠公)을 마한에 사절로 보냈다가 굴욕을 당했으나 그 후 마한의 왕이 죽어 정벌할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침공하는 대신 사절을 보내 조문했다는 일화를 활용해서 그 신라시조의 인간다움을 칭송한 것도 있다. “금마성에 효심의 기가 꽃혔으니 인간다운 사람이 어찌 남의 재난을 행운으로 삼으랴.”²⁾ 이복휴의 「해동악부」에 그려진 신라는 그 시조가 왕도(王道)의 이상을 구현한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1) 『新增東國輿地勝覽』3, 忠淸道·慶尙道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7), 221쪽.

2) “二聖遊民無囚 二聖樂民無愁”(「二聖」), “金馬城頭插孝旗 豈有仁人幸人災”(「瓠公吟」), 李福休, 海東樂府 卷一, 『近畿實學淵源諸賢集』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469-470쪽. 이 장편영사악부의 존재에 주목하게 해준 동료 정환국 교수에게 감사한다.

정도이다.

이 유럽의 명소, 왕도의 시원이라는 경주 이미지는 일본 식민지 지배와 함께 결정적 변화를 맞는다.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린 중대한 사건의 하나가 도쿄제대 공과대학 교원 세키노 다다시(関野貞)의 유명한 고적조사이다. 조교수 재임 중에 공과대학장으로부터 조선건축사연구의 특명을 받은 그는 1902년 8월 서울, 개성, 평양에 이어 경주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고 1909년부터 구(舊)한국정부, 이어 조선총독부의 위촉으로 삼 년간 삼회에 걸쳐 조선 각도의 유물을 조사하면서 다시 경주와 그 일대를 탐방했다.³⁾ 그가 조선반도 왕경(王京)들의 고적에 관한 최초의 조사결과를 정리해서 1904년에 제출한 「조선건축조사보고 朝鮮建築調査報告」중의 경주 관련 항목은 그 지역의 신라시대 유물에 관한, 그 조사의 치밀함과 기술의 상세함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문서이다. 그는 신라시대의 성지(城址), 능묘(陵墓), 사원(寺院)에 중점을 두고 각 유물의 소재, 배치, 의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여러 문헌에 근거하여 유물의 유래와 고사까지 알려주고 있다. 특히 건축, 미술, 공예라는 측면에서 그 유물을 기술함으로써 신라예술이라는 관념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아울러 그것과 동시대 중국 및 일본의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경주의 신라 유물에 관한 세키노의 보고는 그 장소를 동양미술의 전당으로 표상하는 새로운 관행에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미술사가 나가 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조선 경주의 미술 朝鮮慶州之美術』(1929)을 비롯하여 불교미술유적과 결부시켜 경주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한 일본인의 저서는 공통으로 세키노의 논문을 그 주된 전거로 삼았다.

II. 일선동원의 상상 지리와 경주

세키노의 조사에 의해 경주의 고적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어 1909년 토함산의 석굴(石窟)이 발견되자 경주는 식민지 당국으로부터 각별한 주의를 끌게 된다. 통감부시기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는 1902년에 불국사, 1909년에 석굴암을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역시 1911년과 1912년 두 차례 경주를 순시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골동취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식민지의 유물 수집과 전시를 통한 제국의 헤게모니적 권위

3) 関野貞, 『朝鮮の建築と芸術』(岩波書店, 1941), 576쪽, 西川宏,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学の形成」, 『朝鮮史研究会論文集』7, 1970, 98-100, 102쪽.

창출의 효과를 알고 있었던 테라우치는 경주의 고적보존에 관심을 보여 1912년의 순시 직후 석굴암중수공사를 지시했다. 이 공사결정을 계기로 경주에는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라는 이름의 일본인과 조선인 연합 민간단체가 출현한다. 당시 경상북도 지사였던 조선인 이진호(李珍鎬)를 회장으로 1913년 5월에 창설된 이 단체는 총독부의 고적보존정책에 대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경주 고적의 관리권과 이용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 단체의 설립취지서에 첨부된 사업시행대요를 보면 고적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놓고 그 보존에 기여하기를 자임하고 있으며 산일(散逸)될 우려가 있는 유물은 수집하여 진열관에 보존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⁴⁾ 경주고적보존회는 경주면 동부리에 있었던 경주부윤 청사(廳舍)에 보통 경주박물관이라고 불린 진열관을 설치하고 신라의 사대보물의 하나로 통하던 봉덕사 종과 그 종각을 비롯한 많은 유물을 전시했으며 또한 『신라구도경주고적안내 新羅旧都慶州古蹟案内』『경주고적도회 慶州古蹟圖集』『경주고와보 慶州古瓦譜』『취미의 경주 趣味の慶州』『경주의 금관총 慶州の金冠塚』 등의 도서와 경주고적 그림엽서를 발간했다.

이 경주고적보존회는 경주의 재공간화와 관련하여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및 경주 민간사회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협력해서 운영한 것 같지만 실은 일본인 정착민 집단의 주재 하에 있었던 이 단체는 경주라는 공간을 식민지주의의 목적에 합치되는 형태로 이해하고 표상했다. 이 단체의 일본인 임원들이 경주고적이라고 간주한 것은 과거의 조선인이 그곳에 정착하여 대대로 영위한 문화적인 삶의 유산들의 온전한 재현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의 통치체급이 경주라는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 교섭하며 생활한 자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경주의 조선시대 유적이라고 하면 고작 옥산서원(玉山書院) 정도가 그들이 인정한 고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축소하는 한편 신라와 일본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는 유물에 주의를 기울여 경주의 고적을 소개했다. 그들의 경주 이야기는 그곳의 종족, 정체, 문화에 일본이 영향을 미친 흔적에 관한 말을 빠뜨리는 법이 없다. 예컨대 박혁거세를 보필하여 건국의 기초를 단단하게 했다는 왜인 호공(瓠公)의 전설과 사적은 제3대 경주박물관장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를 비롯한 일본인 경주지 편찬자들이 즐겨 취급한 소재였다.⁵⁾ 이렇게 보면 그들이 설립한 박물관이야말로 식민지주의적 환상과 결부된 경주의 재공간화를 상징하는 기구가 아닐 수 없다. 조선과 일본의 민족적, 문화적 경계가 불확실한 고대의 물품에 편중해서 신라의

4) 奥田悌, 『新羅舊都 慶州誌』(大邱: 玉村書店, 1920), 85-92쪽.

5) 大坂六村[大坂金太郎], 『趣味の慶州』(慶州: 慶州古蹟保存會, 1931), 138-143쪽.

유물을 분류하고 전시한 그 박물관은 경주라는 공간을 이른바 일선동원(日鮮同源)의 상상 지리 속에서 생각하도록 고무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고대에 있어서 신라와 일본의 근친관계라는 생각은 사실 일본인들 사이에 경주고적에 비상한 관심이 일어나게 만든 일차적인 이유였다. 일본 동양사학의 초창기 학자들이 古代朝鮮 연구에 착수한 119세기 후반부터 야마토(大和)민족의 조선반도 경략(經略)은 그들의 신라 이해를 위한 기본 가설이었다. 최초의 신라통사를 저술한 일본인 학자는 일본측 사료를 구국의 참조 기준으로 하는 고증과 추리를 통해 신라왕계의 박·석·김 삼성(三姓)이 모두 왜인혈통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신라정벌설 등을 부연하며 신라에 대한 일본 조정의 지배를 부각시켰다.⁶⁾ 일본인 식민지주의자들은 신라를 가지고 마치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당대 조선의 전형상(前形象)처럼 취급했다. 조선총독부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예술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야마토조정에 의한 신라 복속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반응했다.⁷⁾

재조일본인이 작성한 경주지에서도 식민지주의적 담론 방식은 그 지역에 관한 설명의 기초가 되었다. 1010년대에 경주군청 주석(主席) 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기무라 시즈오(木村靜雄)가 지은 최초의 일본어 경주지가 그 전형이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가 경주 고적과 관련하여 추천한 적도 있는 이 책은 신라의 구도(舊都)로서의 경주에 관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지리, 역사, 유적의 세 주제 아래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인의 진출과 경영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지리 부분을 보면 경주의 위치와 지세에 관한 약술에 이어 왜인이 병사를 일으켜 “다섯 길(五道)”로부터 신라를 침략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에서 촉발된 지지학적 추리가 전개되고 있다. 저자는 그 다섯 경로를 지명상으로 추정한 다음 그 하나하나를, 진구황후 파견군의 진입노선에 관한 상상, 임진란 때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행군노선에 관한 참조를 섞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역사 부분에 이르면 일본 본위의 설명은 더욱 현저하다. 저자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가 다카노 아마하라(高天原)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자 신라국으로 내려와 거주하다가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이즈모노쿠니(出雲国)에 이르렀다는 『일본서기』 소재 신화에 따라 그가 머문 ‘소시모리의 땅(曾尸茂梨の地)’이 바로 경주이며 이즈모노쿠니와 면한 동해의 땅은 전부 일본민족이 점거한 땅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라의 건국은 일본민족이 진한족과 잡거하여 건립한 왕조의 문명 계통을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6) 福田芳之助, 『新羅史』(京都: 若林春和堂, 1913), 18-28쪽.

7) 「慶州ノ古蹟ニ就イテ」, 『朝鮮總督府月報』 第二卷 第十一号, 1912

8) 木村靜雄, 『慶州誌』(大邱: 大邱印刷合資會社, 1912), 2-13쪽. 이 책은 기무라 개인의 저술이면서 경주군 관찬지의

총독부의 주도 아래 신라 유물에 관한 조사가 확대되어 세키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구로 이타 가쓰미(黑板勝美),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 등이 황남리(皇南里)를 비롯한 여러 곳의 고분을 발굴하고 있던 1910년대에 경주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19년 현재 경주면 총인구는 6,366명(조선인 5,732명 일본인 634명)으로 같은 해 대구부의 총인구 47,212명(조선인 28,609명 일본인 12,603명)의 약 7분의 1에 해당한다. 1929년에 이르면 경주 인구는 약 세 배 증가해서 17,051명(조선인 16,296명 일본인 755명)이 되지만 대구 인구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 같은 해 11,482명(조선인 66,092명 일본인 28,090명)에 달한다. 그러나 1920년대를 거치는 동안 경주는 이미지와 상징의 공간으로서 대구보다 훨씬 높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그곳은 조선반도의 경관, 유적, 풍속을 취미의 대상으로 만드는 관광여행의 발흥에 따라 일본인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석굴암 중수 이후 경주와 그 일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1918년 무렵에는 대구-경주, 경주-포항, 경주-(불국사)-울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또한 사철(私鐵) 조선철도회사가 직영한 토함산록의 불국사여관(일명, 불국사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도 들어서서 그 황량한 도읍지는 일약 관광의 명소로 변모했다.⁹⁾

조선철도의 여행노선을 따라, 경주고적보존회의 안내를 받아 경주를 유람한 일본인들에게 그곳은 있는 그대로의 경주라기보다 제국 일본의 정치적, 미적 관심에 따라 이미 개발되고 해석되고 표상된 경주였다. 그 지형에 있어서 경주와 나라(奈良)의 유사성에 주목한 세키노, 불국사로 가는 길에 “마치 나라의 자연과 같이 역사적 배경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떠올린 야나기를 시작으로, 일본인 여행자들은 그들의 향수를 하염없이 자극하는 고대의 잔상에 초점을 맞춰 경주를 보고 느꼈다.¹⁰⁾ 그들의 여행을 통해 그 천년의 고도는 조선인의 특수한 삶이 각인된 특수한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상고적, 심미적 의식을 위한 공간으로 정착되었다. (이 변형의 한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1932년과 1938년 두 차례 경주를 방문한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의 여행기이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수 이진호의 휘호로 제목과 '동도유사 東都遺事'라는 제사가 붙여진 이 책의 서문은 사사키 쇼타(佐々木正太)라는 인물이 썼는데 기무라는 사사키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책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기무라가 경주군청 주석서기였다는 것은 오사카 로쿠손(大坂六村)의 『趣味の慶州』중의 기록(105면)으로 확인된다. 사사키는 이광수의 「오도답파기」에 경주군청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다.

9) 奥田梯, 前掲書, 278-279쪽, 『朝鮮鐵道旅行便覽』(朝鮮總督府, 1923), 22-33쪽, 大木春三, 『趣味の朝鮮の旅』(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27), 204-212, 219-234쪽.

10) 경주와 나라의 유사성이 일본인의 경주론에서 정설로 통했던 것은 아니다. 불교미술과 같은 특수한 사항으로 들어가면 고대에 있어서 경주와 나라, 조선과 일본의 유사 관계는 논란거리가 된다. 남부진은 한국과 일본의 고대 불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주와 나라를 둘러싼 일본인들의 담론 차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그 차이를 조선과 일본 사이의 동화와 차별의 대극적 논리와 연관시키고 있다. 南富籤, 「慶州と奈良のあいだ」, 『文学の植民地主義』(世界思想社, 2006), 225-250쪽.

다.) 일본인에 의한 경주의 재편과 표상은 조선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그 역사적 장소에서 자기인식과 자기개조를 위한 새로운 상징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조선인에게 가능하게 만든 동시에 그 성질과 판도를 제약한 조건이었다.

III. 조선인 작가의 두 경주관 - 현진건과 이태준

1. 현진건의 「고도순례-경주」

조선 지식인들은 늦어도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이 놓은 철도와 가로를 따라 탐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1920년 무렵에는 경주수학여행이라는, 작금까지도 한국의 일부 중등학교에 남아 있는 관례 행사가 조선인 설립학교 사이에 만들어졌다.¹¹⁾ 1920년대에 들어 조선어 신문과 잡지가 조선민족 문화유산을 주요 화제로 삼으면서 경주에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한 고적은 일본인의 지배하에서 문명이 낙후된 민족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고 선조의 역사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허약함을 느끼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과 긍지를 주었다. 시기상으로 앞선 조선어 경주여행기 중 하나인 권덕규(權惠奎 1890~1950)의 「경주행 慶州行」은 민족의식을 진작하는 제식의 일종으로서의 경주순례의 한 예를 보여준다. 훗날 조선어학회에 참가하게 되는 조선언문의 권위인 저자는 기차가 경주역에 도착하기까지 향찰식으로 표기된 한자지명으로부터 ‘순조선어’ 이름을 복구하는 어학적 추리를 제시한다. 이 순수한 형태의 조선어라는 가설은 그의 경주행이 단지 과거에 멸망한 왕국의 수도를 유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의 침입 이전에 존재했다고 가정되는 조선고유문화의 시원을 만나러 가는 것임을 암시한다. 저자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이 부족하여 신라의 문물을 후대에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선조를 비난하고 신라유적의 ‘괴이’함을 조선고유의 언어와 역사에 비추어 해명하면서 신라인의 예술유산에 담긴 ‘대국(大國)의 이상’을 찬양하고 있다.¹²⁾

조선인 작가의 경주기행 중에 가장 유명한 현진건의 「고도순례-경주」는 그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던 1929년 7월에 경주고적을 탐사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성지순례를

11) 조선어학자 이중화(李重華 1881~1950)는 1918년과 1920년에 그가 근무하고 있던 배재학당 학적자로 짐작되는 일군의 학생을 인솔하고 경주를 답사했고 그 결과로 『경주기행』(경성: 제일상회, 1922)을 엮어냈다.

12) 권덕규, 「경주행」, 『개벽』, 1920. 12, 67, 71쪽.

하는 마음으로 경주를 찾아간 다른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자아의 발견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경부선 열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순례는 조선민족이라는 관념에 비추어 신라의 신비와 이적을 해독하는 학구적 답사와 다소 격식을 달리한다. “속임 없는 산하의 모양을 보아 우리 조상의 포부를 내 멋대로 상상해보고 뚜렷이 나타난 유적을 어루만지며 내 가슴에 뛰는 피 소리를 고요히 들어보자”는 일절이 말해주듯이¹³⁾ 그는 경주의 자연 경관과 문화 유적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신라인과의 내면적 일치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의 경주체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미적이다. 그는 대구에서 자동차를 타고 서악(西岳)을 넘자 경주 분지의 평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졸졸거리는 시냇물을 따라오다가 별안간 큰 바다를 만날 때의 느낌”을 떠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어쩌면 신라인이 느꼈을 법한 방식으로 그 장소를 느끼려고 한다.

현진건의 순례는 미적체험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야나기, 야스다, 고바야시 히데오 등 일본인의 여행과 비슷하다. 신라예술의 유적에 대한 그의 반응은 단편적이고 산만하지만 조선인의 경주기행에서는 전례가 없는 감응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공예품과 건축물의 경이로움에 주목하면서 감각적으로 풍부하고 세련된 신라인의 삶을 생각한다. 임해전지(臨海殿址)에서는 “오리리리한 금관을 쓰신 임금” 앞에서 호화로운 의전과 무악이 펼쳐지는 궁정문화를, 불국사의 석계 앞에서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달빛 긴 바닷가에서 그림배를 저어가는 청춘남녀의 광경”을 연상한다. 특히 그는 예술이 숭상되어 거룩함을 띠고 정치와 종교를 대항하기까지 했던 시대를 공상한다. 노란색과 푸른색의 옥적(玉笛)을 보고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전설을 상기하며 악기로 “병란과 풍우”를 다스린 “옛날의 풍정에 감동을 토로하고, 어느 공인의 아이가 동(銅)과 함께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까닭에 특별히 청아한 소리가 난다는 봉덕사의 종 앞에서는 “예술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는 풍속이 없지 않았던 것을 추측”한다.¹⁴⁾ 그가 경주의 고적을 대하는 태도는 낭만적 예술가가 고대의 잔해를 접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그의 몽상과 동경 속에서 경주는 인간의 정열이 예술적으로 승화됨으로써 생겨난 세속 너머의 어떤 세계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진건의 미의 순례는 피식민지 조선인의 세속적 감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경주여행의 첫날 밤 “마치 천년 고도의 혼이 부르는 사람 모양으로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겨” 어둠 속을 걷다가 경주가 “위대한 죽음”의 벌판임을 불현듯 깨닫는다. “정말 모든 것이 죽은 듯하다. 구름이 흐르는 서쪽 하늘가엔 초생달이 으스스레 비친 모습도 죽음을 우는 눈동자인

13) 현진건, 「고도순례—경주」, 『현진건문학전집』 6 (서울: 국학자료원, 2006), 176쪽.

14) 위의 책, 188, 192, 181-184쪽.

듯, 불꽃을 흠으며 나르는 먼지도 귀화(鬼火)인 듯. 가물가물한 안개가 길길이 끼인 사이에 우뚝 우뚝 떠오른 첩첩한 무덤은 얼마나 쓸쓸하고! 쌓이고 쌓인 죽음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의 산 목숨인 나의 숨도 막힐 듯하다.”¹⁵⁾ 그는 신라의 유물이라는 “시체”를 밟고 과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자주국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당대의 조선민족에게 어떻게 정치적, 문화적 갱생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현진건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그가 치술령(鴉述嶺) 전설에 이르러 박제상(朴堤上)의 일화를 유독 상세하게 시조 네 연까지 붙여가며 부연한 것은 다분히 암시적이다. 그는 왜왕의 유혹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신화로 죽기를 택한 박제상의 의기를 찬양하는 가운데 민족적 동일성의 확립이 조선인에게 갱생의 약속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경주의 고적에서 느낀 심미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고대왕국은 그의 역사소설 『무영탑』에서 신라 ‘풍월’의 낭만적 세계로 구체화된다.¹⁶⁾

2. 이태준의 「석양」

이태준의 「석양」(1942)은 종래의 일본인 및 조선인 여행기에 종종 보이는 경주의 이미지, 즉 폐허로서의 이미지를 세련된 형태로 제시한다. 이 단편에서 경주는 어느 여름 그곳에 구경하러 들린 매헌이라는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깊은 연관 하에서 의미를 산출한다. 성별, 연령, 직업, 취미 등 여러 면에서 저자를 연상시키는 매헌은 비교적 성공한 직업작가이나 중년에 들어 세상 살이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 그가 경주에 들렀다가 타옥(陀玉)이라는 젊은 여자를 만나 시작하게 되는 교제는 그의 낭만적 정열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젊음이 사라졌다는 서글픈 각성을 부추긴다. 퇴폐와 몰락의 운명이 자신에게 닥쳤음을 느끼고 있는 그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고분인 오릉(五陵)에 특별한 애착을 드러낸다. 타옥이 오릉을 형용해서 ‘니힐’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후 그가 정겹게 느낀 경주의 경관과 고적의 인상을 묘사하는 데에는 그 단어가 키워드로 쓰인다. 그는 경주여행 중에 오릉과 느낌이 다른 고적, 예컨대 “정력적인 미의 압도를” 느끼게 하는 석굴암의 불상을 만나지만 그에게 경주의 정취를 대표하는 것은 오릉, 그리고 그의 눈앞에 오릉과 유사한 풍경으로 다가온, 영지(影池)이다. 따라서 경주는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

15) 위의 책, 191쪽.

16) 신라의 상상과 관련한 『무영탑』 논고로는 좋고, 「신라의 발견—근대 한국의 민족적 상상물의 식민지적 기원」, 황종연 엮음, 『신라의 발견』 (동국대 출판부, 2008), 24-34쪽 참조.

든 허무감, 그것의 객관적 상관물인 셈이다.

매현이 오릉과 영지에서 받은 특별한 인상의 감각적 특징은 그 소박함과 유장함을 느끼게 하는 선(線)이다. 오릉이 “볼수록 그윽함에 사무치게 한다”고 경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능이라 하기엔 너무 소박한 그냥 흙의 모습이다. 무덤이라 하기엔 선에 너무 애착이 간다. 무지개가 솟듯 땅에서 일어 땅으로 가 잠긴 선들이면서 무궁한 공간으로 흘러간 맛이다.”¹⁷⁾ 이렇듯 선의 형태에 집중해서 오릉을 관상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과 예술가 사이에서는 그리 별스럽지 않은 미적 태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나기는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석굴암에서 버선에 이르는 가지가지 조선의 조형물에서 선의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조선예술의 특징을 선의 미로 정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야나기가 선의 미를 비애의 미라고 부르면서 조선인의 불우한 역사와 연관지는 반면, 이태준은 매현으로 하여금 오릉과 영지에서 조선인의 고난보다도 인생 보편의 허무를 떠올리게 한다. 매현의 미적 감각은 그 계통을 따지면 무상(無常)의 경험을 중시한 아시아 종교와 예술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1930년대 후반의 이태준이 서화골동을 벗어나며 ‘동방정취’를 지지한 미학상의 동양주의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석양」에서 신라문화는 조선민족의 독자적 문화의 원형처럼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 오릉과 영지가 경주의 중심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은 재삼 주목을 요한다. 오릉은 신라의 시조왕과 왕비, 그리고 세 명의 왕의 능묘인 만큼 신라의 기원을 추념하게 하는 곳이면서 또한 신라와 일본 사이에 얽힌 역사를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박혁거세는 그 박이 신라초대의 중신(重臣)이었던 왜인 호공의 호와 같은 뜻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왜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방으로부터 도래한 인물이라는 설이 식민지시기에는 유력했다.¹⁸⁾ 영지로 말하면 그곳은 불국사 석가탑(일명 무영탑) 전설 속의 아사녀가 불국사 석탑 건립을 위해 불려온 한 석공과 재회하려고 경주로 왔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빠져 죽은 연못이다. 현진건이 그 석공과 아사녀를 백제인으로 설정하고 창작한 『무영탑』이 그 설화의 전승 역할을 도맡다시피 하는 바람에 잊혀지고 말았지만, 18세기 중엽의 사지『불국사고금역대기 佛國寺古今歷代記』를 비롯한, 그 소설보다 믿을 만한 문헌들에는 석공과 아사녀

17) 이태준, 「석양」, 『이태준전집』2 (깊은샘, 1988), 123쪽.

18) 식민지시기 일본인이 박혁거세 왜인설을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박혁거세의 탄생담이 기록된 『삼국사기』 「신라본기 新羅本紀」 제1조의 한 구절이다. 민주면이 편수한 『동경잡기』에도 같은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진한 사람은 호(瓠)를 일러 박(朴)이라 하는데 크기로는 그 알이 박(瓠)만 했으므로 박(朴)으로 성을 삼았다 (辰人謂瓠爲朴, 以大卵如瓠, 以朴爲姓).” 『東京雜記』卷之二, 古蹟 (朝鮮光文會, 1911), 5쪽.

모두 원래 당나라 사람이며 아사녀는 석공의 누이동생 또는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컨대, 「석양」의 경주 표상에 가장 중요한 두 장소는 모두 민족과 문화에 있어서 순일하다기보다 혼합적인 고대조선의 표지이다. 이태준은 미학상의 동양주의자답게 경주를 인도, 중국, 일본, 조선을 포괄하는 상상의 동양 속의 한 공간으로 정치(定置)한다.

매현이 경주 유람에 나선 첫날 우연히 만난 타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고도의 동방정취를 느낄 줄 알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처음에 미목이 수려하고 교양이 있는 도회 여성의 풍모 때문에 매현의 주의를 끌었지만 오룡의 정취를 함께 느낀 이후 점점 매현에게는 생동하는 동양의 화신으로 보이게 된다. 매현은 천진하고 발랄한 그녀의 언행에서 “자연 그대로의 태도”를 느끼는가 하면, 그녀가 수영을 하려고 개천에 뛰어들기 직전, 그녀의 나체에서 “그 신비한 곡선들의 오룡 속에서 튀어나온 요정”을 본다. 무상의 정취를 그와 공유하고 있는 그녀의 매력에 깊이 끌려들면서 그는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녀와의 조우로부터 일 년 여가 지난 가을 다시 경주를 찾아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애욕이 사악한 것임을 깨닫는다. ‘진정한 타옥’, 즉 그 이름에 있어서 이미 붓대(佛陀)의 구슬(玉)---붓다적 각성의 보화---인 그녀의 면전에서 그는 자신의 ‘사념(邪念)’이 뿌리째 뽑혀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들이 석굴암을 찾아가 그 예술에 감동하는 장면에서 매현은 그녀를 석벽에 새겨진 십일면관음보살과 동일시하며 ‘숭고한 영원의 여성’으로 간주한다.¹⁹⁾

현진건은 그의 경주기행에서 신라의 시체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석양」은 마치 그 물음에 대한 응답처럼 들린다. ‘오룡 속에서 튀어나온 요정’으로 묘사된 타옥은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느낌을 준다. 그녀의 마음이 옛되고 풋풋한 그녀의 몸과 대조적으로 ‘니힐’과 ‘고독’의 정조에 젖어 있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와의 사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현이 그녀를 처음 만난 시점으로부터 만 이 년전에 어머니를 여윈 그녀는 오룡의 ‘니힐’한 정취에 호감을 드러낸 발언 이외의 여러 대목에서 죽음의 관념에 결박된 심리 상태를 내비친다. 불국사호텔에서 매현과 함께 영지의 풍경을 감상하면서는 그곳에 빠져 죽은 아사녀의 전설을 떠올리고, 오후 호텔의 객실에서 꿈 없는 잠을 자고나서는 죽음이란 그러한 잠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는 직감을 토로한다. 짐작컨대,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또는 죽음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 교토 도시사대학 영문과 학업을 중단한 이후 아버지의 골동품점 관리를 대신하며 경주에 머물며 무상의 감상에 탐닉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허무주의의 영원한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은

19) 이태준, 앞의 책, 126, 134~135쪽.

아니다. 매현의 의식 속에서 '관음보살'로까지 존엄화된 그녀는 그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흥미롭게도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가진 재회의 장면에서 무상의 비애를 통과하고 생기를 회복한 청년의 모습을 보인다. 그녀가 매현이 잠든 사이 그를 떠나며 남긴 편지는 그녀가 최근에 누군가와 약혼하고 장래의 삶에 기대를 품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석양」은 매현의 의식 속에서 한편으로는 무상의 직관을 철저화한 체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적인 것의 신생이라는 비전의 일단을 내보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태준이 경주의 풍경과 애욕의 초월을 겹쳐 상상하고 있을 무렵 동양 또는 아시아는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적, 軍事的 모험을 정당화하는 이념이었다. 특히, 조선의 많은 지식인 사이에서 그것은 조선인의 생존과 번영에 일본인으로서의 동화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공고히 하는 작용을 했다. 이태준의 동양주의는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의 갱신에 복무한 아시아의 이념과 은밀하게 타협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매현의 심경을 지배하는 무상의 정조는 당시에 예술과 종교에 있어서의 동양적인 특질의 수준을 넘어 멸사(滅私)와 순국(殉國)을 찬양하는 정치화한 미학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더욱이 타옥으로 상징된 신생하는 동양은 '내선일체'의 실현을 포함한다는 암시마저 있다. '무서운 맛이 아주 없음 무슨 맛이게요'라는 발언에 드러난 그녀의 분방하고 모험적인 기질, 어머니의 이해와 유언 덕에 그녀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그녀가 향유하고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가 불확실한 고대신라의 전설과 유적 등은 그녀가 '동경으로부터 오는' '그이'라고 모호하게 지칭한 약혼자가 일본인인지 모른다는 추정을 부추긴다. 「석양」의 경주 표상이 동화주의에의 승복을 나타낸다는 의심은 그것이 비록 조선어작품이긴 하나 황민화 정책에 동조한 문예지 『국민문학』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그리 무리한 것은 아니다. 경주의 폐허를 보고 1920년대 현진건이 조선인의 민족적 자각을 고취한 반면, 1940년대의 이태준은 조선인의 차이를 동양인 속으로 해소한다. 경주라는 식민지적 공간을 조선인 작가들이 체험하고 표상한 결과는 그들의 정치적, 미적 의식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를 압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폐허의 고도와 창조된 신도(神都)

허병식 | 동국대

1. '백제'라는 몰락과 상실의 표상

작가 김소진의 첫 창작집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93)에는 「임존성(任存城)가는 길」이라는 단편이 실려 있다.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임존성을 소재로 한 기사를 실었다가 필화를 겪고 해직당한 경험이 있는 신문사 선배 한기돈의 실종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백제유민의 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몰락과 상실의 표상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아우르는 원초적인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매천 황현의 절명시로 상징되는 구한말 조선의 국권상실,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이에 이어지는 언론탄압,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결국 한 위원의 실종을 불러온 9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쇠퇴와 후일담으로 전락한 민족문학의 위기가 그것이다. “지금은 任存城에 가도 아무도 님을 만날 수가 없다.”¹⁾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한기돈의 기사에서 그 ‘님’이 표상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갱생의 희망을 이어가는 민족의 이미지임은 작품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백제라는 표상이 몰락과 상실의 순간마다 애뜻한 회고와 감상으로 과거로부터 불러나오는 사라진 고대왕국의 전형이라는 점은 「임존성(任存城)가는 길」의 독자가 작품의 서사와 함께 공감하는 대목일 것이다.

한편으로 이 작품에서 한기돈 위원이 임존성(任存城)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 역사기행의 한 대목은 조금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1) 김소진, 「임존성(任存城)가는 길」,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숲, 1993, 245쪽.

그러면 '任存城'이란 어떠한 뜻이 있는 걸일까?

600년 7월에 나당군에 의하여 사비성이 함락한 뒤 西部恩率인 복신이 임존성을 근거로 하여 항쟁한 사실에 대하여 『日本書紀』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於 是西部恩率 鬼室福信赫然憤據任射岐山(이에 서부은솔인 귀실복신이 임사기산을 근거로 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 책 『大系本』의 註에 의하면 어느 寫本에는 '任射岐山' 대신 '任射利山' 이나 '任劔山'이라고 쓴 것도 있다고 하였다.²⁾

위의 인용은 한기돈이 자신의 역사기행에서 임존성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존성의 존재를 알리는 최초의 기록이 『일본서기』였다는 점을 다소 무심한 듯 들려주고 있다. 신군부의 폭압 아래 무참히 짓밟혀간 광주 민중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이 백제유민의 항쟁, 민족의 부흥을 위한 투쟁의 성스러운 장소의 기원이 『일본서기』라는 점은 조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백제라는 표상 속에 자리잡은 모순적인 이미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는 백제를 둘러싼 역사의 사실(史實)들과 그에 대한 해석의 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조해낸 것일 터이다.

이 글은 백제를 둘러싼 표상이 근대에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을 그 대표적 고도인 부여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2. 폐허의 고도

부여는 백제 멸망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망각된 고도(古都)였다. 부여에는 정립사지와 여러 성터의 흔적,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고분 외에 백제의 고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적(古蹟)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수도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기에, 부여는 오래도록 지방의 한 소읍으로 머물러 있었다. 부여는 경주와 같이 다수의 유적이 남아 있는 것도, 평양처럼 근래

2) 위의 책, 255쪽.

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도시로서 기능해 온 것도 아닌, 역사적으로 변방에 지나지 않는 지역이었다. 부여의 인구는 구한말 무렵의 호적표에 327호, 1441인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침체했던 소읍이었다.³⁾

1909년 통감부 탁지부 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는 도쿄 제국대학의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야쓰이 사이이치(谷井濟一) 등에게 의뢰하여 조선 각지의 고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부여에서 단 이틀을 머물렀을 뿐이고, 아무런 고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⁴⁾ 1915년에 백제의 수도인 부여와 공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세키노 다다시는 부여 능산리에 백제 왕릉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현지를 답사하여 6기의 고분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동경제국대학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이 가운데 가장 큰 중앙 고분(중하총)과 그 아래 고분을 발굴하였다.⁵⁾ 그러나 이 발굴이 고도로서 부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고히라 니조(小原新三)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부여8경을 디오라마로 제작하여 출품한 것이 부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한 바가 더 컸다. 나라현(奈良縣)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백제의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백제의 사적(事蹟)과 부여의 명소구적(名所舊蹟)』을 집필할 정도로 백제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고히라 니조의 관심은 백제가 아스카(飛鳥)-나라(奈良) 문화와 대단히 밀접하다는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⁶⁾

식민지 시기에 부여를 여행하고 남긴 기록중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병기의 「夫餘行」이다. 1926년 11월 5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이 기행문의 첫 장인 '1. 百濟王陵에서'의 첫머리에 서, 이병기는 백제왕릉을 돌아본 소회를 시조로 남기면서 먼저 왕릉의 발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王陵은 夫餘面陵山里에 있는데 自來로 百濟王陵이라일컫는것을 黑板, 關野 二博士가 發掘하여 그 雄大한 構造와 珍貴한 遺品을 보고 百濟王陵으로 斷定하였다.”⁷⁾는 대목이 그것이다. 세키노 다다시와 구로이타 가쓰미의 발굴의 결과에 의존해서 부여의 명소를 돌아보고 “地下에 가신님을 차즌듯 보라미는/계시든 곳이라니 흙내라도 마타보려/나제도 촛불을 혀어 기픈굴을 드나니”라는 시조를 남긴 이병기는 다음 순서로 부소산의 기록을 전하고 있다.

3) 손정목, 「日帝下 扶餘神宮 造營과 소위 扶餘神都建設」, 『한국학보』 49호, 1987, 138쪽.

4) 최석영, 「일제의 강점상황과 부여의 '관광명소'화의 맥락」, 『인문과학논문집』 제35집, 2002, 136쪽.

5)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42쪽.

6) 최석영, 위와 동일함.

7) 이병기 「扶餘行」, 『동아일보』 1926년 11월 5일.

2. 扶蘇山에서

平濟塔은 夫餘邑아페서잇는 花岡石 五層塔인데 奇拔雄建한 南鮮의 最大藝術品으로 本來 百濟古刹의 遺物이라 한다. 唐과 新羅의 聯合軍이 千二百六十餘年 前에 百濟를 討平하고 唐將 蘇定方이 그 功績을 이 塔에 새겼스나 百濟後民이 그 祖上의 손에 된 것이라하여왔거 그대로 保存하여왔고 劉仁願碑는 夫餘邑 뒤 扶蘇山위에 서잇는데 이것은 蘇定方과 가치왔든 唐將 劉仁願이 都督이 되어 머물러 잇다가 얼마 안되어 百濟將 福信과 王子 夫餘豐이 百濟復興을 圖謀함을 鎮定하고 그 事實을 記錄한 것인데 百濟後民이 그 後 쪽여버렸든것을 大正六年 總督府에서 碑쪽을 차지부치고 碑閣을 세웠다.

이어이 문힐느냐 남의 손에 싸힌 塔을

이아니 쪽일느냐 나를 해혀 세운 碑를

지금에 또다시세니 그누구를 위함인고⁸⁾

백제를 평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이 세운 비석인 평제탑과 당의 장수 유인원의 비석을 둘러싼 일화를 전달하고 나서 이병기가 들려주는 시조에는 부여 유적의 역사에 대한 비애와 함께 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은근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산견되는 백제와 부여의 이미지는 쇠망한 고대왕국의 그것이고, 몰락한 역사의 한 장면에 대한 회한의 정조가 자동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1935년 『개벽』 신간 3호와 4호에 연재된 박노철(朴魯哲)의 「泗泚古都觀禮」에는 백제의 고도를 노래한 조선시대의 시인묵객들이 남긴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정조 또한 그러하며, 그것이 1920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빛』 1928년 8월호에 수록되어 있는 박노철(朴魯哲)의 연작 시조 「백제고도기행(百濟古都紀行)」이라든가 『동광』 1931년 9월호에 발표된 김설강(金雪崗)의 시조 「부여행(扶餘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阜蘭寺 종소리에 갈가마귀 울고 간다/三忠碑 찾아가서 옛일을 묵상하고/天政臺 松林 속에서 가슴 치고 울리라.”⁹⁾라는 연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여 각지의 유적-폐허를 답사하면서 잊혀진 고대 왕국의 영욕성쇠(榮辱盛衰)를 추억하고 무상함의 비애를 노래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한 시대를 복원하고 있다.

8) 이병기, 앞과 동일함.

9) 김설강, 「夫餘行」, 『동광』 제25호, 1931년 9월.

3. 부여의 근대

부여라는 도시에 대한 근대적 이미지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을 전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요한 계기로는 1915년 발족된 부여고적보존회가 1929년 재단법인으로 변경된 것을 들 수 있다. 부여고적보존회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며 낸 진정서에 따르면, 백제가 일본과 관련이 깊은 땅이며, 일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 등을 거론하며 부여의 사적명승에 대한 보존을 통해 내선일체의 강화를 꾀하는 논리를 엮을 수 있다.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사(關係史)를 나타내는 고적의 보존, 유물의 수집, 고적유물 조사 및 연구·발표, 관람자 편의를 위한 제반 설비의 정비 등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외지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일대의 고적을 개보수하며, 부여의 유래와 고적, 명승지 등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식의 노력을 경주하였다.¹⁰⁾

또한 1929년을 전후한 시기에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는 일제히 부여에 관한 특집 기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28년 9월의 기사는 부여고적보존회가 재단법인으로 변경됨과 부여박물관이 설립됨을 알리고 있다.

忠南夫餘는 百濟의 古都로서 附近은 史實的 遺蹟이 豊富하여 至今에도 城址에서는 兵馬에 沾染한 當時의 米麥이 發掘되는터이다. 이 由緒있는 古蹟을 保存하기 爲하여 同地에는 古蹟保存會가 잇서 겨우 그 散逸을 防止하고 잇스나 거의 이름만이오 何等 保存研究의 施設을 가지 안헛슴으로 年年이 荒廢되고 그 面影조차 업서지게 되었슴으로 總督府 古蹟調査會에서는 자못 遺憾이라하여 여러 가지로 斡旋한 結果 今番에 補助金을 交附하여 同保存會를 財團法人으로하는 同時에 同塘無量寺 境內에 博物館을 建立하게 되었는데 만일 이 博物館이 建立되는 時에는 新羅의 榮華를 자랑하는 慶州博物館과 相對하여 兵馬에 沾染한 百濟의 文化를 자랑할 有名한 夫餘博物館이 되리라더라.¹¹⁾

‘신라의 영화를 자랑하는 경주박물관’과 ‘병마에 짓밟힌 백제의 문화’의 대비는 주목할 만하다.

10) 최석영, 「일제식민지 상황하에서의 부여(夫餘)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관광명소화’, 『비교문화연구』 제9집 1호, 2003 참조.

11) 「百濟文化를 자랑할 扶餘博物館, 짓밟힌 古蹟을 保存코자」, 『동아일보』 1928년 9월 4일.

이후로 신문기사나 기행문에서 엿보이는 부여에 대한 소개는 경주나 평양에 필적하는 도시로 부여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하고 있다. 부여는 이제 경주나 평양에 맞서는 유서깊은 고도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1933년 4월 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百濟古都 扶餘에 大遊覽地計劃, 경주 평양에 필적할 각종시설, 歷史的事實을 土臺로」에는 “백제고도 부여를 경주나 평양에 지지않은 역사적 유람지로 만들고저 모든 계획을 세운다”는 설명 뒤에 “신라고적을 연구하는 사계권위자인 대관금태랑(大坂金太郎)씨를 작년부터 촉탁으로 부여에 주재케 하여 백제고적을 연구케 하는중”¹²⁾이라는 내용으로 부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계획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는 부여의 고적을 새롭게 해석하고, 영지로서의 부여의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득이신성’의 위치를 찾는데 주력하여, 청마산성이 그것이라는 학설을 내세우고, 낙화암 전설에 관한 적극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여 백제 멸망 당시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 부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오사카 긴타로의 작업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고란사에 대한 재해석에서였다. 오사카 긴타로는 崇峻天皇 원년(587) 3월, 시마메(島女), 도요메(豊女), 이시메(石女) 3명이 부여에 유학하여 기거했던 장소가 고란사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추정은 적어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사실(史實)’로 받아들여졌다. 재단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에서 부여관광 코스에 청마산성을 포함시킨 것, 낙화암에 백화정(百花亭)을 새로 건립한 점, 그리고 고란사를 조선과 일본의 선린관계를 상징하는 소재로 보고 시설을 보수하여 관광명소로 삼은 것 등은 부여의 관광명소화 과정에 오사카 긴타로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¹³⁾

1933년 7월 15일자의 기사 「古都의 扶餘서 百濟文化講習」에는 “남조선에 있어 사적은 백제(百濟)의 부여(夫餘)와 신라(新羅)의 경주(慶州)가 그쌍백이 되어 옛날의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바 경주는 일찍부터 사적의 발굴연구와 고적보존에 유감없이 직행하는 반면에 부여는 아직 널리 알리지않은만큼 연구에 한각한바 잇었으니 뜻있는 사람의 큰 유감이었다.”¹⁴⁾고 전하면서, 부여에서 백제문화에 대한 강습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무렵 이광수가 발표한 부여기행문은 잊혀진 고도 부여를 다시 만나는 후대인의 감동과 환

12) 「百濟古都 扶餘에 大遊覽地計劃, 경주 평양에 필적할 각종시설, 歷史的事實을 土臺로」, 『동아일보』 1933년 4월 9일.

13) 최석영, 앞의 글 참조.

14) 「古都의 扶餘서 百濟文化講習」, 『동아일보』 1933년 7월 15일.

회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여기 150년의 榮華가 一夜에 살아질 때 扶蘇山 全體가 원통 불길이 되어 7월의 밤하늘과 泗水 水를 비
 최일 때 그때의 悲壯悽慘한 광경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듯 하다. 그때의 榮華의 꿈에 취하였든 九重의 궁
 궐이 원통 驚惶하야 울며불며 엎디지며 잡마지며 이리 뛰고 저리 굴고 하든 樣 꽃가치 아름답고 細柳가치
 軟弱한 수백의 妃嬪이 黑煙을 헤치고 送月臺의 빛긴 달에 落花岩으로 가든 樣 솟고개와 泗水 水로 폭풍가
 치 말 물려오든 羅唐聯合軍의 乘勝한 고탈소리가 귀를 기우리면 들리는 듯 하다.

나는 靑草우에 필석 주저 안저서 힘껏 그때 일을 상상하려 하였다. 내 눈 압혜는 그때의 半月城이 있다.
 그때의 궁전이 있고 그때의 사람이 있다. 그때의 색채가 보이고 그때의 음성이 들린다. 나도 그때의 사람
 이 되어서 노래하고 춤춘다.¹⁵⁾

백제 패망의 순간을 눈 앞에서 직접 보고 듣는 듯한 환각과 환청을 전하는 이광수의 음성은
 몰락한 유적의 황량한 땅 위에서 재생의 희망을 발견하려는 기획으로 이어지고, “나는 朝鮮史에
 서 高麗와 李朝를 削去하고 십다. 그리고 三國으로 溯去하고 십다. … 나는 三國時代의 朝鮮人
 이다. 高句麗人이요 新羅人이요 百濟人이다. 高麗를 내가 모르고 李朝를 내가 모른다. 西洋의 신
 문명이 古思想 復活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朝鮮의 신문명은 三國時代의 부활에 잇슬 것
 이다. 아이구. 나는 泗水城의 날에 도라가고 십허 못 견대겟다. 나는 平濟塔을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며 昔日의 祖先은 戀慕한다.”라고 말하며 옛 조선의 부활을 꿈꾸는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
 게 고백하고 있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하는 잡지 『조선』도 부여 관련 소개 기사와 일본인에 의한 부여 일
 대 기행문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경성제대 교수였던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는 1935년 8
 월 잡지 『조선』에 발표한 「百濟의 古都扶餘」에서 자신이 만 구년 전에 부여를 방문하였던 기억
 을 되새기면서, “경주도, 평양도, 개성도, 경성도 역시 예전의 왕도의 땅은 풍경이 뛰어난 곳이어
 서, 자연의 풍경 또한 풍족하였다. … 거기에 비하면 백제의 고도 부여는 완전히 금강을 그 경치
 의 중심으로 포용하고 있는 점에서 앞에 말한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나다.”¹⁶⁾라고 말하며 부여의
 경치를 호평하고 있다. 경주, 평양, 개성, 경성 같은 왕도와 부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일반화되어서, 부여가 고도의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섰음을 알게해 준다. 아베는 이어

15) 이광수, 「아아·落花岩」, 『삼천리』 제5권제4호, 1933년 4월.

16) 安倍能成, 「百濟의 古都扶餘」, 『조선』 제243호, 1935년 8월.

서 몇 년 후 다시 부여를 방문했을 때 작은 박물관이 생겨있어 전시된 유품들을 관람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수집으로만 보자면 경주박물관의 유품에는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평제탑의 당당하게 조화를 이룬 자태도 작으면서도 주위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으나, 경주의 당답의 풍부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도 밀도 있는 뉘앙스를 지닌 자연의 풍경, 거기에 난폭한 사람을 물리치는 듯한 자연이 아니라, 세련된 사람을 끌어안는 듯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르러서는 필시 영원한 부여의 자랑일 것이다.”라고 부여에 대한 인상을 전하고 있다.

이노우에 슈(井上收)는 같은 지면에 발표한 「扶餘と慶州」에서 “반도의 이름난 산하는 대부분 다 가보았으나, 그 산하 중에서도 머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는 장소로는 … 성쇠흥망이 있고, 더하자면 비사애사(悲史哀史)도 있는 말하자면 우리들의 심장을 울리는 무언가와 맺어져 있는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경주와 부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는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소위 내선융화라고 하는 미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극히 깊은 관계 아래 유무상통(有無相通)한 선린의 관계였던 당시를 회상토록, 물이 맑고 찬 백마강을 중심으로 하여, … 그 명칭을 귀에 듣는 것만으로도 추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백제의 성왕에서 의자왕에 이르는 약 백이십 년 간의 왕도. 이 도시에서, 천삼백 여년 전의 과거에 문화가 속속 수입되어, 여기에 우리들 선대문화를 짚어준 중개(intermediation)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¹⁷⁾

이노우에 슈가 강조하는 점은 ‘내선융화’라는 당대의 시책조차도 넘어서 조선과 일본을 지극히 깊은 관련으로 맺어주는 장소로서 부여의 정체성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 나라의 역사에 무언가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부여라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통해 부여의 표상을 새롭게 주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부여 특집에 소개된 다른 글들에서도 엿보이는 것은 다른 고도에 비해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부여의 이미지이다. “일찍이는 화려한 국제도시, 지금은 조용하게 잠든 고도, 굽은 강 물안개(曲江水煙), 자못 풍정(風情)을 지니고 있는 부여는, 오랜 동경 뒤에 조선에서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모란대 주변도 나쁘지 않으나, 직선의 파이프, 문화식(文化式)의 집지붕이 보인다. 배를 띄워 사위의 온화함을 음미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여쪽이 낫다고 하고 싶다. 평양의 대동강에서는 천고에 변하

17) 井上收, 「扶餘と慶州」, 『조선』 제243호, 1935년 8월.

지 않는 풍광을 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어쨌든 금강 백마강의 경치는 생각하면 기쁘다.”¹⁸⁾ 는 고백이나, “백제지(百濟池), 백제관음, 백제의 박사(博士), 백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소년 시절부터 들어 온 것이어서, 그 고도(古都)로서의 부여는, 경주보다도, 개성보다도, 무언가 친근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개성과 같은 교통의 편리도 없고, 경주만큼 풍부한 사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저 나중에 보지는 식으로, 그 풍광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¹⁹⁾라는 감상은 고도 부여를 일본인들과 친근한 땅으로 새롭게 자리잡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내선일체의 영지로서의 부여의 이미지가 자리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4. 창조된 신도(神都)

고대 일본과 밀접한 고도로서의 부여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를 근대적으로 도시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39년 3월 총독부가 부여신궁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부여신궁은 남산의 조선신궁에 이어 조선에서 두 번째로 지어지게 될 신사(신궁)였다. 일본은 조선뿐만 아니라 타이완, 만주, 사할린, 그리고 남양 등에 차례로 신사를 건립했는데,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 세워진 신사는 그곳에 성립한 일본인 사회의 정신적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부여신궁의 기공식이 거행된 것은 1939년 8월 1일이었지만 실제 건설작업과 봉사대의 동원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는 1941년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부여신궁 건립 계획은 ‘신도(神都)’ 건설 계획으로 확대되었다.²⁰⁾

이 신도 건설계획은 부여로 이르는 교통의 정비와 박물관의 신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계획으로 전개되었다. 동아일보는 1939년 5월 19일자 기사에서 그간 백제의 왕도 부여를 방문하는데 그 교통이 불편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근자에 와서는 관폐신사(官幣神祀)와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 등의 국가적 기관이 설치됨을 따라 교통관계 당국에서는 부여의 교통기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중”²¹⁾이라는 기사를 통해 철도국에서 부여관광을 위한 새로운 안을 마련하였음을 밝히고 있

18) 伊藤憲郎, 「扶餘行」, 『조선』 제243호, 1935년 8월.

19) 高本千鷹, 「扶餘」, 『조선』 제243호, 1935년 8월.

20) 손정목, 앞의 글 참조.

다. 또한 1939년 5월 24일의 기사에서는 총독부 지령에 의해 총독부 박물관(博物館) 부여 분관을 신축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신축될 박물관은 전콩크리트 제일층으로 옛 적성을 모방한 미술적 건물로 총공비 대략 20만원을 던져 명년봄에는 시국하 자원부족의 난관을 뚫고 착공기로 되었다는데 동년가를 조선초유의 대장관에 박물관이 백제고도 부여에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²²⁾

총독부 박물관 부여 분관이 ‘조선초유의 대장관’에 들어선다는 계획은 부여신궁의 건설이 일본의 조국(肇國) 2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2600년 기념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사관 계획이 추진되었다. 「국사관건설계획안(文部省案)」은 문부성이 작성해서 1936년 4월 22일 제 4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그 취지로 “조국(肇國)이래 2600년, 그 동안의 우리의 국운발전의 흔적을 찾고, 문화진보의 유래를 분명히 하며, 이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존엄한 우리 국체와 우월한 우리 문화를 적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²³⁾

부여에 새로 설립될 부여신궁에는 일본과 백제, 신라, 고려의 관계에서 특히 교류가 깊었던 오진천황(應神天皇),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텐지천황(天智天皇), 진구황후(神功皇后)의 네 신들의 사주(四柱)를 봉재하였다. 이를 통해 부여를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報本反始) 장으로 삼고, 또한 내선일체 강화철저의 정신적 전당으로 삼고자 하는 기획을 시도하였던 것이다.²⁴⁾ 이제 신도(神都)로 새롭게 탄생한 부여는 더 이상 잊혀진 소읍이 아니라, 과거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 재조명된다. “부여 땅은 내선일체 발상(發祥)의 성지로서 역사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들 아스카 문화의 원천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부여 땅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과거를 그리워하는 웅대한 도성의 터(都城址)가 남이 있고, 백제의 전성기 무렵에는 십오만 이천 삼백호, 칠십만 명이 살았다고 전해진다.”²⁵⁾는 말로 성지 부여를 안내하고 있는 『관광조선』의 기사가 그 점을 증명하고 있다.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부여를 새롭게 만드는 이 도시계획은 천 년이 넘도록 퇴락한 채 먼 옛날의 부귀영화만을 추억하고 있는 고도(古都) 부여가 소생하는 순간을 의미했으며, 동시에 그것은 일본 본토에도 단 하나밖에 없는 ‘신도(神都)’의 자격이 조선의 지방도시에 주어진다는 의미이기

21) 「扶餘觀光 「루트」 新設」, 『동아일보』 1939년 5월 19일.

22) 「扶餘博物館을 新築」, 『동아일보』 1939년 5월 24일.

23)金子淳, 『博物館의政治學』, 靑弓社, 2001, 82-86쪽. 참조.

24) 「扶餘に官幣社御造營 御神域は内鮮一體發祥の靈地」, 『京城日報』 1939년 3월 9일

25) 高島卯一, 「聖地夫餘の昔」, 『觀光朝鮮』 2권 6호, 1940.11.

도 했다. 『삼천리』 1941년 3월호의 「부여성지 근로봉사기(扶餘聖地 勤勞奉仕記)」라는 기사에 특히 잘 드러나 있다. 1941년 1월 9일, 부여신궁 건설 현장에서 근로 봉사했던 경성의 여러 명사들의 수기를 게재하고 있다. “內鮮一體의 史的 發祥의 地 扶餘에 방금 神宮이 御造營 중인 바, 工役에 血汗의 一滴을 봉사하려 서울 재계, 교육계, 諸氏가 1월 9일, 夫餘로 專往하여, 친히 ‘목도’를 메고, ‘괘이’를 잡고서, 勞働봉사를 한 뒤에 歸京하였다.”²⁶⁾라는 설명에서도 보이듯이, 조선의 지식인과 명사들이 근로봉사에 동원되어 직접 삽과 괘이를 잡고 성지를 건설하는 포즈를 취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 특집에 글을 실은 화신백화점의 사장 박홍식은 “1200년 전에 內鮮一體의 정신을 이미 구현하여 大和族과 조선인이 피를 함께 한 史蹟은, 현재 內地에 있는 高麗村의 18,000의 內鮮混血民이 이를 증명하지만, 惶悚하옵게도 百濟의 聖王의 증손녀를 桓武天皇의 御母后로 모시어서 황실에까지도 內鮮의 피가 함께 한 그 아름다운 정신을 다시금 부활케 하기 위하여 그 정신의 전당으로 御造營하는 官幣大社 扶餘神宮의 공사에 나도 聖鏃를 잡게 된 것은 나의 無常의 감격이였었다.”²⁷⁾라고 말하며 고대로부터 긴밀하게 이어져온 ‘내선’의 피의 친연성을 추인하고 그 정신의 부활에 환호하고 있다.

문인들과 예술인들 또한 이 내선일체의 전당에 참례하는 행사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서, 1941년 2월 8일 조선문인협회, 조선영화인협회, 조선연극협회, 조선연예협회, 담우회 등 5개 문화단체 대표들은 부여신궁 조영 및 ‘신도(神都)’ 건설현장에 동원될 ‘勤勞奉仕’의 명목으로 1박 2일간 부여를 방문한다. 『신시대』 3월호는 이 행사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신시대』의 담당 기사는 이 특집의 첫머리에 실린 근로봉사기에서 “燦爛하던 百濟時代, 十五萬戶의 大長安이 寂寞한 廢墟로 문친지 千三百餘年 이제 雄渾無比한 옛精神의 復古를 보게되는 感激은 實로 二天三百萬 後孫이 다같이 感激할 歷史的事實이겠습니다.”²⁸⁾라고 말하며, 이 근로봉사가 민족의 대업원을 실현하는 자랑스런 현장에의 참여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 행사에 동원되었던 유치진이 “앞으로 이 古都가 얼마나 훌륭한 神都로 再現될까는 道土木課長의 神都 計劃에 對한 抱負로써 알수 있다.”²⁹⁾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이석훈이 “부여는, 백제고도로서 자칫하면 현대에 있어 잊어버려질 存在로부터, 神都로서 크게 更生케 된것이다.”³⁰⁾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동원된 근로봉사에 대한 강요된 감상의 토로를 넘어서는 적실한 마음의 반

26) 「扶餘聖地 勤勞奉仕記」 『삼천리』 제13권 제3호 1941년 3월 1일.

27) 박홍식, 「扶蘇山城趾와 內鮮史實」, 『삼천리』 제13권 제3호 1941년 3월 1일.

28) 勝山雅夫, 「聖鏃를 두르고」, 『신시대』 1941년 3월호, 250쪽.

29) 유치진, 「아름다운 神都」, 『신시대』 1941년 3월호, 253쪽.

30) 이석훈, 「夫餘紀行」, 『신시대』 1941년 3월호, 257쪽.

영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석훈은 부여에 도착한 날 저녁 부소산과 사비루, 백마강, 낙화암 등 부여의 유명한 경치를 둘러보고 나서 쓴 기행문에서 정적에 휩싸인 그 장소들을 다니면서 백제 패망의 순간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한 환상과 환청을 다시금 경험한다. “百濟榮華가 바로 어제인 양, 가슴이 근질근질해온다. 暴惡한 唐軍이 몰려들어 軍倉에 불지르고 아우성치는 소리, 百濟敗亡의 痛哭聲이 원산을 뒤흔드는듯 금방 눈거풀이 뜨거워짐을 깨닫는다.”³¹⁾ 1933년의 이광수에게 현현하였던 그 환각이 고대의 민족문화로 회귀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으로부터 출현한 것이었다면, 이석훈에게 다가온 그 환영은 내선일체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여야 할 할 신생의 주체에게 다가온 재생의 신호와도 같다.

5. 「백마강」과 「흑치상지」의 사이

31) 위의 글, 259쪽.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평양 표상

박성란 | 인하대

1. 서론

근대문학 연구에서 ‘평양’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지만 그 경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우』 『서북학회월보』를 중심으로 서북지역의 학회를 통해 근대계몽기의 사상과 의식을 살핀 연구, 둘째 평양의 작가들 혹은 동인지에 대한 연구, 셋째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관련한 로컬리티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 경향은 근대계몽기의 ‘사상’에 치중하고 둘째 경향은 개별 작가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론에 치중했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평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셋째 경향은 일본 제국 혹은 경성과의 관계성에 기초해 중심과 지방의 역학관계 속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살피고 있어 식민지 시기 평양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리학의 제도화를 통해 형성된 심상지리는 여행안내서나 ‘관광’의 형식에 기댄 지식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연구의 텍스트 역시 근대문학 작품들 중에서 특히 기행문(수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소설에 나타난 평양의 표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네이션이라는 상상체에 기초하여 제국의 심상지리로서 파악한 평양 로컬리티 개념이 식민지 주체와 식민제국 사이의 ‘교섭과 길항 관계’와, 평양의 복합적인 존재형태를 잘 못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식민지 도시로서의 평양은 공업, 군사, 문화, 유흥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실현된 거점도시였고, 한편으로는 발달한 민족 자본과 교육, 기독교적 문화의 강제로 반일의식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평양의 복합적 성격이 경성 혹은 부여·경주 같은 다른 古都들과의 차이를 낳지 않았을지, 식민지의

각 시기와 작가들의 세대의식에 따라 평양의 표상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지 하는 의문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2. 민족적 계몽의 열정과 시적 계승

전영택의 소설 「평양성을 바라보면서」는 3·1운동 직후 평양의 모습이 잘 드러난 자료이다. 발표지와 발표연대는 미상이지만 자전적 소설인 「생명의 봄」(1920)에서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하기를 “과거 반년동안에(아니 일년동안에) 작품이라고는 남산현교회 기관잡지 『대동강』에 내인 「평양성을 바라보며」”라고 한 것을 볼 때 1920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¹⁾ 대동강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남녀가 주고받는 문답형식으로 된 이 소설에서 작가는 평양을 ‘도깨비불(귀신의 불)이 켜진 빈집’에 비유하고, “四千年 서울 平壤城을 萬년에 長靑流하는 大同江”이 깊은 침묵 속에 있다고 묘사한다. 한마디로 평양은 ‘죽은 도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기상과 기개 있는 청년 학도와 지도자의 부재,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유흥과 퇴폐에 젖은 저속한 문화와 생활, 개화의식의 결여, 김성수(金性洙) 씨²⁾와 같은 민족 자본가와 실업가의 부재 등을 꼽고 있다. 평양의 이 ‘한심스러운’ 면모는 과거 10여 년 전 “조선의 신지식유입의 선도자요 문명발달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던 ‘산 평양’의 시대와 대비되면서 더욱 강조되는데, 그때에는 살아서 펄떡이는 평양의 모든 소리들이 “죄다 청년의 움직임”이고 “사안소래(산 소리)”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평양을 바라보고 평양을 숭배하고 평양을 본바닷”으며 “맞그나와서 보드래도 평양성에서 비치 환-하게 사면을 두루 비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양도 장차 희망이 잇슬터면 지도자가 될만한 학자와 선생이 너러모혀야” 된다고 말한다.

과거 평양의 광명을 그리워하는 이 장면에서, 문명개화와 자주자강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고취하며 지역적 자긍심과 연대감을 자극해나갔던 근대계몽기 서북학회의 담론들을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다.³⁾ 물론 전영택의 이러한 인식은 서북지방의 선각자였던 부친과 도산 안창호의 영향, 기

1) 전영택, 「생명의 봄」, 표언복 편, 『전영택전집 1』, 목원대학교출판부, 1994, 122쪽.

2) “저 김성수씨를 보시오. 혼자서 中央學校를 해가면서 조선의 미래 早稻田大學으로 자임하는거슬……” 같은 책, 93쪽.

3) 서북학회의 지역 의식에 관해서는 조형래, 「학회, 유토피아의 미니어처-근대계몽기의 지역학회 및 유학생 단체를 통해서 본 지역성과 고향 의식」, 『한국문학연구』 31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 2006년 하반기, 84쪽 참조.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해둘 사실은, 김성수가 인수해 운영하던 ‘중앙학교’는 서북학회와 경쟁관계에 있던 ‘기호학회’의 후신이라는 점이다. 전영택이 왜 표나게 김성수를 언급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오기 편,

독교적 연결주의 등 작가 개인적 체험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평양성을 바라보면서’라는, 이 소설의 제목이다. 이때 평양성은 단지 유흥이나 완상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선생님의게 드르면 뱃날에는 참 굉장하였는데요. 우리 평양이. 뱃날평양사람은 참 호랑이가치 무서웠다는데요. 그런데 요새 사사람들은 왜 그럴가요. 특별히 요새 평양청년들은 왜그러케 모도 썩어졌서요? (...중략...) 그래가지고야 역사가 있는 평양이라고 자랑할것이 무어시야요. 모란봉이있고 대동강이 있다고요? 곳가지거시아 잘사는집 정원에 造山도 그만하고 또 대동강만한개굴이 어텐들업겐소?⁵⁾ (밀줄-인용자)

(이제에 마츨 대동강에 빨간燈단배들이 두어개 길게썩는 一種괴상하고 듯기에 불유쾌한 소리를 내이면 서 내려오는거슬 가라침면서) 그리고 전에는 을밀대애나 청류벽애나 거문두루막넙은 학도들의 기운 있는 창가소리가 늘 들리드니 요새는 주정꾼의 잡소리밖에 안들니지요. 기자묘나 만경대는 전에는 건전한 청년학생들의 썩노는 운동장이드니 요새는 부랑자 잡류배의 노리터로 전용을 하지요! 전에 대운동하는 경작 훈련마당은 지금은 요리집 술 제조소 담배 제조소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데-일 분한거슨 우리가 어려슬썩에 조흔 정신과 사상을 배우고 소년시대의 신성한 인격을 기르든 日新學校자리가 기생학교로 변한거시야요. 또 그러고 잇다금 설시당꼴노 올라가보면 전에내가 멩기든 학교자리가 지금은 터만 나만는데 일홈모르는 잡초가 무성히나고 주인업는 포프라나무입만 육어진거슬 보면 참 감개한눗짐을 아나가질수가 업서요. (92쪽)

인용문에 따르면 평양성은 학도들의 기운찬 창가소리가 울려 퍼지고 청년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운동장이어야 한다. 그런 표상으로서의 평양만이 ‘호랑이처럼 무섭고 굉장했던’ 평양의 영광스런 기억과 만날 수 있으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역사가 있는 평양”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⁶⁾ 이것이 “사천년 서울 평양성”의 진정한 면모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양성은, 오랜

『인촌 김성수』, 동아일보사, 1985, 92~93쪽 참조.

4) 표언복, 「늘봄 전영택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사상』 445, 대한기독교서회, 1996. 1, 181~185쪽.

5) 전영택, 「평양성을 바라보면서」, 표언복 편, 앞의 책, 88쪽. 이하 인용은 페이지 수만 명시함.

6) 이는 『무정』에서 영채를 데리고 평양성내 모란봉 밑 부벽루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한 월화가 청류벽 바위 위에서 씩씩한 창가를 부르는 대성학교 학생들을 보고 감격해하며 연회에 참석한 ‘허수아비 같은 소위 일류 명사’들과 비교하는 장면과도 겹쳐진다. 근대 이전의 작품들을 보더라도 평양(특히 대동강)이 유흥과 풍류의 대표적 명소였음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데, 전영택과 이광수가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는 슬쩍 팔호를 치고 평양의 정신과 기상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건강한 정신과 용맹한 기상을 환기시켜 주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기억하고 자기희생을 다짐하듯이, 이 작품에서 평양성은 현실 세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초월성을 발견케 하는 상징물이다.⁷⁾ “우리가 평양서 낫스니 평양을 위해 몸을 바칩시다”라는 뜬금없는 결론은 이런 맥락에서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평양성의 역사적 초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3·1운동 직후의 ‘죽은 평양을 부활시키자는 작가의 의도는, 바로 뒤에 창작된 「생명의 봄」(1920)의 기독교적인 주제의식과 연결해볼 때 좀 더 선명해진다. 3·1운동에 연루되었던 실존인물들을 다룬⁸⁾ 이 소설은, 현실이 ‘죽음’ 같은 것일지라도 “죽음의 겨울 지나가면 / 生命의 봄이도라오네”⁹⁾라는 믿음으로 현실 극복의 동력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또한 초월성에 대한 믿음을 인식의 근거에 둔 것임은 물론 이거니와 “현실을 ‘죽음’ 그 자체가 아닌, 미래의 ‘생명’을 현시하는 하나의 豫表로 받아들이는 태도”¹⁰⁾라 할 수 있다.

갱생과 부활의 민족적 성소로 표상되는 평양성의 근대문학적 기원을 따지자면 이광수의 『무정』(1917)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기존의 많은 『무정』 연구에서 평양은 ‘전근대적 과거’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글은 그러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석에 기대다면 평양에서 귀경하는 이형식이 느꼈던 “무한한 기쁨”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이형식은 동경유학을 통해서 문명을 경험한 개화청년인데, 그런 그에게 전근대적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생각의 발견이 그토록 “무한한 기쁨”이었을까. 게다가 애정의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던 영채의 죽음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귀경하던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기쁨’은 실로 비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대동강에 빠져죽으려 간 영채를 찾아 평양에 간 형식이의 ‘알 수 없는’ 행적이다. 평양경찰서에 들른 것을 제외하고 그는 영채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형식은 어린 기생 계향이를 데리고 평양 거리를 배회한다. 이 때 평양 거리에서

7) 이 점은 전영택의 기독교인이었던 점, 더 나아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 우세 지역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8) 「생명의 봄」의 'P목사'는 3·1운동을 지도하다가 옥사한 실존인물 박훈석(朴勳錫) 목사(감리교)를, '아내 영순'은 3·1운동에 연루되어 평양감옥에 수감되었던 전영택의 아내 채혜수(蔡惠秀)를 그린 것이다. 박훈석 목사는 소설가 박영준(朴榮濬)의 부친이기도 한데, 남산현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때 평양의 각 교회신자는 물론 전 시민이 몰려나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한다.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1, 165~166쪽.

9) 전영택, 「생명의 봄」, 표언복 편, 앞의 책, 111쪽.

10) 이철호, 「1920년대 초기 동인지 문학에 나타난 생명 의식-전영택의 「생명의 봄」을 위한 서설」, 『한국문학연구』 31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6년 하반기, 209쪽.

만나는 것은 초가지붕으로 된 가게와, 벌거벗고 때 묻은 아이들과, 그 아이를 때리는 부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평양의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떤 가치 부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저 가게의 주름을 보며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소리가 나려니”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매를 맞던 아이가 흙을 집어 뿌리는 것을 보면서 영채를 연상할 뿐이다. 즉 형식의 눈에 비친 평양 거리는 부정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지 않다. 대신 평양에는 형식을 일깨우고 자극하는 에피파니(Epiphany)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칠성문’과 ‘박 진사’의 무덤이다.

우선 ‘칠성문’은 형식이 문명을 처음 접한 곳이다. 열한 살에 처음 평양에 왔을 때 그는 “칠성문 안에서 평양 시가를 내려다” 보며 그 큰 규모에 놀라고, 처음으로 일본 상점과 성냥, 화륜선을 보았다. 칠성문은 문명과 개화의 세계로 첫걸음을 떼는 통로였던 셈이다. 이것을 기억해 내는 형식의 어떤 심리적 기제가 그를 칠성문 쪽으로 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형식은 칠성문에서 ‘탕건 쓴 노인’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버린 사람이 되고 세상은 그가 알지도 못하던, 또는 보지도 못하던 젊은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철도를 모르고 전신과 전화를 모르고 더구나 잠행정이나 수뢰정을 알 리가 없다. (...중략...)

그는 영구히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리니, 그는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이 세상 밖에 있음과 같다.¹¹⁾ (밑줄·인용자)

노인은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해 “시세를 잃고 적막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얼굴은 붉고 눈에 빛이 있으며 매우 풍채가 늙름하”다고 묘사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은 한때나마 선화당(宣化堂)¹²⁾을 드나들고 세상을 호령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형식이 그 노인을 “돌로 만든 사람”, “化石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 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 이제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세상에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세상 밖”의 사람이다. 형식에게 이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세상이 “젊은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의 발견은, 그렇다면 ‘젊은 세대’에게 요구되는 새 시대의 역사적 소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인을 아느냐고 묻는 어린 계향이에게 “계향이 너는 영원히 저 노인을 알지 못하리라” 한다면

11) 이광수, 『무정』, 한국문학대표작선집 10, 문학사상사, 1992, 194쪽. 이하 인용시 페이지만 명시함.

12) 각 도의 관찰사가 사무를 보던 正堂.

지 노인이 세상의 주역이던 과거에는 형식이기도 그 노인을 알았지만 “그러하던 소년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노인->형식->계향)으로 역사적 주역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前 시대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끊임없이 극복·지양되어야 한다는 형식의 생각이 담겨 있다. 새로운 주체의 역사적 소임을 묻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형식이의 의식이 ‘박 진사’로 향하고 있음이 의미심장하다.

(가) 박 선생이 만일 그 문명 운동(文明運動)을 오늘날 시작하였던들 그는 사회의 꺾박은커녕 도리어 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시대가 옳아갈 때마다 이러한 희생은 있는 것이어니와 박 선생처럼 참혹한 희생은 없다. (p. 197)

(나) 그러나 형식은 이 무덤을 보고 슬퍼하지는 아니하였다. 형식은 무슨 일을 보고 슬퍼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즐거웠다. 형식은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산 자를 보고 즐거워함이 옳다 하였다. 형식은 그 무덤 밑에 있는 불쌍한 은인의 썩다가 남은 뼈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그 썩어지는 살을 먹고 자란 무덤 위의 꽃을 보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다. (밑줄-인용자, p. 197)

박 진사 무덤에서 형식이가 환기하는 바의 핵심은, (가)시대를 너무 앞지르는 바람에 좌절되었던 박 진사의 문명운동은 바로 “오늘날”에 “사회에 칭찬과 존경을 받을” 일이니, (나)무덤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박 진사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문명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도 전영택에게서처럼 ‘죽음’과 ‘생명’이라는 자연의 순환 논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무덤 앞에서 형식이가 슬픔은커녕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 진짜 이유이다.

조선조 이래 정치적 차별과 소외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의 신문물 수입에 진취적이며 문명개화와 계몽운동에 열심이었던 서북 지역의 특수성을 떠올려 보면,¹³⁾ 박 진사의 선진적인 문명정신을 환기시키는 형식의 심리는 곧 서북지역의 자긍심과 연결된다. 이 점은 경성으로 돌아간 뒤 형식이가 김장로를 가리켜, 그가 모든 생활을 서양식으로 꾸미고 서양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정작 “서양 문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과학과 철학과 예술과 경제와 산업’을 모른 채 단지 “서양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한 대목과 대비된다.¹⁴⁾ ‘탕건 쓴 노인’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소명이 자신의

13) 김상태,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1998년 겨울호, 179쪽; 김상태, 「지역·연고·정실주의」,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365쪽.

세대로 옮겨왔음을 감지했던 형식이고 보면, 박 진사의 “씩어지는 살을 먹고” 자라야 할 것은 형식이 자신이고, 그것이야말로 형식의 진정한 뿌리이고 근거이다. 이것이 형식의 자기 발견이었다. 문명세계로의 출생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형식은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셈이다. 이때 평양은 계몽의 태반, 민족적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이 開眼을 통해 형식은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에너지를 얻었던 것이다.

(가) 그의 정신은 지금 천지가 창조되던 혼돈된 상태에 있고 또 천지가 노쇠하여서 없어지는 혼돈한 상태에 있다.

(나) 형식은 빙곳이 웃는다. 옳다, 자기는 목숨 없는 흙덩이였었다. 자기는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던 흙덩어리였다. 자기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만물도 보지도 못하였었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였었다.

(다) 그러므로 그 웃음과 울음은 결코 자기의 마음에서 스스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요, 전혀 타동적이었다. 자기가 지금껏 옳다, 그르다, 슬프다, 기쁘다 하여 온 것은 결코 자기의 지(知)의 판단과 정(情)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온전히 전습(傳襲)을 따라, 사회의 관습을 따라 하여 온 것이었다.

(라) 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린 것이로다. 자기는 이제야 자기의 생명을 깨달았다. 자기가 있는 줄을 깨달았다. (200~201쪽)

기생이 된 영체에 대한 양가적 감정, 은사의 딸이자 정혼한 여자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책무 등 자신을 옥죄는 사회적 관습과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형식은 무덤 앞에서의 ‘갱생’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해방시킨다. 선형과 영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물론, 기생에 대해 주저와 호기심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던 형식의 혼란되고 분열되었던 상태 역시 이 장면을 계기로 해소된다. 이 이후 형식은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했던 경성에서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가장 진보한 문명 인사로 자임”하는 김 장로의 맹목적인 서구 추수주의와 비판적 거리를 둘 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계몽의 열기가 삭고 세속적 분위기에 젖은 학교의 교사 자리도 박차고 나온다. 인용문에서 “자신의 생명”이란 평양에서 건져 올려 시적으로 계승한 박 진사의 정신, 즉 계몽의 뿌리이며 김 장로식 근대주의 혹은 “타동적” 내셔널리즘과 구별 짓게

14) 이와 더불어 평양의 진보적이고 열성적인 교육자로 그려진 함 교장과, 페스탈로찌와 엘렌 케이를 몰라 ‘푸스탈’과 ‘얼튼케’라고 아는 책을 하는 경성학교의 배 학감의 대비도 흥미롭다. 이광수가 지닌 서북지역의 자긍심이 은연중 표출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근거인 셈이다. 수양동우회 활동으로 대표되는 이후 이광수의 행보는 이와 같은 서북적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¹⁵⁾

이처럼 『무정』에서 평양은 '산문적 세계'인 경성과 달리 민족적 이상과 정신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아직은 '시적인 세계'이며, 퇴영적이고 부정적이기보다는 여전히 인물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갭생과 부활의 공간이다. 이는 영채에게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평양에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흥분"된 신경의 교차 상태를 경험하는 형식의 '천지창조와 같은 혼돈'은, 이제 진정한 '민족의 교사'로 나아갈 형식의 새로운 행로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

3. 식민지 도시의 지리학

서북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환기시키는 이광수와 전영택의 평양 인식에는 근대계몽기 평양의 문화적 아우라를 경험한 세대의 공통점이 있다. 근대문명의 수용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었고 계몽적 열기와 민족의식이 싱싱하게 살아 있던 그 시기에, 평양 민족 교육의 본산지인 오산학교와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거나 수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이 같은 문화적 체험의 자장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으로 이광수와 전영택이 동경 유학생으로서 오랫동안 평양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의 回郷의식은 반드시 도시에 대한 경험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고향으로부터도 도시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어서 어느 장소에도 안주할 수 없다는 불안의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연구¹⁶⁾는 좋은 참조가 된다. 이미 진일보한 일본을 경험한 이광수와 전영택에게는 "문명화된 사회의 통일성에 적응하려는 모방의 동기"¹⁷⁾가 어느 정도 작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 비친 후진적인 고향, 아름답게 개화했던 과거의 열기를 상실하고 지금은 죽어 있는 듯이 보이는 평양을 관념적으로 이상화시키고 다시 살려냄으로써 민족 전체의 자긍심으로 확대시키려 했던 것이다. 여기에 평양의 일상적이고 산문적인 세계가 투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5) 이와 관련하여, 서북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서북 지역을 제국의 균질화된 지방의 하나로 로컬리티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무정』 역시 이에 기반한 내셔널리즘의 비전을 창출했다는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정종현,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 2008.

16) 조형래, 앞의 글, 102쪽.

17) 같은 글, 101쪽.

이에 비해 3·1운동이 끝난 뒤 물질화된 세계와 자본주의적 근대를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에
 계는 평양이 평범한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명익이다. 그의
 소설 「비오는 길」(1936)에서 평양은 특별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상화되어 있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상, 산문적 현실의 공간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는 (...중략...) 자기의 변화 없는 생활의 코스인 '오늘 밤 비 오는' 길에서 보고 들은 생활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물론 진기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같은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고서
 생각하는 자기가 이상하리만큼 평범하고 속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같이 음산하게 벌어져 있는 현실은 산
문적이면서도, 그 산문적 현실 속에는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어떤 힘찬 리듬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리고
 그 리듬은 엄숙한 비판의 힘으로 변하여 병일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듯하였다.¹⁸⁾ (밑줄-인용자)

이 소설에는 특별히 '평양적'인 것, 혹은 평양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 어떤 표지도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옛 성문'이라든지 '城内' '서문동' 등의 지명만으로 소설의 배경인 평양을 짐작할
 따름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소설은 평양의 상정을 표나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 즉 '평양'
 의 부채를 통해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평양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그 일상 속에 깃들여 있는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양 토박이인 최명익이 그리는 '일상'과 '현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매일 반복되
 는 생활의 코스', 병일이의 출근길 위에 펼쳐져 있다. <성 밖의 하숙집-빈민굴의 좁은 비탈길-(아
 직 시가를 형성하지 못한) 신작로-옛 성문-성 밖 공장지대>로 이어지는 출근길은, 옛 성문을 중
 심으로 시가지 중심가와 변두리 소외지역 양쪽을 횡단하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이 병일
 이의 출근길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적 삶의 층위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 '코스'가 일제의 식
 민 정책과, 그에 따라 형성된 1930년대 평양의 도시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옛 성문'을 보자. 소설에서 성문은 평양 사람들이 성밖과 성안을 오가는 통로 정도로
 잠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역사적 기억을 환기시키는 상징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의
 미에서, 근대의 문학작품들에서 '성문'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동인의 「감자」, 김사량의
 「土城廊」과 「기자림」에서 칠성문과 서문의 성문 밖은 싸움·도적·구걸·매음의 근원지, 노인들

18) 최명익, 「비오는 길」, 『장삼이사』, 을유문화사, 121쪽.

이 역사를 뒤적이며 운수에 기대는 빈민굴로 묘사되듯이 근대 문명 이전의 세계이다. 이에 비해 성문 안은, 「기자림」에서 ‘양복 입고 지팡이 짚은 신사가 다니는 길로, 최명익의 「봄과 신작로」(19)에서 “밤이 깊어가도 새훤한 화광이 서리는” 곳으로 상징되듯이 개화한 근대 문명지이다. 이처럼 평양에서 성문은 시골/도시, 야만/문명, 전근대/근대로 삶의 방식 자체를 구획할 뿐만 아니라 근대 시민의 자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다. 「비오는 길」에서 성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문을 통한 거주지 분화는 일제가 행한 도시개조사업, 즉 ‘市區改正’과 관련이 있다.

시구개정은 메이지기에 일본인들이 ‘urban planning’의 번역어로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도시 계획 일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¹⁹⁾ 일제는 1888년부터 시행한 도쿄의 시구개정을 모델로 하여, 식민지 초기에 조선에 대해서도 시구개정 사업을 벌여 나갔다. 물론 그 목적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식민지배의 합리화, 즉 근대적 문명화의 전시적 효과였다.²⁰⁾ 『무정』의 옷통 벗은 부인이 ‘종로거리’로 뛰쳐나와 아이를 때리자 맞은 아이가 울면서 ‘길바닥의 흙을 집어 부인의 면상에 뿌리는 장면이 시구개정 시행 이전의 소산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평양성을 바라보면서」에서는 “시구개정으로 길이넓어지고” “서양사람들이 지어준 벽돌집이 좀만아지고 신작로가 생기고” 하는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평양 구시가의 중심지인 종로거리의 사정이 이렇다면, 평양의 시구개정 사업은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처음 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평양은 일찌감치 시구개정 사업을 실시하여²¹⁾ 종로통과 남문통, 대동문통 등을 중심으로 성내에 구시가지의 형성을 하고 있었다.²²⁾ 「비오는 길」에서 병일이가 “10만! 20만!이라는 놀라운 인구의 숫자를 눈앞에 그리”며 “성문 구멍으로 휘황한 전등의 시가를 바라”볼 때 그곳은 바로 이 구시가지이다. 이 구시가 쪽에는 정미·양조·양말 제조업과 요업 등 소자본으로 가능한 조선인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었다. 일제시대에 평양은 ‘조선의 오사카 혹은 키타 큐슈’라고 비유될 정도로 공업, 특히 조선인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다.²³⁾ 병일이가 다니는 ‘신흥 공장지

19) 시구개정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김백영, 「왕조 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경성과 도쿄의 시구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학보』 112호, 2003년 가을호 ; 이송순,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정책 심의기구 연구-조선총독부토목회의와 시가지계획위원회」, 『한국사연구』, 2006, 226-227쪽; 하시아 히로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김제정 역, 도서출판 모티브북, 2005.

20) 이송순, 앞의 글, 226-227쪽.

21) 1913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시구개정사업을 실시한 지방도시는 대구·부산·진남포·평양·신의주 등 5개 府와 전주·진해·진주·해주·검이포·함흥의 6개 面이었다. 조선총독부 편, 『朝鮮土木事業誌(下)』, 京城: 조선총독부, 1937, 1047-1104쪽. 위의 글, 226쪽에서 재인용.

22) 조선총독부 편, 『平壤府』, 조선총독부, 1932, 43쪽.

23) 오미일, 「평양지역 조선인자본가들의 조합 조직과 공업 발달」, 『한국사연구』, 2007, 122쪽.

대란 바로 이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성문 밖의 빈민굴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빈민굴은 서문 밖 西城里쯤으로 추정된다. 당시 평양의 서문 밖은 서성리와 土城里 등 대표적인 빈민지대로 유명했고²⁴⁾ 보통강의 범람이 잦아 이재민 피해가 많은 침수 상습지역이었기 때문이다.²⁵⁾ “여름이면 장마 물이 그 좁은 길을 개천삼아” 흐르고, “비록 대낮에라도 비행기 소리에 눈이 팔리거나, 머리를 수그렸더라도 무슨 생각에 정신이 팔리면, 반드시 영양 불량상인 아이들의 똥을 밟을 것이”라는 빈민굴에 대한 묘사는 성내 시가지과 대비를 이루는 이 지역의 실상을 함축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 식민정책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소외 지역이었다.²⁶⁾ 이 소설의 ‘우울하게 계속되는 장마’와 ‘질척거리는 길’, ‘무너진 성벽’ 등은 기존의 해석처럼 지식인의 암울한 심리를 대변하는 이미지이자 문학적 상징이기도 하지만, 도시적 생활에 편입하지 못한/얕은 빈민들/병일의 삶의 조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당시 평양의 급속한 도시집중화로 인해 “시의 구석구석”에 전등과 수도와 의식주와 문명이 없는 거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 당국은 오히려 “명랑도시-건전한 평양”을 자랑했다²⁷⁾는 다른 글을 참고해 보면 최명익 소설의 ‘우울한’ 배경은 일제가 의도하는 ‘연출된 공간’으로서의 평양에 대한 반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최명익은 소외된 빈민 지대와 휘황한 시가지 양 끝을 오가는 병일의 ‘생활의 코스’를 통해, 근대 도시로서 평양이 갖는 이원적·양면적 속성을 집요하게 파헤쳐 보인다. 이원화된 두

24) 「영하 19도의 추위와 平壤의 貧民窟-그 참경을 차마 볼 수 없다, 그들의 救濟策은 如何」, 중외일보, 1926. 12. 10; 「平壤漫筆; 평양 서문의 빈민굴을 방문하고」, 동아일보, 1922. 2. 6-8.

25) 1920, 30년대의 신문을 보면 크고 작은 보통강 침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9일자 기사 「보통강 개수공사 지연 끊이지 않는 평양부민의 우환, 기립·서성 일대주민의 위협」에 따르면 “보통강은 결코 큰 강이 아니나…… 해마다 사람이 많이 죽고 또 해마다 몇 차례씩 범람하여 부근주민의 피해와 위험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26) 김백영의 앞의 논문에 따르면 ‘일제의 도시계획 사업이란 주로 일본인 거주생활과 상업활동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거리와 동떨어진 보통강 부근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34년에 총독부는 “인구 삼십만을 포용할 명일의 평양을 목표로” 보통강 유역 일대를 평양부내로 편입시키고 보통강 개수공사를 완료하여 일대 공장지대를 만들 구체안을 내놓았지만(「인구 삼십만을 포용할 명일의 대평양을 설계, 대동강 보통강을 眼下에 조감鳥瞰도록, 총독부에서 구체안작성」, 동아일보, 1934. 6. 19.), 토지매입과 비용문제, 인도교 가설 우선을 주장하는 평양부민들의 여론 급등 등으로 1940년에 이르기까지 실천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평양 보통강 개수공사, 실현은 자못 문제, 여러가지 지장이 막혀있어, 일반은 府 조치를 주목」, 조선중앙일보, 1936. 8. 21 ; 「보통강 개수공비, 제2인도교 가설에-평양부민의 새 物論」, 조선중앙일보, 1936. 9. 3 ; 「物價騰貴의 여파! 하천개수공사 지연 보통강 개수 급년에 착수」, 동아일보, 1937. 9. 16 ; 「서평양의 보통강안을 중소기업지로 확정, 평양부에서 총독부에 답신」, 동아일보, 1940. 7. 28.)

27) 한재덕, 「내 지방 현지보고-대평양해부도」, 『조광』, 1940. 3, 127쪽. 한재덕은 동경에서 임파 김남천 안막 등과 더불어 ‘무산자사’ 활동을 했으며, 광복 후 ‘조선건국 평남 준비위원회’의 선전부장으로 활동하고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계열에 섰던 사람이다.

세계에 대해 병일이가 보여주는 태도는 확고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삶, 자본주의적 가치와의 거리 두기이다. 독서에 몰두하여 '자기만의 시간'을 지켜내려는 의지는 이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원화된 그 코스의 중간에 이칠성이 놓여 있음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최명익은 이칠성이란 인물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의 운명에 대해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칠성의 사진관이 신작로에 있긴 하나 “아직 시가다운 시가를 이루지 못”한 성문 밖 외딴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점, 성내의 큰 사진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소원도에 “고무공장이나 정미소의 여공”들 사진이나 걸어 놓은 점은 소상공인으로서 갖는 이칠성의 사회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칠성은 사회 중간층이 일반적으로 갖는 상층으로의 지향의식과 세속적 가치를 지녔으며 자기 생활에 성실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칠성이 독서라면 으레 “법률공부”라고 여긴다든지, 성내의 큰 사진관을 인수한 뒤 평양의 유력한 신문 지국의 지정 사진관 간판을 얻어 살림을 늘려갈 목표도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평양에 유행한 장질부사로 갑작스레 죽음을 맞는²⁸⁾ 이칠성의 모습을 통해 최명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층의 계층 상승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소설의 말미에서 유족들이 사진관에서 나와 집을 싣고 “서문동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시민 계층의 필연적인 파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 성공/몰락, 성내 진입/빈민화의 기로에 있던 중간 지대의 이칠성은 결국 몰락과 빈민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병일이가 “산문적 현실 속에서” 느꼈던 “엄숙한 비판의 힘”의 실재를 증명한다. 에피소드로 처리된 기생의 삽화에서,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가리는 인력거의 격려를 생활고의 독백으로 받는 기생의 운명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처럼 「비오는 길」에서 최명익은 일제의 도시계획과 그에 따른 일상적 공간의 배치, 분화된 사회 계층과 소시민의 파탄 등에 주목하여 평양의 도시 지리를 해부하고 있다. 최명익의 지리학 속에서 평양은 일본 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된 식민지 도시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독서’로 상징되는 반발을 통해서 그 질서 안으로의 편입과 동화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자기네 일에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에 다시 허공을 향하는 병일이의 눈에는 어둠 속을 날아 헤매는 박쥐들이 보였다. 박쥐들은

28) 보통강의 잦은 범람과 침수로 평양에서는 해마다 전염병 주의보를 내려야만 했는데 특히 장질부사에 의한 희생이 많았다. 따라서 소설에서 장질부사는 단순히 죽음의 우연적 계기라기보다는 도시계획에서 소외된 서문 밖의 위생적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감감한 누각 속에서 날아갔다 다시 누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옛 성문 누각이 지나고 있는 오랜 역사의 혼이 아직 살아서 밤을 타서 떠도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p. 104)

성문에 대해 유일하게 의미 부여를 해 놓은 이 대목에서 최명익 역시 “오랜 역사의 혼”을 연상하는 점이 이채롭다. 하지만 최명익에게서 성문은 “어둠 속을 날아 헤매는 박쥐들”처럼 바쁘게 떠도는 시민들의 자본주의적 일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언젠가 “다시 누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는 이철성과의 만남으로 소시민적 행복의 유혹에 흔들리며 독서력을 잃은 병일이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라고 했던 장면과 겹쳐진다. 즉 최명익에게 일제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와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편입되어 가는 평양은 ‘오랜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예컨대 이태준의 「패강녕」에 나타나는 것처럼, 물질화·세속화된 현실에 대한 분노나 쓸쓸함이 깃들여 있지 않다. 이것은 모더니스트 최명익의 절제되고 세련된 감각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적 근대의 한계를 꿰뚫어보는 예지이기도 하다.

4. 제국과 충돌하는 시체의 표상

일본의 식민지 도시에서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근대 사회와 재래 사회 등의 이중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족 간의 거주지 분화이다.²⁹⁾ 앞서 살핀 시구개정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제는 평양 성내에 다수의 재조일본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성벽 너머 남문 밖에 일본인 거주지를 새로 형성한다. 경성이 조선인 거주지인 ‘북촌’과 일본인 거주지인 ‘남촌’으로 분화되었던 것처럼, 평양 역시 기존의 조선인 구시가와 본정-대화정 부근 일대의 일본인 거주지 신시가로 분화가 일어난다.³⁰⁾

이태준은 「패강녕」(1938)에서 이러한 시가지 분화의 단면을 제시하면서 식민지 지배의 심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때는 1937년 가을. 소설은 10여 년 만에 평양을 찾은 한 소설가 현의 시선을 쫓아간다. 현의 평양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어 선생인 친구 박의 실직을 위로하기 위한

29) 하시야 히로시, 앞의 책, 78쪽.

30) 앞서 살핀 시구개정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제는 평양 성내에 다수의 재조일본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성벽 너머 남문 밖에 일본인 거주지를 새로 형성하는데, 본정-대화정 부근 일대의 이 일본인 거리는 구시가의 조선인 거리에 비해 거리가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 1932, 43쪽.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라져가는 조선의 문화'를 평양에서는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양 고유의 문화에 대한 현의 기대감은 근대적 도시화를 이룬 평양의 도심, 즉 일본인 거리를 자동차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행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거리에는 새 빌딩들이 들어서고, 『무정』에서 “회칠한 서양제 집”으로 등장하던 평양경찰서는 “시뻘건 벽돌”로 신축되었다. 평양여인들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던 머릿수건이며 땡기³¹⁾도 없어졌다. 운전수는 “인전 평양두 서울과 별루 지지 앓”³²⁾하다고 자랑하지만, 현이 느끼는 것은 “폐허라는 서글픔”이다. 이때 평양은 경성의 아류나 다름없는, 식민도시의 일반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청 등의 공공건축은 식민 지배자의 우위성을 드러내고 피지배자를 위압하는 것을 의식하여 세워졌던 것³²⁾임을 고려할 때, 현이 경찰서를 “큰 분묘(墳墓)”와 같다고 여기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쾌강냉」은 평양을 무덤과 ‘시체’에 비유함으로써 일제의 근대적 기획 아래에 포섭되어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상실해 버린, 그야말로 ‘죽어버린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전영택에게서 ‘죽은 평양이 민족주의적이고 계몽적인 열기를 상실해 가는 평양, 그러나 과거의 시적인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평양이었던 데 비해, 「쾌강냉」의 ‘죽어버린 평양’은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해버린 산문적 현실로서의 평양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의 이러한 면모는 동일관에서의 한 장면을 통해 의미심장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옛날 기생’과 마주앉아 어두운 시대를 사는 독립운동가의 일모도원(日暮途遠)한 심경을 읊은 신채호의 한시 「白頭山途中」을 한 곡조 뽑고 난 ‘박’이 눈물 글썽해 한숨지을 때, 부회의원인 ‘김’이 기생들과 마주 서서 “저희 세상인 듯” 댄스를 추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장면이 그것이다. ‘옛날 기생-친구 박’과 ‘부회의원 김-신식 기생’의 대립쌍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기생으로 상징되는 ‘조선적 기표’가 곧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조선어’와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업가이자 부회의원인 친구 김은 현에게 방향전환 즉, 일본어로 글 쓸 것을 충고하고 머릿수건 금지령을 두둔하는 인물인 것이다. 김을 향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자식들”이라고 욕을 날리는 현에게서, 조선어 금지령에 직면한 소설가 이태준의 복잡한 심경을 볼 수 있다.

사실 이 작품은 근대 식민지의 심상지리의 관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텍스트 중 하나이다. 사라져가는 조선의 기표에 대한 ‘애수와 비애’를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과 겹쳐 읽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태준에게 야나기 무네요시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적 기표’에 대한 비애적 감상엔 그러한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1) 하얀 머릿수건은 고구려 때부터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해 쓰던 건륜(巾幘)의 풍습이 내려온 것이다.

32) 하시야 히로시, 앞의 책, 117쪽.

「패강냉」에는 일본인들과 달리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 즉 제국주의의 심상지리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놓여 있다.³³⁾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³⁴⁾에 실린 하마모토 히로시의 「旅愁」나 가토 다케오의 「평양」을 보면 평양에 온 일본인들이 을밀대에 위치한 평양부립박물관³⁵⁾을 예외없이 들러 낙랑유물과 청일전쟁 전시실을 구경하고, 대동강 건너편의 일본인 공업지대를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침잠을 깨우는 비행기 소리를 듣고도 곧 아침체조의 구령소리에서 우렁찬 느낌을 받는다. 식민정책의 합리성과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감상들은 평양에 대한 제국주의의 심상지리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이에 비해 「패강냉」은 현이 모란봉 주변을 어정거리고 배회하다가, 근처에 있는 비행장 때문에 을밀대와 주암산으로 올라가려던 것도 포기하는 장면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 비행장은 대동강벌에 있던 평양 군용 비행장으로, 1921년에 세워진 뒤로 조선 주둔 일본군의 유일한 공군부대인 비행 6연대가 주둔했던 곳이다.³⁶⁾ 총과 창을 들고 을밀대 아래에서 비행장 경계근무를 서는 병정이며 주암산의 출입금지령따위를 슬쩍 들춰내면서 전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대륙진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일본인과는 대척지점에 놓인 것이다.

소설의 말미, 현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한 밤 강물에 서 있다. 참담해진 그는 주역의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를 반복해 중얼거린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라는 뜻이다. 더욱 냉혹한 미래가 도래하리라는 전율적 예견과 비관 속에 ‘시체와 같은’ 평양의 현재를 재확인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일전쟁의 발발 전후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명익과 이태준은 일제에 의해 “통일적이고 일률적이고 모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1930년대 평양의 현실을 그려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內地人인 최명익이 자본주의적 근대의 일반적인 일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 평양의

33) 박진숙,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해문학의 조성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호, 2006. 8은 이태준의 동양주의 미술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태준의 ‘조선적인 것’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타율성과 정체성의 식민사관을 유포하는 관변 동양주의 미술론과는 다른, 反 관변 동양주의 미술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견해를 참고해볼 만하다.

34)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윤소영·홍선영·김희정·박미경 옮김, 어문학사, 2007.

35) 평양부립박물관은 조선사의 타율성과 조선문화의 저급함을 드러내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국인인 낙랑군의 유물 발굴과 보존 사업을 실시하던 고적조사보존회가 1928년 평양의 일본인 거리에 있는 旭町の 도서관 3층을 빌려 진열실로 충당하다가 규모가 커지자 1932년에 을밀대 부근에 새로 준공한 박물관이었다. 국성하,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古文化』 제63집, 2004. 6, 119~124쪽.

36) 노형석, 『모던의 유희 모던의 눈물』, 생각의 나무, 2004. 이 비행장이 흔적은 최명익의 「비오는 길」에서도 발견되는데, 병일이가 빈민굴의 골목을 걸다가 비행기 소리에 눈이 팔리는 장면이 그것이다.

특수한 지형도를 드러냈다면, 外地人인 이태준은 평양의 특수성을 찾으려는 과정 속에서 역설적으로 균질화된 식민지의 일반적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내지인/외지인이라는 시선의 차이, 이것이 평양에 대한 '비관'의 서로 다른 무게가 아닐까.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이광수와 전영택, 최명익과 이태준을 중심으로 소설작품에 나타난 평양의 서로 다른 표상들이 어떻게 길항하며 일제 식민지의 현실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3·1운동 직후 전영택은 단지 회고나 완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과 계몽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활시키는 역사적 초월성의 지표로서 평양을 보았다. 이러한 갱생과 부활의 민족적 성소로 표상되는 평양의 근대문학적 기원은 이광수의 『무정』이다. 『무정』의 평양은 극복해야 할 전근대적 과거로서만 이해되기보다 전영택을 선취한, 계몽의 대반이자 시적으로 계승해야 할 민족의식의 근원지이다. 이러한 평양을 환기하면서 형식은 기쁨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근대계몽기의 건강했던 평양의 활력, 문화적 아우라를 경험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북 지역의 역사성과 자긍심을 환기시키는 이광수와 전영택에 비해, 최명익은 특별히 '평양'을 환기시키는 상징물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일제 식민정책에 의해 재편된 1930년대 평양의 지리학을 보여주었다. 최명익이 보여준 근대 도시의 산문적 일상과 도시민 계층의 파탄은, 3·1운동의 열기가 가라앉고 민족적 '상상'의 거품이 빠지고 난 뒤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경험한 세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옛 성문'은 평양을 '상상'하게 하는 역사적 매개물이 아니고, 근대 시민의 자격과 생활을 구획하는 기준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성내와 성밖, 시가지와 변두리로 분리되어 통제되는 평양의 질서는 당시 일제가 시행한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최명익은 그러한 평양의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태준은 평양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조선적인 것'을 찾으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의 흔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균질화된 식민지의 일반적 현실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와 반발을 주목해야 한다.

처음부터 평양에서 발견하고 싶은 심리적 대상을 '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태준은 어쩌면 이광수와 연결되고 최명익과 구별된다. 최명익을 제외하고 평양에서 어떤 종류의 '정신성'을 발견하려는 태도에는 평양이 비일상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다는 공통성이 있다. 회향하는 이광수-전

영택이나 여행하는 이태준의 위치에서 평양은 비일상적인 공간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이태준을 제외한 이광수와 전영택, 최명익의 공통점이다. 즉 이들에겐 서로 다른 세대의식이 있고, 평양을 이상화하려는 욕망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성의 오랜 역사(시간의 흐름)에 기대어 현재를 순간성으로 환치시키는 기독교적 정신주의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